

신앙과 학문

Faith & Scholarship

제25권 제3호 (통권 84호) / 2020. 9

신앙과 학문

제25권 제3호 (통권 통권 84호), 2020년 9월호

발행일 2020년 9월 30일

발행처 기독교학문연구회

발행인 박문식 (한남대학교)

편집인 송태현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 이지은

인쇄 (주)에스제이피앤비

등록 141-81-36939

주소 03922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8길 9, 9층
기독교학문연구회

전화 02-3272-4967

팩스 0303-0272-4967

전자우편 gihakyun@daum.net

홈페이지 <http://www.worldview.or.kr>
<http://fs.jams.or.kr>

ISSN 1226-9425

정가 15,000원

■ 일반 논문

- 005 기독교대학 신입생의 성별, 전공계열에 따른
핵심역량 차이 분석: A 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 백상현
A Study on Core Competencies Difference According to Gender, Majors of
University Freshmen: Focused on A-University | Sang Hyon Baek
- 037 기독교대안학교 교사 양성과 재교육 시스템의 변화 방향 | 김성천
Direction of Teacher Training and Re-education System
in Christian Alternative School | Seong Cheon Kim
- 077 기독교적 여가연구의 동향과 향후 연구방향 | 김미혜
Research Trends on Christians' Leisure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
A Review of South Korean Publications Since 2000 | Mi Hye Kim
- 101 유럽 연합의 기독교적 기원에 관한 역사적 고찰:
로베르 쉬망의 생애와 사상을 중심으로 | 최용준
A Historical Research on the Christian Root of European Union:
Focusing on the Life and Idea of Robert Schuman | Yong Joon (John) Choi
- 121 토라의 경제관과 경제학적 함의 | 조규봉
Torah's Economic Perspective and Its Implication of Economics | Kyu Bong Cho
- 145 존 요더의 평화주의는 사회 변혁의 한 모델인가? | 김기현
Is Pacifism of John Yonder a Model of Society Transformation? | Kim, Kihyun

기독교대학 신입생의 성별, 전공계열에 따른 핵심역량 차이 분석: A 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Core Competencies Difference According to Gender, Majors of University Freshmen: Focused on A-University

백상현 (Sang Hyon Baek)**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differences of Christian university freshman's core competencies based on their majors and gender.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mployed 940 students in A university, and assessed their core competencies by using the results of the 2019 core competences assessment, which was developed by A university. Also, it utilized MANOVA and Post-hoc test to investigate whether there were any differences of the freshmen's core competencies based on their backgrounds of their majors and gender.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revealed that morality and ethicality, foreign language ability, convergent thinking ability competencies showed differences based on their gender, and sharing and consideration, conflict resolu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logical thinking ability competencies showed differences based on their majors. Second, there were statistically partly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s between their majors and gender with respect to responsibility, morality and ethicality, conflict resolution, autonomous leadership competency. In particular, the female student showed higher core competencie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fields whereas male students showed higher core competencies in art and physical Education field.

Key words : Christian University, Individual Characteristics, Core Competency, University Freshmen

* 2020년 05월 11일 접수, 06월 15일 최종수정, 06월 16일 게재확정

** 고려대학교(Korea University), 교육학 박사과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jaws38@naver.com.

I. 서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대학 교육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의 변화로 인해 단순히 학문적 지식을 많이 보유한 사람보다는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융합하여 창의성을 발휘하고, 복잡한 상황을 해결해나갈 수 있는 문제해결역량을 갖춘 인재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그동안 고등 교육 분야에서는 기존의 지식과 개념학습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스스로 지식을 재생산하여 새로운 상황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의 함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초하여(윤회정·방담이, 2015: 2) 역량 중심의 교육이 강조되고 왔다. 역량중심 교육에서는 학생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을 통해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뿐만 아니라 수행, 태도 등과 같은 역량을 학습성과로서 강조하고 있다(이민정·김수동, 2018: 760). 이렇게 고등교육에서 핵심역량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관련 논의가 활발해짐과 동시에, 국내 대학에서는 이러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정책적인 차원에서 학생들의 역량을 측정하고 분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학생들의 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대표적인 도구로는 OECD의 AHELO, 미국의 CLA, 호주의 GSA 등이 있으며, 국내의 경우 대학생 핵심역량진단(K-CESA)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황지원 외, 2017: 107). 또한 대학 자체적으로 교육목표와 맥락을 반영한 핵심역량을 선정하고 이를 진단하기 위한 자체 핵심역량진단 도구들을 개발하고 있으며, 졸업 시까지 이러한 핵심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역량기반 교육체계를 수립하고 개편하기 위한 노력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대학생의 핵심역량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도구를 개발하는 연구(김혜영·이수정, 2013; 윤지영·유영립, 2018; 이미라·김누리, 2018; 진미석 외, 2011) 또는 핵심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하는 연구(이병식·최정윤, 2008; 남창우 외, 2016; 리상섭, 2014; 백평구, 2013; 손유미·백영은, 2017; 조명희·이현우, 2014)의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대학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역량 중심 교육으로의 개편과 변화에 있어서 기독교대학도 예외가 아니기에 대학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변화를 반영한 교육체제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이은실·제양규, 2016: 2-3). 기독교대학은 모든 학문을 기독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가르치고 연구하는 대학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 기독교적 교육과정, 면학분위기 및 기독교문화 등이 포함되는 것이 중요하다(박은숙, 2013: 248-249). 따라서 기독교대학에서 역량을 말할 때는 기독교적 관점을 수용하여(장화선, 2015: 113) 영성 및 신앙적 역량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최근 국내 기독교대학도 자체적으로 기독교적 목적과 정체성을 나타내는 인재상과 핵심역량을 설정하여 제시하고 학생의 역량증진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 대학에서도 데이터를 활용한 의사결정시스템이 도입되어 학습과정과 교육성과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대학교육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하고 있으며(배상훈·윤수경, 2016), 역량 측정에 있어서도 이러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입생의 핵심역량 수준을 파악하고 소속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길러주기 원하는 핵심역량과 교육프로그램을 맵핑하고 계획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기독교대학의 정체성과 목적을 반영하면서 최근 강조되는 역량기반 교육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기독교대학의 경우에도 소속대학 학생들의 전반적인 역량 수준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일반대학에 비해 기독교대학의 핵심역량에 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지 않았다. 국내 기독교대학의 핵심역량에 관한 연구는 기독교대학에서 교수자의 핵심역량을 계발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과 전략(박은숙, 2013), 기독교교육의 관점에서 역량 중심 교육과정의 수용에 관한 논의(장화선, 2015), 그리고 기독교대학에서의 역량기반교육 개발 사례연구(이은실·제양규, 2016), 기독교대학에서의 역량중심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재학생 및 학부모, 산업체 요구도 조사(이수인, 2018)등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기독교대학의 역량 기반 교육 수행을 위한 전반적인 방향과 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소속대학에 입학한 신입생들의 핵심역량수준을 진단하고, 구체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방향을 제시하기에는 자료가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한편, 핵심역량은 교육 및 학업 활동의 결과로 얻게 되는 산물로서, 대학생들이 대학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떻게 성장해나가는지를 나타내는 잣대 역할을 할 수 있다(정주영, 2018). 국외 선행연구에서는 대학생이 대학환경을 인식하고 경험하는 과정에서 성별, 인종, 전공계열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Braxton et al., 1997; Roberts & Robins, 2004, Holland, 1997). Hall & Sandler(1982)은 대학 내에서 학생이 성별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을 경우 소속 대학환경을 비우호적으로 인식하게 된다고 밝힌바 있으며, Holland(1997)는 각 대학생의 유형에 적합한 전공(major)이 존재하며, 학생 개인이 소속 전공을 얼마나 적합하다고 인식하는 수준에 따라 학생의 발달 정도가 달라진다고 주장하였다. 국내연구에서는 변수연(2019)이 신입생의 대학경험에 대한 연구결과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학습참여 및 소속감이 결여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보고하였으며, 한송이(2016)의 연구결과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대학에 긍정적인 인식과 애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전공계열에 따라서도 수업방식(손연아 외, 2018), 학습성과(정주영, 2018) 등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전공계열과 성별의 영향력을 함께 고려한 공대 여학생의 전공 관련 심리적 특성과 교수-학생 상호작용을 탐색하는 연구도 수행된 바도 있다(정윤경 외, 2008; 곽은주·배상훈, 2019). 특히, 무엇보다 최근 많은 대학에서 학생의 핵심역량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는 비교과 교육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성별

과 전공계열에 따른 영향의 차이(배상훈·한송이, 2015; 한안나, 2017; Posner & Vandell, 1999)가 나타난 점으로 보았을 때, 핵심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구축함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할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다양한 개인이 전공별로 소속되어 있는 대학의 경우 개인의 핵심역량의 수준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강명희 외, 2014). 개별대학의 각 전공 및 학과에 따라 고유의 교수-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며, 동일한 학생이라도 소속되어 있는 학과의 특성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에 대한 내용이 현저하게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개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고, 학생의 전공계열, 성별 등의 개인변인에 따른 핵심역량의 수준과 경향성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류다현 외, 2015). 그러나 그동안 개인특성이 핵심역량 수준에 미치는 연구 결과가 일관되지 않았으며, 이는 선행연구들이 각기 다른 대학의 학생들을 연구하여 보고한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김은경·서은희, 2019). 즉 개별대학별로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은 대학의 특성이나 측정 도구의 하위요인 구성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해당 대학생의 핵심역량 개발을 위해서는 소속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기독교대학의 성별과 전공계열에 따른 신입생 핵심역량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A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의 핵심역량 수준을 높이기 위한 대학교육의 교과 및 비교과 구성 및 운영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전공계열과 성별에 따른 역량 수준을 진단하며, 하위 요소별로 강화 혹은 보완할 수 있는 점을 제시하여 핵심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신입생의 핵심역량은 성별, 전공계열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2. 핵심역량에 대한 성별과 전공계열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기독교대학의 핵심역량

대학생의 핵심역량이란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생애역량으로 삶의 다양한 측면을 다룰 줄 아는 능력을 뜻하며, 이는 지식 및 기술뿐이 아닌 동기, 태도, 가치관 등의 심층적인 요인도 포함된다(신혜성, 2017: 309). OECD는 ‘The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DeSeCo’ 프로

젝트를 통해, 핵심역량의 개념을 ‘인지적 및 비인지적 영역을 모두 포함하는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특정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제시하였다(OECD, 2005).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역량의 중요성이 인식되게 되었으며(이수인, 2018: 98), 미래사회 요구에 필요한 전반적인 역량에 초점을 둔 핵심역량 요소의 평가 및 개발을 위한 기반이 제공되었다(김미숙, 2013). 이러한 흐름과 함께, 국내에서도 대학 및 교육 기관에서 핵심역량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으며, 대학생의 핵심역량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진미석 외, 2011).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대학생의 핵심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K-CESA’ 진단도구를 개발하였으며, 대학들 또한 개별 대학의 교육목적과 맥락을 반영한 핵심역량을 정의한 후 해당역량에 대한 자체 진단을 실시하고, 결과에 근거하여 핵심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김대중 외, 2018).

이러한 노력은 일반대학 뿐만 아니라 기독교대학에서도 최근 역량중심 교육과 이러한 핵심역량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연구와 적용이 시도되고 있다. 기독교대학은 자체 핵심역량을 제시함에 있어 일반적인 역량 이외 기독교적 핵심역량을 함께 포함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역량에는 영적감수성, 다문화감수성, 공동체역량, 정의와 평화감수성 등이 포함된다(강영택, 2015: 23-25). 국내의 대표적인 기독교대학인 한동대학교는 핵심역량을 글로벌 창의인재 육성을 목표로 글로벌역량, 논리적 사고와 소통역량, 창의적 문제해결역량, 다학제 융합역량, 인성과 영성의 5개 영역으로 제시하고 있다(이은실·제양규, 2016: 187). 특히 학생들이 꼭 갖추어야 할 역량 가운데 근간이 되는 기초적인 역량으로 ‘영성 및 인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독교적 인성과 봉사의 희생정신을 함양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더불어 생활하면서 배우는 공동체 생활과 사회봉사, 담임교수/팀제도의 등의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한동대학교, 2019). 이외 국내 다수의 기독교대학에서도 ‘섬김 리더십’, ‘나눔과 배려’, ‘인성 및 영성’ 등과 같은 차별화된 교육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채플을 포함해서 기독교 관련 교과목을 교양필수 교과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비교과교육과정으로 각종 성경공부 및 제자훈련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이은실·제양규, 2016: 192). 한국직업능력개발원(K-CESA)과 국내 몇몇의 사립 기독교대학에서 제시한 핵심역량 구성요소 세부내역은 <표 1>과 같다.

<표 1>과 같이 각 대학들은 소속 학교의 교육 목표에 최적화한 핵심역량을 선정하여 서로 다른 요소들로 구성된 핵심역량을 제시하고 있다. 대학별 역량의 하위요소에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제시한 대학생 핵심역량과 일부 중첩되는 공통적인 요소와, 여기에 기독교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봉사’, ‘나눔’, ‘섬김’ 등과 같은 역량요소들이 추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는 현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와 궁극의 교육 목적에 대한 공통적인 세부 구성요소와 함께 기독교적 가치관을 강조하는

Table 1 Core Competencies and Constructs

Institution	Core Competencies
KRIVET	Communication competency, Comprehensive Thinking, Glocal Competency, Interpersonal Competence, Self-managemen Ability, Resource Information Technology
Soongsil University	Creative Competence, Convergence Competence, Community Skills, Communication Competency, Leadership Capability, Global Competency
Handong University	Global Competence, Logical Thinking Communication Skills, Multi-disciplinary Convergence Competence, Creative Problem Solving Competence, Character and Spirituality
Hanshin University	Creative Problem Solving Ability, Humanistic Knowledge, Leadership of Sharing, Serving, Service, Global Communication Ability, Convergence · Complex Expertise, Critical Thinking and Challenge
Hannam University	Comprehensive Thinking, Practical/Professional Competency, Glocal Competency, Communication Competency, Creative Convergence Competence, Sharing Leadership Capability

해당 대학만의 교육이념이 반영한 핵심역량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A대학의 핵심역량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인격을 완성하고, 인류공영에 기여하는 인재 양성이란 교육목적 및 사명인, 세계인, 실용인, 학습인 인재 양성이란 교육인재상에 맞추어 봉사, 소통, 창의, 도전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신입생의 개인특성에 따른 핵심역량

대학생활 중 신입생 시기는 인지적 발달과 의미 있는 대학경험을 통해 성취를 이루기 때문에 대학생활 중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Robert, Terenzini, & Robert, 2006: 149). 특히 대학생활의 1학년, 그 중 첫 학기를 보내는 학생들의 경우 대학의 전반적인 풍토를 익히고 전반적인 대학생활의 기초를 다지는 시기가 될 수 있으며, 신입생들의 전반적인 역량수준을 파악하는 것은 신입생 연구나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중요하다. 소속 학생들의 전반적인 역량수준을 파악하는 것은 향후 4-5년 동안의 대학 교육을 통해 대학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역량을 증진시키고 전반적인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데 있어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대학생들의 핵심역량을 분석함에 있어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그동안 많이 진행되었지만, 신입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는 상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동안 국내에서 이루어진 신

입생의 핵심역량에 관한 연구는 신입생 핵심역량 요인이 다양한 학습성과에 미치는 영향(김민선·박수미, 2019; 방희원·조규관, 2019; 김정현 외, 2019), 개인 배경 변인에 따른 핵심역량의 차이 분석한 연구(리상섭, 2014; 심태은, 이송이, 2015; 조명희·이현우, 2014),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의 효과(최보라, 2018)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핵심역량에 기반한 교수학습지원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으로 신입생의 핵심역량 및 학습성과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핵심역량에 영향을 미친 개인 배경 변인은 성별, 전공계열, 대학 입학전형 등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차이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 변인의 차이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김민선·박수미(2019)의 연구에서 성실성, 소통역량, 주도성, 글로벌시민의식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고, 창의역량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과대학 신입생의 핵심역량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이경희 외(2010)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이 전공능력, 컴퓨터활용, 논리적 과학적 사고에서 남학생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선후배 및 동료 관계에서는 여학생이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분석이 이루어진 개별대학의 핵심역량 요인에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남학생이 전공지식 및 창의역량 등의 인지적 능력, 여학생은 소통능력의 비인지적 역량에서 각각 높은 수준을 나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 입학전형에 따른 역량 수준의 차이는 선행연구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선·박수미(2019)는 자기추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집단은 높은 역량 수준을 나타낸 반면, 논술우수자전형 집단은 대부분의 역량에 대해 대체로 낮은 평균을 나타냈다. 반면, 조명희·이현우(2014)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학 신입생의 입학전형에 따른 핵심역량수준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공계열에 따른 차이에 대해서도 핵심역량의 하위요인별로 선행연구결과가 일관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명희·이현우(2014)의 연구결과 인문사회계열 학생이 자연공학계열 학생에 비해 사회적 능력, 미디어리터러시, 조직화전략, 초인지전략, 학습환경조성, 노력전략 등의 역량수준이 높게 나타난 반면, 심태은·이송이(2015)는 인문사회계열 학생이 이공계열 학생에 비해 비판적 및 분석적 사고, 정량적인 문제 분석, 정보기술 활용하기 역량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리상섭(2014)은 여대 신입생의 핵심역량을 도출한 후 자체분석도구를 통해 분석한 결과, 인문대학 신입생들이 자연과학대학 신입생들에 비해 예술적 감성이, 예술대학 학생들에 비해서는 사회적 공감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소통역량, 종합적사고력, 주도성, 글로벌시민의식에 있어 인문계열 학생이 예체능계열 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김민선·박수미, 2019).

이러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신입생의 개인 특성이 핵심역량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파악함에 있어 일관되지 않은 결과들이 많고, 이에 대학 맥락을 고려한 자체적인 핵심역량에 대한 분석이 이루

어려야함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난 개인 특성변인을 연구변수로 설정하고, 핵심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이에 대한 심층적인 해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다만, 본 연구는 대학의 입학전형의 분석을 통한 신입생 선발시스템의 효과 및 의의 등을 분석하기보다는, 신입생의 역량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의 학습지원 프로그램등을 개설하고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성별과 전공계열을 연구변인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A대학의 경우 핵심역량진단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비교과 교육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과별 전공역량 강화를 위한 별도의 학과 단위의 학습법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실천적 관점에서 기독교대학 신입생의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른 정책적인 처방과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는지 혹은 계열별로 어떠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등에 대한 정책적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를 위해 수도권소재 중소규모 기독교대학인 A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지정하여 진행하고 있다. A대학은 교양교육과정에서 4대 핵심역량 영역별로 기초과정, 핵심과정으로 나누어 개별 교과목을 해당 역량에 매칭하여 운영하고 있다.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을 반영하여 봉사역량에서 영성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입생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교수-학생 소통 증진을 위한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핵심역량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 및 환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의 대상은 A대학의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핵심역량진단에 참여한 학생이다. 핵심역량진단을 위한 설문조사는 2019년 10월에서 11월까지 진행되었으며, 단과대학으로 설문조사 배부를 통한 서면 전수 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최종 2019학년도 A대학의 신입생 1,456명(남학생: 615명, 여학생: 841명) 중 부실응답 및 이중 결측치를 제외한 전체 대비 64.5%인 940명에 대한 자료를 최종 분석 대상을 선정하였다. ‘사회과학대학, 글로벌비즈니스대학’ 소속 학생은 인문사회계열로, ‘바이오생태보건대학, 과학기술융합대학’ 학생은 이공계열로, ‘디자인예술대학’ 소속 학생은 예체능계열로 분류하였으며, 최종 분석 대상자 현황은 <표2>와 같다.

Table 2 Information about survey participants (N=940)

	Variable	Number	Ratio(%)
Gender	Male	355	37.7
	Female	585	62.3
Maj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273	29.1
	Science and Engineering	354	37.6
	Art and Physical Education	313	33.3
Total		940	100.0

2. 조사 도구

본 연구의 분석 자료인 A 대학 핵심역량진단은 학생의 핵심역량 제고를 위해 해당 대학에서 자체 개발한 조사 도구이다. 핵심역량은 크게 ‘봉사역량’, ‘소통역량’, ‘창의역량’, ‘도전역량’ 으로 구성되며 조사내용인 하위 요소는 ‘책임감’, ‘나눔과 배려’, ‘도덕성 및 윤리성’, ‘외국어능력’, ‘다문화 이해’, ‘갈등조정능력’, ‘대인관계능력’, ‘논리적 사고능력’, ‘분석적·비판적 능력’, ‘융합적 사고능력’, ‘자기설계능력’, ‘미래설계·실행능력’, ‘자율적 리더십’ 총 13개의 핵심역량에 대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역량의 하위요소별 신뢰도 계수는 다음 <표3>과 같다.

Table 3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of the Instrument

Core Competencies	Meanings	Sub-Competencies(Num)	Cronbach α
Service capacity	Practicing of sharing and consideration and cooperate in community based on Christian spirit	Responsibility(5)	.784
		Sharing and Consideration(6)	.817
		Morality and Ethicality(5)	.797
Communication competency	Empathizing with other cultures with others and effective communication of one's thoughts.	foreign language Ability(6)	.913
		Multi-cultural Understanding(5)	.667
		Conflict Resolution(5)	.841
		Interpersonal Relationship(6)	.795
Creativity	Pioneering one's future and developing oneself based on the self-directed learning of expertise	Logical Thinking(5)	.715
		Analytical/Critical Thinking(5)	.766
		Convergent Thinking(6)	.802
Challenge Competency	The convergence of one's expertise and knowledge of other areas	Self-directed Learning(6)	.812
		Future Design/Develop(6)	.870
		Autonomous Leadership(6)	.838

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우선 A대학 신입생의 핵심역량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개인 특성에 따른 핵심역량의 차이 분석을 수행하고, 대학 신입생의 핵심역량에 대한 성별과 전공계열별 차이와 상호작용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다변량 분산분석(MANOVA)과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통계적인 기준은 유의수준 0.05 수준으로 분석결과를 서술하였으며, 통계 처리를 위해서는 IBM SPSS Statistics 25를 활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표4>는 각 변인들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성별에 따른 평균의 차이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나눔과 배려(M=3.65), 외국어 능력(M=2.98), 융합적 사고능력(M=3.73), 자기주도적 학습능력(M=3.52), 자율적 리더십(M=3.77) 역량이,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책임감(M=3.76), 도덕성 및 윤리성(M=4.00), 다문화 이해(M=3.79), 대인관계능력(M=3.84), 갈등조정능력(M=3.84), 논리적 사고능력(M=3.71), 분석적·비판적능력(M=3.58), 미래설계·실행능력(M=3.55)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에 따른 평균의 차이를 살펴보면, 인문사회계열 대학생은 책임감(M=3.78), 나눔과 배려(M=3.77), 외국어능력(M=2.93), 대인관계능력(M=3.92), 갈등조정능력(M=3.89), 융합적 사고능력(M=3.74), 자기주도적 학습능력(M=3.58), 자율적 리더십(M=3.83), 이공계열 대학생은 도덕성 및 윤리성(M=3.99), 예체능계열 대학생은 다문화 이해(M=3.79), 논리적 사고능력(M=3.77), 분석적·비판적 능력(M=3.60), 미래설계·실행 능력(M=3.58)에서 높은 값을 나타냈다 세 가지 전공계열 대학생은 공통적으로 ‘도덕성 및 윤리성’ 역량요소에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인 반면, ‘외국어능력’ 역량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Sub-Competencies	Major	Male(N=355)		Female(N=585)		Total(N=940)	
		M	SD	M	SD	M	SD
Responsibility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3.65	0.77	3.84	0.54	3.78	0.63
	Science and Engineering	3.72	0.60	3.71	0.55	3.71	0.58
	Art and Physical Education	3.91	0.61	3.73	0.58	3.77	0.59
	Total	3.75	0.65	3.76	0.56	3.75	0.60

Sub-Competencies	Major	Male(N=355)		Female(N=585)		Total(N=940)	
		M	SD	M	SD	M	SD
Sharing and Consideratio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3.68	0.65	3.82	0.61	3.77	0.62
	Science and Engineering	3.60	0.68	3.45	0.56	3.53	0.63
	Art and Physical Education	3.71	0.64	3.58	0.62	3.61	0.63
	Total	3.65	0.66	3.62	0.62	3.63	0.64
Morality and Ethicality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3.81	0.64	4.05	0.62	3.97	0.63
	Science and Engineering	3.98	0.59	4.00	0.54	3.99	0.57
	Art and Physical Education	3.97	0.67	3.97	0.50	3.97	0.55
	Total	3.94	0.63	4.00	0.55	3.98	0.58
Foreign Language Ability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2.97	0.84	2.91	0.81	2.93	0.82
	Science and Engineering	2.96	0.84	2.83	0.76	2.90	0.81
	Art and Physical Education	3.03	0.98	2.82	0.83	2.88	0.88
	Total	2.98	0.87	2.85	0.81	2.90	0.83
Multi-cultural Understanding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3.70	0.48	3.83	0.48	3.79	0.48
	Science and Engineering	3.76	0.61	3.76	0.51	3.76	0.57
	Art and Physical Education	3.81	0.57	3.78	0.46	3.79	0.49
	Total	3.76	0.57	3.79	0.48	3.78	0.52
Interpersonal Relationship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3.90	0.59	3.94	0.56	3.92	0.57
	Science and Engineering	3.77	0.58	3.76	0.54	3.77	0.56
	Art and Physical Education	3.86	0.64	3.81	0.54	3.82	0.57
	Total	3.82	0.60	3.84	0.55	3.83	0.57
Conflict Resolutio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3.78	0.51	3.95	0.52	3.89	0.52
	Science and Engineering	3.73	0.55	3.78	0.50	3.75	0.53
	Art and Physical Education	3.91	0.56	3.79	0.47	3.82	0.50
	Total	3.78	0.55	3.84	0.50	3.82	0.52
Logical Thinking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3.69	0.59	3.73	0.58	3.72	0.58
	Science and Engineering	3.64	0.64	3.64	0.69	3.64	0.66
	Art and Physical Education	3.84	0.65	3.74	0.59	3.77	0.60
	Total	3.70	0.63	3.71	0.62	3.71	0.62
Analytical/Critical Thinking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3.54	0.59	3.60	0.52	3.58	0.54
	Science and Engineering	3.54	0.56	3.57	0.58	3.55	0.57
	Art and Physical Education	3.69	0.65	3.57	0.51	3.60	0.55
	Total	3.57	0.59	3.58	0.53	3.58	0.55
Convergent Thinking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3.77	0.61	3.72	0.54	3.74	0.56
	Science and Engineering	3.69	0.50	3.61	0.54	3.66	0.52
	Art and Physical Education	3.77	0.65	3.68	0.48	3.70	0.53
	Total	3.73	0.56	3.67	0.52	3.70	0.54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3.58	0.63	3.59	0.64	3.58	0.63
	Science and Engineering	3.50	0.62	3.45	0.58	3.48	0.60
	Art and Physical Education	3.52	0.62	3.48	0.60	3.49	0.61
	Total	3.52	0.62	3.51	0.61	3.51	0.61

Sub-Competencies	Majors	Male(N=355)		Female(N=585)		Total(N=940)	
		M	SD	M	SD	M	SD
Future Design/ Develop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3.51	0.64	3.58	0.63	3.56	0.63
	Science and Engineering	3.52	0.63	3.52	0.64	3.52	0.63
	Art & Physical Education	3.65	0.66	3.55	0.63	3.58	0.64
	Total	3.54	0.64	3.55	0.63	3.55	0.63
Autonomous leadership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3.77	0.61	3.86	0.58	3.83	0.59
	Science and Engineering	3.73	0.60	3.75	0.62	3.75	0.61
	Art and Physical Education	3.87	0.59	3.69	0.57	3.74	0.58
	Total	3.77	0.60	3.75	0.59	3.77	0.59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핵심역량의 이변량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분석결과 모두 정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관계수 값은 $r=.17\sim.64$ 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 ‘자율적 리더십’($r=.64, p<.01$), ‘미래설계·실행능력’($r=.59, p<.01$), ‘분석적·비판적 사고능력’과 ‘융합적 사고능력’($r=.59, p<.01$), ‘대인관계능력’과 ‘갈등조정능력’($r=.58, p<.01$)이 가장 높은 수준의 정적 관계를 나타내었다.

Table 5 Correlation between major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Responsibility	1												
2. Sharing and Consideration	.39***	1											
3. Morality and Ethicality	.48***	.40***	1										
4. Foreign Language Ability	.25***	.17***	.21***	1									
5. Multi-cultural Understanding	.39***	.33***	.40***	.28***	1								
6. Interpersonal Relationship	.46***	.49***	.44***	.22***	.48***	1							
7. Conflict Resolution	.47***	.54***	.47***	.22***	.45***	.58***	1						
8. Logical Thinking	.42***	.22***	.39***	.19***	.39***	.38**	.41***	1					
9. Analytical/Critical Thinking	.52***	.25***	.44***	.31***	.40***	.45***	.43***	.57***	1				
10. Convergent Thinking	.46***	.38***	.40***	.23***	.42***	.46***	.52***	.47***	.59***	1			
11. Self-directed Learning	.52***	.43***	.38***	.30**	.37***	.46***	.48***	.34***	.52***	.47***	1		
12. Future Design/Develop	.49***	.32***	.36***	.31***	.36***	.42***	.45***	.38***	.54***	.46***	.59***	1	
13. Autonomous Leadership	.55***	.41***	.48***	.25***	.44***	.55***	.56***	.45***	.53***	.52***	.59***	.64***	1

*** $p<.001$, ** $p<.01$, * $p<.05$

2. 성별 및 전공계열에 따른 핵심역량 차이 분석

기독교대학 신입생의 핵심역량에 대한 성별과 전공계열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기 위한 등분산 검증(Box의 $M=731.092$, $F=1.542$, $p<.001$) 이 기각되어, Pillai의 트레이스를 검증하였다(차석빈 외, 2008).

성별에 따른 핵심역량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Pillai의 트레이스 값이 .031($F=2.28$, $p<.01$)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도덕성 및 윤리성’($F=4.460$, $p<.05$)과 ‘외국어 능력’($F=5.246$, $p<.05$), 그리고 ‘융합적 사고능력’($F=3.910$, $p<.05$)에서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도덕성 및 윤리성은 여학생이, 외국어 능력 및 융합적 사고능력은 남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계열에 따른 핵심역량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Pillai의 트레이스 값이 .065($F=2.40$, $p<.001$)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하위 역량요인 중 ‘나눔과 배려’($F=9.147$, $p<.001$), ‘대인관계능력’($F=5.129$, $p<.05$), ‘갈등조정능력’($F=4.133$, $p<.05$), ‘논리적 사고능력’($F=4.288$, $p<.05$)에서 전공계열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정 결과에 따르면 ‘나눔과 배려’ 역량은 인문사회계열, 예체능계열, 이공계열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조정능력’의 경우 인문사회계열, 예체능계열이 이공계열 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인관계능력’은 인문사회계열 학생이 이공계열 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리적 사고능력’의 경우 예체능계열 학생이 이공계열 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MANOVA Tests of Between-Subjects Effects for Instruction Variables(N=940)

	Source	Type III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η^2
Gender	Responsibility	2.222	1	2.223	.004	.000
	Sharing and Consideration	.491	1	.491	1.255	.001
	Morality and Ethicality	1.498	1	1.498	4.460*	.005
	Foreign Language Ability	3.640	1	3.640	5.246*	.006
	Multi-cultural Understanding	.187	1	.187	.700	.001
	Interpersonal Relationship	.011	1	.011	.035	.000
	Conflict Resolution	.218	1	.218	.829	.001
	Logical Thinking	.095	1	.095	.246	.000
	Analytical/Critical Thinking	.011	1	.011	.035	.000
	Convergent Thinking	1.121	1	1.121	3.910*	.004
	Self-directed Learning	.151	1	.151	.401	.000
	Future Design/Develop	.022	1	.022	.054	.000
	Autonomous Leadership	.056	1	.056	.160	.000

	Source	Type III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η^2
Majors	Responsibility	1.656	2	.828	2.352	.005
	Sharing and Consideration	7.155	2	3.577	9.147***	.019
	Morality and Ethicality	.543	2	.271	.808	.002
	Foreign Language Ability	.318	2	.159	.229	.000
	Multi-cultural Understanding	.185	2	.093	.347	.001
	Interpersonal Relationship	3.300	2	1.650	5.129**	.011
	Conflict Resolution	2.177	2	1.089	4.133*	.009
	Logical Thinking	3.309	2	1.654	4.288*	.009
	Analytical/Critical Thinking	.821	2	.410	1.333	.003
	Convergent Thinking	1.423	2	.711	2.483	.005
	Self-directed Learning	1.640	2	.820	2.183	.005
	Future Design/Develop	1.091	2	.545	1.355	.003
	Autonomous Leadership	.589	2	.294	.842	.002
Gender * Majors	Responsibility	4.220	2	2.110	5.992***	.013
	Sharing and Consideration	3.486	2	1.743	4.457*	.009
	Morality and Ethicality	2.294	2	1.147	3.316	.007
	Foreign Language Ability	.542	2	.271	.391	.001
	Multi-cultural Understanding	.955	2	.477	1.788	.004
	Interpersonal Relationship	.227	2	.113	.352	.001
	Conflict Resolution	2.598	2	1.299	4.932**	.010
	Logical Thinking	.662	2	.331	.858	.002
	Analytical/Critical Thinking	1.126	2	.563	1.828	.004
	Convergent Thinking	.066	2	.033	.115	.000
	Self-directed Learning	.140	2	.070	.187	.000
	Future Design/Develop	.925	2	.462	1.149	.002
	Autonomous Leadership	2.538	2	1.269	3.630*	.008

기독교대학 신입생의 성별, 전공계열에 따른 핵심역량 차이 분석: A 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Source	Type III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η^2
Error	Responsibility	328.835	934	.352		
	Sharing and Consideration	365.282	934	.391		
	Morality and Ethicality	313.677	934	.336		
	Foreign Language Ability	648.045	934	.694		
	Multi-cultural Understanding	249.375	934	.267		
	Interpersonal Relationship	300.484	934	.322		
	Conflict Resolution	246.013	934	.263		
	Logical Thinking	360.403	934	.386		
	Analytical/Critical Thinking	287.628	934	.308		
	Convergent Thinking	267.633	934	.287		
	Self-directed Learning	350.810	934	.376		
	Future Design/Develop	376.016	934	.403		
	Autonomous Leadership	326.528	934	.350		
Total	Responsibility	13576.383	940			
	Sharing and Consideration	12757.918	940			
	Morality and Ethicality	15189.720	940			
	Foreign Language Ability	8562.056	940			
	Multi-cultural Understanding	13660.560	940			
	Interpersonal Relationship	14102.223	940			
	Conflict Resolution	13934.778	940			
	Logical Thinking	13269.500	940			
	Analytical/Critical Thinking	12322.240	940			
	Convergent Thinking	13112.639	940			
	Self-directed Learning	11953.472	940			
	Future Design/Develop	12229.917	940			
	Autonomous Leadership	13680.861	9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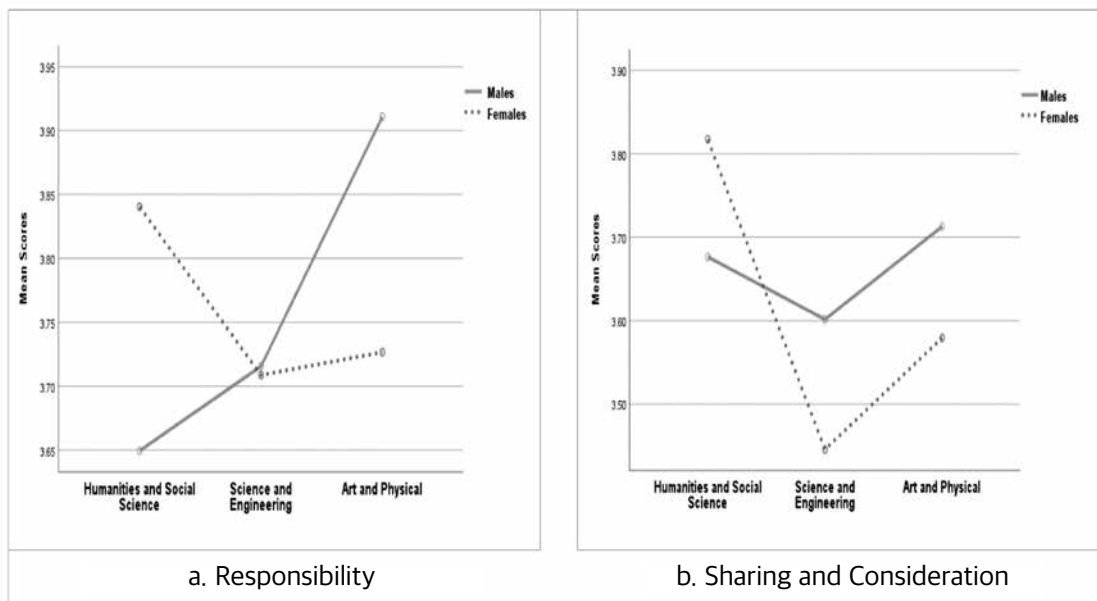
*** $p < .001$, ** $p < .01$,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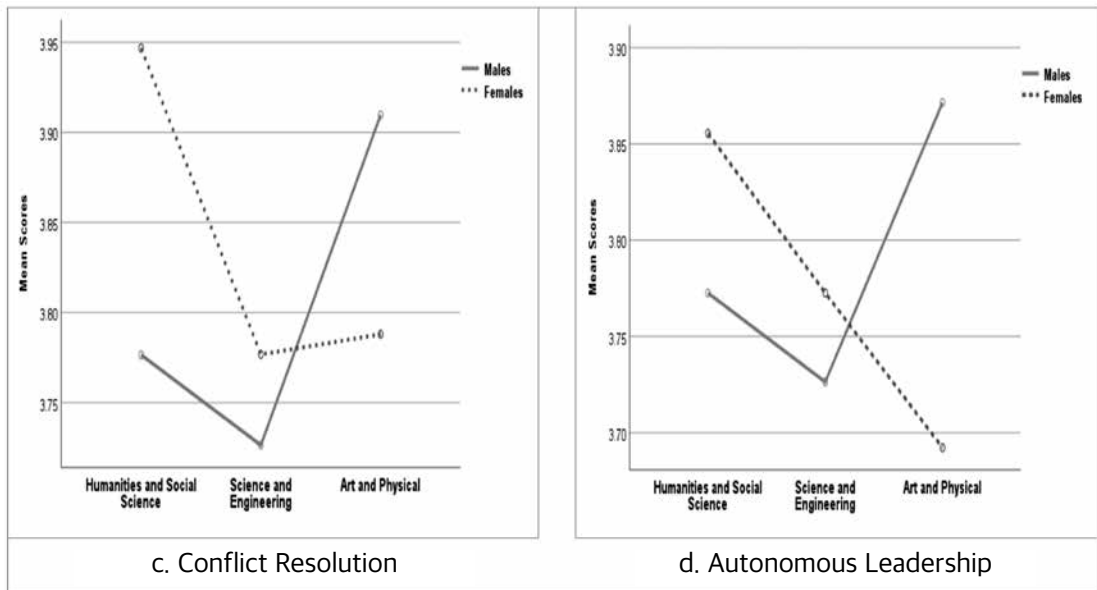
핵심역량에 대한 성별과 전공계열의 주효과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결합되었을 때의 구체적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핵심역량에 대한 성별과 전공계열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였다. 즉, 성

별과 전공계열을 별도로 분리하여 주효과만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상호결합되었을 때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전공계열과 성별의 상호작용은 Pillai의 트레이스 값이 .046($F=1.66$, $p<.01$)로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각 핵심역량별로 상호결합효과와 구체적인 차이를 살펴보면, ‘책임감’($F=5.992$, $p<.001$), ‘나눔과 배려’($F=4.457$, $p<.05$), ‘갈등조정능력’($F=4.932$, $p<.01$), ‘자율적 리더십’($F=3.630$, $p<.05$)에서 상호작용 효과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책임감의 경우 인문사회계열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높고, 예체능계열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예체능계열 남학생이 높은 것으로 드러난 반면 인문사회계열 남학생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나눔과 배려는 인문사회계열의 전공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이공계열, 예체능계열에서는 남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갈등조정능력은 인문사회계열, 이공계열의 경우 여학생이, 예체능계열의 경우 남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상대적으로 인문사회계열 여학생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율적 리더십 역량은 인문사회계열, 이공계열의 경우 여학생이, 예체능계열의 경우 남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예체능계열 여학생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Figure 1] Differences in male and female students' competence by major levels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기독교대학의 신입생에 초점을 맞추어 학생 개인의 핵심역량 수준이 성별, 전공계열에 따라 어떻게 다르며 변인들 간에는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지 분석함으로써 기독교대학 학생의 핵심역량에 기반한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 제공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이 4대 핵심역량의 하위요인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도덕성 및 윤리성이 남학생은 외국어능력, 융합적 사고능력이 더 높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도덕성 발달 정도가 더 높다고 나타난 김성희·방희정(200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외국어능력의 차이는 선행연구결과(이장익·김주후, 2012; 손유미·백영은, 2017)를 지지하였지만, 융합적 사고능력의 경우 선행연구들마다 일관되지 않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성별의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거나(김민선·박수미, 2019; 백평구, 2013), 남학생이 더 높은 수준을 보인 결과(손유미·백영은, 2016)도 있었다. 핵심역량수준에 있어 성별의 영향력은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도 유의미하게 나타났지만, 일관되지 않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세 가지 하위요인이 포함된 봉사역

량, 소통역량, 창의역량과 관련된 교양교육과정,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 요구도 조사를 통해 별도의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역량이 낮은 집단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 남학생, 여학생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수업 및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만, 본 연구의 연구대상으로 표집된 학생의 성별 비율이 A대학 전체 신입생의 성별 비율과 다소 차이가 있기에, 연구결과를 해석 또는 일반화함에 있어 유의할 필요는 있다.

둘째, 전공계열별 신입생의 역량 차이 분석 결과 나눔과 배려, 갈등조정능력, 대인관계능력에서 공통적으로 인문사회계열 신입생이 이공계열 신입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논리적 사고능력은 예체능계열 학생이 이공계열 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Laird 외(2007)는 이공계열 학업이 인문사회계열 학업에 비해 대규모의 일방적 강의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이러한 수업 방식은 학습과정이나 시험등에서 협업능력 을저하시키며지나 친경쟁분위기를조성 할가능성이 높다. 또한, 국내 선행연구에서도 이공계열 전공 대학생은 커뮤니케이션 역량에 있어 다소 부족하며(김경화, 2017), 인문사회계열 학생에 비해 다양한 집단과의 토론경험과 교수와의 상호작용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변수연 외, 2017). 이에 동료와의 상호작용 등에 기인하는 역량인 나눔과 배려, 갈등조정능력, 대인관계능력이 상대적으로 소속학과의 수업 방식 및 문화적 환경 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한편, 논리적 사고능력은 전공계열간의 차이가 없다는 연구(이장익·김주후, 2012; 리상섭, 2014)도 있으며, 본 연구와 상반되는 선행연구결과(김민선·박수미, 2019; 심태은·이송이, 2015)도 있어, 추후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전공계열과 성별은 책임감, 나눔과 배려, 갈등조정능력, 자율적 리더십 역량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통적으로 네 가지 역량에 있어 인문사회계열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예체능계열 학생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드러났다. 우선, 봉사역량에 속하는 책임감, 나눔과 배려 역량에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 인문사회계열 남학생과 예체능계열 여학생의 봉사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대학생의 사회봉사 프로그램의 참여가 도덕성 및 자아정체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김옥, 2019)를 참고하여, 인문사회계열 남학생들에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회봉사 및 인성, 공동체 프로그램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선행연구에서 인문사회계열 학생의 경우 취업 준비 등의 이유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비교과 활동에 대한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바(한안나, 2017),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시 이러한 점을 반영한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A대학에서 시행 중에 있는 비교과 마일리지 제도 중 인문사회계열 학생의 흥미를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략적으로 운영하며, 고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취창업 연계프로그램 및 학습법프로그램의 양적, 질적인 측면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저학년의 봉사역량 증진

을 위해 교목실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영성 개발을 위한 공동체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전공별 프로그램’에서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의 경우 봉사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반면, 예체능계열의 경우 여학생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변수연(2019)은 국내 4년제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결과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며, 학습참여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낮은 적극성을 보이며, 특히 대학의 교육 목표를 구체화하여 대학이 제시한 핵심 역량을 계발하는 ‘공동체 동화’의 측면에서 남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수준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볼 때, 긍정적인 대학 경험을 형성하기 위해 활발한 상호작용을 형성할 수 있는 대학풍토, 다양한 학습 참여에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하는 학습법 프로그램 등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책임감, 나눔과 배려, 자율적 리더십 등은 비인지적 핵심역량 요인으로 교수 및 동료학생과의 많은 교류와 상호작용 등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점은, 인문사회계열, 이공계열은 전공특성상 학년이 올라갈수록 개별화된 수업 방식과 졸업 후 취업 준비 등으로 인해 협력 및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반면, 예체능계열의 경우 전공 내에서 공동작업 및 협력 학습이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남창우 외, 2016: 113), 교수 및 동료들과 많은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에 이러한 전공별 차이점을 감안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생의 핵심역량의 구성요인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개별대학의 핵심역량을 분석한 선행연구(남창우 외, 2016; 조형정·윤지영, 2014)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인다. 이처럼 대학생의 핵심역량의 하위 요인간의 상관관계가 전반적으로 높은 수치로 나타난 것은 추후 학생의 역량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역량의 특성들을 전반적으로 유기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갈등조정능력 및 대인관계능력과 같은 소통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비교과 학습법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전달식 수업방식보다는 교수-학생, 학생-학생 간의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고, 협력 및 중재를 위한 다양한 학습자 중심의 협력학습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성별과 전공계열에 따른 차이를 드러낸 역량요인 중 다수는 나눔과 배려, 도덕성 및 윤리성, 대인관계능력, 자율적 리더십 등과 같은 비인지적인 역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입생 단계에서는 학업성취 또는 전공지식과 같은 인지적 역량보다는 구성원들과의 대인관계 및 협력, 그리고 대학 생활 전반에 대한 계획, 가치, 태도 등을 긍정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의 복합적인 능력요소인 역량을 길러내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 문제 등을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능력을 포괄하는 비인지적 능력 함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김태준, 2012: 4). 이에 핵심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양교육과정 및 비교과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전공계열 및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인 비인지적 핵심역량 요인에 중점을 두어 운영방안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공계열과 관련하여 이공계열 학생들의 전반적인 비인지적 역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수준으로 나온 점에 초점을 맞추어 이공계열 신입생의 비인지적 역량을 기르기 위한 방안을 다양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문사회계열 남학생과 예체능계열 여학생의 비인지적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전공별 특성에 따라 시행중인 ‘찾아가는 학습법 프로그램’을 통해 전공별 특성을 고려하여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더불어, 다른 일반대학과 구별되는 기독교적 정체성과 기독교적 역량 개발을 위해서 나눔과 배려, 도덕성 및 윤리성 등과 같은 학생의 가치관과 태도와 관련된 역량 함양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신입생들은 소속 대학의 문화를 가장 민감하게 인지하고 그것에 반응하며, 큰 영향을 받는 점으로 보았을 때(변수연, 2016: 214), 전공 및 비교과 영역을 포함한 대학생활 전반의 기독교적 문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내적인 태도와 신념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이 집중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인지적 영역 중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외국어능력과 융합적 사고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시된다. 우선 외국어 능력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보다는, 13개의 하위 핵심역량 요인 중 남학생, 여학생 모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 결과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특히 동일한 소통역량에 속하는 다문화 이해 능력과 대인관계능력에 비해 역량수준이 현저하게 낮게 나온 결과로 볼 때, 소통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접근보다는 외국어 학습능력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교양교육과정에서 어학관련 핵심교양 강좌를 추가하여 개설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어학센터와 교수학습센터 등에서 기초 외국어능력이 부진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하며 마일리지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참여를 권장해야 할 것이다. 수업 뿐만 아니라 스터디 그룹 및 학습동아리 등의 활동 등을 통해 전체적인 학생들이 하나 이상의 외국어에 집중하여 관련 자료의 독해 및 분석, 상호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더불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여학생의 융합적 사고능력 향상을 위한 방안 또한 필요하다. 교양교육과정을 통해 새로이 등장하는 사회적 문제 영역에 대한 창의적인 사고를 통한 문제 해결이나 이질적인 학문 분야들을 융합하여 주어진 주제를 여러 각도에서 입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과목을 개설하여 적극적인 수강을 권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전공계열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바, 제도적으로 전체 여학생들이 이질적인 분야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학업의 역량을 전반적으로 향상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일정 시점에서 특정 대학의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를 분석하기에,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함을 밝혀둔다. 또한 가용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신

입생들이 1학년 동안 경험하는 교과 및 비교과 활동 변인들을 동시에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과 개인의 종교적 배경 요인 등을 고려하지 못한 점이 제한적이다. 선행연구(Robert, Terenzini, & Robert, 2006)에서도 신입생들의 대학 내 경험요인은 학업역량 및 인지적, 정서적 영역의 발달에 중요한 요인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기에, 이러한 요소를 고려한 후속연구가 진행이 된다면, 기독교대학 신입생들의 역량에 미치는 전반적인 요인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강명희·김은희·유영란·김보경 (2014). 학습자특성에 따른 대학생의 생애핵심역량 차이 분석. **평생학습사회**, 10(4), 61-84.
- [Kang. M. H., Kim. E. H., You. Y. R. and Kim. B. K. (2014). Comparing the Life Core Competency of Korean Undergraduates by Learners Characteristics. *Journal of Lifelong Learning Society*, 10(4), 61-84.]
- 강영택 (2015).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과 기독교학교의 과제. **신앙과 학문**, 20(1), 7-38.
- [Kang, Y. T. (2015). Key competencies needed in a future society and tasks for a *Christian school*. *Faith & Scholarship*, 20(1), 7-38.]
- 곽은주·배상훈 (2019). 공학계열 여학생의 교수 및 교우와의 상호작용 유형과 예측요인.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8), 995-1022.
- [Kwak. E. J., Bae. S. H. (2019). The Pattern and Predictors of Female Students' Interaction with the Faculty and Peer in Engineering.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18), 995-1022.]
- 김경화 (2017). 이공계 대학생의 커뮤니케이션 역량 분석 및 교육콘텐츠 개발 방안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7(5), 529-539.
- [Kim. K. H. (2017). A Study on Communication Competency Analysis and Development Plan of Educational Content for Engineering Undergraduate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7(5), 529-539.]
- 김대중·이희애·김수동 (2018). **대학 자체 진단 도구와 K-CESA 연계 활용 방안 연구**. 한국핵심역량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제4호, 5-23.
- [Kim. D. J., Lee. H. A and Kim. S. D. (2018). *Application Plans of Competence Using Self-Assessment Tools in Universities and K-CESA*. The Korea Association for Core Competency Education Annual Conference, 4, 5-23.]
- 김미숙 (2013). **OECD 교육과 사회적 진보(ESP: Education and Social Progress) 국제비교연구(III)**. 한국교육개발원.
- [Kim. M. S. (2013).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OECD Education and Social Progress(III)*.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김민선·박수미 (2019). 신입생 핵심역량이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 A 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학**

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6), 237-259.

[Kim. M. S. and Park. S. M. (2019). Analysing of the Effects of Core Competencies on Academic Achievement: Focusing on Freshman at A university in Seoul,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6), 237-259.]

김성희·방희정 (2008). 애착, 관계적 자아 및 도덕성 간의 관계: 남녀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3(2), 137-152.

[Kim. S. H. and Bang. H. J. (2008). The Effect of Attachment and Relational Self on Moral Development in Korean Male and Female Undergraduat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3(2), 137-152.]

김옥 (2019). 대학 사회봉사가 대학생의 도덕성과 자아정체성에 미치는 효과 연구. **생명연구**, 51, 155-178.

[Kim. W. (2019). A Study of the Effects of University Voluntary Service Program on Morality and Self-Identity for University Students. *Studies on Life and Culture*, 51, 155-178.]

김은경·서은희 (2019). 개인변인에 따른 대학생 핵심역량 차이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3), 803-820.

[Kim. E. K., Seo. E. H. (2019). The differences in the core competency based on personal variables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13), 803-820.]

김태준 (2012). **OECD 장기적 국제협력사업: OECD 교육과 사회적 진보(ESP: Education and Social Progress): 국제비교 연구(II)**. 한국교육개발원.

[Kim. T. J. (2012).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II): OECD Education and Social Progress*.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남창우·박영희·송지희 (2016). 대학생의 계열 및 학년별 비인지적 핵심역량 차이 분석. **사고개발**, 12(3), 91-118.

[Nam. C. W., Park. Y. H. and Song. J. H. (2016). Analysis of The Differences of College Students' Non-cognitive Core Competencies by Their Majors and Grades : Focusing on Self-Management Competency and Interpersonal Relations Competency. *The Journal of Thinking Development*, 12(3), 91-118.]

류다현·강명희·유지원 (2015). 자연계열 대학생의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자본, 창의성향, 학습지향성 간의 관계 규명. **사고개발**, 11(3), 143-167.

[Ryoo. D. H., Kang. M. H. and You. J. W. A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Psychological Capital, Creative Personality, Learning Orientation and Innovative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Thinking Development*, 11(3), 143-167.]

리상섭 (2014). 대학 신입생의 핵심 역량 진단 분석을 통해 본 단과대학별 핵심 역량 진단 비교 분석: D여대 사례. **HRD연구**, 16(4), 203-222.

[Lee. S. S. (2014). Diagnostic Studies of the Core Competency of University Entrants: A Case Study of D Women's University. *The Korean Journal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Quarterly*, 16(4), 203-222.]

박은숙 (2013). 기독교대학의 교수역량 강화를 위한 CTL특성화 프로그램개발 - 신앙과 학문 통합 역량 중심으로. **기독교교육논총**, 36, 247-268.

[Park. E. S. (2013). A Study on Christian Universities Specialized CTL Programs for Improving Faculty-Competency - Focusing on Faith and Scholarship Integration.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36, 247-268.]

박창남·정원희 (2017). 비교과프로그램이 대학핵심역량에 미치는 영향 - K 대학교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11(1), 39-71.

[Park. C. N. and Chung. W. H. Study on the effects of Non-subject Educational Programs Influencing the Core Competency of University Students - Focusing on the Case of K University.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1(1), 39-71.]

방희원·조규관 (2019). 대학생의 성취동기 수준에 따른 학습몰입, 학업적 정서조절, 학습전략의 차이.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0), 330-349.

[Bang. H. W. and Cho G. P. (2019). The Differences of Learning Flow, Academic Emotional Regulation, and Learning Strategies according to Achievement Motivation Level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10), 330-349.]

배상훈·윤수경 (2016). 한국대학에서 대학기관연구(Institutional Research) 도입 관련 쟁점과 시사점. **아시아교육연구**, 17(2), 367-395.

[Bae. S. H. and Yoon. S. K. (2016). The Prospect and Barriers of Introduction of Institutional Research to Korean Universities. *Asian Journal of Education*, 17(2), 367-395.]

배상훈·한송이 (2015). 대학생의 수업 외 활동이 능동적 협동적 학습 및 대학 몰입에 미치는 영향. **교육학연구**, 53(2), 323-356.

[Bae. S. H., Han. S. I. (2015). The impact of out-of-class activities on active and collaborative

learning and institutional commitment of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53(2), 323-356.]

백평구 (2013). 대학생 핵심역량 수준과 대학생 개인 변인의 관계 및 특성. **교양교육연구**, 7(3), 349-387.

[Baek. P. G. (2013).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and Characteristics between Korean Collegiate Essential Skills and Undergraduates Individual Variant Factors.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7(3), 349-387.]

변수연 (2016). 이학 계열 신입생들의 캠퍼스 문화 인지가 학문적 사회적 통합과 전인적 발달에 끼치는 영향력 탐구. **한국교육학연구**, 22(4), 205-234.

[Byoun, S. Y. (2016). An Exploration of the Structural Relation of Perceptions of Campus Culture, Academic and Social Integration, and Holistic Development of Korean STEM Students. *The Korea Educational Review*, 22(4), 205-234.]

변수연 (2019). 대학생 성별에 따른 신입생 대학 경험의 차이 분석. **교양교육연구**, 13(3), 413-438.

[Byoun, S. Y. (2019). An Exploration on gender difference in first year experience of Korean college freshmen.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3(3), 413-438.]

변수연, 배상훈, 한송이 (2017). 경향점수매칭을 통한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재학생의 학습참여 (student engagement) 분석 : 일반 종합대학 이공계열 및 인문사회계열 학생과 비교. **공학교육연구**, 20(3), 13-24.

[Byoun, S. Y., Bae. S. H. and Han. S. I. (2017). Student Engagement of STEM-specialized Institutions: A Comparative Study Employing Propensity Score Matching(PSM).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20(3), 13-24.]

손연아, 윤지현, 맹희주(2018). 대학교 전공 계열별 교수자들의 학습 평가 목적에 대한 인식과 수업유형에 따른 평가 방법 활용 현황. **교육문화연구**, 24(3), 5-24.

[Son. Y. A., Yoon. J. H. and Maeng. H. J. (2018). The Current Status of Evaluation Method Utilization According to Instructional Types and Instructors' Perceptions about Purpose of the Learning Evaluation by University Major Field.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4(3), 5-24.]

손유미, 백영은 (2017). 2016-2017년 상반기 대학생들의 개인변인에 따른 핵심역량 차이 분석. **핵심역량교육연구**, 2(2), 31-48.

[Son. Y. M. and Baek. Y. E. (2017). Analysis of core competence difference according to individual variables of university students in the first half of 2016-2017. *The Journal of Core*

Competency Education Research, 2(2), 31-48.

신혜성 (2017). L대학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재학생 인식 분석. **교양교육연구**, 11(6), 303-332.

[Shin. H. S. (2017). Analysis of students perception on extra-curricula program of L University.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1(6), 303-332.]

심태은, 이송이 (2015). 인문사회·이공계열 대학 신입생의 교양교과과정 수강현황과 학업역량 및 진로적응능력에 관한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12), 343-362.

[Shim. T. E. and Lee. S. Y. (2015). The Study of General Education Curriculum Enrollment, Academic Competence, and Career Adapt-abilities of Incoming Freshmen majoring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compared to those majoring in Science and Engineering.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5(12), 343-362.]

유현숙, 김태준, 이석재, 송선영 (2004). **국가수준의 생애능력 표준설정 및 학습체제 질 관리 방안 연구(III)**.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Yu. H. S., Kim. T.J., Lee. S. J., and Song. S. Y. (2004). *Research on the National Standards of life Competencies and Quaility Management of the Learning System(III)*.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윤지영, 유영립 (2018). 대학생용 핵심역량 진단도구 타당화 연구: C대학의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4(6), 353-373.

[Yoon. J. Y and You Y. L. (2018). A Study on the test validity of the Core competencies tool.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4(6), 353-373.]

윤희정, 방담이 (2015). 전공교과와 교양교과에서의 핵심역량에 대한 대학생들의 교육요구도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7), 567-584.

[Yoon, H. J. and Bang, D. M. (2015). Analysis of undergraduate students educational needs for key competencies in curriculum of major subject and liberal ar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5(7), 567-584.]

이경희, 권혁홍, 이정례, 이성진 (2010). 공과대학 신입생의 핵심역량 인식수준을 통한 공학교육 방향 연구. **공학교육연구**, 13(6), 57-71.

[Lee. K. H., Kwon. H. H., Lee. J. R. and Lee. S. J. (2010). The Study on Proper Way for Engineering University Education: Based on the Perception of Current Competencies and Expected Competencies of Engineering Freshmen.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13(6), 57-71.]

이장익·김주후 (2012). 대학생의 핵심역량과 학업성취도 관계성에 대한 분석연구. **직업교육연구**, 31(2), 227-246.

[Lee. J. I and Kim. J. H. (2012).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Essential Skills and Academic Achievement.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31(2), 227-246]

이미미 (2014). 호주와 미국의 역사 교육과정에 나타난 핵심역량 분석. **비교교육연구**, 24(1), 155-180.

[Lee. M. M. (2014). Analysis of Key Competencies in Australian and US History Standards.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Education*, 24(1), 155-180.]

이미라·김누리 (2018).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도구의 개발과 타당화 연구 : M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양환경안전학회지**, 24(5), 576-582.

[Lee. M. R. and Kim. N. R. (201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cale for Diagnosing the Core Competency of University Students: M University Case Stud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24(5), 576-582.]

이민정·김수동 (2018). 고등교육에서의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위한 평가연구 - 한국의 D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8(5). 759-767.

[Lee. M. J. and Kim. S. D. (2018). A Study on Evaluation for Competency-based Curriculum in Higher Education-Focusing on D University in South Korea.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8(5). 759-767.]

이병식·최정윤 (2008). 다층모형을 활용한 대학생 핵심능력 개발의 영향요인 분석: 대학교육 과정과 대학 특성 변인의 영향. **한국교육**, 35(2), 243-266.

[Rhee. B. S, Choi. J. Y. (2008). Analyzing Influences on the Perceived Development of Core Competencies of College Students: A Multilevel Approach.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35(2), 243-266.]

이수인 (2018). 기독교대학에서의 역량중심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연구: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를 중심으로, **ACTS 신학저널**, 35, 93-124.

[Lee. S. I. (2018). The Applicability of the Competency-Based Education at a Christian University: A Case Study of Asia United Theological University. *ACTS Theological Journal*, 35, 93-124.]

이은실·제양규 (2016). 기독교대학에서의 역량기반교육 개발 및 운영: 한동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로. **신앙과 학문**, 21(2), 177-207.

[Rhee, E. S., & Jei, Y. G. (2016). Development of competency-based education and its operating systems in a Christian higher education: A case of Handong Global University. *Faith & Scholarship*, 21(2), 177-207.]

이장익 (2012). 대학입학 전형제도 유형과 대학생 핵심역량에 대한 연구.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4(2), 73-96.

[Lee, J. I. (2012). A Study on University Students Essential Skills and University Admission Methods.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44(2), 73-96.]

장화선 (2015). 기독교교육 관점에서 역량 중심 교육에 관한 고찰. **기독교교육논총**, 43, 109-136.

[Chang, H. S. (2015). Competence-Based Education in light of Christian Education. *The Korean Society of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 43, 109-136.]

정윤경, 오명숙, 김지현 (2008). 공대 여학생의 전공관련 심리적 특성의 탐색. **공학교육연구**, 11(4), 34-45.

[Jeong, Y. K., Oh, M. S. and Kim, J. H. (2008). Examination of Psychological Correlates of Women Engineering Students.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11(4), 34-45.]

정주영 (2018). 사범계열 대학생들의 학습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연구. **교육연구논총**, 39(4), 31-55.

[Jung, J. Y. (2018). The Exploratory Study on Learning Outcomes of Teachers' College Students. *CNU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39(4), 31-55.]

조명희, 이현우 (2014). 대학입학전형 유형에 따른 전공계열별 신입생의 학습역량 차이 분석. **진로 교육연구**, 27(3), 163-179.

[Jo, M. H. and Lee, H. W. (2014). A Study on Learning Competencies of University Freshmen based on University Admission Method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7(3), 163-179.]

조형정, 윤지영 (2016). 대학생의 자아효능감과 대인관계 역량 간 관계에서 자기관리 역량의 매개 효과 검증: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11), 267-290.

[Cho, H. J. and Yoon J. Y. (2016).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and interpersonal competency in college students: Mediating effects of self-management competency and Gender group difference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6(11),

267-290.

진미석, 손유미, 주희정 (2011).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체제 구축 방안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29(4), 461-486.

[Jin. M. S, Sohn. Y. M, Chu, H. J. (2011). A Study on Development Plan of K-CESA for College Education Assessment.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29(4), 461-486.]

차석빈, 김홍범, 오홍철, 윤지환, 김우곤 (2008). **사례를 통해 본 다변량 분석의 이해**, 백산출판사 [Cha. S. B., Kim. H. B., Oh. H. C., Yoon. J. H., Kim. W. G. (2008). *Understanding through Multi-variate Analysis Case*. Baeksan Publishing.]

최보라 (2018). 대학 신입생의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효과. **인격교육**, 12(3), 157-171.

[Choi. B. R. (2018). Development of Personality Education Program for Core Competencies and Implementation Effect. *The Journal of Saramdaum Education*, 12(3), 157-171.]

한동대학교 (2019). 2019 **한동대학교 자체평가보고서**, 한동대학교.

[Handong University. (2019). 2019 *Handong University self-evaluation report*. Handong University]

한송이 (2016). **대학 몰입(institutional commitment)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대학 환경 특성**.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Han. So. I. (2016). *Influential factors of the students' backgrounds and campus learning environments on institutional commitment*. Masters Dissert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University, Seoul, Korea.]

한안나 (2017). 대학 비교과 교육과정의 운영과 성과: D 대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문제연구**, 30(4), 111-138.

[Han. A. N (2017). The Operation and Performance on Extracurricular Activities of D University. *Journal of research in education*, 111-138.]

황지원, 손유미, 백영은 (2017). 대학생들의 개인 배경변인에 따른 핵심역량 차이분석: K-CESA 진단 결과를 중심으로. **핵심역량교육연구**, 2(1), 107-123.

[Hwang. J. W., Son. Y. M. and Baek. Y. E. (2017). Analysis of the difference of core competence according to personal background variables of college students: focusing on K-CESA result. *The Journal of Core Competency Education Research*, 2(1), 107-123.]

허희옥, 임규연, 서정희, 김영애 (2011). **21세기 학습자 및 교수자 역량 모델링. 미래학교 지원을**

위한 21세기 교수·학습 활동 개발 시리즈. 한국교육학술정보원.

[Heo, H. O., Lim, K. Y., Seo, J. H., & Kim, Y. A. (2011). *Modeling for 21st Century Learner and Teacher Competency. 21st Century Teaching-Learning Materials Development Series I in Support of Future Schools*.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Braxton, J. M., Sullivan, A. V. S., & Johnson, R. M. Jr. (1997). Apprasing Tinto's theory of college student departure. (pp. 107-165) in *Higher Education: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Edited by J. C. Smart. NY: Agathon Press.

Hall, R. M., & Sandler, B. R. (1982). *The classroom climate: A chilly one for women?*. Washigton, DC: Project on the Status and Education of Women, Association of American Colleges.

Laird, T. F. N., Garver, A. K., & Niskodé, A. S. (2007). *Gender Gaps: Understanding Teaching Style Differences between Men and Women*. In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Institutional Research, Kansas City, MO.

OECD (2005). *DeSeCo. Exucutive Summary*. Paris: OECD.

Posner, J. K., & Vandell, D. L. (1999). Afterschool activities and the development of lowincome urban children: a longitudinal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35(3), 868-87

Roberts, B. W., & Robins, R. W. (2004). Person-environment fit and its implications for personality development: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72(1), 89-110.

Robert, D. R., Terenzini, P. T., & Robert, J. D. (2006). First things first: Developing Academic Competence in the First Year of College.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47(2), 149-175

기독교대학 신입생의 성별, 전공계열에 따른 핵심역량 차이 분석: A 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Core Competencies Difference According to Gender,
Majors of University Freshmen: Focused on A-University

백상현 (고려대학교)

논문초록

본 연구는 기독교대학 신입생의 성별, 전공계열에 따른 핵심역량 수준 차이와 특성을 밝힘으로써 재학기간 중 학생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소재 A 대학 신입생 940명을 대상으로 A 대학에서 자체 개발한 핵심역량진단 조사결과를 활용하였다. 신입생의 핵심역량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서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을 진행하였고, 개인 특성에 따른 핵심역량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변량 분산분석 및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라 도덕성 및 윤리성, 외국어능력, 융합적 사고능력에, 전공계열에 따라 나눔과 배려, 갈등조정능력, 대인관계능력, 논리적 사고능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공계열과 성별은 책임감, 나눔과 배려, 갈등조정능력, 자율적 리더십 역량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문사회계열에서는 여학생이 네 가지 역량에서 높은 수준을 보인 반면, 예체능계열은 남학생이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주제어 : 기독교대학, 대학 신입생, 핵심역량, 개인 특성

기독교대안학교 교사 양성과 재교육 시스템의 변화 방향*

Direction of Teacher Training and Re-education System in Christian Alternative School

김 성 천(Seong Cheon Kim)**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direction of change in the education and re-education system of Christian alternative school teachers. A survey was conducted on 331 Christian alternative school teachers from 27 schools. An in-depth interview was conducted for eight teachers who are working at Christian Alternative School or had working experiences and three experts in related fields. The results of the survey analysis are as follows: there was a demand for systematization of the training course to become an alternative school teacher, organized by the Christian Alternative Education Association rather than by the existing teachers' group. On the other hand, there were many opinions that the experience of teacher training courses and working experience in public education helped teachers at alternative schools perform their duties. However, groups with experience in public education gave somewhat negative assessments of qualifications, teacher training, and public education experiences, compared to the groups without public education.

As a result of the interview analysis, Christian alternative schools had two conflicting opinions that there was an environment that stimulated teachers' growth compared to public education, and that it was difficult for them to grow due to the outflow of excellent human resources due to poor conditions. Interviewees emphasized the integration of the curriculum, transformationality, spirituality and personality, calling consciousness, teacher professionalism, and interpersonal skills that integrate the Christian world view as necessary expertise and qualities for Christian alternative school teachers. The difficult elements of Christians' adaptation to the field are presented on an individual and school levels. Based on these findings, an applicable alternative was presented.

Key words : Christian alternative school, teacher training, re-education system, learning community

* 2020년 05월 08일 접수, 08월 10일 최종수정, 08월 20일 게재확정

이 논문은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가 주관한 제14회 학술대회(2019년 11월 30일)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음.

** 한국교육대학교(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조교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태성로 탐연삼거리 250 대학원 4층 교육정책전문대학원, skc22@knue.ac.kr)

I. 들어가며

기독교대한학교는 공립학교 내지는 일반 대한학교 이상으로 복잡한 논의의 층위를 지니고 있다. 기독교, 대한교육, 학교라는 3가지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 곽광(2010)은 기독교대한학교는 ‘기독교성’, ‘대한성’, ‘학교성’이 조화를 이루면서 강조되는 특성을 지녔다면, 공동체 의식 강화, 기독교 세계관을 지닌 교사 정체성 확립, 교회의 관심 촉구를 제안하였다. ‘기독교성’은 교육을 통해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고, 내면화하고, 실현하겠다는 의미를 지닌다. ‘대한성’은 공교육이 지닌 한계를 인식하고, 공교육의 철학과 방법을 달리하여 적용하겠다는 의미를 지닌다. ‘학교성’은 학교가 지닌 속성을 고려한 개념으로서, 시설, 인사, 조직, 행정, 교육과정-수업-평가, 생활지도 및 학급운영, 의사소통 구조 등 보편적 체계를 갖추어 운영해야 함을 의미한다. 기독교대한학교는 일반학교의 ‘기본기’를 갖추면서도, 대한교육과 기독교의 ‘3중 정체성’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이종태 외(2005: 12-19)는 대한학교의 주요 특성으로 철학교육, 노작교육, 지식교육·감성교육·사회·의식교육의 조화, 실생활 교육, 진로탐색교육, 문화적 감수성 신장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운영상의 한계로서 교과목 독자 개발에 따른 부담 증가, 열악한 재정 능력, 다양한 요구에 따른 교육과정의 나열화 경향을 제시하였으며, 극복과제로서 단위학교 주체 형성의 취약, 주체간 인식 공유 미흡, 자기성찰 부재, 교사 역량의 한계 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대한학교 법제화에 대해서 대한교육 주체들의 노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며, 지속성을 높일 수 있고, 대한교육의 발전의 계기 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2005년도의 연구에서 제시된 대한교육의 실태와 한계에 관한 진단이 현 시점에서도 유효한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박상진·이종철(2019: 34)에 의하면 인가형 대한학교가 63개인 반면에 미인가 대한학교는 385개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그 중에서도 기독교 대한학교는 230개 이상에 달한다. 이처럼 일반 대한교육에 비해 공교육의 지원 체계에서 기독교대한학교는 더욱 소외되고 있다. 한병선(2006)은 우리나라의 대한교육이 자생성, 운동성과 연대성의 속성을 지니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제도권 교육과 대한교육이 상호협력을 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바라보았지만, 기독교대한학교는 비제도권 영역에서 자생적으로 교육의 한 축을 오랜 세월 감당하고 있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기독교대한학교는 인가학교 외에 비인가형 학교까지 포함되어 있고, 그 스펙트럼이 매우 넓다. 박상진·조인진(2011)은 기독교대한학교를 국제성, 수월성, 공휴성, 대한성, 기독교성으로 나누어 25개 학교를 유형화하여 기독교 국제학교, 기독교 수월성 학교, 기독교 공휴학교, 대한기독교학교, 기독교미인가학교로 분류하였다. 이 연구는 기독교대한학교의 목적과 지향에 학교간 차이 내지는 분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노상우·고현수·권희숙(2010)은 3개 대한고등학교를 졸업한 6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사 만족

도에 대한 내러티브 연구를 실시한 결과, 학생들의 학교 및 교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는데, 일반학교와 비교하였을 때 교사들이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에서 차이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는 공교육과는 다른 양상의 문화와 관계맺음의 방식이 대안학교에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한병선(2006)은 대안교육의 제도적 성과와 내용적 성과가 존재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대안학교 교사의 자격과 양성문제에 관한 과제가 남아있다고 진단하였다. 배지현 외(2013)는 다과목 내지는 특성화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개인연구 차원으로 전문성을 쌓는 방식보다는 교사재교육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결국 대안교육이 미래교육에 관한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는 학교로 자리매김하려면 교사의 역량이 뒤따라야하고, 이를 위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대안학교 내지는 기독교대안학교에 관련 연구물들은 대안학교가 지닌 한계와 과제를 제시하였는데 공통적으로 교사의 자격 내지는 전문성 확보를 위한 대안을 꾸준히 제시하고 있다. 기독교 대안학교 역시 교사 전문성 성장에 주목한다. 김명자(2014: 31-37)는 기독교대안학교 교사로서 준비과정 부족을 지적하면서 기독교 교사를 위한 예비교사과정이나 계속교육과정의 체계화를 강조하였다. 이종우(2012)는 4개 광역지역의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들 1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분석을 바탕으로 교사들의 교육만족도라든지 참여율 등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예비교육은 취약한 상황으로 진단하면서 교사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대안학교 교사자격증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신학대학 및 기독교 대학 내 기독교대안학교교육과 개설, 기독교대안교육 연구소에서 교사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기독교대안교육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예비교사들과 혁신교사들을 위한 방학집중 코스 개발, 예비교사를 위한 집중과정 활성화, 교사자격증 급수를 정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한국교회의 재정적 지원 강화, 대안학교 평가인증제 실시 및 강화를 제안하였다. 한편, 대안학교의 법제화에 관한 논의에서도 교원의 양성과 전문성 함양은 비중 있게 다루어진다. 이병환(2007)은 대안학교의 법제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안학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대안학교 스스로도 책무성 강화라든지 교과 전문성 함양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황준성·이혜영(2010)은 비(미)인가 대안학교의 불안한 법적 지위, 재정 부족에 의한 교육의 질 저하의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새로운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는 합리적인 등록 요건 제시, 대안학교에 대한 시도교육감의 권한 이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교원의 자격체계를 논의하였는데, 산학겸임교사제도의 규정은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대안교육 자체가 기존 학교와 달리 특성화 교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교사 자격증 소지 교사의 배치 기준을 전체 교원의 일정 비율(1/3에서 2/3)로 최소화하고, 기존 활동경력을 인정하여 대안교육 교원자격증을 수여하는 등 전향적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심대현(2018: 134-191)은 각종학교 형태 대안학교를 보면, 사립학교 비율이 전체의 약 74%를 차지하는데

그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설립절차 및 운영시스템, 재정 등에서 공적 관리가 되지 않은 시스템을 문제 삼으면서 교원자격검정령을 개정하여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을 취득한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경력을 가진 자로서 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자로 자격요건을 완화 내지는 확대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처럼 대안학교의 법제화 과정에서 교원양성, 자격, 연수는 핵심적인 쟁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대안학교 교원을 어떻게 양성화하고, 자격체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관한 연구는 드물다. 한편, 김재준(2004)은 기독교대안학교의 교사들이 갖추어야 할 모습으로 영성, 지, 덕, 체를 강조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기독교대안학교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예비교사를 위한 양성과정,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회나 교단차원의 협력사업, 대안학교협의체 구성과 부모교육을 제안하였다. 조영미(2016)은 공주대 재학생들의 대안교육 인식을 살펴보았는데, 대안교육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대안교육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예비교원의 관심과 참여의지가 높았다. 교·사대 교육과정에서도 대안교육에 관해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교과목 개설 등이 필요함을 이 연구는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안학교와 기독교대안학교의 교사의 자격체계 내지는 양성과정, 현직교원의 전문성 성장이 향후 대안교육의 질적 성숙 내지는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대안학교 내지는 기독교대안학교의 교원에 관한 연구는 다변화되고 있다. 이현주·배상훈(2018)의 연구는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이 교사의 조직 몰입에 긍정 영향을 미치고 있고, 교사의 교장에 대한 신뢰 수준이라든지 교사와 교장간 의사소통 수준이 조직 몰입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대안학교 교장의 리더십뿐만 아니라 향후 기독교대안학교 교사의 리더십 등도 심층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이학춘·심대현(2017)은 대안학교의 수요 자체가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비인가 대안학교가 생기고 있으며, 다양한 환경에 처한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지만 불안정한 법적 지위, 교육의 질적 수준, 교원의 전문성 확보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보고, 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는 대안학교를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의 전환을 통해서 비인가 대안교육시설까지 포함한 완전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기독교대안학교는 교사를 선발할 때 어떤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가를 살펴본 연구도 있다. 박상진·이종철(2019: 74-75)는 62개교 기독교대안학교 교사 선발기준을 제시하였다. 선발기준은 영성 > 소명 의식 > 인성 > 교사 자격증 여부 > 교과에 대한 기독교세계관 해석능력 > 학교 이념 동의 > 교사경력 > 외국어구사능력 > 선교단체훈련여부 >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발기준은 기독교대안학교가 공교육 내지는 일반대안학교와는 다른 차원에서 교사를 바라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박상진·이종철(2019: 80) 연구에서는 미인가형 기독교대안학교의 교원자격증 소지자 비율이 2006년 60.6%, 2011년 53.1%, 2016년 40.0%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6년 기독교 대안학교 유형별 대안학교 자격증 소지자를 분석하였는데, 특성화학교(5개교) 78.60%, 위탁대안학교(4개) 37.40%, 미인

기독교대안학교(54개) 40.00%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독교대안학교의 교원자격증 소지자 비율은 해마다 낮아지는 추세이다. 초등 기독교대안학교의 경우, 사실상 교원자격증을 지닌 교사를 확보하기 어렵고, 특성화 교과가 많이 늘어난 점, 미인가형 학교는 교원자격증을 선발의 핵심 요건으로 보지 않는 점 등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교원자격증 소지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면 향후 대안학교의 제도화 과정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인간은 제도의 영향을 받지만, 제도를 바꾸기도 한다. 제도와 인간의 상호작용을 규명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경로의존성을 넘어 제도 변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는 신제도주의의 관심사이다. DiMaggio와 Powell(1983)은 동형화(isomorphism)의 관점에서 조직을 설명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강제적 동형화, 모방적 동형화, 규범적 동형화로 설명한다. 강제적 동형화는 법률 규정을, 모방적 동형화는 성공사례를 스스로 따라하면서 표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규범적 동형화는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내적 기준과 규범을 스스로 만들고 이를 따르면서 나타난 현상을 의미한다. 공교육에서는 법률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받지만, 미인가형 기독교대안학교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모방적 동형화 내지는 규범적 동형화를 통해서 기독교대안학교 나름의 특성과 성향이 만들어질 것이다. 향후, 기독교대안학교가 제도화된다면 교원 양성과 자격, 선발 체계를 공교육 체계와 유사하게 동형화를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특수성을 인정받는 이형화를 추구할 것인가에 관한 판단이 필요하다. Streeck과 Thelen(2005)은 층화(layering), 표류(drift), 전환(conversion), 대체(displacement)의 과정을 거쳐 제도가 변동된다고 보았다. 층화는 기존의 제도에 새로운 요소들이 추가되어 변형을 일으키며, 표류는 기존 방식이 외형으로는 안정화되었지만 실제로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현재 기독교대안학교는 공교육의 교원양성과 자격체계를 완전히 대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제도를 변형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제도로 대체(displacement)를 시도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시스템을 활용하되 새로운 목적을 이루게 하는 전환(conversion)을 시도할 것인가를 판단해야 한다.

교원양성과 자격을 포함한 기독교대안학교의 제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독교대안학교의 맥락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정책과 현장의 괴리 현상은 심화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법적 특성과 당위성만으로 그 길을 찾기 어렵다. 기독교대안학교 교원을 어떤 방식으로 양성해야 하는가? 기존의 교·사대 교육과정의 이수라든지 공교육 교사 경험은 대안학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가? 기독교대안학교 교사들은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은 향후 기독교대안학교의 제도화를 위한 기초 자료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결국, 기독교대안학교의 특수성과 현장성을 바탕으로 기독교대안학교 교원양성과 교원재교육의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교육의 연장선상에서 대안학교 내지는 기독교대안학교의 제도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기독교대안학교 현장에서 교원 경험을 축적한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담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양

적연구와 질적연구를 결합한 혼합연구방법론(mixed methods research)을 적용하여, 설문조사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맥락과 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면담을 추가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기독교대안학교의 교원양성체제와 현직교원의 재교육 시스템의 재구조화를 모색하면서, 관련 쟁점을 살펴보고, 그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 가. 기독교대안학교 교사들은 기독교대안학교 교원의 양성체제에 대해서 어떤 방식을 선호하는가?
- 나. 기독교대안학교 교사들의 관점에서 본 ‘기독교대안학교 적응의 어려움과 한계 요인’은 무엇인가?
- 다. 교·사대교육과정 및 공교육 교사 경험은 기독교대안학교 교사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측면과 그렇지 않은 측면은 무엇인가?
- 라. 기독교대안학교 교원양성과 교원재교육의 방향은 무엇인가?

II. 설문분석 결과

1. 설문 응답자의 기초 사항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의 협조를 받아 40개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27개교 학교에서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설문기간은 2019년 9월-10월이었다. 분석 도구는 IBM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빈도분석, 기술통계, T검정을 적용했다. 설문조사에는 331명이 응답하였으며, 일반적 배경에서 주요 변인은 응답자의 성별, 연령, 소속 학교급, 학교유형 등으로 <table 1>과 같다.

Table 1. Participants

variable		Respondents (N=331)	Ratio (%)	variable		Respondents (N=331)	Ratio (%)
Gender	male	100	30.2	area	Seoul	28	8.5
	female	231	69.8		Gyeonggi-do	199	60.1
age group	20's	48	14.5		Incheon	11	3.3
	30s	153	46.2		Gwangju	1	0.3
	40s	101	30.5		Busan	10	3.0
	50s	22	6.6		Gangwon	7	2.1
	60+	5	1.5		Chungcheong	56	16.9
	No response	1	0.3		Jeolla	10	3.0
					Gyeongsang	9	2.7
school grade (duplicate response)	Kindergarten (pre- primary)	18	5.4	Full-time or non- regular workers	Full-time	317	95.8
	Elementary School	149	45.0		non-regular workers	12	3.6
	middle School	178	53.8		No response	2	0.6
	high school	144	43.5				

School type	Accredited alternative school	49	14.8	University Major and Job Consistency	Consistency	257	77.6
	Unlicensed alternative school	274	82.7		Non-Consistency	70	21.1
	Other	2	0.6		No response	4	1.2
	No response	6	1.8				
the number of students in the school	Less than 50	50	15.1	Possession of teacher certificate	certificate holder	228	68.9
	51-100 people	39	11.8		non-certificate holder	100	30.2
	101-150 people	73	22.1		No response	3	0.9
	151 or more	167	50.5				
	No response	2	0.6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 100명(30.2%), 여성 231명(69.8%)이 참여하였다. 응답자의 연령은 20대 48명(14.5%), 30대 13명(4.2%), 40대 101명(30.5%), 50대 22명(6.6%), 60대 이상 5명(1.5%)로 나타났다. 30대(4.2%)가 가장 많고 40대(30.5%)가 그 다음 순이었으며, 60대 이상이(1.5%) 가장 낮고 50대(6.6%)도 응답률이 낮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소속 학교 급(중복 응답결과)은 중학교 178명(53.8%) > 초등학교 149명(45.0%) > 고등학교 144명(43.5%) > 유치원 18명(5.4%)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 유형은 미인가 대안학교 274명(82.7%)가 가장 많았으며, 인가 대안학교 49명(14.8%), 기타 2명(0.6%)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 학생 수는 151명 이상이(50.5%) 가장 많았으며, 101-150명(22.1%), 50명 미만(15.1%), 51-100명(11.8%)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 위치는 경기도 199명(60.1%) > 충청도 56명(16.9%) > 서울 28명(8.5%)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 형태는 풀타임 교사 317명(95.8%), 파트타임 교사 12명(3.6%)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과 현재 가르치는 과목은 일치 257명(77.6%), 불일치 70명(21.1%), 무응답 4명(1.2%)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228명(68.9%), 미소지자는 100명(30.2%)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경력은 공교육 경력과 대안학교, 총경력을 살펴보았는데, 대체적으로 10년차 이하가 압도적이었다. 공교육 경력은 1년 미만 206명(62.2%), 1년-5년 84명(25.5%), 6년-10년 27명(8.2%)로 나타났다. 11년-20년은 9명(2.7%)로 나타났다. 대안학교 경력은 1년 미만 27명(8.2%), 1년-5년 156명(47.1%), 6년-10년 112명(33.8%), 11년-20년 34명(10.3%) 수준으로 나타났다. 총경력은 1년 미만 19명(5.7%), 1년-5년 118명(35.6%), 6년-10년 117명(35.3%), 11년-20년 63명(19.0%), 21년-30년 8명(2.4%), 31년 이상 4명(1.2%)로 나타났다.

2. 교사 양성 및 재교육 시스템

빈도분석과 기술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 <table 2>와 같다. 각 항목별 평균은 2.57 ~ 3.88 범위에서 나타났다(5점 만점). 설문 항목별 평균은 문항 18(우리 학교는 교사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있다)이 평균 3.8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은 문항 14(교직과정 또는 교·사대와 같은 공교육 교원양성과정의 경험이 대안학교 교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된다)가 3.83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문항 20(대안학교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돕는 재교육시스템은 충분한 편이다)은 2.5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대안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 공교육에서 필요로 하는 교원자격증(1정, 2정) 소지가 필요하다.”는 항목의 경우, 필요하다는 답변이 많았다. 매우 그렇다 63명(19%), 그렇다 142명(42.9%)로 나타났다. 61.9%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보통이라는 67명(20.2%), 그렇지 않다는 55명(16.6%)로 나타났다. 평균값은 3.57로 나타났다. 대안학교에서 공교육에서 필요로 하는 교원자격증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교육에 관한 기본 학습과정을 거쳐서 입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한 지지가 높았다. “교직과정 또는 교·사대와 같은 공교육 교원양성과정의 경험이 대안학교 교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항목에는 매우 그렇다 70명(21.1%), 그렇다 178명(53.8%)로 나타났다. 74.9%가 긍정하였다. 평균값은 3.83이었다. 교원자격증과 같은 맥락에서 교·사대와 같은 공교육 교원양성과정에 대해서 부정적 견해보다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았다. “공교육에서 기간제 교사 또는 정교사 경험을 가지는 것이 대안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항목에는 매우 그렇다 60명(18.1%), 그렇다 167명(50.5%)로 나타났는데, 68.6%가 긍정하였다. 평균값은 3.75로 나타났다. 공교육에서 기간제 교사 내지는 정교사 경험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높았다. “앞으로는 대안학교 교사를 제도권 내에서 별도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항목에는 매우 그렇다 43명(13%), 그렇다 146명(44.1%)로 나타났다. 57.1%가 긍정하였다. 평균값은 3.45로 나타났다. 대안학교 교사를 제도권 내에서 별도로 양성할 필요에 대해서는 긍정 의견이 높았다. 제도권에 대한 개념은 1차적으로는 기존의 교·사대나 교육대학원에서 별도의 과정을 만들 수도 있고, 기독교대안학교의 경우, 신학대나 별도의 대학원과정을 활용할 수도 있다. 또는 별도의 연맹 내지는 연합회에서 차원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도 포함할 수 있다. “대안학교 교사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항목은 매우 그렇다 36명(10.9%), 그렇다 108명(32.6%)로 나타났다. 43.5%만이 찬성을 하였다. 평균값은 3.2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대안학교에 관한 별도의 교사 자격증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이 분분함을 알 수 있다. 다른 항목에 비해서 대안학교 교사 자격증에 관해서는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대안학교 내지는 대안교육에 대해서 공부하고 접할 수 있는 과정에 대해서는 찬성 비율이 높지만 그것을 별도의 대안학교 교사 자격증으로 연결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 학교는 교사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항목은 매우 그렇다 901명(27.5%), 그렇다 145명(43.8%)로 나타났다. 71.3%가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평균값은 3.88로 나타났다. 개별 학교에서는 교사의 성장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나름 운영하고 있고, 내실화를 기하고 있다고 응답

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대안학교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돕는 대학원 과정이 필요하다.”에는 매우 그렇다 51명(14.4%), 그렇다 152명(45.9%)로 나타났다. 긍정답변은 61.3%로 나타났으며, 평균값은 3.63으로 나타났다. 대안학교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돕는 대학원 과정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대안학교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돕는 재교육 시스템은 충분한 편이다.”는 매우 그렇다 8명(2.4%), 그렇다 34명(10.3%)에 그쳤다. 12.7%만이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보통이다 40.8%,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교사는 44.4%에 달했다. 평균값은 2.57로 낮게 나타났다. 현직 대안학교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돕는 재교육시스템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공교육의 경우, 각종 자격 연수와 부전공 연수, 직무연수 등을 다각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비해 대안학교 교사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돕는 시스템은 비교적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개별학교 차원의 노력에 비해 기독교 대안학교에 관한 지원시스템은 취약한 상황이거나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Table 2. Frequency analysis and Descriptive analysis

Questionnaire number & Survey content	answer	N	%	M	SD
13. In order to become an alternative school teacher, it is necessary to have a teaching certificate required by public education.	I do not agree at all	11	3.3	3.57	1.11
	disagree	44	13.3		
	usually	67	20.2		
	Agree	142	42.9		
	Very agree	63	19.0		
	No response	4	1.2		
14. Experience in public education teacher training helps to perform the duties of alternative school teachers.	I do not agree at all	3	0.9	3.83	0.98
	disagree	21	6.3		
	usually	53	16.0		
	Agree	178	53.8		
	Very agree	70	21.1		
	No response	6	1.8		
15. Having a short-term teaching or teaching experience in public education helps to run alternative school curricula.	I do not agree at all	3	0.9	3.75	0.94
	disagree	17	5.1		
	usually	79	23.9		
	Agree	167	50.5		
	Very agree	60	18.1		
	No response	5	1.5		

16.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train alternative school teachers within the system.	I do not agree at all	7	2.1	3.45	1.10
	disagree	45	13.6		
	usually	82	24.8		
	Agree	146	44.1		
	Very agree	43	13.0		
	No response	8	2.4		
17. We need an alternative school teacher certificate.	I do not agree at all	11	3.3	3.25	1.06
	disagree	63	19.0		
	usually	109	32.9		
	Agree	108	32.6		
	Very agree	36	10.9		
	No response	4	1.2		
18. Our school supports participation in various training programs for teachers' growth.	I do not agree at all	2	0.6	3.88	0.98
	disagree	24	7.3		
	usually	66	19.9		
	Agree	145	43.8		
	Very agree	91	27.5		
	No response	3	0.9		
19. Graduate courses are needed to help teachers at alternative schools improve their expertise.	I do not agree at all	4	1.2	3.63	0.97
	disagree	24	7.3		
	usually	95	28.7		
	Agree	152	45.9		
	Very agree	51	15.4		
	No response	5	1.5		
20. A re-education system is sufficient to help teachers at alternative schools improve their expertise.	I do not agree at all	23	6.9	2.57	0.93
	disagree	124	37.5		
	usually	135	40.8		
	Agree	34	10.3		
	Very agree	8	2.4		
	No response	7	2.1		

<table 3>은 공교육 근무경험 유무에 따라서 13번에서 20번 항목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을 적용해 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13번(대안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 공교육에서 필요로 하는 교원자격증(1정, 2정) 소지가 필요하다)과 14번(교직과정 또는 교,사대와 같은 공교육 교원양성과정의 경험이 대안

학교 교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된다), 15번(공교육에서 기간제 교사 또는 정교사 경험을 가지는 것이 대안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된다) 항목에서는 공교육 근무 경험을 지닌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평균값에 나타나고 있었다. 해당 항목의 집단간 평균값을 보면 13번(공교육 근무 경험 집단 3.35 < 무경험 집단 3.92), 14번(공교육 근무경험 집단 3.67 < 무경험 집단 4.05), 15번(공교육 근무 경험 집단 3.47 < 무경험 집단 4.20)에 차이가 나타난다. 다른 항목은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공교육 근무경험을 지닌 집단들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자격증, 교원양성과정, 공교육 경험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대안학교는 공교육과 상당히 다른 환경과 문화,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때문에 교사대의 학습경험이나 공교육 근무경험이 때로는 현장에서는 통하지 않거나 새롭게 적응해야한다는 점을 공교육 경험을 지닌 교사들이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공교육 근무경험이 없는 대안학교 교사들은 공교육의 경험을 지닌 교사들이 나름의 기본기를 갖추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교육 근무 경험도 기간제 경력과 임용고사를 합격한 정교사 경력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향후, 이를 변인으로 삼아 정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Table 3. Independent sample t-test based on experience in public education

Questionnaire number	experience in public education	N	M	SD	SEM	significant probability
13	Experienced group	204	3.358	1.1509	.0806	.000
	Inexperienced group	125	3.912	.9590	.0858	
14	Experienced group	204	3.676	1.0797	.0756	.000
	Inexperienced group	125	4.056	.7546	.0675	
15	Experienced group	204	3.475	.9697	.0679	.000
	Inexperienced group	125	4.200	.7071	.0632	
16	Experienced group	203	3.626	3.7874	.2658	.923
	Inexperienced group	125	3.592	1.0325	.0923	
17	Experienced group	203	3.266	1.0569	.0742	.881
	Inexperienced group	125	3.248	1.0523	.0941	
18	Experienced group	203	3.852	.9533	.0669	.362
	Inexperienced group	125	3.952	.9743	.0871	
19	Experienced group	203	3.616	.9699	.0681	.557
	Inexperienced group	125	3.680	.9470	.0847	
20	Experienced group	203	2.537	.8913	.0626	.257
	Inexperienced group	125	2.656	.9681	.0866	

대안학교 교사의 양성 방식에 대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문항 21(대안학교 교사 양성의 방식으로 가장 바람직한 방식)에서 1순위 결과는 “대안학교 연맹체(연구소)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공동 운영”에 2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 2순위 결과는 “학교별로 대안학교 근무를 희망하는 예비교원 프로그램 운영 후 지원 자격 부여”에 25.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사대 교육과정에 별도의 대안교사 자격증 과정 신설에 대해서는 반응비율이 1순위와 2순위 공히 낮았다.

1순위와 2순위 항목에 순위별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한 결과, 대안학교 연맹체(연구소)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공동 운영 > 학교별로 대안학교 근무를 희망하는 예비교원 프로그램 운영 후 지원 자격 부여 > 현행 교직 내지는 교·사대 교육과정에 대안교육을 배울 수 있는 과목을 일부 포함 > 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으로 대안교육 전공 운영 > 제도화는 필요 없고, 현행처럼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교원을 선발하면 됨 > 교·사대 교육과정에 대안교사 자격증 과정 신설 >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기존 제도권 내 교원양성과정이란든지 대학원 과정은 기독교대안학교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대안학교 연맹체 차원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높았으며, 학교별로 예비교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높게 나타났다.

Table 4. The preferred way to train teachers in alternative schools (1st, 2nd)

	1st		2nd	
	N	%	N	%
Including subjects that allow students to learn alternative education at a teaching college	66	19.9	38	11.5
Establishing a new certificate course for alternative teachers at the College of Education.	20	6.0	32	9.7
Establishing a new major in alternative education in the master's degree	56	16.9	57	17.2
Self-operating at the federation (research institute) level of alternative schools	87	26.3	49	14.8
Qualifying to apply for alternative schools after operating the alternative school teacher training program	57	17.2	85	25.7
There is no need for institutionalization, and alternative schools should be able to select teachers from various backgrounds as they do now.	35	10.6	37	11.2
Other opinions	3	0.9	2	0.6
No response	7	2.1	31	9.4

문항 22(만약 대안학교 ‘교원양성 과정’ 또는 ‘교원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어떤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서 1순위 결과는 “기독교 세계관”이 3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 2순위 결과에서도 “기독교 세계관”이 26.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순위 결과에서는 “생활지도 및 상담, 학생 이해”가 2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순위에서는 기독교 세계관 > 소명의식 > 대안교육 철학 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에서는 기독교세계관 > 교육과정-수업-평가 전문성 > 대안교육 철학으로 나타났다. 3순위에서는 생활지도 및 상담, 학생이해 > 교육과정-수업-평가 전문성 > 대안교육 철학으로 나타났다. 1순위와 2순위, 3순위 항목에 순위별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한 결과, 기독교세계관 > 소명의식 > 교육과정-수업-평가 전문성 > 대안교육 철학 > 생활지도 및 상담, 학생 이해 > 각종 대안 프로그램 운영 능력 > 학급운영 > 신학적 소양 > 기타의견 순으로 나타났다. 기독교세계관과 소명의식을 기본적으로 중시하면서 교육과정-수업-평가에 관한 전문성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5. Key content of the training process and program

	1st rank		2nd rank		3 rank	
	N	%	N	%	N	%
a sense of calling	100	30.2	39	11.8	29	8.8
philosophy of alternative education	39	11.8	44	13.3	37	11.2
Christian worldview	109	32.9	89	26.9	28	8.5
Curriculum-Class-Evaluation Expertise	28	8.5	75	22.7	77	23.3
class operation	0	0.0	6	1.8	7	2.1
Life guidance and counseling, student understanding	10	3.0	26	7.9	79	23.9
Ability to operate various alternative programs	7	2.1	18	5.4	27	8.2
faith and spirituality	23	6.9	15	4.5	24	7.3
knowledge of theology	2	0.6	4	1.2	3	.9
Other opinions	2	0.6	1	.3	0	0
No response	11	3.3	14	4.2	20	6.0

III. 면담 분석

1. 연구 참여자 및 분석 방법

기독교대안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거나 근무 경험을 지닌 8인 교원과 관련 분야 연구 내지는 업무 경험을 지닌 3인 전문가를 대상으로 관련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 질문은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대화의 맥락과 상황에 따라서 보충질문을 사용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가능하면 공교육을 경험하였거나 잘 알고 있는 이들로 구성함으로써 양쪽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의 기독교대안학교의 모습을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는 이들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질문 내용은 기독교대안학교 교사들의 역량수준에 대한 진단, 교·사대 양성과정과 공교육의 경험이 대안학교 교사로서 도움 여부, 기독교대안교원 대상 프로그램 진단, 필요한 프로그램의 내용, 기독교대안학교 교원양성체계의 방향, 기독교대안학교의 문제점과 방향에 관한 내용이었다. 면담자료는 개방코딩과 범주화, 반복적 비교분석 방법(constant comparison method)을 시도하여 내용을 정리하였다. 반복적으로 내용을 읽으면서 비교와 대조 과정을 거쳐 세부 내용, 하위 범주, 상위범주로 분류하였다.

Table 6. Participants

mark	major career	Gender	age group	mark	major career	Gender	age group
K	-Christian Alternative School Work Experience (5 years) -Currently working in public education	male	40s	S	-Having a career as the principal of Christian Alternative School(10 years)	male	50s
W	-Christian Alternative School Work Experience (10 years) -No teaching experience in public education	female	50s	H	-Christian Alternative School Work Experience (5 years) -Have experience in public education teachers	female	30s
L	- Specialist in Christian Alternative School	male	40s	M	-Officials of the Federation of Christian Alternative Schools	male	50s

T	- Specialist in Christian Alternative School -University Professor	male	40s	P	-Christian Alternative School Work Experience (10 years) -No teaching experience in public education	male	40s
N	-Christian Alternative School Work Experience (8 years) -Have teaching experience in public education	female	40s	J	-Christian Alternative School Work Experience (10 years) -Have teaching experience in public education	male	40s
Y	-Christian Alternative School Work Experience (4 years) - Working as a teacher at a non-Christian alternative school	male	40s				

2. 분석 결과

1) 기독교대안학교 교사의 역량에 대한 진단과 판단 근거

기독교대안학교 교사의 역량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공교육에 비해서 기독교사의 역량이 향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과 현실적으로 좋지 못한 환경에 의해 초기에 비해 떨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함께 제기되었다.

가. 높은 수준으로 성장할 가능성 : 공교육에 비해 교사의 성장을 자극하는 환경

H교사, N교사, S교장은 비교적 기독교대안학교 교사들의 역량에 대해서 높게 평가한다. 대체적으로 기독교대안학교 교사의 역량은 공교육에 비해서 입직 단계에서는 낮을 수는 있어도 들어오게 되면 오히려 높아지거나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고 말한다. 교사 개인과 학교마다 역량의 편차는 발생할 수는 있다고 보면서도, 공교육에 비해서 부딪히는 경험의 성격이 다르고, 자율성이 보장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교원 개인의 성장 가능성은 높다고 보았다. 공교육처럼 주어진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사용하기보다는 학교 차원에서 자체 개발 내지는 재구성을 하기 때문에 교사들의 전문성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공교육에 비해서 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를 메우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개인 내지는 학교 차원에서 기울일 수밖에 없다. L전문가는 편차의 문제가 있지만 새로운 시도를 하기 때문에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기본적으로 의미와 가치를 따라 대안학교에 참여하고 있다는 전제로, 교원들의 열정과 의지는 높다고 봅니다. 기준이 되는 지점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에 그 역량은 다양합니다, 일상의 현장에서는 교육 과정과 내용을 생산해내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검인정 교과서를 사용하는 학교도 있지만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고 다양한 교재를 함께 참고하거나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서 매일 분투합니다(H교사).

갈수록 입학하는 학생들의 모습들이 초기의 학생들과 달리 다양하고 개성이 있지만 어려움도 많은 학생들이 들어오기에 그에 맞춰 학생들을 대하고 그에 맞는 프로그램이나 생활지도를 구현하면서 공립학교 교사들이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한 시도와 경험으로 성숙해나가는 모습도 있습니다(N교사).

내가 재직하는 학교의 경우 교과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교사용지도서가 없다든가, 공교육처럼 교사직무연수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펼쳐지지 않다든가, 협업할 교사의 부재 등의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교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역량을 갖춰가거나 중견교사로 성장하는 속도가 공교육에 비해 빠르죠. 공교육과 대안교육을 두루 경험한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직 경력 5년차를 비교했을 때 기대학교 교사의 개인 역량은 일반 공교육에 비해 높은 편이라 평가합니다(S교장).

역량은 차이가 큼니다. 어떤 분들은 높은 수준의 역량을 지니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준비가 안 되어 있기도 해요. 기독교대안학교의 시간이 쌓이면 역량은 증가하게 됩니다.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전문성 성장의 폭은 커집니다. 진입의 전문성은 공교육보다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더욱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성장할 수 있죠. 그런 분들 중에는 공교육 연수에서도 강사로 나서기도 합니다. 세월이 지나면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L전문가).

나. 갈수록 떨어짐 : 역량을 갖춘 교사들의 이탈 현상 가속화 & 자기 계발이 없는 우물 안 개구리

N교사와 P교사는 기독교대안학교 교사들의 역량에 대해서 다소 우려를 하였다. N교사는 설립 멤버들도 현실의 벽을 느끼고 기독교대안학교를 떠나는 경향도 있고, 진입 자원 자체가 기독교교육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들어오는 이들이 적다는 점을 지적한다. 공교육도 마찬가지이지만 감당해야할 역량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고, 공교육에 비해서 교사들의 재교육 시스템이 낙후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P교사는 기독교대안학교 교사들이 신분의 안정성까지 버리고 사명감으로 온 교사들

이 적지 않고 전문성이 높은 분들이 적지 않다고 보면서도 학교 안에 매몰되어 있다 보면 ‘우물 안 개구리’가 될 가능성이 크거나 자기 계발이 멈추어진 경우가 있다고 말한다. 특히 기간제 교사를 충원하다보면 기독교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교육에 투입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보았다. M전문가는 대체적으로 전문성은 높는데 영역별 편차가 있다고 본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데 강점이 있지만 수업과 교육 과정에 관한 역량은 다소 떨어진다고 진단하였다. T전문가는 대안학교 교원들의 역량을 한마디로 진단하고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대안교육 1세대의 고민과 가치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특히, 그는 기독교대안학교에 대해서 신앙심과 소명의식에서는 일정한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교육적 대안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교사로서 필요한 기본적인 훈련 없이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졌다. Y교사는 경제적 안전망이 떨어지다 보니, 중견 교사의 이탈이 높고 전문성을 지닌 교사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고, 1인 다교과를 가르치는 구조에서 전문성과 역량이 축적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진단하였다.

제가 경험한 학교가 한군데뿐이고 몇몇 학교는 피상적으로 알고 대부분의 학교의 상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지라 근무한 학교나 만나거나 탐방한 대안학교 교사들의 역량수준에 대해서만 말한다면 초창기에 비해 갈수록 교사들의 역량은 설립 멤버들에 비해 점점 부족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초기에는 기독교 대안교육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공립학교에 근무했거나 다른 곳에서 기독교 교육에 대한 철학과 경험을 가지고 학교를 설립하고 서로 공부하고 토론하며 기초를 세우는 작업을 했기에 역량이 뛰어난 교사들이 많이 있었으나 점점 현실의 벽에 부딪치고 비전과 이상의 불일치, 소진 등으로 학교를 떠나는 교사들이 생기고 새로운 교사들이 영입되면서 기독교교육에 대한 큰 비전이나 꿈보다는 공립교사 임용고시에 떨어지거나 학원 강사들이 지원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N교사).

현재 근무하는 학교의 경우, 학교 설립초기에 불모지와 같은 상황임에도 공립학교에 계시다가 대안교육의 뜻을 품고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교육공무원의 혜택이나 경제적인 안정을 포기하고 오신 만큼 그 사명감과 교사로서의 전문성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연수가 늘어나면서 교사교육이나 연수가 개별 학교 안에서만 진행되어 우물 안 개구리가 되는 경우가 있고, 중견교사들의 경우 가정의 육아, 과도한 업무 등으로 수업도 버거운 상황도 발생하면서, 자기 계발이 멈춰 있는 경우도 발생합니다(P교사).

대부분 좋은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지만, 어느 한 쪽으로 편중된 측면이 많습니다. 보편적인 수업역량이나 교육과정을 기획하거나 실행하는 일반적인 영역은 경험의 미숙이 있는 듯 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적용하는 역량은 매우 우수한 것 같습니다(M전문가).

기독교대안학교들의 경우는 더 복잡해보입니다. 앞서의 1-3세대 문제에 더해서 신앙심과 소명의식, 실천력까지 담보하고 있는가의 문제까지 살피자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기독교대안학교 교사들이 신앙심과 소명의식의 측면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을 갖추고 있으나 ‘교육적 대안성’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즉, 교육적으로는 일반 교육/사범대 수준의 체제교육으로 길러졌거나 심지어는 그 정도의 교사 훈련마저도 없이 보습학원 강사 채용되듯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T전문가).

경제적 안전망이 없다보니 갈등요인에 약할 수밖에 없고, 갈등을 관리하는 기술도 리더들에게 부족함을 발견하게 되면 이탈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이탈이 되는 것은 어느 정도 그 학교에서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 이지요. 학교에서는 경험치를 잃게 되고 다시 신규 채용하는 무한루프를 반복하는 양상이 지속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들이 첫 시작한 리더그룹과 신규 채용된 신입교사들이 대부분이고 학교의 실무와 가치를 이어갈 중간그룹이 실종, 그리고 이것이 지속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런 환경은 대안학교 교사들의 역량이 ‘축적’해 나갈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내포한다고 생각됩니다(Y교사).

2) 필요한 전문성과 자질

기독교대안학교 교사에게 필요한 전문성과 자질은 무엇일까?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참여자들은 다양한 내용을 제시하였는데, 상위범주로 묶으면 다음과 같다.

가. 기독교 세계관에 바탕을 둔 교과통합능력

S교장, J교감, N교사, P교사는 기독교세계관을 기본으로 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수업, 방법 등에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기독교 세계관 자체에 대한 학습을 넘어 그것이 교육과정과 수업 등으로 투영되고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강조하였다.

기대학교 교사에게 필요한 전문성 중 가장 우선하고 중요한 것은 기독교세계관과 교과를 통합하는 능력입니다. 이는 대개의 기대학교가 ‘기독교세계관을 통하여 기독교교육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교사가 단지 자신이 가르치는 교과에 기독교를 덧칠하거나 개인적인 신앙심을 발휘하는 곳이 아니죠. 따라서 기독교세계관에 따라 교과내용을 재구성하고 질문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이 맡은 수업을 스스로 디자인 할 수 있어야 합니다(S교장).

성경적 세계관에 근거한 교과 분석과 해석과 재구성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교과전문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교수법입니다. 내용에 따른 다양한 교수법 구현이 필요하고, 교수법에 대한 기독교적 고찰이 필요합니다(J교감)

기독교 가치인 사랑과 평화를 교육적 실천으로 구현해내고, 그 결과 길러지는 다음 세대들 역시 기독교 가치를 펼쳐낼 줄 아는 존재로 길러내야 합니다. 만약 학교와 교사들이 이에 동의한다면 우선 필요한 전문성과 자질은 교육에 대한 이해와 철학정립일겁니다. 물론 기독교적 가치와 영성에 기반을 둔 것이어야 하겠지요(T전문가).

나. 변혁적 가치

J교감은 공적가치를 고려한 변혁적 가치 역시 중요한 영역이라고 강조한다. 공공성이라든지 운동성, 영향력, 시대정신 등을 J교감은 강조하였다. T전문가는 교육을 통해서 사회를 견인할 수 있는 확장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공공성입니다. 대외적으로 공교육에서의 영향력, 지역사회 교육 및 교육단체(기학연, 기대연, 좋은교사운동, 사각세, 행수만 등)와의 연대와 운동이 필요합니다. 공교육과 여러 기독교학교와 대안학교에 대한 영향력을 키워가야 합니다. 기독교육, 미래교육, 남북통합교육, 대안교육 등에 대한 전망하는 능력과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시대정신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각 전문성은 교사에서 교육자로의 성장단계에 따라 그 전문성과 자질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J교감).

‘엘리트주의’와 ‘세속주의’에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사회적 역할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기독교적 응답이 철학적으로 분명하게 세워져 있어야 할 겁니다(T전문가).

다. 영성과 인성, 소명의식

S교장은 영성과 인성, 실력의 통합을, L전문가는 영성과 소명의식을, J교감은 소명과 헌신을 강조한다. 이들은 학생들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하면서 영성과 인성과 전문성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학생들을 신앙으로 돌볼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교사 스스로 신앙이 바로 서야 하며, 동시에 학교 철학과 가치의 내면화라든지 기독교육에 대한 소명과 헌신이 중요하다. 신앙인으로서의 기본 토대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기대학교 교사에게 필요한 자질로는, 학생들을 사랑으로 한없이 바라보며 늘 배우려는 태도를 지녀야 하며 무엇보다 영성과 인성과 실력이 통합된 교사로 다음세대를 향한 긍휼과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교육보다 스킨십의 밀도가 높으며 학부모의 기대치 또한 높고 기독교사로서의 책무성이 그만큼 강하게 요구되기 때문입니다(S교장)

영성입니다. 소명(부름)을 포함합니다. 신앙적으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지요. 목양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영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L전문가).

기독교교육으로의 소명(부름)과 헌신의 태도가 중요하지요. 동시에 학교의 철학과 가치에 대한 내면화가 필요합니다(J교감)

라. 교육과정 전문성

J교감은 교육과정 재구성능력을 강조한다. 이때의 전문성은 주로 교육과정 전문성을 의미하는데 일반 교사에게 필요한 전문성과 함께 기독교 정체성에 맞는 전문성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독교세계관에 의한 교과 해석 능력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 L전문가는 기독교적 교과 해석 능력은 학부에서 갖추어서 들어가기는 어렵고, 기독교대한학교에 들어와서 길러야 할 역량으로 바라보았다.

교과단위, 통합교과, 학년단위, 학교단위에서의 교육과정 재구성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J교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보다 높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과정의 차별성이 기독교대한학교의 정체성과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또 기독교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만 이것은 기독교대한학교 뿐이 아닌 기독교 교사들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자질이기도 합니다(H교사).

교육과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대안적인 방향으로 재구성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역량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교육을 넓게 보면서도 아동을 이해하는 데에 깊은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M교사).

전문성은 교사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전문성도 있지만, 기독교적 교과해석 능력이 중요합니다. 기독교세계관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갖추어서 들어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사전에 그런 것을 배울 수 있으면 좋지만 내부적으로 길러야 합니다. 그런 학교도 있고, 선배들로부터 배우는... 아예 배우지 않는 학교들도 있죠(L전문가).

이때 '전문성'이란 공공교육에서의 전문성이나 사교육시장에서의 전문성과 분명히 다르다고 봅니다. 즉, '대안'을 내놓을만한 전문성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겠지요. 기독교대한학교와 그 교사들이 기존의 교육적 질서에 매우 순응적으로 대응하여 '착한 범생이'들을 길러내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 그 성찰의 결과로 내놓을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일지, 그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전문성과 자질은 어떻게 갖춰질 수 있을지 잘 살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T전문가).

전문직관에 비춰본다면 위의 동기를 바탕으로 한 담당 교과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수업 기획 역량과 학생과의 관계가 중요하죠.(Y교사).

마. 대인관계 능력

교육은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학생과 학생, 교사와 학생, 학부모와 교사, 교사와 교사, 교사와 지역, 교사와 교회, 교사와 단체 등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학교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와 지역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나를 신념을 가지고 기독교대안학교를 선택한 만큼, 주체 간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잘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H교사, N교사, P교사는 이러한 소통과 관계, 네트워크 등을 강조한다. 이들의 주장을 정리해보면, 교사와 학교의 고립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일반학교보다는 학생과의 관계, 부모(가정)와 관계가 가까운 편이기에 소신 있는 부드러운 소통이 실제적으로 요구됩니다(H교사).

서로 다른 신앙관을 가진 교사들이나 학생, 학부모들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다름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기독교성을 생각할 때 학교의 기원이 다르기에 교사들도 다르지만 제가 근무했던 학교는 초교파라 다양한 교파와 선교단체의 경험을 가진 교사들이 섞여있습니다. 그에 대한 다름이 교육을 풍성하게도 만들었지만 혼란을 주었던 경우도 많습니다. 서로 상호신뢰하면서 모두가 함께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합의의 과정을 거치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능력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N교사).

관계능력입니다. 아이들을 대하는 관계능력, 학부모를 대하는 능력, 교사와 서로 소통하는 사회적 영역이죠. 외골수 기질로는 한계가 있어요. 다른 사람과 잘 지내야 합니다. 기독교 대안학교는 신념을 가진 분들이 많아서 부모도, 교사도 서로 충돌할 수 있어요. 기독교적 재구성을 하려면, 재구성하는 연구에서 느끼는 벽은 교사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생각보다 없다는 거예요. 신앙을 오래했어도 신학적 이해, 성경 이해가 부족하고, 해석이 빈약해집니다(L전문가).

꾸준히 성장하고 성찰할 수 있는 외부 네트워크 능력이라고 봅니다(P교사).

3) 현장 적응의 난점 요소

가. 교사 개인 차원 : 경제적 어려움, 성장하기 힘든 구조, 갈등 발생, 전문성 부족, 소진 현상

기독교대안교사들이 경험하는 현장 적응의 어려움은 크게 교사 개인과 학교 차원의 문제로 나누어볼 수 있다. 교사 차원에서는 경제적 어려움, 성장하기 힘든 구조, 갈등 발생, 전문성 부족으로 압축이 된다. 학교 차원에서는 학교의 비전과 방향의 모호성 내지는 합의 부족, 교회의 지나친 간섭, 학부모의 간섭, 재정 지원 부족, 역사적 안목 및 중장기적 전망의 부족으로 압축된다. 교사 개인이 직면한 어려움은 공교육에 비해 충분하지 않은 급여체계이고 결국 열정페이에 의존하는 구조인데, 학교에 집중하기 힘들게 만들고,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게 만든다(H교장, N교사).

교사 개인에게는 감수해야 하는 열정페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최저임금, 또는 그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급여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교사들이 많으며, 이는 지속적이고 연계된 학교 운영에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H교사).

두 번째는 규모가 작은 학교가 많아서 당장 주어진 일을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이라든지 바쁜 현실에서 성장을 위한 축적의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한다(S교장, M전문가).

주어진 요구가 많고, 현장에 접하는 많은 업무들로 인하여 너무 분주합니다. 사실은 교사로 완성되어 현장에 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서 계속적인 성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교사들이 대안교육현장에서 성장하지 못하는 현실이 있습니다(M전문가).

세 번째는 교육과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들과의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발생이다. 갈등의 대상은 학부모, 교회, 학교장, 이사장, 교사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Y교사는 소통과 협업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역량과 경험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대안학교에서는 교원들 간의 협업과 소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일반 학교가 갖추고 있는 공적 체계와 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소통하면서 메꿔야하고, 대안학교라는 태생 자체가 관료제적 학교에 대한 대안이기 때문에 함께 소통을 통해 수업에 대해 함께 성찰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대안학교의 교사들도 민주적인 소통과 협업 자체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지향해도 해낼 수 없을 때 오는 한계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단위 학교당 교원 수가 일반 학교에 비해 적고 개별 업무량은 많아 그 협업과 소통은 더욱 어려워집니다(Y교사).

네 번째는 전문성의 부족이다.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이 찾아오는데 이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전문성을 부족하다는 개인적 한계를 느끼는데, 전문성을 배울만한 기관과의 연계가 미흡하며(J교감), 변화하는 아이들의 특성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N교사)이다.

전문성을 배울 수 있는 선배교사들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기독교대안학교에서는 경계성 장애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이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안들을 해결해야하는데 관련 전문성이 없다고 느낄 때 개인적 한계를 느낍니다. 실제적인 전문성을 배울 수 있는 기관과의 연계가 부족합니다. (J교감).

다섯째는 피로감의 누적과 소진 현상의 경험이다. 기독교대안학교에서는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 피로감이 형성되며(J교감), 기숙형 학교의 경우, 그 어려움이 더욱 가중된다(N교사).

기독교대안학교 중에서도 기숙형학교에 근무했던지라 학교와 가정이 분리되지 않은 것이 교원들의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였습니다. 이는 교사의 업무소홀과 소진을 불러오는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N교사).

나. 학교 차원: 학교의 비전과 방향 부재, 교회의 비전문가적 관여

학교 차원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우선 학교의 비전과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면서 나타난 갈등이다. 입시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가 커지면서 수월성 교육으로 방향을 돌리는 사례가 발생하며(S교장), 철학과 방향에 대한 비전 공유가 구성원 사이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갈등과 논쟁이 발생하며(H교사), 대안학교의 원리에 부합되지 않은 가치의 추구하는 일부 사례(N교사)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교회가 지원하는 기독교대안학교의 경우, 교회 내에서 기대학교에 대한 비전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거나 서로 다른 철학과 가치로 인해 겪는 오해나 반감 때문에 때때로 교사들이 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실제로 기독교대안학교를 백업하는 많은 교회의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교육에 대한 생각이 일반 학부모가 지닌 입시 중심의 교육과 별반 다르지 않거나 때로는 번영주의 신학에 영향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명목으로 수월성교육에만 더 집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S교장).

두 번째로는 교회의 비전문가적 관여이다. 교회의 리더십이 학교를 수평적 소통 구조가 아닌 수직적 명령 구조로 인식할 때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기독교를 바라보는 교회의 시선에 대한 우려

를 읽을 수 있다(S교장). H교사 역시 수평적이고 평등한 구조가 형성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문제, 즉 교회에 지나치게 종속되면서 전문가로서의 공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내면의 갈등을 토로 하였다(H교사). 그 외에 학부모의 요구에 의해서 학교의 일관성이 흔들리는 경우라든지(N교사), 재정적인 어려움(H교사), 역사적 안목과 중장기적 전망이 부재한 상황을 우려하였다(M전문가).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주로 교회가 지원해주는 학교에서 일어난다. 독립적인 운영을 약속했음에도 신앙정서나 교리를 빌미삼아 교회리더십이 관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교목을 교회에 소속된 목사로 일방적으로 임명하면서 학교조직의 질서나 체계가 복잡해지는 것이나, 학부모가 기대학교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교회학교(Sunday School)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우 교회의 조직체계와 혼동하고 교회 문화 안에 익숙해진 관습으로 학교를 바라보는데 있다. 그래서 교사를 교회의 직원이나 부교역자 째로 바라보죠(S교장).

수직적 체계와 수평적 체계가 혼재된 곳이 많습니다. 그것은 대안학교 주체자들의 세대교체와도 연결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직을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운영한다면 수직적인 체계가 안정성을 높이겠지만, 대안적인 조직 또한 대안교육에서 먼저 교사들이 보이고, 경험해야 할 선결과제라고 생각한다면 수평적이고 평등한 주체자들의 연합이 그 과제라고 봅니다(H교사).

4) 교·사대 교육과정과 공교육 교사 경험이 기독교대안학교 교사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도

가. 긍정적 측면: 기본기 구축

교·사대 교육과정과 공교육 교사 경험이 기독교대안학교 교사의 삶에 도움이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해서 연구참여자들은 대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말한다. 도움이 되는 측면에서는 행정업무나 학생활지도의 경험이며(S교장), H교사는 교·사대 교육과정을 통해서 교육과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도움이 되었고, 혁신학교 근무 경험을 가졌는데, 공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고 말한다. N교사는 공교육 경험이 기독교대안학교 교사로 살아가는데 밑거름이 되었다고 말한다. M전문가는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며, L전문가는 교육학적 지식과 학생을 다루는 기본적 테크닉을 익히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P교사는 자신의 학교에서 국가 교육과정을 일정부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 차원에서 도움이 되며,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Y교사는 초기 대안학교를 만들 때 교육에 관한 기본적 지식도 모르는 구성원들이 많았다고 보면서 사범대학의 경험이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물론 행정적인 업무나 학생생활지도 등에서는 공교육의 경험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국가교육과정에 대

한 문제의식이 있는 교사의 경우 수업을 혁신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교육현장을 실제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S교장).

일반학교든 대한학교든 교사의 다양한 경험은 언제나 도움이 됩니다. 사범대 교육과정 중 배우고 실제 도움이 되었던 것들은 아동발달에 대한 이해, 교육철학과 교육심리학을 통해 배운 인간에 대해 이해하는 시각, 교육사회학을 통해 교육과 연결된 사회구조의 모습 등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인간에 대한 이해를 도운 분야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타 다른 과정들은 현장에서는 이미 과거의 소산이었습니다. 공교육의 경험은 학생들을 경험하고, 교사의 자리와 학생의 자리라는 경계를 알아가고 조직이라는 사회적 시스템을 알아가는 경험으로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교육의 맥점, 변화의 필요성, 대한민국 교육의 방향성, 문제의식 등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교육계 전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시각은 공교육을 경험해서 얻은 소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H교사).

공교육의 경험은 학교가 세워진 이래 만들어지고 변화되어온 여러 가지 틀이 기본적으로 교사가 갖추어야 할 소양이나 학교가 세워지고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경험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것의 중요성을 대한학교에 가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공교육에서 많은 연수와 공동체 모임을 통해 배움과 성장을 경험해 전문성을 갖추었기에 그것이 대한학교에서 내가 원하는 기독교교육을 펼쳐나가는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N교사)

나. 부정적 측면 : 공교육 경험에 갇히기

반면, 도움이 되지 않는 측면에 대해서는 공교육의 경험과 신념이 자칫 대한학교에 들어와서는 동료교사와의 갈등으로 이어지거나 자신만의 경험에 갇힐 수 있다고 말한다. 대한학교의 문법과 공교육의 문법에 일정한 차이가 있는데, 지나치게 공교육 경험을 앞세우는 경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S교장, N교사, L전문가, P교사). Y교사는 사범대학에서 배운 경험 체계가 도움이 되지만, 자칫 사고의 경직성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말한다. W교감은 기존의 교·사대 교육과정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취한다. 지식적인 측면 외에는 전문성과 역량성장에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말한다.

대안을 세워나가야 하는 학교에서 기존 공교육에 젖어있는 사고와 업무의 틀을 벗어버리는 것이 쉽지 않아서 자유분방하고 기준 없이 상황에 맞춰 움직이는 학교 상황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다(N교사).

공교육의 경직화된 문화나 가치관은 대한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교육의 경험만으로는 대한학교 교원으로서 서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공교육과 구분되는 대한교육에 대한 철학이 분명히 있

어야 합니다(P교사).

교·사대 교육과정은, 지식적인 측면 외에는 전문성과 역량성장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W교감).

5) 기독교대안학교 교원양성 방식

기독교대안학교의 교원양성방식은 어떠해야하는가? 연구 참여자들은 기존의 교·사대 체제에서 대안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대안으로 보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교·사대에서 대안학교 교육과정을 만들기도 어렵고, 제도권 내에서 기독교대안학교 교원양성과정을 운영했을 때에 그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교원양성과정에서도 대안교육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교과목 개설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H교사). 최근 공교육에서도 대안학교를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경향이 있고, 학교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을 요구하는 시점에서 교·사대 내에서 예비교원들이 대안교육을 배우거나, 참관이나 교생실습을 대안학교로 나가보는 방식은 검토할만 하다.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대안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잘 알지 못하는 실정이기에 대안학교의 실제 모습에 대해 설명하고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은 만들어져도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오히려 교원양성과정에서 대안교육도 포함해 가르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H교사).

M전문가는 기독교사의 성장을 위한 과정은 필요하지만 현행 교육대학원 방식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행 교육대학원은 예비교육을 길러내는 과정인지 현직교원을 위한 재교육기관인지 모호한 면이 있으며, 일반대학원처럼 연구역량을 길러내는 것도 아니고, 현장에 필요한 실행 지식을 제대로 배운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한계를 M전문가는 지적하였다.

현행 교사양성의 장점과 단점은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장점은 전문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단점은 현재 대안학교가 필요로 하는 전문성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교사연수를 위한 과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연수과정이 기존의 교육대학원의 스타일이라면, 별로 필요 없다고 보입니다(M전문가).

P교사는 기독교대안학교에서는 교원자격증이 중요하지는 않다고 보고, 교원자격증을 지닌 이들과 없는 이들 간 입직 기회를 동등하게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현직교사의 전문성을 만들기 위한 체계적인 과정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원칙적으로 지원의 기회는 균등하게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즉 꼭 자격증이 있어야만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사대를 나오지 않았어도 대안교사로서의 뜻이 분명하다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해 교사로서의 준비성은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인증 프로그램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대 전체의 교육과정은 아닐지라도, 교사로서 기본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2~3년 정도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필요하고 교수의 전문성도 잘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교사).

S교장은 해외사례를 언급하면서 기독교 대한학교 교사를 위한 별도의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다만, 기존의 4년제 대학 방식보다는 별도의 대학원 과정을 만들거나 기존의 대학원 체제 내에서 별도의 과정을 만들어 체계화하자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결론부터 말하면, 당연히 별도의 프로그램과 과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덴마크 자유학교교원양성대학원이 나 독일의 발도르프학교교육대학원과 같이 기독교 학교 교사를 위한 별도의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대한학교교사양성을 위한 대학원대학교를 별도로 설립하거나 교육대학원 내 대한학교 교사를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을 개설해 추가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복수전공과정을 두어 기독교 교사자격을 부여하는 방법은 어떨까요(S교장)

L전문가는 초등과 중등 현실이 다르다고 보았다. 중등은 교원자격증을 가진 이들이 많이 기독교 대학에 유입되고 있는데, 초등은 현실적으로 초등교원자격증을 가진 이들이 매우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면서 일종의 보수교육 방식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신학대학교 내에 별도의 과정을 만들거나, 대안교사를 위한 대학원 과정의 신설 내지는 기독교대한학교를 지원하는 연맹과 연구소 등이 연합하여 별도의 연수과정을 만드는 방안까지 열어놓고 제시하였다.

중등은 사대 출신을 뽑아서, 기독교대안프로그램을 교육시키면 됩니다. 초등은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 서울장신대에서 신학과 to중에서 초등대안교육과정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 초등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지요. 초등 대안교육전공은 필요합니다. 대학설립은 현실적이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연수원을 만들어서 가야 합니다. 최근에 관련 단체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L전문가).

IV. 방향 검토

1) 교원양성과정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는 대안학교 교사를 제도권에서 별도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항목에 57.1%가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제도화 및 체계화에 대한 요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제도화로서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은 대안교사 자격증 신설이다. 대안교사자격증을 신설하려면, 교원자격검정령 19조에 전문상담교사와 영양교사 자격증을 별도 조항으로 신설한 것처럼 대안교육 항목을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¹⁾ 20조에는 1항에는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장이 자격증의 취득을 위한 교직과정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항에는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장 또는 시도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직과정 외에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연수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 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바탕으로 교육대학 또는 사범대학, 교육대학원에서는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교직과목 22학점을 규정하고 있다.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는 교원자격증의 표시과목을 규정하고 있다. 동 시행규칙 별표에는 교사자격증 표시과목을 제시하고 있는데, 전문상담교사 내지는 영양교육과정을 참고하여 별도의 대안교육교사 과정을 만들 수 있다. 이를 기준으로 본다면 기존의 교육대학 또는 사범대학에 1) 대안교육 자격증 과정을 개설하는 방안 2) 교육대학원에 별도 전공을 개설하는 방안 3) 전문상담교사 또는 영양교사와 같은 대안학교 교사과정을 비교과 방식으로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그러나 설문분석과 면담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공교육 교원을 기르는 양성 내지는 자격 체계에서 대안교육자격증 과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요구라기보다는 기독교 대안학교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가 더욱 컸다. 본 연구의 설문과 면담에서는 대안학교 연맹체(연구소) 차원에서 자체 공동 운영을 선호하였다. 대안교사 자격과정을 현행 교사대에 신설한다고 해도 실익은 크지 않아 보인다. 공교육 임용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안교원자격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대안교육이 완전 법제화되었을 때는 핵심적으로 가르쳐야 할 공통과정을 제외하고는 특성화 전공 내지는 산학점임교사 등을 활성화하거나 별도의 인정요건을 제시한다면 교원자격증 소지하지 않은 교사들을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고교학점제 도입을 기반으로 자격증이 없어도 특정분야의 전문가가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 보장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만큼, 대

1) 교원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교원자격검정령에 명시되어 있다. 제19조에는 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대학 또는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교사양성 특별과정을 이수한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19조에는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영양교육과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안교육의 유연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기존의 교·사대 교육과정을 염두에 두고 대안 교육 교사자격증 신설은 현실 가능성도 낮고 실익도 크지 않다. 설문조사와 면담 결과에서 다수의 의견으로 제시된 것처럼, 대안교육 연합회 차원에서 민간 자격증 구축 방안을 검토하거나, 연합회 내지는 학교 차원에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지원 자격을 부여하거나, 면접에서 이를 참고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하지만 대안교육에 대해서 공교육 주체들도 이해를 같이 할 필요가 있고 예비교원의 진로의 다변화라든지 대안교육 발전 차원에서 대안교육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교과목을 교·사대 내에 개설을 할 필요가 있다. 인가형 대한학교의 경우, 교생 실습교로 적극 홍보하고 흡수함으로써 대안교육에 뜻을 지닌 예비 교원들의 이해를 넓힐 필요가 있다. 추후 교·사대 교육과정의 개편 과정에서 대안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과목 개설을 교육부나 교·사대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

기독교대한학교 교원선발방식은 현행처럼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기준으로 선발하되, 대안교육 아카데미 이수자를 포함하여 인력 풀을 넓혀서 학교 별로 선발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별학교 차원에서 예비교원을 위한 아카데미 과정을 이수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대한학교 관련 연맹이나 연합회, 연구소 차원에서 공동으로 기획하여 주기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대안교육 아카데미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되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이원화하여 심화과정에서 실습을 일정 기간 겸하는 방식도 검토할 만하다. 기독교대한학교 연맹 내지는 학교 차원에서 과정 이수에 대한 인증을 하거나, 채용 시 이수자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이수 여부를 지원 자격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인다. 요약하면, 기독교대한학교 교원에 대한 체계적 양성과정 요구가 있으나 기존의 교사대 교육과정을 통해서 별도의 대안교사 자격증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기독교대한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독교대한학교 연맹의 체계적 프로그램 운영이 현실적으로 보인다. 다만, 현직 기독교대한학교 교사들이 관련 대학원에서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전공과 과정은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

2) 현직 교원

가. 학습공동체

설문조사 결과, 대한학교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돕는 재교육 시스템이 충분하다는 의견은 15.7%에 불과하였다. 면담 결과에서도 기독교대한학교 교사들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나타났고, 기존 교사대 교육과정에서 가르치지 않는, 기독교대한학교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역량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별도의 기독교대한학교 교원 양성을 위한 자격과정이 없다고 해도, 현직교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경로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방식은 단위학교의 교사학습공동체 활성화이다. 기독교대한학교는 명실상부한 학습조직으로 변모해야 한다. 정기적인 시

간을 확보하면서, 기독교세계관, 교육과정-수업-평가, 생활지도 및 학급운영 등에 관해서 학교 구성원들의 꾸준하게 학습을 하는 과정은 교사 개인과 기독교대한학교 조직에서 역량 확보를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정이 아닐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한 의미 공유가 필요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구성원들의 동기 부여, 학교장의 관심과 지원이 필수적이다.

공교육에서는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시작한 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교 자체 활동을 연수학점으로 인정하는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고,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학습공동체의 핵심은 수업의 개방과 나눔, 피드백, 개선의 순순한 구조의 형성이다. 수업을 사유지가 아닌 공유지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에서 교실 수업은 개선된다. 무엇보다 학교 구성원 스스로 학습공동체 과정을 기획하고 운영한다. 자발적 참여, 학습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한 의미 공유, 지속적인 시간 확보, 적절한 학습 전략, 학교 차원의 지원이 어우러질 때 진정한 학습공동체는 작동할 수 있다. 하지만, 학습공동체 역시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측면이 있다. 교원 규모와 예산, 정보 등이 결합될 때 학습공동체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단위학교 중심의 폐쇄적 학습공동체가 지니는 한계도 있다. 학습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의 부재, 전문성을 지닌 교사의 부족, 학습공동체에 관한 노하우, 학습공동체를 우선시하지 않는 학교의 방향성, 학교의 지원 부족 등이 결합되면 단위학교에서 교사들이 성장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습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교회 내지는 학교 리더들이 인지할 필요가 있다. 개별학교 차원의 학습공동체를 넘어선 기독교대한학교 교사들의 학교 밖 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교사와 학교간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최근 공교육에서는 교사간, 학습공동체간, 학교간 네트워크를 중시하고 있다. 공교육에는 교육청이 네트워크를 묶어내는 경향이 있는데, 기독교대한학교는 연구소나 연맹 또는 자발적 교원 학습공동체가 주도할 수밖에 없다. 기독교대한학교 교사들의 생애주기를 연구하여 저 경력-중경력-고경력자를 중심으로 당면한 어려움과 과제는 무엇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전략과 방안에 대해서 경력 교사들이 신입교사에게 전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학습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연맹이나 연구소 차원에서 혹은 연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동시에, 대한학교 교사들의 학습공동체 참여 활성화가 필요하다. 기독교대한학교 내에 형성된 학습공동체, 학교 밖 학습공동체, 공교육 교사들과 함께 참여하는 학습공동체의 결합이 필요하다. 기독교대한학교 교사들이 학교 안팎의 학습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흐름과 문화를 조성해야 하며, 이에 대한 의미공유와 공감도 필요하다. 공립학교에서는 연구년 교사제를 부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재정의 여유가 있는 기독교대한학교 차원에서, 연맹 차원에서 기금을 조성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개인단위의 연구를 넘어 개인과 학교의 실천을 정리할 수 있는 미션을 제시하고, 그 결과물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나) 대학원

기독교대한학교 교사를 위한 대학원 과정에 대한 수요는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다(P교사, S교장, L전문가). 현실적으로는 기존의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나 한동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대안교육관련 교과목을 추가 개설하고, 수요가 많은 경우 별도의 기독교대안교육 전공과정을 개설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장신대 교육대학원의 경우, 기독교교육개론, 성서교육방법 등이 개설되어 있으며 한동대 교육대학원의 경우, 성서 이해 및 해석학, 기독교세계관의 이해, 소명과 기독교 사론,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교육대학원은 기독교세계관과 교육, 기독교학교 교육과정 이론, 기독교학교 교육과정 운영 실제, 기독교학교 경영 및 행정, 기독교적 학급운영 등의 교과목을 현재 개설 운영하고 있다. 기독교대한학교 교사들이 교육자로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과정과 기독교대한학교의 상황과 맥락에 맞는 특화된 과정으로 이원화하되, 선택과정의 폭을 넓힌다면 기존의 과정에서도 기독교대한학교 교사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교과목을 제공하거나, 별도의 전공과정을 충분히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교과목을 개설해도, 이에 대한 실천력과 전문성이 결합된 교수진이 없으면 편제와 내용 간 간극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안학교에서 실천 경험을 가진 교수진의 채용을 확대하고, 현장경험이 풍부한 교원을 겸임교수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기독교대한학교와 연계한 실습 내지는 실행 연구과정의 강화 등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과 함께 모색해볼 수 있는 과정은 계약학과 방식이다. 2003년 이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과 대학이 계약을 맺고,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대학원도 최근 정원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다. 계약학과 방식은 아니어도, 서울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은 각 대학과 mou를 맺고, 혁신전공과정을 교육대학원의 일부 전공으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최근 들어 교육대학원의 경우, 정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현상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공에 대한 신설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흐름을 잘 활용한다면 기독교대한학교 교사들의 성장을 위한 전공 개설이나 교과목 개설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기독교대한학교연맹이나 기독교교육연구소 차원에서 특정대학과 협약을 맺고 협력교육과정을 운영할 수도 있다. 처음에는 비학위과정으로 출발을 하다가 프로그램을 검증하면서 발전시키면 학위과정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다. 기독교대한학교에서 일정 기간 연구년 교사 제도를 적용하고, 이들을 위한 대학원 과정을 일부 적용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학비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본인 분담과 교회, 연맹, 학교 차원의 분담을 통해 사람을 키우는 체계적 전략 단위로 대학원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향후 교육감 공약 과정에서 인가형 뿐만 아니라 미인가형 대안학교 교사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적극 요구할 필요가 있는데, 학습공동체 활성화 예산이라든지 각종 직무연수 참여권, 파견 및 연구년제(인가형)의 지원대상 확대 등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법률 내지는 지원조례 등의 근거가 있다면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 범위

와 영역의 확장을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 대학원과 상관없이 연맹과 연구소 등이 연합하여 일종의 대안대학원 과정을 시도하면서, 비학위과정으로 출발하고, 이후 성과를 바탕으로 특정 대학의 대학원과 공동운영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설문분석 결과를 보면, 교직이수나 교원양성기관을 거쳐서 교육에 관한 기본 소양과 자격을 거쳐서 기독교대안학교 교사로 임용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 74.9%가 긍정하였다. 동시에 공교육에서 기간제 교사 내지는 정교사 경험을 가지는 것이 대안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68.6%로 나타났다. 대안학교 교사를 별도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57.1%로 나타났다. 이러한 견해는 면담 결과에서도 일정하게 확인을 할 수 있었다. 교·사대를 나왔다는 사실이 기독교대안학교 교사로서 필수요소는 아니겠지만 교육의 기본기를 갖추는 데는 일정하게 도움이 되고, 공교육을 거치게 되면 교육과정이나 학생 생활지도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기독교대안학교 역시 학교이고, 시공간을 초월한 교육의 보편적 요소를 지닌다. 교사에게 필요한 자질과 전문성, 역량에 관한 공통분모가 공교육과 기독교대안학교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교육의 일반학교 교사에게 요구하는 요소와 별도로 기독교대안학교 교사로서 필요한 고유한 특성과 자질 역시 요구된다. 동시에 기독교대안학교와 일반 공교육의 교육철학과 목표, 비전, 문화, 운영양성 등에는 일정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과정을 통해서 학습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는 공교육 경험을 가진 집단들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교원자격증, 교·사대교육과정, 공교육 경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면담 결과, 연구참여자들은 현실적으로 기존의 교·사대 교육과정에서 대안교원 자격증을 취득하는 체제는 쉽지 않고, 있다고 해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면서, 대체적으로 연맹이나 연구소 차원에서 별도의 과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만, 기존의 교·사대 교육과정에서도 예비교원들이 공교육뿐만 아니라 대안교육을 교과목을 이수할 필요는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대안학교 교사자격증이 별도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찬성 의견이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는 43.5%만이 찬성하였다. 대안학교 내지는 대안교육을 예비교사들이 배우고 익히는 과정은 의미가 있지만, 이를 별도의 자격체계로 가져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존재했고, 연구참여자들도 대안교사의 자격증 체계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하지 않았다. 다만, 중등에 비해서 초등의 경우, 현실적으로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자원이 매우 부족한 현실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기본기 내지는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은 필요해 보인다. 대한학교 교원양성과정의 경우, 현행 교직 내지는 교·사대 교육과정에 대한교육을 배울 수 있는 과목을 일부 포함하면 충분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대한학교 연맹체 차원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대한학교 연맹 차원에서 예비교원과 현직교원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그러나 현행 방식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가 있었다.

종합해보면, 기독교대한학교에 엄격한 대안교사 자격증을 요구하는 방식보다는 비교적 개방적인 교원채용과정을 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직 기독교대한학교교사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대학원 체제를 선호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기존의 교육대학원 내에 대한학교 전공과정을 만들거나, 신학대학원 내에 별도의 전공과정을 만들 수도 있다. 설문조사에서는 대체적으로 학교에서 교사를 위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71.3%로 높게 나타났지만, 대한학교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돕는 재교육시스템에 대해서는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2.7%에 그쳤다. 프로그램의 양과 질적인 측면 모두 취약한 상태로 보인다. 교원양성기관 내지는 교원재교육 프로그램의 핵심에는 기독교세계관, 소명의식, 대안교육 철학, 교육과정-수업-평가 전문성, 생활지도 및 상담, 학생이해가 들어가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면담 결과, 기독교대한학교 교사의 역량 진단에 대해서는 공교육에 비해서 자율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의 형성되어 있다고 보았지만, 교사 간 편차가 발생할 수 있고, 공교육보다도 지원시스템이 취약하기 때문에 성장이 머무르거나 역량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기독교 교사들에게 필요한 전문성과 자질은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교과통합능력, 변혁적 가치, 영성과 인성, 소명의식, 교사의 전문성(교육과정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 대인관계 및 네트워크 활용 능력이 제시되었다.

기독교 교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역시 적지 않은데, 교사 개인과 학교 차원으로 나누어볼 때, 교사 개인은 경제적 어려움, 성정하기 어려운 상황, 다양한 갈등의 발생, 전문성 부족, 피로감 누적과 소진 현상으로 나타났다. 학교 차원은 학교의 비전과 방향의 부재, 교회의 비전문적 간섭, 학부모의 간섭, 재정 지원 부족, 리더십 및 역사적 안목의 부재로 나타났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교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과 기독교대한학교의 조직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교·사대교육과정과 공교육교사경험의 유효성은 다소 분분했지만, 교·사대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많았다. 교육의 기본기를 다지는데 도움이 되지만 현장과 임상과 실천이 약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공교육 교사 경험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는 측면과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다. 설문조사에서는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면담에서도 도움의 정도에 대해 지지가 높지 않았다. 공교육에서 굳어진 신념과 방법이 오히려 대한학교의 현장에 맞지 않을 수 있고, 자칫 동료교사들과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기독교대한학교 교원양성방식은 다소 다양한 스펙트럼

의 의견이 개진되었다. 교·사대를 나와야지만 기독교대안학교 교사가 되는 방식에 대해서는 선호하지 않았다. 다만, 기존의 교·사대교육과정에서 대안교육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교과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현직교사를 위한 교사연수과정은 필요하지만 기존의 교육대학원 방식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현실적으로는 기독교대안학교 연맹체에서 연합과정을 만들거나, 별도의 전문대학원을 운영하거나, 기존의 대학원 내 하나의 전공과정을 개설하는 방식으로 방안이 압축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교회와 기독교대안학교의 성찰과 반성을 바탕으로 비전 세우기와 합의, 공유가 필요하다. 기독교대안학교가 양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지만, 두 조직이 협력의 양상을 보이기보다는 관점과 문화, 일하는 방식의 차이에 의해 긴장과 갈등이 때론 나타나기도 한다. 교회의 수직적 구조 하에서 기독교대안학교를 하부조직으로 인식하면서 대안학교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지 못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기독교대안학교 교사들의 정체성과 효능감은 저하될 수 있다. 기독교대안학교를 교회가 왜 세웠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다시 확인하면서 초기 정신에서 이탈한 부분이 무엇이고, 지켜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점검하고, 교회와 학교가 가진 이격 요소가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하면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기독교대안학교가 미래학교를 열어가는 학교로서의 비전과 위상 정립이 필요하다. 학령인구 감소라든지 탈기독교 현상이 강화될수록 기독교대안학교의 전망은 어두워진다. 여기에 공교육에서는 혁신학교를 확산시키면서 대안학교 수요를 흡수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기독교대안학교는 교육과정에 관한 과감한 실험과 함께 공동체성의 가치를 더욱 복원하면서 한명의 학생이 지닌 고유성과 잠재가능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변혁의 가치를 삶에서 구현하는 기독교민을 길러내는 학교의 위상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는 학교로서 그 위상을 정립하고,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기독교대안교사를 양성하고 성장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기독교대안학교의 실천과 경험에 대한 기록과 축적, 공유의 장이 필요하며, 교육과정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학교 안팎 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대안학교 교사의 이탈현상이라든지 소진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교사의 성장 구조가 취약한 점을 면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기독교대안학교 간에서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고 역량 간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역사와 전통이 누적된 기독교대안학교에서 인근의 기독교대안학교를 품으면서 네트워크를 해야 한다. 소위 거점 기독교대안학교를 중심에 세우고, 이 학교를 중심으로 인근의 학교를 견인하면서 기독교대안학교 교사의 성장 모델을 일상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독교세계관을 교육과정에 적용하고 해석하고 실행하는 역량은 입직 이후에 본격적으로 키워야 한다. 이에 관한 기획과 실행과정을 학습공동체를 통해서 체계화해야 한다. 동시에, 기독교대안학교 간 교육과정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최근 공교육에서는 공동교육과정을 통해서 개별학교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교육과정을 인근의 학교

와 공유하고 있다. 대안학교와 대안학교 간 협력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각자의 학교가 지닌 강점 프로그램과 교·강사를 공유하는 모델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인근의 학교와 공유하면서, 필요시 토요일 강좌 등을 열어서 교육과정 네트워크 모형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교사의 성장을 촉진하고 기독교대안학교의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

셋째, 기독교대안학교의 제도화 과정에서 학교에 필요한 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보편적 원리와 기독교대안학교가 지닌 특수성의 원리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 생활지도, 학급운영에 관한 교사가 갖추어야 할 보편적 전문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고, 기존의 교원양성기관이나 대학원과 같은 제도권 양성 체제로는 기독교대안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기 힘들다는 요구도 동시에 나타났다. 이는 기독교대안학교가 지닌 고유의 속성과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로 해석된다. 결국, 기독교대안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화 방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대안학교 교사들이 겪는 개인과 학교 차원의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 기독교대안학교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원에서는 기독교대안학교 교사들이 직면하는 문제를 교육과정으로 흡수하고, 해당분야 경력을 지닌 인사를 교수진으로 활용함으로써 현장성과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기독교대안교육 관련 연구소와 연맹, 연합회 차원에서 공동으로 예비교원 및 교원을 위한 아카데미를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양질의 기독교대안교사를 확보해야 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곽 광(2010). **신앙공동체를 지향하는 기독교 대안학교**.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 [Kwak, K. (2010). *Christian Alternative School Towards a Community of Faith*. Seoul: Yeyoung Communications.]
- 김명자(2014). **기독교대안학교 교사의 교육체험에 대한 질적 연구**. 백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Kim, M. J. (2012). *The Status Analysis and Revitalization Measures of Teacher Training in Korean Christian Alternative School*. Doctoral Dissertation. Baekseok University, Cheonan, Korea]
- 김재립(2004). **기독교대안학교의 교사상에 관한 연구**. 총신대 석사학위논문
- [Kim, J.L.(2004). *The study of a model of teacher in christianity alternative school*. Masters Dissertation. Chongshin University, Seoul, Korea]
- 노상우·고현수·권희숙(2010). 대안학교 학생의 교사만족도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교육문제연구**, 15(1), 191-220.
- [Ro, S. W., Ko, H. S., Kwan, H.S.(2010). A Narrative Inquiry on Alternative School Students' Satisfaction with Teachers. *The Journal of Education Assignment*, 15(1), 191-220.]
- 박상진·이종철(2019). **당신이 기독교대안학교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 서울: BOOKK
- [Park, S. J., & Lee, J. C. (2019). *All that Christian alternative schools: Status of Christian alternative schools every 5 years*(The 3rd survey on Christian alternative schools). Seoul: BOOKK.]
- 박상진·조인진(2011). 한국 기독교대안학교의 유형분류에 대한 연구. **신앙과 학문**, 16(3), 121-145.
- [Park, S.J.,& Cho, I.J.,(2010).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of Christian Alternative Schools in Korea. *Faith & Scholarship*, 16(3), 121-145]
- 배지현 외 2013).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개선을 위한 연구 - 대안학교(학력인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교육부
- [Bae, J.H. et al. (2013).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chool Curriculum Composition and Operation - Focusing on Alternative School (Academic Recognition) Curriculum. the Ministry of Education]
- 조영미(2016). 예비교사들의 대안교육에 대한 인식조사 연구. **교육논총**. 53(1), 1-27
- [Cho, Y.M.(2016). Teachers College Students ' Perception toward the Alternative Educations.

The Journal of Education Studies, 53(1), 1-27]

심대현(2018). **대안교육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법적연구**. 동아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Sim, D.H(2018). *A Legal Study on Problems and Improvement of Alternative Education System. Doctoral Dissertation*. Dong-A University. Pusan, Korea]

이병환(2007). 대안학교 관련 쟁점 분석 - 관련 법령에 대한 대안학교 교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25(4), 535-563

[Lee, B.-H.(2007). A study for the analysis issues in the alternative schools - Goes by survey for ordinances related with alternative schools -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25(4), 535-563]

이종태 외(2005). **대안교육의 영향분석 및 제도화 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Lee, J.T., et al. (2005). A Study on the Impact Analysis and Institutionalization of Alternative Education.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이종우(2012). **한국기독교대안학교의 교사교육 실태분석 및 활성화 방안**. 호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Lee, J.-W, (2012). *The Status Analysis and Revitalization Measures of Teacher Training in Korean Christian Alternative School*. Doctoral Dissertation. Hoseo University. Cheonan, Korea]

이학춘·심대현(2017). 비인가 대안교육 시설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법학연구**, 25(4), 205-229.

[Lee, H.C., Sim, D.H.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Institutional Improvement on the Unauthorized Alternative Educational Facilities. *Legal study*, 25(4), 205-229.]

이현주·배상훈(2018). 대안학교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이 신뢰와 의사소통을 매개로 교사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열린교육연구**, 26(1), 1-29.

[Lee, H. J., Bae, S. H.(2018). The Mediating Role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in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Teachers in the Alternative School: The Influence of Trust and Communication in the Organizations.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26(1), 1-29.]

한병선(2006). 한국의 대안교육 성과와 과제. **한국사지리지리학회지**, 16(1), 61-67.

[Han, B.S(2006). Korea's Alternative Education and Future Tasks. *Korean Society of Photography Geography*, 16(1), 61-67]

황준성·이혜영(2010). 대안학교 관련 법제 정비방안 연구. **교육법학연구**, 22(1), 169-197.

[Hwang, J.S., Lee, H.Y.,(2010). A Study of Law and Legislation on Alternative Schools. *The Journal of Law of Education*. 22(1), 169~197.]

DiMaggio, P., & Powell, W. W. (1983). The iron cage revisited: Collective rationality and institutional isomorphism in organizational field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8(2), 147-160.

Streeck, W., & Thelen, K. A. (2005). *Beyond Continuity: Institutional Change in Advanced Political Economi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기독교대안학교 교사 양성과 재교육 시스템의 변화 방향*

Direction of Teacher Training and Re-education System in Christian Alternative School

김 성 천 (한국교원대학교)

논문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기독교대안학교 교사의 양성과 재교육 시스템의 변화 방향을 탐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27개교 331명의 기독교대안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기독교대안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거나 근무 경험을 지닌 8인 교원과 관련 분야 3인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설문 분석결과, 대안학교 교사가 되기 위한 양성과정의 체계화에 관한 요구가 있었으나 기존의 교·사대에 의해서 길러지는 방식보다는 기독교대안교육 관련 연합회가 주관하는 방식을 선호하였다. 한편, 교·사대와 같은 교원양성과정과 공교육 교사 경험이 대안학교 교사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공교육 근무경험을 지닌 집단들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자격증, 교원양성과정, 공교육 경험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 평가를 하였다. 이는 기독교대안학교는 공교육과 다른 문화와 체제가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교원양성과정 및 교육 재교육 프로그램에서는 기독교세계관과 소명의식, 교육과정-수업-평가 전문성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면담 분석결과, 기독교대안학교는 공교육에 비해서 교사의 성장을 자극하는 환경이 존재하는 의견과 열악한 조건에 의해서 우수 인력이 유출되어 성장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견해가 동시에 제기되었다. 면담자들은 기독교대안학교 교사에게 필요한 전문성과 자질로서 기독교 세계관을 통합한 교과통합능력, 변혁성, 영성과 인식, 소명의식, 교사 전문성, 대인관계 능력을 강조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기독교대안학교 교사들의 현장 적응의 난점 요소를 개인과 학교 차원에서 제시하였다. 교·사대교육과정과 공교육 교사 경험이 기독교대안학교 교사에게 필요한 기본기를 쌓게 한다는 점에서 도움이 되지만, 경직된 사고와 인식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기독교대안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원양성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적용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기독교대안학교, 교사 양성, 재교육시스템, 학습공동체

기독교적 여가연구의 동향과 향후 연구방향*

Research Trends on Christians' Leisure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 A Review of South Korean Publications Since 2000

김미혜 (Mi Hye Kim)**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research trends of Christians' Leisure since 2000, and to suggest future research directions. To achieve this, a total of 37 articles were reviewed by utilizing the Inductive Content Analysis, and the results were analyzed based on 5 analysis items such as 'the year of publication', 'research methods', 'journal distributions', 'research themes', and 'the demographics of research participants'. Results follow. First, the largest number of articles were published in 2004 and 2012, which was due to introduction of the five-day workweek. Second, previous studies were by literature review (74.6%). Third, the majority of previous studies were in theology studies (54.1%). Fourth, the main themes of previous studies were 'the concept and meaning of Christians' leisure(37.8%)', 'the individual Christian's leisure experiences and related research variables(18.9%)'. Fifth, previous studies were conducted only on the basis that they were Christians. Sociocultural and psychological factors were barely included. Therefore, future research on Christians' leisure should explore characteristics of Christians' leisure experiences by utilizing qualitative research rather than literature review.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xpand through the specification of the research subjects and convergence with neighboring disciplines (Physical Education, Tourism Studies, Psychology, etc.).

Key words: Christian, leisure, research trend, contents analysis

* 2020년 05월 11일 접수, 08월 10일 최종수정, 08월 20일 게재확정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박사후연구원,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727, mihyekim0912@gmail.com.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사회는 2004년 주5일 근무제도의 도입으로 여가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휴식, 관광,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관련 시장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과거 1980-90년대 한국인의 삶은 근무와 절약을 미덕으로 여기며, 가족 친지를 방문하거나 외식을 하고 영화관에 가는 정도였다면(이정구, 2002), 현대 한국인의 삶은 일에서 치중된 삶에서 벗어나 가족, 건강, 관계 등에서 균형을 유지하고(Work-Life Balance), 여가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다(남해경, 김영래, 2012). 이처럼 여가를 긍정하는 사회 분위기는 몸짱, 웰빙, 힐링 열풍과 함께 2010년 중반까지 이어졌다(이진형, 박종선, 2014). 이는 여가 연구 증가에 영향을 미치면서 여가참여는 노동자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면, 단순한 휴식보다는 자원봉사와 같은 사회적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노동자의 주관적인 건강수준이 높고(김진영, 송예리아, 2012), 여가활동은 노동 생산성 및 지속적인 경제 발전에 기여하며(박재우, 임승엽, 2014), 적극적으로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노동자가 비참여 노동자보다 더 행복하다는 연구(이미영 외, 2019) 등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여가연구의 양적 성장 속에서 여가연구의 긍정적 편향성, 즉 여가의 부정적인 기능은 간과되고, 긍정적인 기능을 강조하는 경향을 우려하는 의견들이 제시되기도 하였다(남해경, 김영래, 2012; 허태균, 박정열, 2004). 이러한 연구들은 현실에서 여가활동에 참여하다 보면 긍정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상황에 직면할 수 있고, 가족 간의 갈등, 예상하지 않은 신체적 부상, 인간관계의 손실, 금전상의 손해가 발생하기도 하며(허태균, 박정열, 2004), 여가를 일처럼 잘해야 한다는 강박적인 태도가 오히려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보고하였다(김용희, 허태균, 장훈, 2010). 또한, 여가의 외적 조건은 풍요로워졌으나, 개인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육체는 더 피곤하고, 마음은 결핍을 호소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여있다고도 지적하였다(김미혜, 원형중, 신규리, 2014).

이렇듯 사회 전반에 걸친 여가에 관한 열풍은 기독교인의 삶에도 예외 없이 영향을 미쳤다. 박형섭(2012)의 연구에 따르면, 목회자들은 주5일 근무제 도입 이후 성도들의 주일예배 출석율은 10-20% 정도 감소하였으며, 목회자의 82.2%, 평신도의 83.6%가 향후 유연근무제도의 도입은 주일성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오태균(2012)과 김성원(2014)의 연구에서는 주5일 수업제도의 도입으로 기독교인들의 관심이 놀이와 가족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성도들의 주말 이탈을 무조건 저지하기보다는 놀이문화와 예배의 조화에 대한 논의와 토요 프로그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현대 여가문화가 기독교인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실증적인 결과로, 기독교 연구에서 여가연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기독교적 여가연구는 기독교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수행된 여가연구로, 2000년 이전은 간헐적으로 발표되다가 2000년 이후 주5일 근무제 시행의 영향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2000년대 초반에는 주5일 근무제가 한국교회에 미칠 변화를 예측하고, 교회의 새로운 문화전략을 제시한 연구들이 수행되었으며(이경직, 2003; 조성돈, 2004), 안식일의 원어인 사바트(sabbath) 및 성경의 안식에 관한 예화를 중심으로 기독교적 여가의 개념적 틀을 세우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강유미, 2004; 김승욱, 2005; 김옥태, 2002). 또한, 기독교적 여가의 개념을 토대로 현대인의 여가 방향 및 실천방법을 제시한 연구와(김미혜 외, 2014), 최근에는 2012년 주5일 수업제의 시행으로 인한 기독교교육의 변화 방향 및 실천적 대안을 제시한 연구(강영택, 2020; 김성원, 2014; 마상욱, 2012; 유재봉, 2019)를 살펴볼 수 있다. 특히, 기독교적 여가연구는 신학뿐만 아니라, 체육학, 관광학, 교육학 등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체육학자인 김미혜, 원형중, 신규리(2014)는 기독교적인 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비활동적 상태가 아니라, 신체와 정신의 조화를 강조하는 상태이며 현대인의 삶에 적용한다면 사색을 위한 걷기, 몸과 마음의 치유를 위한 필라테스 등이 일상에서 쉼을 실천하는 활동이라고 소개하였다. 또한, 관광학자인 손대현과 강유미(2010)는 관광 및 여가활동에서 최적각성, 무아지경, 몰입으로 표현되는 영적 체험에 대한 이론적 개념을 제시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독교적 여가 연구는 다양한 학문적인 배경을 가진 연구자들에 의해 다각도의 연구들로 확장되고 있다. 학문은 지식체가 축적되고 정립되어 이론이 만들어지고, 다시 연구로 이어지는 순환적인 과정을 통해 발전한다는 점에서, 그동안 축적되어온 기독교적 여가연구들의 경향을 분석하는 것은 추후 연구의 방향성을 구상하고, 불필요한 연구의 반복을 지양하는 데 도움이 된다(서연옥 외, 2007). 하지만 기독교적 여가연구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20년 동안 꾸준히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독교적 여가연구가 어떤 학문영역에서, 어떠한 연구방법으로, 어느 주제에 집중하여 연구되어왔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독교적 여가연구의 현 위치를 파악하고, 향후 연구의 방향과 시사점을 도출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난 2000년부터 2020년까지 20년 동안 수행된 국내 기독교적 여가연구를 대상으로 동향 분석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기독교적 여가연구가 나아갈 방향을 조망하고, 기독교적 여가연구의 질적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II.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및 범위

본 연구는 2000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KCI 등재 및 KCI 등재 후보지에 발간된 기독교적 여가와 관련된 연구물 37편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의 시기 선정 근거는 주5일제에 대한 공식발표를 시작으로 기독교적 여가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로 설정하였다. 검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http://www.riss.kr>)과 한국학술정보(<http://kiss.kstudy.com>)의 웹 데이터베이스에서 ‘기독교 여가’ 검색 키워드를 입력한 후 자주 출현하는 단어(예: 안식, 쉼) 및 논문들의 ‘주제어’를 중심으로 기독교 여가에 관한 검색어를 확장하였다(정혜진, 양창훈, 2018).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선별한 기독교에 관한 검색 키워드는 기독교, 교회, 크리스천, 신학, 안식, 쉼, 주일성수를 사용하였고, 여가에 관한 검색 키워드는 여가, 레저, 레크리에이션, 놀이, 주5일제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전체 총 62편의 자료가 1차로 수집되었다. 수집된 1차 자료 중에서 등재지와 등재후보지가 아니고 단행본, 학술대회, 포럼 및 발표자료를 제외시킨 총 44편을 2차 자료로 정리하였다. 이후 2차로 수집된 자료 중에서 논문 초록 및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내용분석을 위한 자료로 총 37편(KCI 등재지 35편, KCI 등재 후보지 2편)의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분석방법

본 연구는 국내 기독교 여가와 관련된 주제나 주요어로 연구하여 발표된 논문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방법을 활용하였다. 내용분석법은 연구 내용을 일정한 단위 또는 범주를 기준으로 자료를 분류하고 자료처리 과정을 거쳐 내용의 일치성(uniformity)을 찾는 자료수집 방법이다(홍은선, 정진철, 2014; Berelson, 195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용분석법의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해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째,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둘째, 기독교적 여가 관련 연구물을 수집하였다. 셋째, 연구동향 분석을 주제로 연구된 선행연구(박선흥·이은하, 2017; 박영란·박경순, 2013; 임상도, 2013)를 기반으로 여가학 박사 2인, 여가학 교수 1인과의 협의를 통해 코딩시트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분석유목이 분류원칙에 일관성을 유지하는지 여가학 박사 2인, 여가학 교수 1인과 지속적인 협의과정을 거쳐 작업하였다. 넷째, 기독교 여가 연구물에 대한 데이터를 코딩시트에 입력하였다. 다섯째, 엑셀 2018 프로그램에 코딩데이터를 입력하고, 입력 데이터에 대한 통계적 작업을 거쳐 연구결과를 표에 기술하였다. 여섯째, 최종적으로 결과를 기반으로 내용을 해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기독교적 여가 연구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설정한 분석 틀은 ‘연도별 발표빈도’, ‘연구

방법’, ‘학술지 분포’, ‘연구주제’, ‘연구대상’, ‘연구 개념’으로 이러한 분석 틀은 기독교적 여가연구가 주로 어떤 학문 분야에서 연구되었고, 무엇이 주된 관심사였으며, 어떤 방법으로 연구되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현재까지 기독교적 여가연구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향후의 연구방향과 과제를 파악하는데 논리적인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연도별 발표 빈도

국내 기독교적 여가연구의 연도별 발표 빈도를 분석한 결과, 2004년과 2012년에 7편의 연구가 발표되어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2004년과 2012년은 주5일 근무제도와 주5일 수업제도가 도입된 해로 발표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2013년도 이후는 연구물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한 해 1-2편 수준으로 발표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Table 1과 같다.

Table 1 Christian leisure-related research trends by year

Years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Total
					▶	▶	▶	▶	▶	▶	▶	▶	▶	▶	▶	▶	▶	▶	▶	▶	▶	
													▷	▷	▷	▷	▷	▷	▷	▷	▷	
n	1	0	4	1	7	5	1	1	3	0	1	0	7	1	2	0	0	1	1	1	1	37

▶ : the year of the introduction of the five-day workweek

▷ : the year of the introduction of the five-day school week

2. 연구방법

연구방법의 분류 틀은 선행연구(김현숙, 정희영, 2020; 성백 외, 2017)의 분류를 수정·보완하여 문헌연구, 양적연구, 질적연구, 혼합연구로 구분하였다. 먼저 문헌연구는 문헌고찰, 조사자료이며, 양적연구는 실험연구, 조사연구, 상관연구로 분류하였다. 질적연구는 참여관찰, 근거이론, 생애사연구, 현상학, 사례연구, 내러티브, 문화기술적연구, 심층면접으로 분류하였다. 둘 이상의 데이터 수집방법 및 분석방법의 경우에는 혼합연구로 분류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Table 2와 같다.

Table 2 Classification of the research methods

Research Methods	Details
Literature review	Literature review, Survey
Quantitative research	Survey research, Correlation research, Experimental Research
Qualitative research	Participation observation study, Grounded theory, Life history study, Phenomenological study, Case study, The narrative approach, Ethnographic study, In-depth interview
Mixed research	More than one method of collecting data and / or more than one method of analyzing the data

연구방법의 분석결과, 문헌연구가 28편(75.7%)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었고, 양적연구 7편(18.9%), 질적연구 2편(5.4%), 혼합연구는 한편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2000년대 초반(2000-2004)에는 모두 문헌에 의해 연구되었고, 2005년에 처음으로 조사연구가 시도되었다(박장근 외, 2005; 송홍흡 외, 2006, 양웅비, 2008a; 2008b). 질적연구는 2012년, 2020년에 한편씩 수행되었다(강영택·이종철, 2020; 서광필 외, 2012).

또한, 7편의 양적연구는 모두 설문지를 활용한 조사연구로 이루어졌다. 조사연구에서 이용한 조사변인은 여가만족(leisure satisfaction), 여가기능(leisure function), 여가제약(leisure constraint), 여가권태(leisure boredom), 여가인식(leisure awareness), 생활만족(life satisfaction) 등이었다. 2편의 질적연구는 모두 생애사 연구로, 체육학 내 여가레크리에이션 연구(서광필 외, 2012)와 기독교교육 연구(강영택·이종철, 2020)에서 활용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Table 3과 같다.

Table 3 Christian leisure-related research trends by research methods

Years	Literature review	Quantitative research	Qualitative research	Mixed research	Total (%)
2000-2004	14	0	0	0	14 (37.8%)
2005-2009	4	4	0	0	8 (21.6%)
2010-2014	7	3	1	0	10 (27.0%)
2015-2020	3	0	1	0	4 (10.8%)
Total	28 (75.7)	7 (18.9)	2 (5.4)	0	37 (100%)

3. 학술지 분포

국내 기독교적 여가연구를 발행한 학술지를 중심으로 학문 분야를 분석한 결과, ‘기독교 신학’에서 20편(54.1%), ‘체육학’ 10편(27.0%), ‘관광학’ 3편(8.1%)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독교 융합연구 학술지인 ‘신앙과 학문(Faith & Scholarship)’에서 4편(10.8%)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학문의 세부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독교 신학’ 내 기독교 교육에서 6편, 기독교 사회문화에서 2편, 기독교 사회윤리에서 1편, 신학 일반에서 11편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또한, ‘체육학’ 내 여가레크리에이션에서 4편, 체육철학에서 3편, 체육 일반에서 2편, 체육교육에서 1편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0년대 초반(2000-2004)은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2000년대 중후반(2005-2009)은 ‘체육학’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2010년대 초반(2010-2014)은 ‘기독교 교육’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Table 4와 같다.

Table 4 Christian leisure-related research trends by Journal distributions

Types of journals		2000-2004	2005-2009	2010-2014	2015-2020	Total (%)
Theology	General Christian Studies	9	1	0	1	11 (29.7%)
	Christian Education	0	0	6	0	6 (16.2%)
	Theology & Society	0	1	0	1	2 (5.4%)
	Christian Social Ethics	0	0	0	1	1 (2.7%)
Convergence	Christian & Scholarship	1	1	1	1	4 (10.8%)
Physical education	Leisure and Recreation	0	3	1	0	4 (10.8%)
	Philosophy of Movement	2	0	1	0	3 (8.1%)
	Sport Science	1	1	0	0	2 (5.4%)
	Physical Education	0	0	1	0	1 (2.7%)
Tourism		1	1	1	0	3 (8.10%)
Total		14 (37.8%)	8 (21.6%)	11 (29.7%)	4 (10.8%)	37 (100%)

4. 연구주제

연구주제의 분류 틀은 선행연구(이문진 외, 2009)의 분류방식을 수정·보완하였으며, 크게 다섯 가지 연구주제로 분류하였다. 연구주제는 M형(기독교적 여가의 개념과 의미), I형(기독교인의 여가체험 및 관련요인), C형(기독교적 여가문화), W형(여가와 현대의 목회방향), E형(여가와 현대의 기독교교

육)으로 분류하였으며, 각각의 연구주제별 세부내용을 제시하였다. 먼저 M형 연구는 기독교적 여가의 개념과 의미를 고찰하는 연구들을 분류하여 해당 주제로 포함하였다. 선행연구의 예를 들면, 여가의 신학적 성찰, 구약의 안식일 의미, 성경에 나타난 신체관·스포츠·여가관, 청교도와 여가, 놀이의 신학적 접근, 여가와 기독교적 가치관, 여가의 영적 개념 등에 관한 연구들이다. I형 연구는 기독교인의 여가체험 및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들을 선별하여 해당 주제로 포함하였다. 선행연구의 예를 들면, 기독교인의 여가인식과 여가경험, 기독교인의 스포츠활동 참여와 여가만족, 기독교인의 여가기능과 여가제약, 기독교인의 일과 삶의 균형, 기독교인의 쉼에 관한 생애사 등에 관한 연구들을 포함하였다.

또한, C형 연구는 기독교적 여가문화에 관한 연구들을 분류하여 해당 주제로 포함하였다. 선행연구의 예를 들면, 여가문화에 따른 교회문화의 변화, 여가문화와 신앙생활, 신앙인의 삶에서 나타난 놀이의 가치 등에 관한 연구들을 포함하였다. W형 연구는 여가와 현대의 목회방향에 관한 연구들을 분류하여 해당 주제로 포함하였다. 선행연구의 예를 들면, 주5일 근무제와 목회방향, 주5일 근무제를 대비한 예배의 역할, 목회와 레크리에이션 등에 관한 연구들을 포함하였다. E형 연구는 여가와 현대의 기독교교육에 관한 연구들을 분류하여 해당 주제로 포함하였다. 선행연구의 예를 들면, 주5일 수업제도에 따른 교회학교 운영방안, 주5일 수업제도에 따른 교회의 교육적 대응, 놀이신학과 교회학교, 주5일 수업제도와 교육목회제도, 기독교인 학부모들의 인식, 교회 지도자들의 인식과 실천 등에 관한 연구들을 포함하였다. 위와 같이 연구주제별로 분류하여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M형 연구가 14편(37.8%)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I형 연구가 8편(21.6%), C형 연구가 3편(8.1%), W형 연구가 6편(16.2%), E형 연구가 6편(16.2%)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Table 5와 같다.

Table 5 Christian leisure-related research trends by research themes

Research themes		Details	Total (%)
M (meaning)	The concept and meaning of Christians' leisure	• The theological approach to the concept of leisure	14 (37.8%)
		• The Sabbath in the bible	
		• The view of body, sports, and leisure in the bible	
		• Puritans and leisure	
		• The theological concept of play	
		• Christian's viewpoints on leisure	
		• The spiritual concept of leisure	

I (Individual)	The individual Christian's leisure experiences and related research variabl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ristians' leisure awareness and experiences • Church sports club members' leisure satisfaction • Leisure function and constraint • Christians' Work-Life Balance (WLB) • A history story on the rest of Christian 	8 (21.6%)
C (Culture)	Culture of Christians' leisu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anges within churches' culture • Leisure culture and faith/life • The value of play in Christians' lives 	3 (8.1%)
W (Worship)	Christian's modern worship and minist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ive-day workweek and the direction of leaders • The role of worship in the Five-day workweek • Leadership and recreation 	6 (16.2%)
E (Education)	Christians' modern edu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ology of Play and Sunday School • The Five-day workweek and Education Ministry System • Church educational response to Five-day School week • Christian Parents' Perception of Five-day School week • Church Education Leaders' perceptions and practices 	6 (16.2%)
Total			37 (100%)

이러한 연구주제를 연도별로 분류하면 Table 6과 같다. M형 연구는 2000-2004년 7편(18.9%), 2005-2009년 3편(8.1%), 2010-2014년 3편(8.1%), 2015-2020년 1편(2.7%)이 발표되었다. I형 연구는 2000-2004년에는 발표되지 않았고, 2005-2009년 3편(10.8%), 2010-2014년 2편(5.4%), 2015-2020년 2편(5.4%)이 발표되었다. C형 연구는 2000-2004년 2편(5.4%), 2005-2009년 1편(2.7%)이 발표되었다. W형 연구는 2000-2004년 5편(13.5%), 2015-2020년 1편(2.7%)이 발표되었다. E형 연구는 2010-2015년 6편(16.2%)이 발표되었다.

Table 6 Christian leisure-related research themes by year

Research themes		2000-2004	2005-2009	2010-2014	2015-2020	Total (%)
M (meaning)	The concept and meaning of Christians' leisure	7 (18.9)	3 (8.1)	3 (8.1)	1 (2.7)	14 (37.8%)

I (Individual)	The individual Christian's leisure experiences and related research variables	0 (0.0)	4 (10.8)	2 (5.4)	2 (5.4)	8 (21.6%)
C (Culture)	Culture of Christians' leisure	2 (5.4)	1 (2.7)	0 (0.0)	0 (0.0)	3 (8.1%)
W (Worship)	Christian's modern worship and ministry	5 (13.5)	0 (0.0)	0 (0.0)	1 (2.7)	6 (16.2%)
E (Education)	Christians' modern education	0 (0.0)	0 (0.0)	6 (16.2%)	0 (0.0)	6 (16.2%)
Total		14 (37.8%)	8 (21.6%)	11 (29.7)	4 (10.8)	37 (100%)

5.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문헌연구를 제외한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로 수행된 9편의 연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독교인에 관한 연구 1편, 교회 내 스포츠활동 참여자에 관한 연구 3편, 학부모에 관한 연구 1편, 기독교대학생에 관한 연구 1편, 기독교청소년에 관한 연구 1편, 교회교육 지도자에 관한 연구 1편, 목회자에 관한 연구 1편 등이 수행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Table 7과 같다.

Table 7 The demographics of research participants

Research participants	The lists of previous studies
Christians	The Research of Deviant Behavior of Leisure Awareness and Leisure Experiences through Christians' General Specific Character (Park et al., 2005)
Sports participants in Christian churches	The Influence of Church Sports Clubs on Participation and Satisfaction Level with Church Activities (Song et al., 2006)
	The Relationships among Christian' Participation in Church Sports Activities Pastoral' Value and their Satisfaction with Church Service, Leisure and life (Yang, 2008a)
	The Influence upon Christian' Participation in Church Sports Activities and their Satisfaction with Church Service, Leisure (Yang, 2008b)
Christian parents	A Study on Christian Parents Perception of Five-day School Week System (Oh, 2012)
Christian college students	The Effects of Christian College Students' Satisfaction of Elective Physical Education Lecture Participation on Leisure Function, Constraint, and Boredom (Kim, Lee, 2013)
Christian youth	A Life History Study on the Rest that the Christian Youth Experiences (Kang, 2020)
Church education leaders	Church Education Leaders' Perceptions and Practices of Five-day School Week System and Saturday Church Program (Kim, 2014)
Pastors	Exploring Relationship Between Ministry and Recreation: Life History Perspective (Kim et al., 2012)

6. 연구 개념

국내 기독교적 여가연구에서 연구된 개념을 조사하였으며, 논문에서 두 개 이상의 개념을 연구한 경우, 중복으로 인정하여 집계하였다. 분석결과, 총 18개의 개념이 도출되었으며, 가장 많이 연구된 개념은 안식(sabbath, 15.8%), 다음은 문화(culture, 12.3%), 역사(history, 10.5%), 교회서비스(church service, 8.8%), 교회교육(church education, 8.8%), 여가만족(leisure satisfaction, 7.0%), 여가스포츠(leisure sports, 7.0%)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여가경험(leisure experience), 놀이(play), 영성(spirituality), 지도력(leadership)에 관한 연구들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Table 8과 같다.

Table 8 Christian leisure-related research trends by Key constructs

	Key constructs	Total (%)
1	Sabbath	9 (15.8%)
2	Culture	7 (12.3%)
3	History	6 (10.5%)
4	Church Service (e.g. Ministry, Worship)	5 (8.8%)
5	Church education	5 (8.8%)
6	Leisure satisfaction	4 (7.0%)
7	Leisure sports	4 (7.0%)
8	Leisure experience	3 (5.3%)
9	Play	3 (5.3%)
10	Spirituality	2 (3.5%)
11	Leadership (e.g. Pastor)	2 (3.5%)
12	Leisure function	1 (1.8%)
13	Leisure constraint	1 (1.8%)
14	Leisure boredom	1 (1.8%)
15	Life satisfaction	1 (1.8%)
16	Work-Life Balance	1 (1.8%)
17	Health	1 (1.8%)
18	Leisure awareness	1 (1.8%)
	Total	57 (100%)

IV. 논의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발행된 국내 기독교적 여가연구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기독교적 여가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기독교적 여가연구는 2000년에서 2004년 사이에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14편, 37.8%). 이는 주5일 근무제도가 전격적으로 시행된 2004년이 포함된 시기로, 새로운 근무제도가 향후 기독교인의 주일성수 및 여가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신학자들의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이경직, 2003; 이정구, 2002; 조성돈, 2004). 그리고 2010년에서 2015년 사이에 기독교적 여가연구들은 다시 한번 증가하는데(11편, 29.7%), 이는 2012년 이후 토요일휴업일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기독교 교육을 주제로 한 연구들이 급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2015년부터 2020년 사이에는 4편의 연구만이 발표되는 등 연구물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기독교적 여가연구는 주5일 근무제와 주5일 수업제의 도입으로 일시적으로 발표량이 증가하였으나, 2015년 후반으로 갈수록 사회적 이슈가 미치는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연구물이 감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기독교적 여가연구가 사회적 이슈에 의한 연구물의 증감을 보이는 현상은 기존 여가학 연구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학문으로서 여가학(Leisure Studies)은 1980년대 국내 도입되어 체육학, 관광학, 사회학, 심리학, 가정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으나, 여전히 독립적인 학문 영역으로 자리 잡지 못한 상태이다(노용구, 이철원, 2003). 비단 학문의 영역뿐만 아니라 정책의 영역에서도 여가는 독자적인 영역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문화, 체육, 관광, 교육 등의 영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여가 정책사업에 포함된다고 간주되어 여가정책을 명시한 부서나 시책은 없는 실정이다(윤소영, 유지운, 이강욱, 김향자, 노용구, 2007). 이러한 점에서 독립적인 학문으로 자리 잡지 못한 여가학의 특성상, 사회적 이슈에 의해 학자들의 관심이 반응하는 한계를 고려할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로는 학문이 태동하는 초반에 나타나는 한계로서, 기독교적 여가연구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거시적인 메시지는 있지만, 기독교적 여가연구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비전과 목표가 학자들 간에 공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구주제들이 다양성을 넘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일시적으로 연구의 정체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하여 각 학문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기독교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독교적 여가연구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공식적인 채널인 학술교류의 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학술교류를 정례화하여 기독교적 여가연구의 비전과 목표를 공론화하고,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과제가 구체화 될 때 다양한 학문적인 배경을 가진 크리스천 학자들에 의해 학문의 분화와 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연구방법의 분석 결과, 기독교적 여가연구는 문헌 연구(28편, 75.7%)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이는 기독교적 여가 개념과 이론적 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성경, 역사서, 선행연구 등을 고찰한 연구들이 많았던 것을 이유로 볼 수 있다(강유미, 2004; 김옥태, 2004; 손대현, 강유미, 2010). 다만, 20년 동안 발표된 질적 연구가 2편에 불과한 것은 향후 연구에서 반드시 보완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기독교적 여가연구가 이론적 근거에 기반한 실질적인 이론을 구축하고, 양적 연구를 통해 이론의 일반화를 시도하는 등 학문으로 발전해나가기 위해서는 질적 연구를 기반으로 귀납적인, 즉 근거에 기반한 실질적인 이론을 구축하는 데 힘을 쏟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신경림 외, 2004). 따라서 앞으로 기독교적 여가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인 문화기술지, 내러티브, 현상학 등을 활용하여 기독교인들의 목소리를 담은 자료들을 수집하고, 이러한 현장 자료들을 기반으로 기독교인들의 여가 참여 구조, 원인, 맥락, 차원, 결과 등 구조화를 시도하면서 이론을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질적 여가연구의 활성화는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기독교인들의 여가 문제를 더 깊이 탐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신앙인의 행복한 삶을 위한 중재로써 여가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이고 풍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이다(노용구, 이철원, 2003).

셋째, 기독교적 여가연구는 신학자들 외에 다른 학문 중에서도 체육학자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옥태, 2004; 김미혜 외, 2014; 함정혜, 2000). 체육학은 실천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학문으로, 몸에 관한 인식론적 탐구를 활발히 수행하면서도 체육인의 주관적 체험을 중시함으로써 이론과 실천적인 연구방법론이 다양하게 이용하는 학문이다(송형석, 2015). 이러한 점에서 체육이라는 학문과의 융합은 여가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기독교인의 영적, 심리적, 신체적 만족감을 그들의 일상적 언어로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효과적이다. 그러므로 향후 체육학뿐만 아니라 관광학, 교육학, 심리학 등 대상의 주관적인 체험과 의미를 강조하는 학문들과의 융합을 통해 기독교인들의 여가체험을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동향분석 결과 신학자들은 ‘여가란 무엇인가?’와 같은 물음에 대해 이론과 개념을 정립하는 연구들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신학계는 기독교적 여가에 관한 개념 정립을 주도하고, 체육학, 관광학, 교육학 등 다른 학계에서는 개별 학문이 가진 전문성을 중심으로 여가현상을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이용하여 입체적으로 증거함으로써 실천적인 기독교 여가학문으로 발전해나갈 필요가 있다.

넷째, 국내 기독교적 여가연구의 연구 주제는 크게 다섯 가지로 ‘기독교적 여가의 개념과 의미’, ‘기독교 여가문화’, ‘기독교인의 여가체험 및 관련 요인’, 여가와 현대의 목회방향, ‘여가와 현대의 기독교교육’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주제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2000년부터 2004년은 기독교적 여가연구의 발아기로,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여가문화에 관한 논의와 기독교적 여가개념을 정립하기 위한 논의들이 처음 시도되었다. 그리고 2005년부터 2009년은 기

독교적 여가개념에 관한 연구들이 꾸준히 수행되는 동시에, 체육학자, 경제학자, 관광학자 등 타 학문의 학자들의 기독교적 여가연구들이 발표되면서 학제 간 융합연구의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또한, 2010년부터 2014년은 토요일휴업일의 도입과 함께 토요일학교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들이 다수 발표되면서 기독교적 여가의 실천영역으로서 여가교육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2015년부터 2020년은 직전 시기의 영향을 이어받아 교육을 주제로 한 기독교적 여가연구들이 수행되었으며, 기독교청소년들의 쉼에 관한 질적 연구(강영택, 2020), 놀이로 세우는 공동체에 관한 연구(윤영훈, 2018), 쉼의 어원(schola)을 중심으로 한 교육의 의미 재해석 연구(유재봉, 2019) 등이 수행되었다. 그러나 2010-2014년에 수행된 연구들은 토요일휴업일이라는 사회적 이슈에 집중했던 반면에, 2015-2020년에 수행된 연구들은 여가의 교육학적 측면에 관한 연구로 확장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들을 토대로 볼 때, 기독교적 여가연구는 이론의 영역을 넘어 실천의 영역으로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연구 주제의 폭도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향후 기독교적 여가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 주제를 발굴하고, 심화하여 기독교적 여가연구의 정체성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2000년에서 2004년 사이 기독교적 여가연구는 연구대상보다는 기독교적 여가의 개념, 용어, 이론을 정립하기 위한 연구들이 주로 수행되었으나, 2005년을 기점으로 스포츠에 참여하는 기독교인, 기독교인들의 여가인식, 목회자의 여가 등 대상 중심의 여가연구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연구대상을 구체화하기보다는 기독교인이라는 특성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으며, 향후 기독교적 여가연구의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가령, 기존 여가학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생애주기, 직업 등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세분화하고 있다(예: 1인 가구, 80대, 여성노인). 또한 대상을 둘러싼 개인적, 사회적, 환경적 요인들을 파악하여 연구에 최대한 반영하는 작업을 여가연구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강조하였다(홍서연, 김미량, 2017). 이러한 점에서 향후 기독교 여가연구에서도 대상을 포괄적으로 범주화하기보다는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예로 기독교청년의 여가 연구보다는 졸업예정자인 기독교대학생의 학업 스트레스, 여가, 신앙에 관한 연구로 연구대상을 구체화 시킬 때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구대상의 확대와 관련하여, 향후 기독교적 여가연구에서는 기존에 연구되지 않았던 대상인 독거노인, 장애인, 새터민, 결혼이주민 등으로 연구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기존 여가학에서는 주류 사회학의 기능주의적 관점을 기반으로 직업의 유무를 중심으로 노동자, 은퇴자, 맞벌이 부부 등 여가의 효용 가치를 보여주기 용이한 대상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나타난다(남해경, 김영래, 2012). 향후 기독교적 여가연구에서는 사회적 소외계층에 관한 여가연구를 활발히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위한 목소리를 내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또한, 기독교적 여가연구는 소외된 삶에서도 영성을

통해 내적 성숙을 보여주는 기독교인들의 삶과 여가에 관한 사례를 연구함으로써 여가의 효용성보다는 실존에 관한 여가연구의 선구자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국내 기독교적 여가연구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개념은 안식으로 나타났으며, 문화, 역사, 교회서비스(목회, 예배), 교회교육, 여가만족, 여가스포츠, 여가경험, 놀이, 영성, 여가제약, 여가권태, 일과 삶의 균형, 건강, 여가인식 등의 순으로 연구되었다. 먼저 안식(Sabbath)이 가장 많이 연구된 이유는 성경에서 언급되는 안식의 개념을 중심으로 기독교적 여가의 개념화를 시도하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문화(Culture)가 많이 사용된 이유는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새로운 교회문화 형성에 관한 연구들이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역사(History)의 경우 여가를 역사적 맥락(그리스, 로마, 중세, 르네상스, 현대) 속에서 고찰함으로써 이상적인 여가의 의미와 예배의 역할을 제안하는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금까지의 기독교적 여가연구가 안식, 문화, 역사, 예배, 교육 등 신학적 개념들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기독교적 여가연구의 독창성과 참신성이 잘 드러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여가학에서 자주 연구되는 여가만족, 여가스포츠, 여가제약, 일과 삶의 균형, 여가인식(황선환, 조희태, 2015) 등에 관한 연구들도 시도된 것은 기존 여가학과의 학제 간 연구를 시도하여 기독교적 여가연구를 확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기독교적 여가연구 37편을 중심으로 국내 기독교적 여가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기독교적 여가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기독교적 여가연구의 발표빈도는 주5일 근무제 및 주5일 수업제 도입의 영향으로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2015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연구물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는 독립적인 학문의 영역으로 자리 잡지 못한 여가학의 특성상, 사회적 이슈에 연구자들의 관심이 반응하는 학문상의 한계이자, 초기융합연구의 한계로 사료된다. 향후 기독교적 여가연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독교적 여가에 관심을 가진 다양한 학계의 학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학술교류의 장이 마련되어 학자들 간의 교류가 활발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독교적 여가연구의 연구방법은 문헌분석이 80% 수준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기독교적 여가연구의 이론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일환으로 문헌연구들이 활발하게 수행된 것을 볼 수 있다. 향후 기독교적 여가연구는 질적연구를 기반으로 귀납적인, 즉 근거에 기반한 실질적인 이론을 구축하는

데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기존 여가학 이론을 차용하기보다는 기독교인의 현장연구를 기반으로 이론을 선 구축하여 양적 연구를 검증하는 연구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기독교적 여가연구의 질적연구 방법의 활성화는 현장에서 제기된 기독교인의 여가 문제를 발굴하고, 신앙인으로서 여가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적 여가연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셋째, 기독교적 여가연구는 특징적으로 신학 외에 체육학에서 많이 연구되었다. 체육학은 융합학문으로서 기독교적 여가연구의 발전 가능성을 시사하는 좋은 예시가 되었으며, 앞으로 기독교 신앙을 품고 여가를 실천하는 연구 참여자의 삶을 연구함으로써 기독교적 여가의 실천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관광학, 교육학, 심리학 등 현장성이 강한 다양한 학문들과의 융합을 통해 현장에서 나타나는 복잡한 여가현상을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해서 증명함으로써 실천적인 학문으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기독교적 여가연구의 연구주제는 크게, 다섯 가지의 연구주제들이 도출되었으며 ‘기독교적 여가의 개념과 의미’, ‘기독교인의 여가체험 및 관련요인’, ‘기독교 여가문화’, ‘여가와 현대의 목회방향’, ‘여가와 현대의 기독교 교육’ 등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이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2000년부터 2004년은 기독교적 여가연구의 발아기로, 기독교적 여가개념을 정립하기 위한 연구들이 처음 시도되었다. 그리고 2005년부터 2009년은 체육학, 경제학, 관광학 등 타 학문 학자들의 기독교적 여가연구들이 발표되면서 학제 간 융합연구의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또한, 2010년부터 2014년은 토요휴업일의 도입과 함께 기독교적 여가의 실천영역으로서 여가교육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2015년부터 2020년은 기독교적 여가의 교육적 측면에 관한 연구로 연구주제가 확장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기독교적 여가연구는 이론의 영역을 넘어 실천의 영역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연구 주제의 폭도 다양화되고 있다. 향후 기독교적 여가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기존에 이루어졌던 연구 주제 이외의 참신한 연구주제를 발굴하고 심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기독교적 여가연구는 2005년을 기점으로 대상 중심의 여가연구들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연구대상을 구체화하기보다는 기독교인이라는 특성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으며, 향후 기독교적 여가연구는 대상을 구체화하고, 특히 사회적 소외계층(독거노인, 장애인 등)에 관한 여가연구를 활발히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위한 목소리를 내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여섯째, 기독교적 여가연구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개념은 안식으로 나타났으며, 문화, 역사, 교회서비스, 교회교육, 여가만족, 여가스포츠, 여가경험, 놀이, 영성, 여가제약, 여가권태, 일과 삶의 균형, 건강, 여가인식 등이 연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안식, 문화, 역사, 예배, 교육 등 신학적 개념들이 우선

순위에서 연구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기독교적 여가연구의 독창성과 참신성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또한, 기존 여가학에서 자주 연구되는 여가만족, 여가제약, 여가인식 등 사회심리학적 변수들도 시도된 점을 볼 때 기존 여가학과의 학제 간 연구를 시도하여 기독교적 여가연구를 확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상기의 내용을 종합하면, 지난 20년 동안 기독교적 여가연구는 여가의 본질적 의미와 개념을 정립하고, 그리스도인의 여가선용을 위한 지식을 제공하는 데 상당히 기여하였다. 그러나 초기 융합연구의 한계로서 연구들이 산발적으로 진행된 경향이 있으며, 대상 중심의 질적 연구로 확장해나가지 못하고 개념에 관한 연구들에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연구의 정체기에 직면해 있다. 그러므로 향후 기독교적 여가연구는 기독교적 여가연구의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공론화함으로써 연구 간의 통합과 분화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인근 학문과의 융합을 통해 학문의 실천적 증거를 뒷받침하고, 여가연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대상을 구체화하고, 소외된 계층에 관한 여가연구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본 연구의 제언을 기반으로 후속연구들의 활발한 수행을 통해 기독교적 여가연구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연구의 확장기를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Barskova, T., & Oesterreich, R. (2009). Post-traumatic growth in people living with a serious medical condition and its relations to physical and mental health: A systematic review.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31(21), 1709-1733.

Berelson, B. (1952). *Content Analysis in Communication Research*. New York: Free Press

Boals, A., & Schuler, K. L. (2018). Reducing reports of illusory posttraumatic growth: A revised version of the Stress-Related Growth Scale (SRGS-R).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10(2), 190-198.

Tedeschi, R. G., & Calhoun, L. G. (2004). Posttraumatic growth: Conceptual foundation and empirical evidence. *Psychological Inquiry*, 15(1), 1-18.

강영택·이종철 (2020). 기독교청소년들이 경험한 쉼에 대한 생애사 연구. **신학과 사회**, 34(1), 229-264.

[Kang, Y. T. and Lee, J. C. (2020). A Life History Study on the Rest that the Christian Youth Experiences. *Theology and Society*, 34(1), 229-264.]

강유미 (2004). 레저의 종교적 이해: 기독교적 관점에서. **관광연구논총**, 16, 81-98.

[Kang, Y. M. (2004). The Religious Approach to the Concept of Leisure : In Christian perspective. *Journal of Tourism Studies*, 16, 81-98.]

김미혜·원형중·신규리 (2014). 현대여가에서의 쉼의 의미와 방향 탐색. **한국체육철학회지**, 22(1), 155-171.

[Kim, M. H., Won, H. J. & Shin, K. L. (2014). A Search for Meaning and Direction of Resting in Contemporary Leisure Studies.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the Philosophy of Sport, Dance & Martial Arts*, 22(1), 155-171.]

김성원 (2014). 주5일 수업제 실시에 따른 토요 프로그램에 관한 교회 지도자들의 인식과 실천. **기독교교육정보**, 40, 245-269.

[Kim, S. W. (2004). Church Education Leaders' Perceptions and Practices of Five-day School Week System and Saturday Church Program. *Korea society for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40, 245-269.]

김승욱 (2005). 여가관의 역사적 변천과 개혁주의 여가관. **신앙과 학문**, 10(2), 51-89.

[Kim, S. W. (2005). Changes in the Perspectives on Leisure and Reformed Viewpoint on

Leisure. *Faith & Scholarship*, 10(2), 51-89.]

김옥태 (2002). 청교도의 여가에 대한 공과. **한국체육철학회지**, 12(1), 1-23.

[Kim, O. T. (2002). Merits and Demerits of the Puritans on Leisure. *Philosophy of Movement*, 12(1), 1-23.]

김용희·허태균·장훈 (2010). 여가 강박 개념화 연구. **여가학연구**, 8(21), 59-82.

[Kim, Y. H., Hur, T. K. & J, H. (2010). The Conceptualization of Leisure-Obsession. *Journal of leisure studies*, 8(21), 59-82.]

김정모·이충영 (2013). 기독교대학생들의 교양체육 수업참가 만족도가 여가기능, 여가제약, 여가권태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교육학회지**, 18(3), 173-191.

[Kim, J. M. and Lee, C. Y. (2013). The Effects of Christian College Students' Satisfaction of Elective Physical Education Lecture Participation on Leisure Function, Constraint, and Boredom.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Physical Education*, 18(3), 173-191.]

김진영·송예리아 (2012). 여가활동의 질과 건강의 관계: 고용 및 소득과의 상호작용 효과. **보건과 사회과학**, 32, 115-144.

[Kim, J. Y. and Song, Y. A.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ies of Leisure Activities and Health: Focusing on the Interaction Effects with Employment or Income. *Health and Medical Sociology*, 32, 115-144.]

김현숙·정희영 (2020). 국내 홈스쿨링 관련 연구 동향분석. **신앙과 학문**, 25(1), 5-35.

[Kim, H. S. and Jeoung, H. Y. (2020). Analysis on Homeschooling Research Trends in Korea. *Faith & Scholarship*, 25(1), 5-35.]

남해경·김영래 (2012). **여가와 풍요의 역설**. 한울: 서울

[Nam, H. K. and Kim, Y. R. (2012). *Paradox of leisure society*, Hanul: Seoul.]

노용구·이철원 (2003). **여가학 연구방법론**. 대경북스: 서울

[Noh, Y. G. and Lee, C. W. (2003). *Research Methodology in Leisure Studies*, Daekyung books: Seoul.]

마상욱 (2012). 주5일 수업제도에 따른 교회 토요학교 방안연구. **기독교교육정보**, 34, 87-111.

[Ma, S. W. (2012). A Study on Saturday Church School under a Five-day Workweek.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34, 87-111.]

박선홍·이은하 (2017). 탈북민 대상 기독교상담 연구 동향. **사회복지경영연구**, 4(1), 1-19.

[Park, S. H. and Lee, E. H. (2017). The Trend of Research related to North Korean Refugee in

Christian Counseling. *Journal of Social Welfare Management*, 4(1), 1-19.]

박영란·박경순 (2013). 한국노인의 사회적 관계망과 복지: 연구의 동향과 향후 과제. **노인복지연구**, 60, 323-352.

[Park, Y. R. and Park, K. S. (2013). Social Support Network and Welfare of the Elderly in Korea: Research Trends and Future Tasks.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60, 323-352.]

박장근·임란희·최덕목 (2005). 기독교인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일탈적 여가의식 및 여가경험 조사. **한국사회체육학회지**, 24, 539-552.

[Park, J. G., Lim, R. H. & Choi, D. M. (2013). The Research of Deviant Behavior of Leisure Awareness and Leisure Experiences through Christians' General Specific Character.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24, 539-552.]

박재우·임승엽 (2014). 창조경제와 여가산업 정책: 사회적 가치 전환 시대의 논리.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8(3), 126-140.

[Park, J. W. and Im, S. Y. (2014). Creative economy and leisure industry policy: Rationals in the social value-changing era. *Korean Journal of Leisure, Recreation & Park*, 38(3), 126-140.]

박형섭 (2012). 주 5일 근무제와 유연근무제 시대 올바른 주일성수와 주일예배를 위한 실천신학적 고찰과 대안. **조직신학연구**, 16, 232-245.

[Park, H. S. (2012). A study on understanding and alternative of the practical theology for the five-day workweek and flexible working era for the lord's day and sunday worship. *Systematic Theology Division Korea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16, 232-245.]

서광필·이철원·김민정 (2012). 목회와 레크리에이션의 관계 분석: 생애사적 관점.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6(2), 66-76.

[Suh, K. P., Lee, C. W. & Kim, M. J. (2012). Exploring relationship Between Ministry and Recreation: Life history perspective. *Journal of leisure and recreation studies*, 36(2), 66-76.]

서연옥·박정숙·양진향·김혜원·석민현·신현숙·장희정·정면숙·정명실 (2007). 최근 3년간 대한간호학회지 게재 논문의 동향. **한국간호과학회**, 37(6), 1013-1019.

[Suh, Y. O., Park, J. S., Yang, J. H., Kim, H. W., Suk, M. H., Shin, H. S., Jang, H. J., Jung, M. S. & Chung, M. S. (2012). Analysis of Research Paper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7(6), 1013-1019.]

성백·박형서·공기인·안창진·서유림 (2017). 기독교교육 분야에서 통일교육연구의 동향분석. **기독교 교육정보**, 55, 97-119.

[Sung, B., Park, H. S., Ghong, K. I., Ahn, C. J. & Seo, Y. R. (2012). Analysis on Research of Korea" Unification Education in Christian Education.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55, 97-119.]

송홍석 (2015). 체육철학의 연구동향: 체육철학회지를 중심으로. **체육과학연구**, 26(1), 1-14.

[Song, H. S. (2015). Research Trends of Sport Philosophy: Focused on the Philosophical Articles in 'Journal of Korean Philosophic Society for Sport and Dance'. *Korean Journal of Sport Science*, 26(1), 1-14.]

송홍흡·김장환·이성노·고승철 (2006). 교회 스포츠동호회 활동이 교회활동 참여도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 26, 437-449.

[Song, H. H., Kim, J. H., Lee, S. N. & Go, S. C. (2006). The Influence of Church Sports Clubs on Participation and Satisfaction Level with Church Activities.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26, 437-449.]

양웅비 (2008a). 기독교인의 교회내 스포츠활동 참여에 따른 스포츠의 목회적 가치와 교회만족, 여가만족, 생활만족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47(3), 87-99.

[Yang, W. B. (2008b). The relationships among Christian' participation in church sports activities pastoral' value and their satisfaction with church service, Leisure and Lif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47(3), 87-99.]

양웅비 (2008b). 교회내 스포츠활동 참여가 교회만족과 여가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2(1), 119-131.

[Yang, W. B. (2008b). The Influence upon Christian' participation in church sports activities and their satisfaction with church service. Leisure. *Journal of leisure and recreation studies*, 32(1), 119-131.]

오태균 (2012). 주5일 수업제에 따른 주말 여가생활 현황 및 교회교육 인식 연구. **기독교교육정보**, 34, 1-36.

[Oh, T. K. (2012). A Study on Christian Parents Perception of Five-day School Week System. Leisure.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34, 1-36.]

유재봉 (2019). 쉼과 탁월성을 위한 교육의 재해석. **신앙과 학문**, 24(3), 139-161.

[Yoo, J. B. (2019). Education for Leisure and Excellence: An Educational Reinterpretation. *Faith & Scholarship*, 24(3), 139-161.]

윤소영·유지윤·이강욱·김향자·노용구 (2007). 여가정책의 영역 및 향후과제에 대한 제안 연구. **여가**

학연구, 5(2), 72-87.

[Yoon, S. Y., Yu, J. Y., Lee, K. W., Kim, H. J. & Noh, Y. K. (2007). The Area of Leisure Policy and A Policy Direction in the Leisure Sectors. *Journal of Leisure Studies*, 5(2), 72-87.]

윤영훈 (2018). 놀이로 세우는 공동체-문화시대 신학과 목회를 위한 놀이의 재발견. **신학과 선교**, 54, 193-232.

[Yoon, Y. H. (2018). A Study of Play for Christian Theology and Ministry in the Age of Culture. *Theology and Mission*, 54, 193-232.]

이경직 (2003). 한국교회와 주5일 근무제. **신앙과 학문**, 8(2), 103-130.

[Lee, K. J. (2003). Korea Church and Five Days' Work. *Faith & Scholarship*, 8(2), 103-130.]

이미영·이홍직·안수경·윤수인·최순례·윤승태 (2019). 임금노동자의 일과 여가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 **노동정책연구**, 19(4), 63-96.

[Lee, M. Y., Lee, H. J., An, S. G., Yoon, S. I., Choi, S. R. & Yoon, S. T. (2019). The Effects of Wage Workers' Work and Leisure on Happiness. *Quarterly Journal of Labor Policy*, 19(4), 63-96.]

이정구 (2001). 새로운 교회문화 형성을 위한 대안. **한신대학교 신학사상 연구소**, 118, 61-84.

이진형·박종선 (2014). 힐링열풍과 관광개발: 개념, 사회문화적 배경과 사례. **동북아관광연구**, 10(1), 1-17.

[Lee, J. H. and Park, J. S. (2014). Healing Fever and Tourism Development in Korea: Concepts, Socio Cultural Background and Cases. *Northeast Asia Tourism Research*, 10(1), 1-17.]

이병찬 (2016). 여가스포츠 참가자의 일과 삶의 균형(WLB)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55(5), 549-557.

[Lee, B. C. (2016).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Work Life Balance and a Sense of Happiness of Leisure Sports Participants.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55(5), 549-557.]

이보미 (2015). 달리기 참여한 동기, 자기효능감, 진지한 여가와 심리적 몰입과의 관계 탐색. **관광학 연구**, 39(7), 53-69.

[Lee, B. M. (2015). Relationship of Participation Motivation in Running, Self-Efficacy, Serious Leisure and Psychological Commitment. *Korean Journal of tourism sciences*, 39(7), 53-69.]

임상도 (2013). 유아교육철학의 연구동향 분석: 전문학술지 중심으로. **교육과학연구**, 44(2), 169-

190.

[Lim, S. D. (2013).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the Philosophy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Case of Academic Journals.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44(2), 169-190.]

이문진·이연주·김재운 (2009). 가족여가의 연구동향과 과제.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3(2), 5-13.

[Lee, M. J., Lee, Y. J. & Kim, C. W. (2009). The Study Tendency and Future Research of Family Leisure. *Journal of leisure and recreation studies*, 33(2), 5-13.]

정혜진·양창훈 (2018). 행정학 및 정책학에서의 리질리언스 연구 동향 분석: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지**, 28(3), 49-74.

[Jung, H. J. and Yang, C. H. (2018). Research Trend of Resilience Studies in Public Administration and Public Policy Using Keywords Network Analysis. *Korean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 67, 49-74.]

조성돈 (2004). 주 5일 근무제와 개혁신앙: 여가화를 통한 사회적 변동과 삶의 목회. **한국개혁신학**, 16, 85-106.

허태균·박정열 (2004). 실패한 여가의 심리학적 의미: 무슨 여가를 왜 실패하는가?. **여가학연구**, 2(1), 69-85.

[Hur, T. K. and Park, C. Y. (2004). Psychological analysis of leisure failures. *Journal of Leisure Studies*, 2(1), 69-85.]

홍서연·김미량 (2017). 여성의 여가에 대한 연구 동향 분석: 2005년 이후 국내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체육학회지**, 67, 333-343.

[Hong, S. Y. and Kim, M. R. (2017). An Analysis of Research Trend on Women's Leisure : Focused on Articles Published in Korea since 2005.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67, 333-343.]

홍은선·정진철 (2014). 경력정체 관련 국내외 연구동향 비교분석.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6(1), 103-129.

[Hong, E. S. and Jeong, J. C. (2014).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Research Trends between Korean and the Other Countries Researches Related to Career Plateau.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46(1), 103-129.]

기독교적 여가연구의 동향과 향후 연구방향

Research Trends on Christians' Leisure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 A Review of South Korean Publications Since 2000

김 미 혜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논문초록

이 연구는 지난 20년(2000-2020)간 이루어진 국내 기독교적 여가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기독교적 여가연구 37편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내용분석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기독교적 여가연구는 주5일 근무제와 주5일 수업제의 영향으로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2015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연구물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둘째, 기독교적 여가연구는 문헌연구 75.7%, 양적연구 18.9%, 질적연구 5.4% 비중으로 수행되었다. 셋째, 기독교적 여가연구는 기독교신학 외에 체육학, 관광학에서 많이 시도되었다. 넷째, 기독교적 여가연구는 다섯 가지의 연구주제들이 도출되었으며, ‘기독교적 여가의 개념과 의미’, ‘기독교인의 여가체험 및 관련요인’, ‘기독교 여가문화’, ‘여가와 현대의 목회방향’, ‘여가와 현대의 기독교 교육’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다섯째, 기독교적 여가연구는 연구대상을 구체화하기보다는 기독교인이라는 일반적인 특성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여섯째, 기독교적 여가연구에서 많이 연구된 개념은 안식(sabbath, 15.8%), 문화(culture, 12.3%), 역사(history, 10.5%)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할 때, 향후 기독교적 여가연구자들은 기독교적 여가연구의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공론화함으로써 학문의 발전을 도모하고,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현장성 있는 이론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대상을 구체화하고 인접 학문(체육학, 관광학, 교육학 등)과의 융합을 통해 지식체계의 확장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기독교, 여가, 연구동향, 내용분석.

유럽 연합의 기독교적 기원에 관한 역사적 고찰: 로베르 쉬망의 생애와 사상을 중심으로*

**A Historical Research on the Christian Root of European Union:
Focusing on the Life and Idea of Robert Schuman**

최용준 (Yong Joon (John) Choi)**

ABSTRACT

This article is a historical research on the Christian root of European Union movement. It was a new movement in Europe after the 1st and 2nd world war, trying to make war impossible by creating the international higher authority in Europe. This article, first investigates how this movement was begun by Robert Schuman after the 2nd world war by looking at his life and thought. Furthermore, it deals with the development of this movement to see how it was rooted in Christian worldview of freedom, equality, human rights, unity, solidarity and peace. In conclusion, an attempt is made to identify the four points of contribution he has made and what are the implications of this history to Korean context.

Key words : European Union, Robert Schuman, Christian worldview, Freedom & Equality, Human Rights & Unity, Solidarity & Peace

* 2020년 07월 06일 접수, 07월 06일 최종수정, 09월 05일 게재확정
이 논문은 제36회 기독교문학회(2019년 10월 26일)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임.

** 한동대학교(Handong Global University) ICT창업학부 교수, 경북 포항시 북구 한동로 558, crosspower@handong.edu

I. 서론

유럽 연합(EU: European Union)은 제 1,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더 이상 참혹한 전쟁을 생각할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은 체제로 모든 분야를 새롭게 변화시킨 ‘패러다임 쉬프트(paradigm shift)’였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유럽 통합 운동의 중심에는 로베르 쉬망(Robert Schuman)이 있었다. 그가 프랑스 외무 장관으로 1950년 5월 9일에 발표한 쉬망 선언(Schuman Declaration)은 평화와 연대를 통해 유럽인들을 하나로 묶는 대담한 제안이었고 그 후 이 제안은 구체화되어 현재의 유럽 연합으로 발전했다. 따라서 이 쉬망 선언은 아마도 현대 유럽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며 1990년대 동구권 철의 장막의 극적인 붕괴 또한 이 선언 이후 유럽의 통합이라는 발전적 과정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쉬망 선언은 3분밖에 걸리지 않은 짧은 연설이었지만 오늘날 28개국 5억의 유럽인들이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역사에 유례가 없는 사건이다. 나아가 그의 이러한 선언 및 헌신적인 활동의 기저에는 기독교적 세계관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하지만 이 사실은 유럽 대부분에 잘 알려지지 않았고 한국에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이 역사의 대부분이 실행된 국가인 프랑스와 독일에서도 그 배후에 있는 가치들과 비전이 종종 무시되거나 잊혀지고 있다. 북유럽 국가들도 회원 또는 협력국으로 참여하지만 이 유럽 통합 운동의 뿌리를 잘 모르고 있으며 중부 및 동부 유럽 또한 이 운동의 근원을 종종 오해한다.

하지만 1962년에 프랑스의 샤를 드골(Charles de Gaulle)¹ 대통령과 서독의 콘라드 아데나워(Konrad Adenauer)² 총리가 양국의 평화를 기념하기 위해 프랑스의 유명한 랭스 대성당(Cathédrale Notre-Dame de Reims)에서 함께 예배드린 것은 기독교가 분명히 화해의 종교임을 보여준 상징적 행사였다. 나아가 이 기념예배가 끝난 후, 수십만 명의 양국 학생들이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한 달 간 서로의 학교를 방문함으로써 새로운 세대들로서 우정과 이해를 구축할 수 있었다. 이 두 사건은 모두 쉬망의 아이디어를 현실화한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영어권에서 이 쉬망의 잊혀진 비전을 되살리기 위해 파운틴(Jeff Fountain)³은 *Deeply Rooted*라는 책을 출판했다(2014).⁴ 또한 자일스트라(Jurjen Zeilstra)도 인종차별주의, 민족주의 및 전쟁의 도전에 직면하여 기독교회들 간의 일치와 평

1) 프랑스의 레지스탕스 운동가, 군사 지도자, 정치인 및 작가로 1945년 6월부터 1946년 1월까지 임시정부 주석, 1958년 6월 1일부터 6개월 총리로 재직했고 1959년 1월 8일에 제18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1969년 4월 28일까지 재임하였다.

2) 독일연방공화국의 초대 총리로 독일 기독교 민주연합(Christlich Demokratische Union Deutschlands: CDU)의 당수를 지냈고 1951년부터 1955년까지는 외무장관을 겸하기도 하였다.

3) 뉴질랜드 출신으로 1975년에 네덜란드에 와서 국제선교단체인 YOUTH WITH A MISSION 사역을 시작한 후 1989년에 유럽 전체 YWAM 지도자로 임명되었고 그 해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는 사건들을 보면서 유럽 연합운동 배후에 쉬망의 기독교적 뿌리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 책을 썼다.

4) 본서는 2020년 6월 4일, '깊이 뿌리내린'이란 제목으로 한글로 번역, 출판되었다. (최용준, 2020)

화에 대한 희망과 유럽의 민족들 및 국가들 간의 연합과 평화에 대한 희망이 얼마나 커졌는지 입증했다(Zeilstra, 1995).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유럽 연합이 시작된 것은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 기독교적 정신인 평화, 일치, 연대, 인권, 섬김 및 이웃사랑을 증진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어 버렸는데 쉬르마허(Thomas Schirrmacher)는 이 쉬망의 비전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Fountain, 2010: 13).

이 쉬망의 유럽 연합운동에 관해 영어(Fountain, 2014; Krijtenburg, 2012; Pelt, 2000), 독일어(Mittendorfer, 1983) 및 프랑스어(Lejeune, 1986; Schirrmann, 2008; Roth, 2008; Lejeune, 2000)로 된 연구들은 많으나 한글로 된 연구는 거의 없으며 조용기는 유럽 연합이 오히려 종말론적인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조용기, 2018: 237-243). 하지만 이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쉬망의 생애와 사상을 역사적으로 고찰하면서 그가 유럽 정치와 신앙을 통합하여 새로운 연합의 비전을 제시한 것이 비성경적이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 세계관에 깊이 기초해 있음을 밝히고 이것이 유럽을 어떻게 변혁시켰는지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그가 남긴 유산 및 한국 사회에 주는 교훈을 결론적으로 도출하겠다.

II. 유럽 연합의 기독교적 기원에 관한 역사적 고찰

1. 로베르 쉬망의 생애와 사상

1) 로베르 쉬망의 생애

로베르 쉬망은 태어날 때부터 진정한 의미에서 유럽 시민이라고 할 수 있다. 1886년 6월 29일 룩셈부르크(Luxembourg)의 클라우센(Clausen)에서 출생했으며⁵ 그의 아버지는 프랑스인이었으나 프랑스와 독일의 영토 분쟁지역이었던 알자스로렌(Alsace Lorraine)지역이 독일 영토가 되면서 독일 시민이 된 반면 어머니는 룩셈부르크 출신이었다. 로베르는 혈통주의(*jus sanguinis*)의 원칙에 따라 태어날 때에는 독일시민이었으나 1919년 알자스로렌지역이 다시 프랑스령이 되면서 국적이 프랑스로 바뀌는 등 평생 국적이 다섯 번이나 바뀌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자란 그는 항상 ‘국경인(border person)’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그의 어머니는 로베르를 경건한 신앙인으로 키우기 위해 정기적으로 미사에 데려갔으며 경건 서적을 읽게 하였다. 로베르가 1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그는 1896년부터 1903년 간 룩셈부르크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고 1904년부터 1910년간은 베를린(Berlin), 뮌헨(München) 본(Bonn) 및 스트라스부르(Strasbourg) 대학에서 법

5) 그의 생가는 현재 MAISON R. SCHUMAN(쉬망 하우스)로 룩셈부르크 대학에서 Centre d'études et de recherches européennes Robert Schuman (CERE, 로베르 쉬망 유럽 연구 센터)로 쓰이고 있으며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cere.public.lu).

학을 전공했다. 하지만 그는 성경, 신학 및 철학도 깊이 연구한 학자로서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5-1274)를 포함한 중세 철학의 전문가였으며 특히 프랑스의 가톨릭 철학자인 자끄 마리 탕(Jacques Maritain, 1882-1973)을 존경했다고 한다.

1911년에 모친이 마차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쉬망은 가톨릭 사제가 되어 종교적 삶에 귀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으나 친구였던 앙리 에쉬바흐(Henri Eschbach)가 ‘오는 시대의 성인들은 민간인 성인들(les saints de l’avenir seront des saints en veston)’이라고 말하자 쉬망은 이를 ‘그리스도인들이 주게 하는 것보다 무신론자들이 살도록 돕는’ 삶을 살라는 신적인 격려로 받아들였다고 한다(Fountain, 2010: 43). 또한 독일에서의 학업을 통해 1871년부터 1878년까지 비스마르크(Otto von Bismarck, 1815-1898) 총리가 문화투쟁(Kulturkampf)을 통해 가톨릭교회에 미친 영향에 알게 된 후,⁶ 그는 종교적 관용을 변호하기 위한 법적 노력이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다.

교황 레오 13세(Leo XIII, 1810-1903)가 가톨릭의 사회적 교리를 정리한 ‘레룸 노바룸(Rerum Novarum)’⁷을 읽은 쉬망은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경제에 바탕을 둔 관용적이고 정의로운 사회의 필요성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 후부터 쉬망은 사회 활동에 헌신하여 1912년에 알자스로렌지역의 메츠(Metz)에 법률사무소를 개원했으며 1913년에는 메츠에서 독일 가톨릭 대회(Katholikentag)를 조직하고 지원했다.

1914년, 제 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메츠가 독일령이었으므로 그도 독일군 부대에 보충병으로 소집되었으나 건강이 나빠 대체 복무로 변경되었다. 1차 대전 후 알자스로렌 지방이 다시 프랑스령으로 돌아오면서 쉬망은 정치적 야망이 거의 없었지만, ‘레룸 노바룸’에서 그린 정의롭고 관대한 사회를 향해 일할 기회를 인식하여 1919년 모젤(Moselle)의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33세의 젊은 국회의원으로서 쉬망은 알자스로렌 지방에 시행되던 비스마르크 법령을 프랑스 대도시의 법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가령 파리는 교육의 강제적인 세속화와 국가 사회보장과의 연계를 제안했다. 대부분의 알자스로렌 주민들은 비스마르크가 그들에게 우수한 사회보험을 주었다고 믿었고 쉬망도 동

6) 문화투쟁은 1871년에서 1878년까지 프로이센(Preußen)의 비스마르크 총리가 신생 독일제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로마가톨릭 교회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실시한 정책이었다. 이에 저항하던 프로이센 주교의 절반이 투옥 또는 추방되었고, 네 교구 중 한 개, 수도사와 수녀의 절반이 프러시아를 떠났으며, 수도원과 수녀원 3분의 1이 폐쇄되었고, 1800명의 교구 사제들이 투옥 또는 추방되었으며, 수천 명의 평신도들도 성직자들을 도운 죄로 투옥되었다. 그러자 가톨릭 신자들은 자체적으로 정당(독일중앙당)을 만들어 대항했고 결국 비스마르크는 이 정책을 철회하였다(ko.wikipedia.org/wiki/문화투쟁).

7) 1891년 5월 15일에 공포한, 사회 문제를 다룬 최초의 교황 회칙. 문자적으로 "새로운 것들에 관하여"라는 뜻이지만 내용은 자본과 노동의 권리 및 의무들이며 당시 열악한 노동자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사유재산권은 인정하면서도 극단적인 사회주의와 무제한적인 자본주의를 배격하고 노동자들이 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지지하였다. 또한 적정 임금을 받을 권리를 제창하고 이를 위한 국가적 입법을 권장하였다. 이것은 노동 문제에 대한 가톨릭 원칙을 공식화한 것으로 현대 가톨릭 사회이론의 기본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후 교황 비오 11세(Pius XI, 1857-1939)의 *Quadragesimo anno*(1931), 요한 23세(Ioannes XXIII, 1881-1963)의 *Mater et magistra*(1961) 및 요한 바오로 2세(Ioannes Paulus II, 1920-2005)의 *Centesimus annus*(1991)에 의해 보완되었다(en.wikipedia.org/wiki/Rerum_novarum).

의했다. 문화투쟁에도 불구하고, 독일인들은 알자스로렌에서 가톨릭 신자, 개신교 신자 및 유대인들도 학교를 운영하도록 허용했다. 쉬망은 각자 양심을 따라 자신 종교와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민주적 권리를 위해 맹렬하게 싸우면서 파리의 중앙집권정책은 비민주적이며 심각한 문제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 결과 오늘날 프랑스에서 지역에 고유한 자유와 이점들을 보장하는 법은 '쉬망법(Lex Schuman)'으로 알려져 있다.

전 독일 학생친구들과 폭넓은 교류 및 가톨릭 사회 활동을 통해 국제주의적 시각을 갖게 된 쉬망은 프랑스 또는 독일인의 민족주의적 감정을 경계하게 되었다. 동시에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인류 전체에 대한 공통적인 믿음과 호의의 연대를 인지했으며 그가 참석했던 가톨릭과 외교적인 국제회의를 통해 국가 간의 이해와 협력, 동반자 관계 그리고 존중을 증진할 필요성이 있음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그의 실력, 겸손함, 청렴함 및 경청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는 지지자들과 반대자들 모두에게 존경을 받아 전쟁이 다시 일어날 때까지 1928년에 띠틈빌(Thionville) 동부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으며 1932년에 재선되었다. 1936년에는 카트농(Cattenom) 지역 상임의장(General Councilor)에 당선되었으나 1940년 레노(Paul Reynaud, 1878-1966)⁸ 및 페탕(Henri Philippe Pétain, 1856-1951)⁹ 정부(3-7월) 산하 난민 협의회 의장 비서로 지내다 9월 14일 게슈타포(Gestapo)¹⁰에 의해 체포되고 말았다. 그는 이런 모욕을 당한 최초의 프랑스 국회의원으로 1941년 4월 13일에 독일 팔라티네이트(Palatinate)의 노이슈타트(Neustadt)에서 가택 연금되었으나¹¹ 1942년 8월 1일에 극

8) 프랑스의 정치인이자 변호사로 1940년 3월 21일부터 1940년 6월 16일까지 프랑스 제3공화국의 총리 및 중도 우파 민주공화동맹 부총재였다.

9) 프랑스의 군인이며, 비시(Vichy) 정부의 수반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 때의 무공으로 한때 프랑스의 국부로 칭송받았으나, 제2차 대전 동안 나치독일에 협력하여 프랑스 국민들의 "공공의 적"으로 지목되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비시 프랑스(Vichy France)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독일의 점령 하에 있던 남부 프랑스를 1940년부터 1944년까지 통치한 정권으로 프랑스에서는 비시정부(Régime de Vichy)라고 부르며 정식 명칭은 프랑스국(l'État français)이다. 파리 남쪽에 있는 비시를 수도로 정하고 전쟁에 대해 중립을, 나치독일에 대해 독립적 외교관계를 구축하였으나 1942년 핏불작전에 대한 보복으로 독일군이 남부 프랑스까지 진주하여 사실상 멸망했고 통제권은 프랑스 군정청으로 넘어갔으며 그 후 비시프랑스는 이름만 2년을 더 유지하다 소멸했다(ko.wikipedia.org/wiki/비시_프랑스). 페탕은 거의 절대 권력을 장악했고 '사회적 위계질서'를 지지하면서 공화당의 이상인 '자유, 평등, 우애'를 해체하기 시작하면서 권위적, 부계 중심적, 반국제적 국가로 빠르게 전환하였고,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수감되었다. 전후, 페탕은 반역죄로 총살되기 전에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나중에 드골은 그가 1차 대전에서 세운 공로를 감안하여 종신형으로 감형했다(Keyserlingk, 1972: 4).

10) Geheime Staatspolizei의 준말로 나치 독일의 비밀 국가경찰이다.

11) 독방에 감금된 지 7개월 후, 쉬망은 심사를 거쳐 가택연금 상태가 되었다. 심문관은 아데나워가 쾰른(Köln) 시장이었던 1932년에 쉬망이 쾰른을 방문한 것을 두고 두 사람이 공모자임을 입증하려 했고(Schuman, 2010: 68-69) 1938년 오스트리아를 방문하여 히틀러(A. Hitler)에 의해 축출된 많은 유명한 시민들을 만났던 것도 심사 대상이었다. 신임 국가판무관(Reichskommissar) 뷔르켈(J. Bürckel)은 오스트리아에서 일했던 잔인하고 효율적인 독재자로 쉬망을 다하우(Dachau) 강제수용소에 보내겠다고 위협하며 로렌에 있는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나치 정권을 지지하도록 회유했다. 히틀러(H. Himmler) 무장친위대(SS: Schutzstaffel) 부장의 동료였던 뷔르켈은 유럽의 유대인들을 말살시키기 위한 계획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고위직 제의를 통해 쉬망을 달래려 했다. 그는 쉬망에게 여러 주제들에 대해 독일어로 기사를 쓰도록 요청했는데 그의 이름으로 된 기사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유용한 나치 선전일 것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쉬망은 나치 독일에 대해 가능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려고 교묘히 대화했고 뷔르켈이 쉬망의 협조를 얻어내려고 제한된 이동의 자유를 허용하자 그를 방문한 사람들을 통해 레지스탕스와 은밀히 접촉했다. 그는 동부 전선에서 독일의 사상자들과 자원들의 감소를 보여주는 그림을 만들었고 1942년 초에 이미 연합군의 승리를 확신했으며 홀로코스트 정보를 자유세계에 전달하기 위해 탈출방법을 찾으려 했다(Fountain, 2014: 46-48).

적으로 탈출하여 프랑스에서 지하운동원이 되었다.¹²⁾

1944년 9월에 모젤로 돌아온 그는 다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으며 1946년에 재선되었고 재무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1947년에는 폴 라마디에(Paul Ramadier, 1888-1961) 정부의 재무장관을 역임했고 프랑스 총리(1947-48년)직도 수행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후 유럽의 통합과 평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 핵심 중재자 역할을 했다. 가령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¹³⁾, 마샬 플랜(Marshall Plan)¹⁴⁾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The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¹⁵⁾ 등의 창설이다. 하지만 1950년 5월 9일 그가 유럽 최초의 초국가적 공동체인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를 제안한 쉬망 선언¹⁶⁾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성사된다면 유럽에서 전쟁은 더 이상 상상할 수도 없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쉬망은 프랑스 정국의 제 3세력으로 프랑스 공산당과 드골주의에 정면 배치하는 정책을 주장했으며 프랑스 외무장관으로 그는 1948년 9월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면서 프랑스의 목표는 민주적인 유럽 공동체를 조직하는 것임을 밝혔다. 그 후 1949-50년까지 그는 유럽과 북미 여러 지역에서 강연회를 열며 자신의 주장을 역설했다. 마침내 프랑스 정부도 쉬망 선언에 동의했고 독일을 비롯해 모든 유럽 국가들의 석탄철강업계가 동참할 수 있도록 권유하였다. 서독의 아데나워 총리 또한 즉시 동의했으며 이태리와 베네룩스 3국도 동의한 결과 1951년 4월 18일 파리회의에서 이 6개국이 서명함으로 유럽 역사상 최초의 초국가단체인 유럽석탄철강공동체가 출범하였다. 이 단체는 1957년 로마 조약에 의해 유럽경제공동체(EEC: European Economic Community)로 발전하였고 이것이 1993년에 현재와 같은 유럽 연합(EU: European Union)이 되었다.

1951년 쉬망은 모젤의 국회의원으로 재선되었고 1955년에는 마침내 유럽운동(European Movement)의 대통령이 되어 1961년까지 재직했다. 1955-56년에는 다시 법무장관을 지냈고 1956년에는 모젤의 국회의원으로 재선되었으며 1958-60년까지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의회(European

12) 그는 '꼬르도니에(Cordonnier, '구두수선공')'의 위조신분증을 만든 후 1942년 8월 1일, 경계가 느슨한 보초를 피해 탈출하여 그 지역의 수녀원과 수도원에 숨었다. 그를 체포하려고 대규모 인력이 동원되었고 10만 마르크의 현상금도 걸렸으나 13일간 700km를 이동한 그는 푸아티에(Poitier) 동쪽 몽모리용(Montmorillon)에 있는 경계선을 통과해 마침내 프랑스로 왔다(Fountain, 2014: 48-49).

13) 1949년에 설립된 유럽의 국제기구로서 유럽의 경제·사회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가맹국들의 긴밀한 협조에 의한 공동 이상과 원칙을 지지하며 국방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유럽 통합을 지향한다.

14) 공식 명칭은 유럽부흥계획(the European Recovery Program: ERP)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의 황폐화된 동맹국들을 위해 미국이 계획한 재건, 원조계획이다. 미국의 국무장관 마샬(George Catlett Marshall, 1880-1959)이 제창했기 때문에 마샬 플랜 또는 마샬 계획이라고 불리며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는 것도 목적이었다. 전체적으로 120억불(2016년으로 환산하면 거의 1,000억불)에 달하는 경제 원조를 제공하였다.

15) 국제 군사기구로 1949년 4월 4일 체결된 북대서양조약(the North Atlantic Treaty)에 의해 창설되었고 본부는 벨기에 브뤼셀(Brussels)에 있다. 이 기구는 회원국이 어떤 비가입국의 공격에 대응하여 상호 방어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집단 방어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16) 이 선언의 초안은 그의 동료 장 모네(Jean Monnet, 1888-1979)가 작성하였다.

Parliamentary Assembly) 의장으로 재직하다 1962년에 건강이 악화되어 은퇴한 후 1963년 9월 4일 씨-샤젤르(Scy-Chazelles)에서 작고했다.¹⁷

2) 로베르 쉬망의 사상

그렇다면 쉬망은 어떻게 이런 기독교 세계관에 뿌리를 둔 유럽 통합이라는 사상을 가지게 되었는가? 무엇보다 먼저 그의 독특한 성장배경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알자스로렌이라고 하는 특별한 지역에서 자라났다. 이곳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프랑스와 독일이 계속 영토 분쟁을 일으킨 곳이며 그 결과 쉬망은 여러 번 국적이 바뀌었고 나아가 그는 인류역사상 가장 치참한 제 1, 2차 세계대전을 직접 체험했다. 프랑스와 독일이 이 지역을 두고 벌인 분쟁은 결국 유럽인들을 전면전으로 끌어들여 유럽대륙은 20세기 전반에만 두 번이나 초토화되었다. 따라서 그에게 ‘평화와 화해’는 단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매우 실존적이고 절실한 필요에서 나온 구체적인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는 성경에 기초한 그의 세계관이다. 모친을 통해 독실한 신앙을 물려받은 그는 계속해서 성경을 묵상하며 자주 수도원에 가서 깊은 기도와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¹⁸ 그는 히틀러의 패배 이후 수년간 유럽을 지배하던 증오와 불신 그리고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며 나아가 황폐화되고 분열된 유럽을 어떤 기초와 가치관으로 새롭게 재건할 것인가라는 도전에 직면했다. 그러면서 용서와 화해, 자유와 평등, 인권과 평화 그리고 일치와 단결의 성경적 비전을 발전시키면서 유럽 국가들 간에 전쟁의 악순환을 영구히 단절하고 지속적인 번영을 이루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따라서 그의 책임의식에 동기를 부여한 가치는 분명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해 있었으며 이것이 새로운 유럽의 토대와 대안이 되어야 함을 확신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치즘으로 대표되는 사회진화론적 우생학, 무신론적인 합리주의, 국수주의적인 민족중심주의 나아가 파시즘과 같은 세계관들로 유럽을 재구성하려던 수십 년간의 시도는 완전히 실패했음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럽의 새로운 미래는 기독교적 세계관의 회복과 올바른 적용에 달려있다고 그는 확신했다.

셋째로 그는 이 기독교 세계관을 국제정치에 적용하여 새로운 유럽 연합체라는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그의 실천 방안은 매우 설득력이 있었고 그 결과 실질적 열매를 맺었다. 당시 전후 서유럽은 공산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도전과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고 따라서 자칫 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전쟁 이후 시작된 마셜 플랜을 통한 미국의 경제 원조와 쉬망의 제안으로 결

17) 2007년에 개관한 씨-샤젤르의 로베르 쉬망 하우스(Maison de Robert Schuman)는 그의 연설 및 저술들을 보관하고 있다. 파운틴은 쉬망의 비전을 성경적으로 재조명하면서 유럽의 신앙적 유산들을 정리하고, 현재 상황을 성경적으로 분석하며, 미래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그의 이름을 딴 '쉬망 센터(The Schuman Center: www.schumancentre.eu)'를 설립했다.

18) 그 중에서도 라인강변에 있는 마리아 라흐(Maria Laach) 수도원에서 그는 여러 친구들과 교제하면서 유럽에 대한 비전을 구체화했다(Krijtenburg, 2012: 40)

성된 나토(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의해 이전에 서로 적대적이었던 국가들이 군사동맹을 맺어 이제는 더 이상 서로 전쟁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되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만으로 유럽 국가들 간의 불신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쉬망은 더 나아가 ‘용서와 화해’라는 도덕적 분위기가 조성된 새로운 국제공동체가 필요함을 깨달았다. 그 결과 그의 주도로 전쟁 후 신속하고도 지속적으로 진행된 프랑스와 서독의 화해는 전후 유럽통합의 중심역할을 했고 나아가 쉬망 선언을 통해 열매 맺은 유럽석탄철강공동체와 이것이 지속적으로 발전한 결과 현재의 유럽 연합을 통해 유럽은 지금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넷째로 그는 관용과 평등을 강조하면서 교회와 국가의 차이도 분명히 인식했다. 폐탕의 천주교 신앙이 다른 신념들에 대해 반동적이고 편협했던 반면 쉬망의 세계관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믿었다. 나아가 교회는 국가의 영역에 간섭해서는 안 되며 어떤 특정한 정치 체제나 정부와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즉 ‘황제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마태복음 22:21). 이러한 쉬망의 사상은 그의 모든 정치적 행동을 이끌며 동기를 부여했다. 가령, 앞서 언급한 ‘쉬망법’은 성경의 평등 원칙에 기초해 다른 신앙에 대한 관용을 구현한 것으로 기독교 세계관이 모든 사람들은 원래 평등하고, 인종, 피부색, 사회적 지위 또는 직업에 관계없이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본다면, 국가들 역시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랑과 자선이라는 기독교적 사회관은 모든 사람을 이웃으로 만들었으며 그러한 관계가 지속되었다(Fountain, 2010: 55).¹⁹⁾

다섯째로 쉬망은 민주주의 또한 기독교 세계관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했다. 따라서 그는 드골의 민족주의에 대해 불편함을 느껴 런던(London)으로 드골이 그를 초청한 것도 거절했다. 진정한 민주주의의 뿌리, 평등의 원리, 형제애의 실천, 개인의 자유 및 권리에 대한 존중은 모두 쉬망이 이해하는 한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세계관이 실제로 적용되자 유럽은 수세기에 걸쳐 변화되었고 결국 자유 민주주의를 낳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쉬망은 기독교적 원칙들이 유럽 문명의 특징이 되었고, 17세기 합리주의자들도 사실상 인권과 시민의 권리를 이 원칙에서 도출했다고 보았다. 쉬망은 현대 철학자들인 베르그송(Henri Bergson, 1859-1941)과 마리탱을 인용하면서 민주주의는 사랑이 주된 원천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복음주의적이라고 생각했다(Schuman, 2010: 43-51).

그는 과반수 투표에만 바탕을 둔 헬레니즘 시대의 민주주의는 ‘다수의 독재’로 끝날 것이며 진정한 민주주의는 섬김을 필요로 한다고 보았다. 즉, 국민을 섬기고 국민과 함께 행동하는 것이며 이 목표는 평화적으로 시작되고 진행되어야 했다. 쉬망에게 있어 ‘이웃 사랑’이라는 성경의 원리를 민주주의 원

19) 쉬망은 그의 선언에서 아프리카에 대해 언급하면서 유럽 이외의 국가들의 중요성도 인정했다.

칙으로 적용한다면 그것은 이웃 민족들을 섬기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가 제시한 유럽의 미래는 매우 기독교적이며 민주주의적이었다. 유럽은 기독교적 전통에 깊이 뿌리박고 있기에 이러한 뿌리에서 단절되면, 평등, 인간의 존엄성, 관용 및 동정심의 기반을 잃게 될 것이라고 그는 보았다. 또한 그는 종교를 무시하거나 반대하는 국가를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왜냐하면 국가는 사회적 붕괴를 시도하는 세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있어 신앙의 비범한 능력을 무시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Fountain, 2010: 57).

마지막으로 경제 영역에도 그는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이웃 사랑과 연대’를 강조했다. 현대의 산업화된 유럽은 교회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가져왔는데 단순한 기독교 자선단체만으로는 더 이상 근로자와 고용자계급의 갈등에 의한 체계적 불평등에 대처하기에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도전에 대해 쉬망은 앞서 언급한 ‘레툼 노바툼’을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바탕을 둔 사회의 새로운 연대를 제시한 지침으로 이해했다. 즉 계급투쟁을 강조하는 공산주의나 개인주의에 초점을 맞춘 자유주의는 해답이 아니었고 화해와 연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통치할 책임이 있으며 소위 ‘보충성의 원칙(the principle of subsidiarity)’에 따라 사회 내 다양한 지역사회를 존중해야 하며 따라서 모든 결정들은 사회를 구성하는 더 작은 지역사회와 협회가 가능한 자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Fountain, 2010: 58). 그러므로 쉬망은 연대, 보충성 및 평등이야말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한 가치들이라고 생각했다. 심지어 적으로 여겨지던 사람들도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성경적 명령이며 그는 이것이 전후 유럽이 가야 할 길이라고 믿었다. 즉, 정치와 경제 구조는 국가와 국민에게 적용되는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지역, 국가 그리고 유럽의 모든 수준에서 구축되어야 한다고 그는 주장한 것이다. 따라서 당시에 남아 있던 유대인에 대한 적대감도 국제적인 인권 보장에 의해 불가능하게 되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각 사람은 창조주의 형상(*Imago Dei*)으로 만들어졌다는 성경적 세계관에 뿌리를 두어 그는 음식, 피난처, 옷, 교육 및 관계 등에 대한 권리도 인권에 포함시켰다. 다시 말해, 인권 보장 또한 ‘이웃 사랑’이라는 명령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쉬망의 사상은 철저하게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것임을 볼 수 있다.²⁰

2. 유럽 연합에 대한 오해

하지만 쉬망의 사상은 다양한 반대와 오해에 부딪혔다. 첫째로 2004년에 제안된 유럽 연합헌법에서 하나님, 기독교 또는 기독교적 가치를 언급하는 것에 대해 프랑스는 반대했다. 특히 지스카르 데스탱(Valéry Giscard d'Estaing, 1926-)²¹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 때문에 하나님과 기독교에

20) 쉬망이 남긴 유일한 책인 *Pour l'Europe*의 제3장은 제목을 아예 "유럽은 기독교적 의미에서 광범위한 민주주의의 실현이다 (L'EUROPE, C'EST LA MISE EN ŒUVRE D'UNE DÉMOCRATIE GÉNÉRALISÉE DANS LE SENS CHRÉTIEN DU MOT)"라고 붙였다(Schuman, 2010: 41).

21) 1974년에서 1981년까지 제20대 프랑스의 대통령을 지낸 중도 우파 정치인이다.

대한 어떤 언급도 거부했는데 이것은 매우 심각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²² 왜냐하면 양심의 자유라는 위대한 유럽의 원칙을 설립한 사람은 사실상 성경에 기초하여 종교개혁운동을 일으킨 마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이기 때문이다. 루터는 보름스 의회(Reichstag zu Worms)에서 성경에 기초한 신앙양심에 따라 자신의 입장을 철회할 수 없음을 천명하였기 때문이다. ‘유럽의 아버지’²³ 쉬망은 정신적 진전이 물질적 진보와 함께 가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미래 세대가 영적 뿌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유물론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때에만 유럽의 화해와 평화적 통합 운동은 성공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²⁴ 그는 자신의 개인적 신앙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정치 영역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인식하면서 경쟁적인 이념들로 분리된 유럽의 재건은 유럽에 깊이 뿌리 내린 기독교적 기본 가치들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신념을 분명히 표현했다. 나아가 이러한 그의 신념은 서독의 아데나워와 이탈리아의 데 가스페리(Alcide De Gasperi, 1881-1954) 총리가 공유했다. 아데나워에 의하면 쉬망 및 데 가스페리는 기독교적 기초에 새로운 유럽을 건설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으며²⁵ 이 일이 노력해야 할 가치가 있는 정치적 및 경제적 목표일뿐만 아니라 진정한 기독교적 의무라고 믿었다(Lean, 1985: 380).

둘째로 일부 목회자들도 오랫동안 ‘기독교적 기반에 선 유럽의 재건’이라고 하는 그의 사상에 대한 무관심했으며 오히려 의심하면서 철저한 적대감을 보이기까지 했다. 가령 조용기는 다니엘서 강해에서 유럽이 통합되는 것을 종말의 징조로 보았고(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QEIT&artid=277)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나타난 열 뿔 달린 짐승을 유럽의 연합체로 해석했다(조용기, 2018: 239-243). 하지만 이는 전혀 근거가 없으며 쉬망의 사상 및 아데나워와 데 가스페리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유럽 연합은 더 이상 10개국이 아니라 이제는 28개국이 되었으며 브렉시트(Brexit)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입하려는 국가들이 대기하고 있다.

셋째로 로마가톨릭 신자들이 시작한 것에 대한 개신교도들의 의심도 무시할 수 없었다. 쉬망의 비전에 대해 북유럽 쪽으로 갈수록 무지와 무관심이 많았다. 물론 이러한 반응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왜냐하면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스위스, 독일 및 북유럽 국가들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정치적, 종교적 자유를 로마가톨릭교회가 사용하는 매혹적인 전략에 넘어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개신교회와 천주교회는 여전히 특정 사안들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상호 포용하고 협력하려는 분위기가 증가하고 있다(Noll & Nystrom,

22) EU 헌법 초안의 마지막 문구는 다음과 같다. '인간의 불가침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자유, 민주주의, 평등 및 법치의 보편적 가치들은 유럽의 문화적, 종교적, 인본주의적 유산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이다.'

23) 1960년, 나중에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가 된 유럽 회의(European Assembly) 첫 의장으로 2년간 연임한 후, 로베르 쉬망은 공식적인 기립박수로 '유럽의 아버지'로 인정받았다.

24) 1956년 3월 12일 국제 가톨릭 기관들의 연합 모임에서 한 연설.

25) 1951년 8월 23일 아데나워가 쉬망에게 보낸 편지. 데 가스페리는 당시 이태리 총리였다.

2005). 가령 교황 베네딕트 16 세(Benedict XVI)²⁶는 2008년 11월 19일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인 대중들에게 매주 행하는 연설을 통해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한 것은 옳다고 선언했으며(Benedict XVI, 2009: 78), 1999년 10월 31일 아우크스부르크(Augsburg)에서 루터교회와 로마가톨릭 지도자들은 칭의 교리에 관해 합의하였다(Joint Declaration on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 2000). 나아가 점차 세속화되는 유럽에서 많은 개신교도들과 천주교도들은 그들의 공통점이 차이점들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두 진영의 독일 기독교인들은 나치 정권에 의해 함께 박해받고 저항하면서 이런 자각에 이르게 되어 전후 독일 기독교민주연합(CDU: Christlich Demokratische Union Deutschlands)²⁷을 함께 창당하여 서독의 재건에 핵심 역할을 감당했다.

넷째로 일부 개신교인들은 ‘브뤼셀’로 대표되는 ‘유럽’은 ‘보충성(subsidiarity)’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권력 집중화를 도모하는 운동으로 보면서 반대한다. 영국의 액튼 경²⁸의 유명한 경고처럼 “모든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므로 지방분권화를 더 강조한다. 나아가 유럽 전역에 비성경적 가치들을 증진시키는 일부 유럽 연합 기관들의 지침에 나오는 세속적이고 무신론적인 인본주의 및 다른 사상들은 유럽이 다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beast)이 되지 않을지 우려한다. 하지만 파운틴은 바실 흄(Hume, 1994)같은 가톨릭 주교들로부터 주류 교회 지도자들의 통찰력 있는 보고서들과 연설들을 발견한 후 브뤼셀에 있는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건물인 벨라몽(Berlaymont)²⁹ 밖에서 YWAM(Youth with a Mission) 리더십 팀을 만났을 때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그들 중 일부는 이 ‘벨라몽 짐승(Berlaymonster)’의 어딘가에 모든 유럽인들에 관한 정보를 모으는 빅브라더(Big-Brother) 컴퓨터가 있다고 주장하는 종말론적 예언자들의 주장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었다. 당연히 그들은 건물에 들어서자 보안 요원에게 여권을 제시했다. 하지만 유럽 위원회 공무원이 따뜻한 악수와 함께 “형제님들, 우리 기도로 시작할까요?”라는 친근한 말로 인사하자 모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슈퍼컴퓨터에 관해 묻자 안내원은 웃으며 말했다.

26) 이전 교황 베네딕트 16세는 당시 라칭거(Ratzinger) 추기경으로서 이 합의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27) 독일이 바이마르 공화국의 실패로부터 배운 교훈 중 한 가지는 민주적 정당의 분열이 궁극적으로 나치당의 부상을 허용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 민주주의자들의 연합당, 즉 기독교민주연합당을 창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며 그 결과 자유주의적 보수주의의 정치적 전통에 영향을 깊게 받은 범기독교(가톨릭과 개신교) 정당이 설립되었다. CDU는 1945년 6월 26일 베를린에서 창설된 이후로 1950년 10월 21일 첫 번째 전당 대회까지 상당한 지지를 얻었고 그 전당 대회에서 아테나워 총리가 당수로 지명되었으며 지금도 독일의 최대다수당이다(ko.wikipedia.org/wiki/독일_기독교민주연합).

28) 액튼 남작(John Emerich Edward Dalberg-Acton, 1st Baron Acton: 1834-1902)은 영국의 가톨릭 정치인이며 역사가이다.

29)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건물이름. 원래 이름은 Dames de Berlaymont으로 이곳에는 300년 된 수녀원 및 여자 기숙학교가 있었는데 유럽집행위원회 건물이 들어오면서 브뤼셀 남쪽으로 옮겼다. (en.wikipedia.org/wiki/Berlaymont_building#Background)

“사람들이 우리가 컴퓨터에 대해 얼마나 무식한지 알고 있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전쟁 후 유럽을 재건하는 어려운 일에 직면하면서 끊임없이 전쟁하던 국가들을 화해시킬 필요성을 알게 된 소수의 독실한 기독교 정치인들에 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시작했다(Fountain, 2014: 23).

3. 유럽 연합 운동의 과정

1) 희망 선언

1950년 5월 8일 월요일, 쉬망은 미슐리히(Robert Mischlich)에게 자신의 계획을 요약한 서신을 비밀리에 서독 아데나워 총리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다음날 쉬망은 회신을 기다리고 있었고 프랑스 내각회의가 끝날 무렵 마침내 다음과 같은 아데나워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다. “이 프랑스의 제안은 모든 면에서 역사적인 것이다. 그것은 내 조국의 존엄성을 회복시키며 유럽을 연합하는 초석이다.”(Fountain, 2014: 35)

그러자 쉬망은 내각회의에서 긴급히 새 의제를 제안하면서 이 계획과 서독의 동의 서한을 공개했다. 결국 프랑스 내각은 그날 저녁 6시에 외무부가 있는 께 도르세(Quai d'Orsay)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제안서를 공개하기로 결의했다.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영국 및 미국 대사들에게 공문이 급히 전달되었으며 200명의 언론인들에게 초대장이 발송되었다. 당일 저녁 6시, 갑작스러운 초대에도 불구하고 파리의 소수 저널리스트들과 정부 관료들, 정치인들 그리고 외교관들이 참여했다.

쉬망은 선언문을 읽기 시작했는데 먼저 세계 평화란 위협과 동등한 규모의 창의적인 노력을 필요로 한다고 언급한 후 과거 유럽을 연합하려던 프랑스의 노력은 실패하여 전쟁이 일어났음을 지적했다. 나아가 유럽의 통일은 하나의 계획에 의해서는 결코 성취되지 않을 것이며 프랑스와 서독 간에 구체적인 연대를 구축하고 해묵은 적대감을 제거하는 조치가 필요한데 프랑스 정부가 한 가지 결정적인 부분에 대해 즉각 취해야 할 조치를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프랑스와 서독의 석탄 및 철강 생산을 각국 정부의 권위를 초월하는 공통적인 초국가적 고등기관의 감독 하에서 진행하고 다른 유럽 국가들도 이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경제 발전을 위한 공통기반을 조성하고 역사적으로 전쟁을 위한 탄약 생산에 몰두해 온 동시에 가장 지속적으로 많은 희생자들을 낸 지역의 운명을 바꿀 것인데 여기서 쉬망은 구체적으로 독일의 자르(Saar) 및 루르(Ruhr) 산업 지역을 주로 언급했다. 이러한 생산 연대는 프랑스와 독일 간의 전쟁을 상상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며 생산의 일치는 경제 통합을 원하는 모든 국가들에게 진정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것은 양국의 생활수준을 높이고 평화로운 성취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그러면 유럽은 아프리카 대륙을 발전시키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공통된 경제체제

는 국가들 간의 더 넓고 깊은 공동체로 발전될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따라서 프랑스, 서독 및 기타 회원국들을 묶는 초국가적 연합체의 설립은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 필요한 유럽 연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결론 지으면서 보다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했다(Schuman, 2010: 145-151).

이것은 3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쉬망이 프랑스와 서독 그리고 다른 참가국들 간의 상호 존중 및 협력이라는 새로운 관계를 통해 유럽의 가능한 새로운 미래를 제안한 것으로 매우 중대한 선언이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프랑스가 전쟁에서 패한 독일을 동등한 파트너로 받아들이면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한 점이다. 그러자 그 후 며칠간 세계 언론들은 이 계획의 천재성과 관대함을 특종으로 대서특필했다(Fountain, 2014: 37-38). 영국의 ‘데일리 헤럴드(Daily Herald)’는 “프랑스가 국가들을 깜짝 놀라게 한다(France takes the nations by surprise)”는 제목을 붙였고 서독의 ‘보너 룬트샤우(Bonner Rundschau)’는 “프랑스에서 온 놀라운 소식(Eine Sensation aus Frankreich)”이라고 헤드라인을 달았다. 프랑스의 ‘르 몽드(Le Monde)’는 이를 “혁명적 제안(une proposition révolutionnaire)”이라고 부르며 1면의 대부분을 할애했다. 반면에 프랑스의 공산주의 신문인 ‘뤼마니테(L’Humanité)’는 이 제안을 연합 전쟁을 재건하기 위한 첫 단계로 소련에 대한 위협으로 보았다. 그러나 스위스 신문인 ‘지 운트 에어(Sie und Er)’는 이 제안을 한 쉬망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진지하고, 날씬하며, 대머리이고, 환상이 없으며, 심각하지만 유머감각이 없고, 청렴, 근면하고, 신앙심이 깊으며, 조용한 인물로 프랑스 공화국 정치가의 이미지에 잘 맞지 않는다. 그는 프랑스어도 잘 하지 못한다. 그의 모국어는 독일어인데, 대부분의 동료들과는 달리 그는 음악에 전혀 관심이 없다.... 그가 오늘날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프랑스가 겪었던 변화가 얼마나 프랑스를 근본적으로 겸손하게 만들었는지 보여주는 징후였다. 쉬망은 제 3공화국의 많은 장관들처럼 부패하지 않았고, 드골처럼 달변이거나 거만하지도 않고, 비도(Bidault)의 눈부심과 재치를 공유하지도 않았다. 그는 직설적이고 정직했으면서도 호감을 주는 정치인이었다(Fountain, 2014: 38).

2) 유럽의 통합과정

1949년 5월 5일, 쉬망은 런던의 세인트 제임스 궁(St. James's Palace)에 다른 유럽 국가 지도자들과 함께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 정관에 서명하기 위해 갔다.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및 영국이 창립 서명국이었다. 쉬망은 프랑스 대표로 서명하면서도 이 위원회가 인권은 보호하겠지만 추가 조치가 필요함을 알고 있었다. 런던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그는 전쟁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초국가적 협의체나 민주주의 연합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민족주의와 경쟁의 결과 과거 유럽은 피비린내 나는 전쟁으로 지구를 파멸 직전까지

물고 갔다. 이제는 평화에 초점을 맞춘 민주주의적인 초국가적 연합이라는 새 시대로 옮겨야 하며 이것이 정신적 및 정치적 성장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그는 믿었다. 이는 ‘이웃사랑’이라는 성경적이며 민주주의적 원칙에 바탕을 둔 거대한 ‘유럽의 실험’이었다.

11일 후 스트라스부르에서 쉬망은 10세기 동안의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유럽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생각해 온 위대한 실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초국가적 연합’을 다시금 강조했다. 그는 중세 로마가톨릭교회는 독일 황제들의 시도 및 총통(Führertum)의 가식적인 ‘매력들(charms)’과 함께 실패했다고 지적하면서 이어 유럽의 정신은 패권이나 타인에 대한 이기적인 착취 같은 숨겨진 동기 없이 완전한 상호주의 정신으로 공동체를 기꺼이 섬김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19세기에는 봉건주의가 반대에 부딪혔고 민족주의가 부상함에 따라 국가들이 자신들을 앞세웠으며 국가들과 민족주의의 끊임없는 충돌을 초래한 양차 대전을 목격한 이 세기에는 초국가적 연대를 통해 국가들의 화합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각 국가의 다양성을 보호하는 동시에 통일성으로 각 지역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그는 보았다.

그러나 쉬망이 이 주제를 더 널리 알릴수록, 전쟁이 끝난 후 몇 년 동안 이루어진 모든 진보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많은 내적 좌절감을 느꼈다. 그는 북대서양 조약(North Atlantic Treaty)에 서명하기 위해 프랑스 대표로 워싱턴을 방문하여 서방의 안정을 가져올 군사 동맹인 나토의 탄생을 목격했다. 그러나 이 조약이 정치와 군사 영역에만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그는 보았다. 즉, 무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서구 생활 방식의 깊고 새로운 내적 변화가 필요했던 것이다. 마샬 플랜도 이미 1년간 진행되어 유럽 국가들이 산업을 현대화하고 무역 장벽을 낮추며 희망과 자립을 촉진하도록 돕고 있었다. 이것들은 모두 황폐하고 지쳐버린 유럽을 재건하는데 필수 요소들이었다.

하지만 쉬망은 두 가지가 여전히 실종되었다고 느꼈다. 첫째, 정치적 의지력과 초국가적인 연합의 틀이었다. 쉬망은 새로운 유럽을 건설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믿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별로 확신하지 못했다. 심지어 그의 후임자인 비도(Georges Bidault, 1899-1983) 총리도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자신의 정부로부터 거의 지지를 느끼지 못했다. 두 번째는 내부로부터 깊고 내적인 변화를 향한 개인적인 의지력이었다. 그는 미국의 경제적 군사적 모든 도움이 프랑스나 독일 또는 일반 유럽인들이 ‘그들의 이웃을 그들 자신처럼 사랑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쉬망이 제안한 유럽석탄철강공동체는 이듬해 파리 조약을 통해 마침내 법적 현실이 되었다. 이탈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를 포함한 참가국들과는 여전히 많은 세부 사항들을 협상해야만 했지만 이것은 법이 지배하는 초국가적 실체를 만들기 위해 자발적으로 각국의 주권을 서로 종속시키는 세계 역사상 첫 번째 사례였다. 쉬망과 아데나워 그리고 데 가스페리의 유럽에 대한 공통적인 신념과 비전에 의해 타협은 매우 쉽게 이루어졌다. 그들은 새로운 유럽이 기독교적 기초 위에 재건축되어

야 하고, 유럽석탄철강공동체가 그 비전을 향한 첫 발걸음이라는 공동의 신념은 이 세 정치가들이 파리 조약에 서명하기 전 마리아 라흐(Maria Laach) 수도원에서 열린 기도회 모임에서 이미 반영되었다(Fountain, 2014: 39). 쉬망이 새로운 유럽을 위해 꿈꾼 네 개의 기둥들은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장관 위원회(Council of Ministers), 유럽 협의회(the Common Assembly, 현재 유럽 의회) 그리고 룩셈부르크에 있는 법원(Court of Justice)이다. 이처럼 원래 쉬망 플랜에는 유럽의 통합 과정을 이끌어 온 많은 전략들이 숨어 있었다. 핵심 소수 국가들과 함께 앞서 나가면서, 통합에 대한 ‘2단계’ 접근은 1950년 5월 9일 이후 비교적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60년이 지난 후에는 27개국의 연합체로 가능하게 되었고 이 기간 동안 회원국들 간에 전쟁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쉬망은 그의 책에서 새로운 유럽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하며 마지막 장을 다음과 같이 끝맺고 있다: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하여금 그 운명의 시간, 그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 주시길 빈다.”(Schuman, 2010: 144)

쉬망도 가끔 낙심할 때가 있었다. 그 때 그를 격려하고 도와 준 중요한 인물은 미국의 복음전도자로 도덕재무장(MRA: Moral Re-Armament)운동을 주도하는 동시에 전후 유럽의 화해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프랭크 버크먼(Frank Buchman, 1878-1961)이었다. 그는 자신의 연설들을 모아 『세상을 다시 만들기(Remaking the World)』라는 책을 출판하였는데(1947) 이 책은 쉬망에게도 큰 감동을 주어 그 책의 프랑스어 판에 서문을 써주었다. 그러면서 쉬망은 버크먼에 대해 더 많은 신뢰와 유대감을 느꼈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그는 독일과 프랑스의 국경지역에서 자라난 자신의 배경 때문에 프랑스인과 독일인의 사고방식 및 그들 간의 문제들을 알고 있었기에 양국 간의 증오를 종식시키는 데 자신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 자신이 없다고 솔직히 말하자 버크먼은 그가 현재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이므로 그 곳에 머물러야 한다고 쉬망을 격려했다. 그 후 쉬망은 프랑스와 독일이 화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버크먼의 공헌을 인정하여 명예의 전당에서 그에게 기사작위를 수여했고 아테나워도 버크먼에게 독일 공로 훈장을 수여함으로써 그의 공헌을 인정했다.

III. 결론

본 논문에서는 유럽 연합 운동의 기원이 무엇이며 이것이 어떻게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사회를 총체적으로 변화시켰는지 로베르 쉬망의 생애와 사상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이에 네 가지를 결론으로 언급하겠다.

첫째로 쉬망은 잘 준비된 유럽통합프로젝트의 설계자였고 건축가였다. 독일과 프랑스의 국경 지대에서 태어나 두 나라의 국적을 번갈아 소유하였고 양국에서 공부하고 일하였으며 나아가 양차 세계대전을 직접 경험했다. 1차 대전 후 베르사이유 조약(Treaty of Versailles)이 독일인들에게 미치는 엄청난 부담과 경제 침체가 민족주의적 보호주의로 이어짐을 목격했으며 정치적 스펙트럼의 한쪽 끝에는 러시아 혁명, 다른 한쪽 끝에는 이탈리아의 파시즘과 독일의 국가사회주의를 시작으로 국제 공산주의가 부상하는 것도 보았다. 이런 격동의 시대를 통해 자유, 평등, 연대 및 평화에 기초한 안정되고 정의로우며 지속적인 새 유럽의 패러다임을 찾는 것은 그의 평생 사명이 되었다. 심지어 계슈타포에 체포되어 고초를 겪었지만 독일을 미워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영구적인 화해가 가능할지 심사숙고하여 결국 ‘쉬망 플랜’이라고 하는 놀라운 비전을 선언하면서 유럽 연합의 초석을 놓았다.

둘째로 그는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유럽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면서도 그 뿌리는 기독교적 정신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 지도자였다. 2차 대전 후 프랑스의 외무 장관으로 전후 유럽이 상호 미움과 불신을 제거하고 화해와 평화를 이루기 위한 미래 비전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라는 원칙하에 초국가적 민주공동체를 유럽에서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나아가 자유와 평등, 단결과 평화는 기독교적 가치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분명히 선언하면서 진정한 민주주의도 기독교적 섬김과 이웃 사랑에 기초함을 강조하여 미래의 연합된 유럽은 기독교적인 동시에 민주적이 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이러한 성경적 전통과 유산에서 단절된다면 평등, 인간의 존엄성, 관용 그리고 연민의 정신을 잃게 될 것이라고 그는 경고했으며 동시에 유럽의 다양성과 통일성(unity with diversity)도 기독교 세계관적 관용과 평등 정신에 의해서만 가능함을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유럽석탄철강공동체 뿐만 아니라 유럽평의회 및 나토를 창설하는 주역이 되어 역사상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양차 대전을 종식하고 전쟁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면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했다는 점에서 진정한 유럽의 화해자였다고 말할 수 있다.

셋째로 쉬망은 다른 여러 지도자들과 지혜롭게 동역할 줄 아는 지도자였다. 아데나워, 데 가스페리 및 버크먼 등 그와 함께 한 당시 지도자들의 협력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유럽 연합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 쉬망은 매우 설득력 있는 논리로 유럽의 평화와 연합을 이끌어 내었던 지도자였다. 그는 당시 전쟁을 일으키는 데 가장 중요한 두 산업, 즉 프랑스의 철강 산업과 독일의 석탄을 초국가적 연합체가 권위를 가지고 관리하지 않는 한 제 3차 세계대전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제안하여 유럽 연합의 초석을 놓았다. 그가 바로 이러한 지역에서 활동했기에 누구보다 이 점이 핵심임을 잘 알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 최선의 해결책을 제공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유럽 연합은 매년 5월 9일을 그 창립 기념일로 정하여 지키고 있다. 이 날은 아마도 유럽의 현대사에서 철의 장막이 드라마틱하게 무너진 것보다 더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왜

나하면 유럽은 양차 세계 대전 이후 역사에 유래가 없이 70년 가까이 평화를 지속적으로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쉬망은 그의 기독교적 세계관과 구체적인 유럽의 정치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합하여 시대적인 사명인 평화와 화해 그리고 일치와 연대의 성경적 가치관에 기초한 유럽 연합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함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킨 위대한 인물이었다. 그의 확신과 통합적 실천은 한국 전쟁 이후 여전히 분단된 한반도 및 동북아 상황에도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기독교 지성인들은 이 쉬망의 삶과 사상 그리고 유럽 연합운동의 역사를 더욱 깊이 연구하고 벤치마킹하면서 이 시대에 분단된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고 화해와 번영 및 궁극적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비전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나아가 주변국들과도 평화와 화해를 이루도록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조용기 (2018). *요한계시록강해*, 서울: 서울말씀사.
- [Cho, Y. G. (2018). *Commentary on the book of Revelation*, Seoul: Seoul Logos Co.]
- Benedict XVI (2009). St Paul-General audiences July 2, 2008-Feb 4, 2009, San Francisco: Ignatius Press.
- Bond, M.; Smith, J. & Wallace, W. eds. (1996). *Eminent Europeans*, London: Greycoat Press.
- Buchman, F. (1947). *Remaking the world: The speeches of Frank N.D. Buchman*, London: Blandford Press.
- Fountain, J. (2014). *Deeply Rooted: The Forgotten Vision of Robert Schuman*, Eastbourne: Seismos Press.
- 최용준 역 (2020) *깊이 뿌리내린: 로베르 쉬망의 잊혀진 비전*,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 Hume, B. (1994). *Remaking Europe*, London: SPCK.
- Keyserlingk, R. W. (1972). *Patriots of Peace*, Gerrards Cross: Colin Smyth.
- Krijtenburg, M. (2012). *Schuman's Europe: His frame of reference*, doctoral dissertation, Leiden/The Hague.
- Lean, G. (1985). *Frank Buchman, a life*, London: Constable & Son.
- Lejeune, R. (2000). *Robert Schuman, père de l'Europe 1863-1963 : la politique, chemin de sainteté*, Paris: Fayard.
- _____. (1986). *Robert Schuman : une âme pour l'Europe*, Paris: Saint-Paul.
- Mittendorfer, R. (1983). *Robert Schuman-Architekt des neuen Europa*, Darmstadt: Weiher Druck GmbH.
- Noll, M. & Nystrom, C. (2005). *Is the Reformation Over?*, Grand Rapids: Baker.
- Pelt, J.-M. (2000). *Robert Schuman, Father of Europe*, Thionville: Serge Domini.
- Roth, F. (2008). *Robert Schuman : Du Lorrain des frontières au père de l'Europe*, Paris: Fayard.
- Schirrmann, S. (dir.) (2008). *Robert Schuman et les pères de l'Europe : cultures politiques et années de formation*, Bruxelles, Peter Lang, coll. « Publications de la Maison de Robert Schuman. Études et travaux » (no 1).

Schuman, R. (2010). *For Europe*, ed. by Fondation Robert Schuman, Geneve: Nagel.

The Lutheran World Federation and the Roman Catholic Church (2000) *Joint Declaration on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 Grand Rapids: Eerdmans.

cere.public.lu

ko.wikipedia.org/wiki/문화투쟁

en.wikipedia.org/wiki/Berlaymont_building#Background

en.wikipedia.org/wiki/Rerum_novarum

ko.wikipedia.org/wiki/비시_프랑스

ko.wikipedia.org/wiki/독일_기독교민주연합

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QEIT&articleno=277

유럽 연합의 기독교적 기원에 관한 역사적 고찰: 로베르 쉬망의 생애와 사상을 중심으로*

A Historical Research on the Christian Root of European Union:
Focusing on the Life and Idea of Robert Schuman

최 용 준 (한동대학교)

논문초록

본 논문은 유럽 연합 운동의 기독교적 기원에 관한 역사적 고찰이다. 이 통합 운동은 제 1, 2차 세계 대전 후 새롭게 일어난 것으로 유럽에 초국가적 국제기구를 창설하여 전쟁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계획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이 운동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어떻게 로베르 쉬망(Robert Schuman)에 의해 시작되었는지 그의 생애와 사상을 통해 심도 있게 고찰한다. 나아가 이 운동에 대한 오해들을 지적하면서 유럽 연합이 어떻게 자유와 평등, 인권과 일치 그리고 연대 및 평화라고 하는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해 있으며 그 통합과정이 어떠한지를 밝힌다. 결론으로 쉬망이 남긴 공헌은 먼저 잘 준비된 유럽통합프로젝트의 설계자 및 건축가였고,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유럽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면서도 그 뿌리는 기독교적 정신에 있음을 분명히 밝혔으며, 다른 여러 지도자들과 지혜롭게 동역할 줄 알았고, 그의 성경적 세계관과 유럽의 정치 및 삶을 통합하여 시대적 사명인 평화와 화해, 일치와 연대 및 이웃 사랑의 성경적 가치에 기초한 유럽연합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주도함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킨 위대한 인물이었음을 지적한 후 이것이 한국 상황에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도출한다.

주제어: 유럽 연합, 로베르 쉬망, 기독교 세계관, 자유와 평등, 인권과 일치, 연대와 평화

토라의 경제관과 경제학적 함의*

Torah's Economic Perspective and Its Implication of Economics

조규봉 (Kyu Bong Cho)**

ABSTRACT

In our time when inequality is deepening, this study draws Torah's economic perspective and looks for a connection point with normative economics in order to examine whether the biblical economic view is still effective in analyzing and solving problems of inequality. In the light of the realization of the Kingdom of God, Sabbath, Jubilee, consideration for economically underprivileged are identified as the Torah's economic perspective. The three Torah items may restrain humans from being captivated to unlimited proliferation of greed and proclaim God as the ultimate owner of capitals for production more focusing on restoring the relationship in the community rather than on maximizing its production. In terms of the social relationship, Torah's economic view can be thought of in conjunction with Sen's concept of poverty. As Sen regards poverty as a persistent deprivation of capabilities in the relationships, economically underprivileged in Torah such as slaves, orphans, widows, and sojourners are exactly the categories of poverty defined by Sen. This conceptual convergence can provide a meaningful basis for discussing who are slaves, orphans, widows, and sojourners, and how to implement the social supports that Torah has stressed about them.

Key words : Torah, normative economics, poverty, capability

* 2020년 07월 06일 접수, 09월 09일 최종수정, 09월 09일 게재확정

** 한동대학교 경영경제학부 교수 (Handong Global University),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558, kbcho1@handong.edu

1. 서론

근래 한국을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소득과 부(wealth)의 불평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06년 이후로 소득 기준 상위 10%가 국가 전체 소득의 40% 이상, 순자산은 상위 1%가 국가 전체의 25% 정도를 점유하는 등 양극화의 흐름이 견고해지는 추세다. 이러한 양극화의 고착은 사회경제적 약자층이 경제적으로 자활할 수 있는 토대를 점차 상실하여 신분 상승의 가능성을 낮출 우려가 크다. 기존 경제학계에서도 이에 대한 원인과 대처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기술의 변화·발전에 교육 시스템이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나 노동 소득에 대한 평등 관념, 세제(tax policy) 등 분배와 관련된 사회규범 문제를 다룬 연구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은 사회적 협의를 통해 제도화되기 어렵고 기초적인 수준에서 제도화가 이루어지더라도 불평등 문제 해소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최근 한국 기독교계에서도 불평등 심화 문제에 대해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져 왔다. 일부에서는 현대 사회의 경제적 양극화의 근본 원인으로 신자유주의를 지목하면서 신자유주의 체제가 성경적 가치와 대립하는 지점에 대한 신학적·윤리학적 접근을 시도해 왔다(박승인, 2015; 2019; 이봉석, 2018; 곽호철, 2016; 김명배, 2012; 장윤재, 2005). 다른 한편에서는 부의 편중, 특히 한국 사회에서 논쟁의 대상인 토지 등 부동산과 관련하여 희년 정신을 현재화하는 토지 정의 실현 주장이 꾸준히 대두되어 왔다(조혜신, 2018; 정중호, 2014; 김근주 외, 2012; Torrey, 2002). 이러한 연구들은 성경적 관점을 우리가 처한 현실의 문제 속에서 해석하고 구현해 보려는 시도로 삶의 현실과 신앙의 분리를 가져온 이원론적 입장을 극복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노력으로 읽힌다.

하지만 우리가 직면한 불평등 문제에 대하여 신학적·윤리학적 비판이나 희년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경제 정의 실현에 대한 논의와 달리 성경적 경제관과 경제학의 연결점을 찾아 분석하려는 시도는 그리 많지 않다. 사실 현대 경제학은 선형적인 가치에 대한 논증보다는 엄밀한 모형을 바탕으로 수학·통계적 방식을 활용하여 검증 가능한 논의 체계를 지향하는 실증경제학(positive economics)이 주류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과 관련된 선형적, 윤리적 관점과 조화를 이루기가 쉽지는 않다. 그렇다고 경제학 연구에서 선형적, 윤리적 가치를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스미스(Adam Smith)를 비롯한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소위 규범경제학(normative economics)으로 불리는 영역을 넘어 윤리학과 연관된 주제까지 다루었고, 근래에도 센(Amartya Sen)과 같은 경제학자들은 규범경제학과 연관된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센은 현대 경제학에서 실증적인 방법론이 강화됨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한 윤리적 성찰을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비판하면서 규범경제학과 연관된 연구를 확장해 왔다(Sen, 1988). 따라서 불평등 문제와 관련하여 규범경제학에서 논의되어 온 주요 주제와 성경적 경제관과의 접점을 찾아

보고자 하는 시도는 성경적 경제관에 대한 논의를 확장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도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먼저 현대 사회가 직면한 경제적 불평등 양상을 분석한 후 최근 경제학계에서 제시하는 대처방안과 그 한계를 짚어보고 성경적 경제관이 현대 사회에도 여전히 의미가 있음을 논하였다. 그런 다음 성경적 경제관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성경적 경제관과 현대 규범경제학의 접점을 찾아보기 위해 센이 제시한 새로운 빈곤 개념을 설명한 후 센의 빈곤에 대한 관점이 성경적 경제관과는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분석해 보았다.

우선 성경에서 나타난 경제관을 찾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구약성경의 토라(Torah, 모세오경)를 주된 텍스트로 삼았다. 토라는 하나님 나라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서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성경적 경제관을 조망할 수 있는 훌륭한 텍스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요약해 보자면 크게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 그리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형성이라 할 수 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토라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경제관을 본 고에서는 안식일에서 희년으로 이어지는 율법 조항과 경제적 약자층에 배한 배려 조항에서 찾았다. 안식일과 희년 조항은 끊임없이 증식하는 인간 탐욕에 대한 경계 장치 역할을 함과 동시에 생산수단의 궁극적 소유주가 여호와 하나님임을 명시함으로써 경제 활동에 있어 인간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있다.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여타 구성원에게 자신의 소유를 무한정 주장하지 않음으로써 경제적 약자계층이 가난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고통 받지 않도록 다양한 사회적 안전장치를 두고 있기도 하다. 이는 토라에서 추구하는 사회에서는 물질적 생산의 극대화보다는 공동체 속에서 상호 관계의 정상화에 더 큰 비중을 부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토라에서 자주 등장하는 노예, 고아와 과부, 거류민은 그러한 약자계층을 대표하는 사람들로서 단순히 소득이나 부를 갖지 못한 것에 더하여 경제적으로 회복의 가능성이 희박한 계층이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토라의 경제관이 강조하는 사회경제적 ‘되돌려놓음(reset)’은 바로 사회경제적 약자층에 대한 회복의 메시지였던 셈이다. 토라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을 위한 지침이기 때문에 이를 문자 그대로 현대 사회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사회적 약자층을 향한 회복의 메시지가 가지는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한 첫 단계가 현대 사회의 노예, 고아와 과부, 거류민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보편적 경제학의 언어로 풀어내는 것이다. 그 이후에 그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를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한 방안이 구체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 사회의 경제적 약자층을 정의하기 위해 센이 제시한 빈곤의 관점을 토라의 경제관과 연결하여 살펴보았다. 센은 빈곤을 단순히 소득이 낮은 수준으로 보지 않고 상호 관계 속에서 개인의 기본적인 역량(capabilities)의 지속적인 상실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물질적 생산의 극대화보다 공동체 속에서 상호 관계의 정상화에 더 큰 비중을 두는 토라의 경제관과 연관성이 있다. 더욱이 토라의

경제관에서 사회적 관심과 보호의 대상인 노예, 고아와 과부, 거류민은 셴이 말한 지속적 역량 상실에 직면한 경제적 약자층과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셴이 제시한 빈곤의 관점은 현대 사회의 노예, 고아와 과부, 거류민이 누구인지 설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토라의 경제관을 바탕으로 현대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풀어내는 귀중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불평등 문제에 직면한 현대 사회에 토라의 경제관이 여전히 유효함을 설명하고 셴이 제시한 빈곤 개념과의 연관성을 기반으로 향후 경제적 양극화를 감소시키는 방안으로써 토라 경제관의 가능성을 새롭게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논문은 서론 이후 다음과 같은 구성을 취하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경제학적 대처 노력과 한계를 짚어볼 것이다. 이어서 토라의 관점에서 본 경제관을 하나님 나라의 구현 측면에서 안식일, 희년 조항 및 경제적 약자층 배려 조항을 중심으로 설명할 것이다. 뒤이어 셴의 빈곤에 대한 관점을 소개하고 이를 토라의 경제관과 연결하여 비교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가지는 의미와 한계를 밝힌 후 후속 과제를 제시하면서 본 논문을 결론 짓고자 한다.

II. 경제적 불평등의 양상

먼저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양상이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빈곤선(poverty line)을 기준으로 산정한 절대 빈곤층¹⁾의 비율은 1990년 36% 수준에서 2015년 10% 수준까지 꾸준히 감소해 왔다. 하지만 절대 빈곤층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소득(income)과 부(wealth)의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최근 프랑스의 경제학자 피케티는 광범위한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과 부의 불평등 상황이 심각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경제학계에 큰 논쟁을 불러오기도 했다(Piketty, 2017; Piketty and Saez,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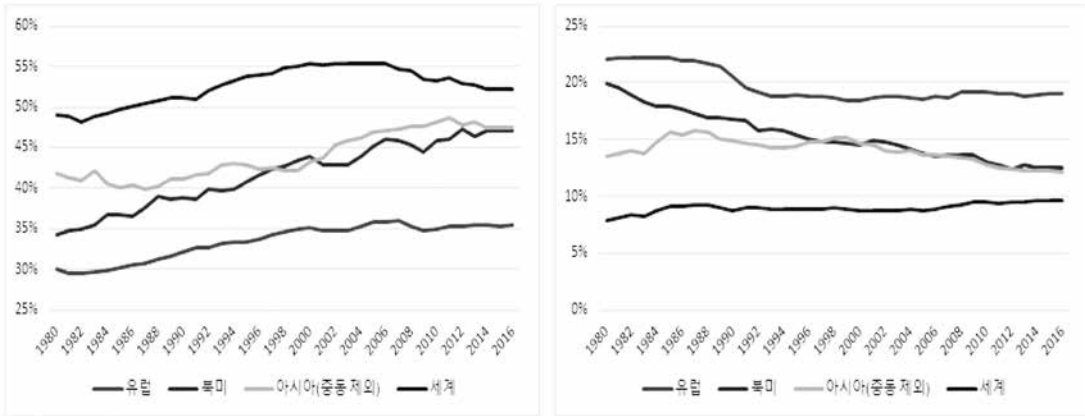
본 논문에서는 『세계 불평등 데이터베이스(World Inequality Database)』에서 공개한 자료를 기준으로 소득과 부의 양극화 추세가 실제로 어떠한지 국제 상황과 국내 상황을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분석을 위해 소득은 개인별 세전 소득(pre-tax income)²⁾을, 순자산은 개인별 금융 및 비금융 자산을 합산한 후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net personal wealth)을 적용하였다.

1) 보통 성인이 1년 동안 소비하는 모든 필수 자원의 총비용을 구하여 추정하게 되는데, 글로벌 기준(international poverty line)은 2015년 10월 기준, 'USD 1.9/일'이다. (출처: World Bank)

2) 세전 소득은 임금 등 노동 관련 소득, 이자·배당금 등 자본 관련 소득을 납세 이전 기준으로 합산한 개념이다. 따라서 납세 이후에 소득을 표현하는 가처분 소득(disposable income)과 구분되는 개념이다.

1. 세계적인 불평등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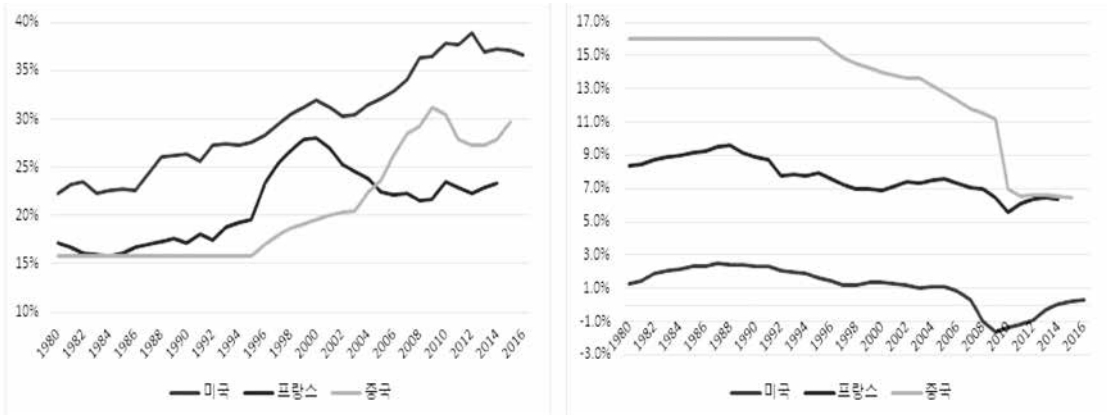
Figure 1. Pre-tax National Income Share of Top 10% (Left) and Bottom 50% (Right)



(Source) World Inequality Database

우선 소득의 불평등을 보면 그 양상이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유럽, 북미, 아시아 등 세계적 현상임을 알 수 있다. Figure 1은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상위 10%와 하위 50%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세계 기준으로 보면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북미와 아시아(중동 제외)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하위 50%의 비중은 2000년대 들어 하락하는 양상이 뚜렷하다. 구체적으로 세계 기준 하위 5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미만에 불과하며 유럽을 제외한 북미·아시아 등의 지역에서는 그마저도 하락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소득 상위계층이 하위계층에 비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2. Top 1% Net Personal Wealth Share (Left) and Bottom 50% Share (R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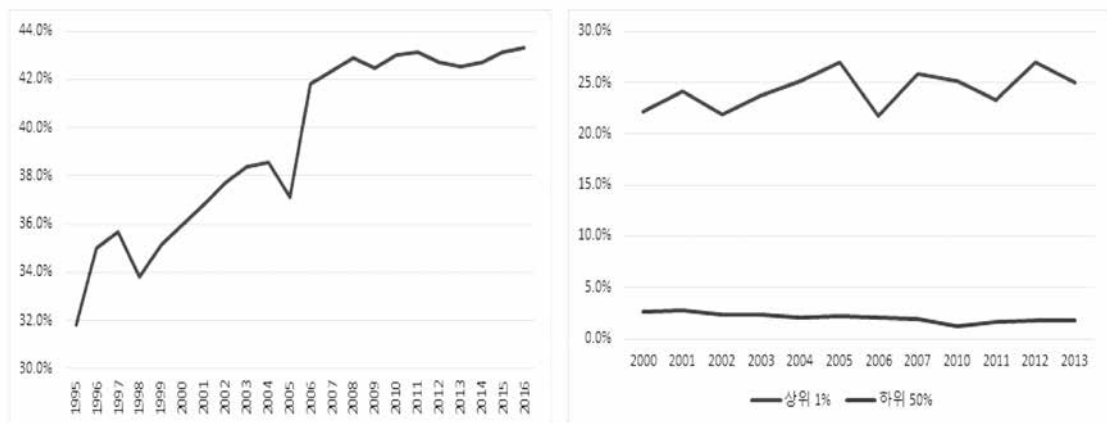
(Source) World Inequality Database

순자산을 기준으로 측정한 부의 불평등 양상은 앞서 살펴본 소득의 경우보다 정도가 더 심각하다. 다만 자료가 일부 국가에 한정되어 있어 대륙별 혹은 세계 기준으로는 자료를 수집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음을 밝혀둔다. 대륙별로 북미에서 미국을, 아시아에서는 중국을, 유럽에서는 프랑스를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하였고 Figure 2가 그 결과를 보여준다. Figure 2에 따르면 3개 국가에서 모두 순자산 기준 상위 1%가 전체 순자산의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미국의 경우 상위 1%의 비중이 35%를 상회하고 있다. 반면, 하위 50%의 경우 순자산의 비중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개 국가에서 모두 하락하여 10% 미만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앞서 상위 1%의 비중이 독보적이었던 미국의 경우 하위 50%의 비중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한동안 마이너스 점유율을 보이기에까지 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대침체(Great Recession)’로 불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하위 50%의 비중이 급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경제적 위기는 하위계층에 훨씬 큰 타격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한국의 불평등 추세

『세계 불평등 데이터베이스(World Inequality Database)』 자료의 소득과 부를 기준으로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 양상을 분석해 보면 세계적인 추세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소득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공개하는 세금 산정 기준 소득(fiscal income)을 활용하였고 부에 대한 자료로는 앞서 분석한 것처럼 순자산 관련 자료를 활용하였다. 소득 자료는 1995년, 순자산은 2000년 이후로만 공개되어 있는데 순자산의 경우 2007, 2008년 자료가 누락된 한계가 있었다.

Figure 3. Top 10% Fiscal Income Share (Left) and Net Personal Wealth Shares (Right)



(Source) World Inequality Database

『세계 불평등 데이터베이스(World Inequality Database)』에 공개된 자료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소득 상위 10%의 점유율은 199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왔는데 2006년에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한 후 42~44%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유럽을 제외한 북미, 아시아(중동 제외)의 평균적인 수준과 유사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순자산의 경우에는 상위 1%가 국가 전체의 1/4 가까이 점유하고 있는데 반해 하위 50%는 점유율이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이러한 양극화의 흐름이 더 견고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순자산 가치 상위 1%의 비중을 보면 미국과 중국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프랑스와 유사한 상황이지만 하위 50%의 비중을 보면 프랑스와 중국보다 낮은 상황이다.

3. 불평등 심화에 대한 대처방안과 한계

근래 경제학계에서도 경제적 불평등 확대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처방안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다. 그 가운데 주목할 만한 주장은 기술의 변화·발전에 대해 교육의 변화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다(Goldin and Katz, 2008). 정보산업(Information Technology) 등 고도의 지적 역량과 기술이 필요한 산업영역이 확대되고 글로벌 경쟁은 격화되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교육 시스템 변화는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전반적인 소득 격차가 커졌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진단의 연장선에서 보면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려면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교육체계의 개선만으로 경제적 불평등 확대 문제를 해소하기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교육 시스템이 경제 여건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문제 인식은 미국이 유럽보다 소득 격차가 확연히 큰 이유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미국의 교육 시스템이 유럽과 비교해서 현저히 뒤처진다고거나 유럽의 첨단 기술 수준이 미국 보다 현저히 뒤처진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경제적 양극화는 노동소득에 대한 평등 관념, 세제(tax policy) 등 사회적 규범에 기인하는 측면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Piketty, 2017; Piketty and Saez, 2014). 이러한 주장은 미국과 유럽의 차이를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평등한 분배를 달성하기보다는 경제적 유인구조(incentive mechanism)에 기반한 생산성 향상과 부의 증진에 초점을 맞춘 미국이 유럽보다 경제적 양극화가 심각한 양상임은 이미 살펴본 바 있다. 결과적으로 교육 시스템의 혁신과 함께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사회규범의 변화를 적극 추진한다면 경제적 불평등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 기대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개선책만으로 경제적 불평등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되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우선 국가 차원의 교육 시스템을 혁신하고 이를 공교육 시스템에 접목하는 것은 단순한 작업이 아니다. 상당한 연구와 재정적 뒷받침은 기본이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사회적 협의를 거쳐야 한다. 지지기반을 넓혀 선거에서 우월한 득표를 원하는 정

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이러한 과정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란 쉽지 않다. 그나마 교육 시스템에 대한 개선은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사회규범의 변화에 비한다면 오히려 수월한 일이다. 세제 개선 등을 통한 분배구조 개선을 추진하려면 첨예한 사회적 갈등을 감수해야 하며 사회 전반의 합의된 개선안을 도출하기도 어렵다. 그나마 그러한 개선책이 기초적인 수준에서 제도화되더라도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사실 경제적 불평등의 확대는 근래 발생한 새로운 문제는 아니다. 인류사에서 불평등의 문제는 상존해 왔는데 성경을 통해 신·구약시대에도 부의 양극화 문제가 존재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어떤 시대라 하더라도 경제 주체들이 무절제한 탐욕을 충족하기 위해 생산증대에 몰입하다 보면 과도하게 경제적 잉여를 축적하게 되면서 이웃의 궁핍에는 둔감하게 되어 생산성 증대와는 별개로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권력층에 부가 집중될 경우 제도적 개선조차 쉽지 않아 경제적 양극화는 고착화되고 그 정도가 점차 악화될 개연성이 있다. 이처럼 무한 증식하는 인간의 탐욕은 부의 양극화를 불러오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바로 이러한 탐욕을 상당히 경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시 10:3, 78:18, 119:36; 사 56:11; 렘 6:13, 22:17; 막 7:22; 눅 11:39; 롬 1:29; 고전 6:10).

그렇다면 성경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현실적인 대안을 고민해 볼 수는 없을까? 양극화 문제로 고민하는 현 상황에서 성경에서는 무한 증식하는 인간의 탐욕에 대해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시의적절한 작업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성경 문헌 중에서도 구약성경 신앙관의 정수라 할 수 있는 토라에서는 어떠한 경제관을 제시하고 있으며 토라가 보여주는 대안적 사회의 모습은 어떠한지 살펴보려고 한다.

III. 토라의 관점에서 본 경제관

토라의 경제관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다양한 성경 문헌 중에서 토라를 분석대상으로 삼은 이유를 밝히고자 한다.³ 구약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과정을 다양한 관점에서 표현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는 공간적 실체를 가리키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 자체를 의미한다(김세운 외, 2012). 구약성경 속에는 하나님 나라 구현의 목적과 방향성, 즉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식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구현되는지 잘 드러나 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18

3) 토라는 율법을 포함하는 동시에 다양한 시대에 기원한 자료들과 다양한 삶의 자리를 가진 문서들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다(김희권, 2017). 출애굽 시기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지킴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했던 사건들에 대한 신앙고백이기도 하고, 율법에 기초한 나라 건설에 실패하고 바벨론 유수를 거쳐 바벨론 귀환 세대가 그렸던 이상사회를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이는 선지서를 거쳐 신약성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석되고 실현되는 모습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토라는 성경 전체로 보더라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장 19절에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 관계를 맺으신 이유에 대해 “여호와와 의(츠다카)와 공도(미슈파트)를 행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뚜렷이 밝히고 있다. 아울러 출애굽기 19장 5, 6절에서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히브리 민족이 자유민으로 해방의 은혜를 누리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고이 카도쉬)이 되리라.” 이 두 구절은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중요한 배경, 그 언약이 확장되어 출애굽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형성해 나갈 국가의 이상을 제시하고 있기에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대표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하겠다. 그 두 구절에서 표현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일상의 지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시한 것이 토라이기 때문에, 토라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탐구해 봄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이상적 경제관 또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1. 하나님 나라 구현의 목적

하나님 나라 구현의 목적은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예표함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현실 속에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관점에서 경제영역을 포함한 전체 사회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 준다. 그러한 이유로 이 글에서는 하나님 나라 구현의 목적을 먼저 살펴본 후 그 지침이라 할만한 토라 속에 나타난 경제관을 설명하려 한다. 우선 하나님 나라 구현의 목적으로 약속한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나라’라는 측면과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 구현의 목적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자.

(1) 의(츠다카)와 공도(미슈파트)를 행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을 때, 과연 의와 공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의’는 히브리어로는 ‘츠다카’이고, 영어로 번역할 때는 통상 ‘righteousness’를 사용한다. 히브리어 ‘츠다카’는 관계에 기초한 개념으로, 하나님과 인간 간에 올바른 관계(믿음과 순종), 그리고 인간과 인간 간에 올바른 관계(공휼과 자비)를 포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김희권, 2017). ‘츠다카’가 관계적인 개념이라면 ‘공도’로 번역된 히브리어 ‘미슈파트’는 법적인 사회질서와 연관된 개념이다(김희권, 2017). 구체적으로 법, 재판, 규례 혹은 심판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의미의 영역을 포괄한다. ‘츠다카’와 ‘미슈파트’는 구약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함께 사용되는데 아마도 ‘츠다카’가 ‘미슈파트’의 필요조건임을 은연중에 강조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간에, 인간과 인간 간에 온전한 관계가 형성되고 그러한 관계 위에서 사회적 질서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 나라의 건설 목적이라 할 수 있겠다.

(2)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고이 카도쉬)

하나님 나라의 구현 목적을 설명하는 또 다른 용어들이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 히브리어로는 ‘고이 카도쉬’라 할 수 있다. ‘고이’는 영어로 ‘nation’, ‘카도쉬’는 거룩함을 의미하는 ‘holy’로 주로 번역된다. 즉, ‘고이 카도쉬’는 거룩한 백성(민족) 또는 거룩한 나라를 의미한다. 먼저 제사장 나라의 의미부터 짚어보자. 제사장은 본래 거룩한 하나님과 죄성(罪性)을 지닌 인간 간에 속죄, 예배 등의 의식을 집전하기 위한 중재 역할을 감당한다. 그러한 제사장의 역할을 나라 혹은 백성의 수준으로 확대해 보면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 나라,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에 대해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스라엘) 또한 거룩하길 바라시며 이에 대한 지침서로 율법을 제시하셨다.

‘거룩’의 의미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 보자.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거룩’의 히브리 원어는 ‘카도쉬’이다. ‘카도쉬’는 직역하면 ‘다름(otherness)’이다.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주위 다른 나라들과의 구별됨(distinctiveness)으로, 즉 속된(secular) 것으로부터의 구별됨이라 할 수 있다(Levine, 2003). 출애굽 당시 가나안이 심판을 받은 주된 원인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저버리고 그 땅을 타락시켜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반하는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반면 이집트의 노예였던 히브리 민족은 가나안 거주민들에 대한 심판의 대리자이자 그 땅에서 살아갈 거룩한 민족으로 거듭나기 위해 새로운 삶의 기준이자 통치의 근간으로서 율법이 필요했다. 즉, 율법 준수를 통해 히브리 민족은 파라오의 노예로 살면서 익숙했던 이집트 문화를 탈피하고 가나안 지역의 토착 문화와도 구별되는 거룩을 실현해 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앞서 기술한 ‘의’와 ‘공도’라는 가치와 ‘거룩’이라는 개념을 연관지어 보면 ‘의’와 ‘공도’를 실현하는 나라를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건설하여 주위 다른 나라들에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하나님 나라 구현의 주된 목적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러한 관점은 앞으로 살펴볼 성경적 경제관에서 주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다.

2. 토라 속에 나타난 경제관

거룩한 나라, ‘고이 카도쉬’의 관점에서 다른 나라와 구별된 하나님 나라가 갖추어야 할 제의적, 사회·문화적 율법 조항들이 많지만, 본문에서는 특히 경제관과 연관된 조항에 초점을 맞추어 성경적 경제관을 논의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 경제관을 잘 보여주는 조항인 안식일과 희년 준수, 그리고 경제적 약자층을 위한 배려 조항을 중심으로 성경적 경제관의 핵심 가치들을 살펴보자.

(1) 안식일 조항

안식일 준수와 관련된 율법 조항은 ‘토라’를 비롯해 성서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만큼 안식일 준

수는 율법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안식일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적 실현을 추구했던 이스라엘을 근동 다른 국가들과 구별할 수 있는 주요한 지표였다. 브루그만(Brueggemann, 2014)은 안식일을 이집트와 여타 가나안 국가들과 구별되는 요소를 넘어 당대 사회경제체제에 저항하는 안티테제로 파악한다.

그렇다면 어떤 측면에서 안식일이 다른 나라와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하는 지표로, 심지어 안티테제라고까지 표현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보낸 400년 가까운 시간은 파라오 체제로 대표되는 착취 구조 속에서의 삶이었다. 구체적으로 지배자인 파라오를 위한 건축, 토목 노역 등으로 쉼 없는 노예의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해 노예 해방 이후 가나안에서의 정착 생활은 농경사회의 풍요로움에 젖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잇고 가나안 토착 문화에 동화되어 가는 삶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두 시기 사이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그 핵심 조항으로 안식일 준수를 명하셨다. 안식일 준수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지배자(파라오)의 끝없는 생산 요구에 부응하는 노예의 삶을 벗어나되 가나안의 풍요문화(바알과 아세라로 대표되는 토착 우상)에 포획되어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게끔 하는 조항으로 봐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더욱이 안식일 준수의 대상은 종이나 가축을 아우르는 경제적 생산과 관련된 모든 주체를 포함하는 규범이다. 따라서 안식일은 물질적 욕구의 무한 증식, 탐욕과 불안으로 대표되는 이집트 및 가나안 문화에 저항하는 구별됨, 곧 거룩의 실천이 되는 셈이다.

안식일은 경제적 생산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와도 연결이 된다. 헤셀(Heschel, 1955)은 세계가 6일 동안 창조되었지만 창조의 절정은 7일째 되는 안식일이라고 주장하며 6일 동안 생긴 일들은 선하지만 7일째는 되는 날은 거룩하다고 말한다. 즉 안식일은 시간 속의 거룩함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 시간에는 어떠한 생산행위도 하지 않고 생산의 근원적 행위라 할 수 있는 창조를 기억하며 그것을 누리고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날이라 할 수 있다(사 58:13~14). 결국 안식일 준수는 끝없는 소유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생산과 그 생산을 바탕으로 하는 욕구 충족 행위인 소비의 순환구조를 벗어나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쉼을 누리는 삶을 살라는 명령으로 확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하기에 안식일은 소유욕 충족이라는 자기중심의 경제를 탈피하여 하나님과 이웃에게 초점을 두으로써 관계의 회복을 지향한다. 물질적 생산의 궁극적 주관자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안식일 준수를 통해 확인됨으로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지속되는 토대가 마련된다. 또한 안식일 준수가 포로기 혹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신앙고백의 표지로써 제의적 축일로 승화되었다고 보기도 한다(박경철, 2005).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안식일은 이웃과 함께 하나님을 기념함으로써 이웃을 돌아보는 계기로 이해할 수 있다. 더욱이 안식일은 노예에게도 적용되어 경제적 도구로 전락한 인간에게 인간 자체로 쉼을 누리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즈다카’가 안식일 가운데 실현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다.

(2) 희년 조항

성경적 경제관을 잘 드러내는 또 다른 율법 조항은 ‘희년법’이다. 희년법은 안식년의 연장선으로 안식년이 7년 돌아온 다음 해, 즉 50년마다 이스라엘의 사회·경제적 시스템을 되돌려 놓는(reset) 조항을 말한다.

희년이 안식년의 연장선에 있다면 우선 안식년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안식년은 7년마다 토지 경작을 중지하되 휴경 중에 발생하는 노동과 상관없는 생산물은 경제적 약자계층에게 배분하도록 하고 노예를 해방하는 등의 조치를 실행하는 조항을 말한다. 브루그만(Brueggemann, 2002)은 안식년이 초기 율법에는 노예들을 해방하기 위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출 21:1~11; 신 15:12~18), 나중에는 땅의 휴식과 함께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 존재했던 것으로 해석한다(레 25장; 신 15:1~11).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안식 없는 사회라는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데 안식 없는 사회가 되면 땅에는 결코 쉼이 없고 부채는 탕감되지 않으며 노예는 결코 풀려나지 않으므로써 사회 전반적으로 변화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Brueggemann, 2002). 안식년은 그와 같이 안식 없는 사회가 고착되지 않도록 부채를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 또는 그로 인해 노예로 전락한 이들에게 신분 변화의 가능성을 만들어 주는 전향적 제도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안식년 조항과 관련된 본문인 신명기 15장 4절에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고 강조한다.

안식년 조항에서 더 나아가 희년법은 50년마다 이스라엘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되돌려 놓으라는 것이다. ‘되돌려 놓음’에서 중요한 부분은 토지를 원래 기업으로 받은 소유주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고대 농경사회에서 토지는 생산에 기초가 되는 자본으로 부의 축적을 위한 토대로 봐도 무방하다. 생산이 토지와 노동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고 본다면 희년이 도래할 때마다 토지의 소유권을 되돌린다는 것은 매우 급진적인 율법임이 분명하다. 희년 조항은 레위기 25장에서도 밝히듯이 토지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이며 인간은 단지 그것을 대리하여 경작하는 임무를 지닌다는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한 사상이 전제되고 그것이 공동체적으로 수용되지 않으면 희년 조항을 사회 제도적으로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여기서 50년이라는 기간도 나름의 의미가 있는데 토지를 보유하고 있지 못한 사회적 빈곤층이 3대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하는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고대 사회임에도 경제적 불평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본인의 과실로 인해 기업(토지)을 잃고 가난에 처할 수는 있으나 가난의 악순환으로 인해 후대에까지 신분 상승의 길이 막혀 희망 없는 삶을 영위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사회적 장치가 바로 희년인 셈이다.

아울러 희년 조항에도 안식년의 연장선에서 노예 해방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전쟁에 패하여 포로로 잡혀 온 이방인이 노예 신분이 되기도 했지만, 부채 상황 불능 등 경제적 이유로 인해 동족임에도 노예

신분으로 전락하는 사례도 있었다(출 21:2; 레 25:39~46; 렘 34:9). 고대 농경사회에서 노예는 재산 혹은 생산수단으로 간주 되었음을 감안하면 토지와 더불어 노예 해방 또한 생산수단의 소유권을 영구적으로 주장할 수 없게끔 하는 제약으로, 생산수단 착취를 통해 무한정 탐욕을 충족하고자 하는 인간 본성에 대한 공동체적 제약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희년 조항이 지닌 과격함에도 그 조항의 이면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풍요에 대한 욕구와 한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고 사유재산제를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애초에 분배받은 기업인 토지에 대한 매매를 전면 금지하지 않고 있으며 부채의 상황이 불가능한 경우 노예로 신분이 강등되는 등 사유재산과 그에 따른 계약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다만 폐쇄적 계급사회로 이끌 수 있는 탐욕의 확장은 사회적으로 무한정 용인하지 않는다. 즉 하나님은 탐욕을 제한하기 위한 수단으로 억압적 규제를 그 백성에게 부과하지 않는다. 오히려 출애굽과 약속의 땅 허락을 통해 하나님의 해방과 자유의 은혜를 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 속에서 희년 조항을 준수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실현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굳건히 서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다시금 강조된다(레 25:54~55).

(3) 경제적 약자층에 대한 배려 조항

‘토라’에는 안식일이나 희년 조항 외에도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경제적 약자층을 대표하는 고아, 과부, 거류민⁴에 대한 경제적 배려가 공동체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한다. 당시에 고아는 자립적인 경제생활이 불가능한 처지에 있었고 과부의 경우 여성의 사회적 처지가 취약한데다 경제 활동을 하기도 어려운 여건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계유지가 쉽지 않았다. 이들과 마찬가지로 거류민 또한 토지의 상속권이 나 소유권이 없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으로 자립하기가 어려운 계층이었다(정중호, 2004). 토라에서는 이들이 기본적인 생존의 문제로 고통받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적 약자층을 위한 사회적 지원책으로는 먼저 안식년에 발생한 생산물을 경제적 약자층이 자유로이 수확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들 수 있다. 안식년이 도래하여 휴경 중이라도 하더라도 농토에서 자생적으로 자란 곡식은 농토의 소유주만의 몫이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 거하는 가난한 자, 즉 고아와 과부, 거류민과 함께 나누어야 할 몫이라는 것이다(출 23:11; 레 25:3~7). 이는 앞서 희년 조항에서 언급한 것처럼 토지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경제관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또한 농산물의 수확과 관련해서도 경제적 취약층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고 있다. 추수 시에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몫을 남겨 두라고 명한다(레 19:9~10, 23:22; 신 24:19~21). 구체적으로 추수할 때 밭귀퉁이는 남겨 두고, 떨어진 이삭이나 열매는 줍지 말며, 감람나무를 떼 후에 가지에 남은 것은 수확하

4) 히브리어 ‘게르’를 번역한 것으로, 성경에서는 나그네, 거류하는 객, 우거하는 자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다. ‘게르’는 원래 자신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 다른 지역에 정착하여 살고자 하는 이주민을 말하며, 당시 기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상황에 처한 경우가 많았다(정중호, 2004).

지 앎으로써 가난한 이들이 그것을 수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매 3년 끝에는 소산의 십분의 일을 성읍에 저축하여 이를 경제적 약자층이 소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신 14:28~29; 신 26:12). 이러한 정책들은 7년마다 도래하는 안식년과 달리 매년 추수기, 매 3년 십일조를 통해 토지나 상속받을 재산이 없는 경제적 취약층이 일상 속에서 경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구약성경에서 경제적 약자층에 대한 배려 조항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그 조항의 실천 여부가 이후 이스라엘 심판의 근거가 되고 있음으로부터 유추해 볼 수 있다(사 1:11~17, 10:1~4; 렘 7:5~7, 22:3~5; 스 7:9~10; 말 3:5). 다시 말해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난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구별된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판별하는 시금석 역할을 한 셈이다. 경제적 약자층에 대한 공동체의 배려는 안식일과 희년 조항의 연장선에서, 현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구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잣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토라의 경제관과 현대 사회에서 제도화의 한계

지금까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져야 하는 경제관을 안식일과 희년, 그리고 경제적 약자층에 대한 배려 조항을 통해 살펴보았다. 안식일과 희년 조항은 무한한 인간 탐욕에 대한 경계 장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생산수단의 궁극적 소유주가 하나님임을 명시함으로써 경제체계에서 인간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있다. 더욱이 희년 조항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의 소유를 이웃과 나눔으로써 경제적 약자층이 가난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장치를 두고 있기도 하다. 아울러 이러한 정신을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공동체가 경제적 약자에게 일상 속에서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도록 다양한 지원책 또한 마련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와 같은 일련의 율법을 명령하시기는 하나 인간 본성에 대한 억압이나 규율로 강제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 백성이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억을 바탕으로 타인을 향한 자발적 나눔과 사랑의 실천을 원하심을 알 수 있다.

토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경제관은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한 율법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현대 사회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더욱이 지금보다 단순한 고대의 사회경제 시스템 하에서 형성된 토라의 경제관을 현대 사회의 복잡성과 현실적 제약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문자 그대로 적용하려는 시도는 종교 근본주의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박삼열, 2019; 이진구, 2010).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초점을 맞춘 고대의 규율이라도 사회의 보편적 복리(well-being)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면 토라의 정신을 현대 사회에 실현하기 위한 방편은 고민해 볼 만한 주제라 생각한다. 토라에서 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 대상은 이집트에서 과중한 노역을 담당했던 히브리

노예들로 이집트에서 최하위계층을 대표하는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러한 히브리 민족을 이집트로부터 불러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기존의 가나안 사회와 구별되는 대안적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대안적 공동체는 안식일에서 희년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율법 조항을 준수함으로써 물질적 생산의 극대화보다 공동체 내 관계의 정상화, ‘츠다카’의 구현에 방점을 두고 있었다. 히브리 민족이 가나안에서 농경사회를 형성하게 되면 기존의 가나안 문명처럼 경제적 불평등 현상이 나타날 것이 충분히 예상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율법 조항이 필요했을 것이다.

무엇보다 자력으로 본인의 경제적 상황을 벗어나기 힘든 극빈층에 대한 공동체적 관심과 사회적 배려는 주목할 만하다. 경제적 극빈층은 소위 ‘빈곤의 덫(poverty trap)’으로 인해 인간의 보편적 존엄성을 훼손당하며 삶 속에서 긍정적 변화를 바라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기 쉽다(Banerjee and Duflo, 2012). 이러한 사람들은 경제체계에서 요구하는 생산능력이 미비하여 생산의 현장에서 배제되기 쉬우며 그로 인해 자녀 혹은 그 후대에 이르기까지 빈곤의 악순환⁵이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토라에서는 바로 당대의 경제적 극빈층인 고아, 과부, 거류민에 대한 보호를 여러 차례 일관되게 관심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대 경제체계에서도 토라의 경제관이 담고 있는 율법의 취지는 충분히 의의를 지닌다. 여전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존재하는 불평등을 줄이고 공동체내 관계의 정상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노예, 고아와 과부, 그리고 거류민으로 대표되는 취약계층을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부터 고민해야 할 것이다. 현대 경제학에서 이러한 고민의 접점에 있는 경제학자가 바로 센이다. 센은 현대 사회에서 빈곤층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다음 장에서는 빈곤과 관련된 센의 사상을 살펴보고 이를 토라의 경제관과 연관지어 봄으로써 토라의 경제관을 기존 경제학의 논의로 확장하는 첫 단추를 끼워 보고자 한다.

IV. 센의 관점과 토라의 경제관

센은 공리주의적인 관점(utilitarianism)에 경도된 주류 경제학 사상체계를 비판해 온 대표적인 학자이다. 그는 다른 모든 것을 배제하고 자기 이익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것이 유일하게 합리적이어야 하는지, 우리가 가치를 부여하고 목표로 삼고자 하는 비이기적 목적(non-self-intereseted goals)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비합리적인지 질문을 던진다(Sen, 1988). 이러한 비판을 기반으로 그는 실증경제학이 주류인 경제학계에 자유, 정의 등 윤리학과 관련된 문제를 심도 있게 제기함으로써 규범경제학의 필요성을

5) 낮은 소득 수준은 자녀들에 대한 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자녀들도 고소득 직종에 종사하기 힘든 상황으로 연결되기 쉽다. 결국 빈곤의 악순환이 형성될 개연성이 높다.

다시금 환기시켰다. 그러한 문제의식의 바탕에서 센은 새로운 빈곤 개념을 제시한다.⁶

1. 센의 빈곤 개념

센의 빈곤에 대한 관점은 사회적 선택(social choice)과 관련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직면하는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사회 전체의 빈곤을 어떻게 측정하는가의 질문에서 비롯된다(Sen, 1999). 센은 빈곤을 낮은 소득 수준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렇다 하더라도 사회 전체의 빈곤 수준을 단순히 적정 소득 이하의 비중으로 측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질문을 던진다.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센은 빈곤의 문제가 단순히 소득이 높고 낮은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얻기 위해 요구되는 기본적인 역량(capabilities)의 지속적인 상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Sen, 1976).

센의 빈곤 개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자. 역량을 구체화하기 위해 센은 ‘기능(functioning)’이라는 개념을 설정한다. 여기서 기능은 삶의 특정한 상태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충분히 영양공급이 이루어진 상태 혹은 그렇지 못한 상태, 조기 사망 위험에 크게 노출된 상태 혹은 그렇지 않은 상태 등이다. 개인의 전반적인 삶의 상황은 그러한 기능의 벡터(vector)로 표현할 수 있으며 타인과 비교도 가능하다. 실현 가능한 기능 벡터들의 집합(the set of feasible vectors)이 곧 역량의 집합(capability set)이 되는데 이는 어떤 개인에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열려있는지 표현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Sugden, 1993). 즉 개인에게 주어진 역량(capabilities)은 보다 고양된 삶의 상태(기능)를 취득하기 위한 기회라고 말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 장애인의 경우 건강한 개인에 비해 여러 기능들의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고 이는 역량들에 있어 차이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센에 의한 빈곤의 정의, 즉 기본적인 역량의 지속적인 상실은 현재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의미를 넘어 기능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형성한 경우를 말한다. 선천적인 신체적 결함이나 사회 시스템의 문제 때문에 낮은 수준의 기능들을 보유한 사람이 있다면 인간으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삶으로 내몰릴 수 있다.⁷ 또한 역량의 상실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빈곤은 공동체 속에서의 상대적 개념이다. 즉 소득의 상대적 높고 낮음이나 삶에 필수적인 자원의 소유 여부를 넘어 그러한 자원을 삶에서 향유할 수 있는 역량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따른 상호 간의 차이

6) 빈곤 개념 외에도 센은 상대적 관점에서 역량이라는 개념을 통해 빈곤을 정의함으로써 대안적 빈곤 지수(poverty index)를 제시한 바 있고(Zheng, 2017; Shorrocks, 1995; Sen, 1976), 역량과 기능, 빈곤 등의 관점을 후생경제학의 사회선택이론(Social Choice Theory)까지 확장하여 정의, 사회후생, 복지 등에 대한 새로운 연구 흐름을 만들어냈다(Yamamori, 2017; Sen, 2011). 본 연구에서는 토라의 경제관과 연결점을 가지면서도 센의 여러 성과에서 공유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다루고자 하였기 때문에 빈곤 개념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7) 센은 역량의 차이를 가져오는 원인을 크게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분류한 바 있다(Sen, 1999): (1) 개인적인 특이성(personal heterogeneities, 예: 질병에 취약한 체질); (2) 환경의 다양성(environmental diversities, 예: 홍수가 잦은 지역); (3) 사회 풍토의 변화(variations in social climate, 예: 범죄 급증); (4) 특정 사회의 관습적인 소비패턴과 관련된 상대적인 박탈감의 차이(differences in relative deprivation connected with customary patterns of consumption in particular societies, 예: 부유한 사회에서 상대적 빈곤).

(interpersonal differences)를 포괄한다. 결론적으로 센의 관점으로 보자면 단순히 소득이나 부의 양적인 차이만을 가지고 빈곤의 정도를 가늠할 수 없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2. 센의 빈곤에 대한 관점과 토라의 경제관

센의 빈곤 개념은 단순히 물질적 생산의 가치만으로 빈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호 관계 속에서 개인의 역량 상실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토라의 경제관과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토라의 경제관은 물질적 생산의 극대화보다는 공동체 속에서 상호 관계의 정상화에 더 큰 비중을 둔다는 것은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사회경제적 ‘되돌려 놓음’은 결과적으로 지속적 역량 상실에 직면한 경제적 약자층에 대한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센은 - 토라에서 언급한 경제적 약자층은 아니지만 -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Sen, 2010).

개발도상국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은 주로 소득의 측면에서 빈곤층 중에서도 가장 가난하지만, 평범한 삶을 살고 장애를 완화하기 위해 돈과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득의 필요는 장애가 없는 사람들보다 더 크다. ‘소득핸디캡’이라 불릴 수 있는 소득능력의 손상은 ‘변환핸디캡’-바로 장애 때문에 소득과 자원을 좋은 생활로 변환하는데 겪는 곤란-의 영향에 의해 강화되고 크게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정의의 아이디어 (The Idea of Justice)』, p. 291)

센은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을 예로 들며 이들이 공동체의 다른 이들보다 더욱 소득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는데, 여기서 장애인도 토라에서 경제적 약자층을 대표하는 노예, 고아와 과부, 거류민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기업으로 부여받은 토지를 상실하고 노예로 전락한 사람들, 경제적 자립 능력을 상실한 고아와 과부, 경제적 기반 없이 떠도는 거류민 등이 바로 그들이다. 그들은 단순히 소득이나 부를 갖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 누려야 할 기능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이었다. 노예는 타인의 재산과 같이 취급되어 가족이나 다름 없는 매우 낮은 수준의 기능을 가진 존재라 할 수 있고 거류민도 토지와 같은 경제적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노예와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성인 남성에게 소득 창출 능력이 집중된 당시에 고아와 과부는 ‘소득 핸디캡’을 가진 존재이자 사회적 활동도 쉽지 않아 소득이 있더라도 이를 좋은 생활로 변환하기 쉽지 않은 ‘변환핸디캡’도 가진 존재라 할 수 있다. 즉 센의 예시에서 장애인들과 토라에서 언급하는 노예, 고아와 과부, 거류민은 센의 관점에서 빈곤의 특징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센이 제시하는 빈곤에 대한 관점과 토라에서 관심을 가지는 사회적 약자층의 문제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토라의 경제관은 센이 정립한 빈곤 개념을 점점으로 하

여 규범경제학이 다룰 수 있는 시의성 있는 주제로 심화·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⁸ 현대의 빈곤층에 대한 구체적인 설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안식일로부터 희년, 경제적 약자층에 대한 배려에 이르는 토라 조항의 현대적 의미를 재구성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토라의 경제관이 불평등 완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생산적인 논의가 시작되리라 생각한다.

V. 결론

지금까지 토라의 관점에서 본 경제관이 현대 사회의 불평등 심화 문제에 대한 비판으로 여전히 의미가 있으며 센의 관점을 연결고리로 하여 불평등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처 차원에서도 시사점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안식일, 희년, 그리고 경제적 약자층에 대한 배려 조항에 집약되어 있는 토라의 경제관은 사회의 상호관계 속에서 지속적 역량 상실에 직면한 이들, 즉 노예, 고아와 과부, 거류민으로 지칭되는 경제적 약자층이 논의의 중심이며 바로 이들이 센이 주장한 빈곤 개념의 범주에 해당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토라의 경제관을 현대 경제학의 개념과 연관지어 현대 사회의 양극화에 대한 분석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고용과 소득에 필요한 역량의 지속적인 상실이라는 관점에서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 시대의 노예, 고아와 과부, 거류민을 찾아 토라가 추구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해야 할지를 논의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라 생각한다.

본 논문은 토라의 경제관과 센의 관점을 연결하면서 몇 가지 한계를 노정하였다. 첫째, 센의 관점을 빈곤에 대한 개념 설정에 국한함으로써 자유, 평등, 정의에 대한 그의 폭넓은 이론체계를 담아내지 못하였다. 물론 본고에서 다룬 센의 빈곤관은 그의 사상에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기능과 역량에 대한 개념이 중심을 이루기 때문에 토라의 경제관과 센의 사상간 주된 연결고리는 적절히 전달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센이 제공한 풍부한 사유와 성경적 경제관의 연결 가능성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 둘째, 토라의 경제관과 센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 시대의 경제적 약자층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어떻게 형성할지에 대한 논의까지는 담아내지 못했다. 역량의 지속적 상실이라는 기준을 한국 사회에 어떻게 적용하고 구체화해야 할지, 그 바탕 위에서 어떻게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것인가 하는 고민은 반드시 뒤따라야 할 작업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일은 다음 연구자를 위해 남겨 두고자 한다.

2007년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불어닥친 대침체(Great Recession)는 금융시장에서

8) 본 논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지만 센이 후생경제학(welfare economics), 특히 사회 선택이론에서 발전시킨 다양한 논의들, 예를 들자면 자유, 평등, 정의 등에 대하여 토라의 경제관 혹은 성경에서 드러나는 사회경제사상과 연결하여 분석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무절제하게 탐욕을 부추긴 결과와 그 후유증이 어떠한지 보여준 바 있다. 대침체를 가져온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금융시장을 거쳐 부에 대한 욕구에 편승한 결과라는 의견이 다수를 이룬다. 이는 본 연구를 통해 발견한 토라의 경제관과 맥이 닿아 있다.

대침체 이후 경제학계에서도 기존 학설에 대한 재검토가 활발해졌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적 경제관을 센과 같은 관점을 지닌 규범경제학과 잇대어 심도 있는 논의를 생산하는 기회를 찾았으면 한다. 본 연구가 그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곽호철 (2016). 신자유주의의 기독교적 대안: 수정된 기본소득제도. **신학논단**, 83(1), 121-154.
- [Kwak, H.C. (2016). A Christian Alternative to Neoliberalism: Reconfigured Basic Income Guarantee. *Theological Forum*, 83(3), 121-154.]
- 김근주 외 (2012). **희년, 한국사회, 하나님나라**. 서울: 홍성사.
- [Kim, K.J. et al. (2012). *Jubilee, Korean Society, and Kingdom of God*. Seoul: Hong-Seong-Sa.]
- 김명배 (2012).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한국교회에 끼친 영향에 관한 연구. **현상과인식**, 36(4), 43-68.
- [Kim, M.B. (2016). A Study on the Impact of Neo-liberalism to Church of Korea. *The Korean Journal of Humanities and the Social Sciences*, 36(4), 43-68.]
- 김세윤 외 (2012). **하나님 나라 복음**. 서울: 새물결플러스.
- [Kim, S.Y. et al. (2012), *The Gospel of the Kingdom of God*. Seoul: New Holy Wave.]
- 김희권 (2017).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읽는 모세오경**. 서울: 복 있는 사람.
- [Kim, H.K. (2017), *Pentateuch read via the Theology of Reigning God*. Seoul: The Blessed.]
- 전강수 외 역. (2003). **토지와 경제정의**, Torrey, R.A. (2002). *Biblical Economics*. 서울: 홍성사.
- [Chun, K.S. et al. (2003). *Biblical Economics*. Seoul: Hong-Seong-Sa. Tran. Torrey, R.A. (2002). *Biblical Economics*. Bloomington, IN: Xlibris.]
- 박경철 (2005). 안식일의 제의적 의미와 사회정의, **구약논단**, 1(17), 56-77.
- [Park, K.C. (2005). The Cultic Meaning of the Sabbath and Social Justice, *Korean Journal of Old Testament Studies*, 1(17), 56-77.]
- 박규태 역 (2015). **안식일은 저항이다**. Brueggemann, W. (2014). *Sabbath as Resistance*. 서울: 복 있는 사람.
- [Park, K.T. (2015). *Sabbath as Resistance*. Seoul: The Blessed. Tran. Brueggemann, W. (2014). *Sabbath as Resistance*.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 박삼열 (2019). 종교적 차이와 갈등, 관용과 화해의 가능성, **현상과인식**, 43(1), 41-58.
- [Park, S.Y. (2019). A Religious Differences and Conflict, Possibility of Tolerance and Reconciliation. *The Korean Journal of Humanities and the Social Sciences*, 43(1), 41-58.]
- 박순성 역 (2009). **윤리학과 경제학**. Sen, A. (1988). *On Ethics and Economics*. 서울: 한울아카데미.

- [Park, S.S. (2009). On Ethics and Economics. Seoul: Hanul Academy. Tran. Sen, A. (1988). *On Ethics and Economics*. Cambridge, MA: Blackwell Publishers.]
- 박승인 (2015). 신자유주의 시대와 기독교 신학의 과제. **신학논단**, 80(2), 141-169.
- [Park, S.I. (2016). The Task of the Christian Theology in the Era of Neoliberalism. *Theological Forum*, 80(6), 141-169.]
- 박승인 (2019). 신자유주의의 효율성과 효율적 이타주의. **신학논단**, 95(1), 65-97.
- [Park, S.I. (2019).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the Neoliberalism and the Effective Altruism. *Theological Forum*, 95(1), 65-97.]
- 이규원 역 (2019). **정의의 아이디어**. Sen, A. (2010). *The Idea of Justice*. 서울: 지식의 날개.
- [Lee, K.W. (2019). *The Idea of Justice*. Seoul: The Wings of Knowledge. Tran. Sen, A. (2010). *The Idea of Justice*. London: Penguin Books.]
- 이봉석 (2018). 기독교 윤리학에서 본 신자유주의 인간이해와 사회 통합의 가능성 연구: 하이에크의 인간이해를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42, 125-152.
- [Lee, B.S. (2018). A Christian Ethical View on the Neoliberal Understanding of Human Nature and the Possibility of Social Integration: Focusing on Hayek's Understanding of Human Nature, *The Korean Journal of Christian Social Ethics*, 42, 125-152]
- 이진구 (2010). 한국 기독교 근본주의와 종교권력, **기독교사상**, 55-65.
- [Lee, J.K. (2010). Christian Fundamentalism and Religious Power in South Korea, *Christian Thoughts*, 55-56]
- 장윤재 (2005). 광야로 돌아가자 - 신자유주의 무한경쟁 시대에 교회가 본질적으로 회복해야 할 것들, **기독교사상**, 49(10), 50-57.
- [Chang, Y.J. (2005). Come Back to the Wilderness, *Christian Thoughts*, 49(10), 50-57]
- 정중호 (2004).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게르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과학연구**, 23(1), 511-525.
- [Chong, J.H. (2004). A Study on Ger in Ancient Israeli Society, *Korean Journal of Social Science*, 23(1), 511-525.]
- 정중호 (2014). 한국 토지 개혁과 희년 실시 방안, **장신논단**, 46(2), 35-60.
- [Chong, J.H. (2014). Land Reform in Korea and the Jubilee Revival Plan, *Korea Presbyterian Journal of Theology*, 46(2), 35-60.]
- 정진원 역 (2005). **성경이 말하는 땅 - 선물·약속·도전의 장소**. Brueggemann, W. (2002). *The Land - Place as Gift, Promise and Challenge in Biblical Faith*.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Jeong, J.W. (2005). *The Land: Places as Gift, Promise and Challenge in Biblical Faith*. Seoul: CLC. Tran. Brueggemann, W. (2002). *The Land: Places as Gift, Promise and Challenge in Biblical Faith*. (2nd ed.). Minneapolis, MN: Augsburg Fortress.]

조혜신 (2018). 희년법 원리의 제도적 구현 가능성에 관한 小考: 기본소득 제도를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23(3), 263-294.

[Cho, H.S. (2018). The Preliminary Study of the Modern Applicability of Jubilee Law: Focused on Basic Income, *Faith and Scholarship*, 23(3), 263-294.]

Banerjee, A. and Duflo, E. (2012). *Poor Economics: A Radical Rethinking of the Way to Fight Global Poverty*. New York, NY: Public Affaris; Reprint edition.

Goldin, C. and Katz, L. (2008). *The Race Between Technology and Educa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Heschel, A. J. (1955). *God in Search of Man: A Philosophy of Judaism*. New York, NY: Farrar, Straus and Giroux.

Levine, B. A. (2003). *The JPS Torah Commentary: Leviticus*. Philadelphia, PA: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Piketty, T. (2017).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Cambridge, MA: Belknap Press: An Imprint of Harvard University Press; Reprint edition.

Piketty, T. and Saez, E. (2014). Inequality in the long run. *Science*, 344(6186), 838-843.

Sen, A. (1976). Poverty: An ordinal approach to measurement. *Econometrica: Journal of the Econometric Society*, 219-231.

Sen, A. (1992). *Inequality reexamined*.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Paperback edition.

Sen, A. (1999). The possibility of social choice. *American Economic Review*, 89(3), 349-378.

Sen, A. (2011). The Informational Basis of Social Choice. In *Handbook of Social Choice and Welfare* (Vol. 2, pp. 29-46). Elsevier.

Shorrocks, A. F. (1995). Revisiting the Sen poverty index. *Econometrica*, 63(5), 1225-1230.

Sugden, R. (1993). Welfare, Resources, and Capabilities: A Review [Inequality Reexamined].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1(4), 1947-1962.

Yamamori, T. (2019). The Smithian Ontology of 'Relative Poverty': Revisiting the Debate

between Amartya Sen and Peter Townsend. *Journal of Economic Methodology*, 26(1), 70-80.

Zheng, B. (2017). A class of generalized Sen poverty indices. *Economics Letters*, 159, 100-103.

토라의 경제관과 경제학적 함의*

Torah's Economic Perspective and Its Implication of Economics

조규봉 (한동대학교)

논문초록

경제적 불평등이 악화되는 가운데 본 논문에서는 성경적 경제관이 우리가 직면한 경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데 유효한지 살펴보기 위해 토라(Torah)를 중심으로 성경적 경제관을 도출한 후 현대 경제학과의 연결지점을 찾아보았다. 토라의 경제관은 하나님 나라 구현이라는 관점에서 안식일과 희년 준수, 경제적 약자층을 위한 배려를 중심으로 확연히 드러난다. 토라에서 안식일, 희년, 경제적 약자층에 대한 배려를 담은 조항은 무한 증식하는 인간의 탐욕에 대한 경계 장치이자 생산수단의 궁극적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물질적 생산의 극대화보다는 공동체내 상호 관계의 정상화를 추구하고 있다. 공동체내 상호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토라의 경제관은 규범경제학의 주요 주제인 센(A. Sen)의 빈곤 개념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센은 빈곤 개념을 개인의 소득 수준이 낮다는 의미를 넘어 상호 관계 속에서 기본적인 역량의 지속적인 상실로 보았는데 토라의 경제관에서 경제적 약자층을 대표하는 노예, 고아와 과부, 거류민은 센이 정의한 빈곤의 범주에 정확히 해당한다. 이러한 개념적 공유는 불평등이 심화되는 우리 시대에 노예, 고아와 과부, 거류민과 같은 계층은 누구이며 이들에 대해 토라에서 강조하는 사회적 배려와 지원을 어떻게 구현할지 논의하는데 귀중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토라, 규범경제학, 빈곤, 역량

존 요더의 평화주의는 사회 변혁의 한 모델인가?*

Is Pacifism of John Yoder a Model of Society Transformation?

김기현 (Kim, Kihyun)**

ABSTRACT

The Christian faith is closely related to society in any form. The anabaptist is a representative group of separation models among the five models classified by Richard Niebuhr. John Yoder argues that the separation model is a powerful society transformation model. The model seeks distinction, not separation from the world, and an alternative way of life that clearly contrasts with the world. Furthermore, Yoder criticizes the frame of 'responsibility versus irresponsibility' as unrealistic and ambiguous. Instead, he proposes a frame of 'faithfulness versus unfaithfulness.' Thus, we are not a debate about to fulfill social responsibilities, but rather how to participate specifically.

Key words : John H. Yoder, H. Richard Niebuhr, Pacifism, Constantinianism, Contrast Ethics

* 2020년 07월 06일 접수, 09월 09일 최종수정, 09월 10일 게재확정
이 글은 월간 목회와 신학에 실렸던 것을 상당한 수정과 보완을 거쳤고, 허락 하에 싣는다.

** 로고스서원(Logos School), 대표, 부산시 동래구 중앙대로 1276, ezrakim@hanmail.net

I. 서론

이 글은 다음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하나는 “기독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다른 하나는 “전통적으로 사회로부터 고립과 후퇴 전략을 추구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평화주의가 세상을 변혁하는 이론이자 실천일 수 있는가?”라는 물음이다. 본 논문은 후자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다.

전자에 대한 대답은 리처드 니버(H. Richard Niebuhr)의 「그리스도와 문화」가 보여주듯이, 교회는 역사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세상과 관련을 맺었고, 단 하나의 방식만으로 세상을 변혁한 것은 아니다. 나는 니버의 생각을 지지한다. 여기에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붙여야 한다. 하나는 역사적이라는 조건이고, 다른 하나는 다양하다는 것이다. 역사성과 다양성은 니버의 핵심 주장과 일치하기에 그다지 새롭지 않다.

그러나 후자에 대한 대답은 니버가 유형화한 모델, 대립론은 세상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한다거나, 세상과 분리를 추구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명시적으로 니버는 그 모델 역시 사회 변혁 모델의 하나이기에 다섯 가지 유형 중 하나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암시적으로 니버는 문화의 변혁자 모델만이 변혁 모델이라는 인상을 준다(김기현, 2003:24-29). 그것은 그 명칭에서 드러난다. 그는 대립론이 변혁적이기 보다는 사회로부터의 은둔 전략을 보여 왔고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과 타락한 세상에 대한 합당하고도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과연 니버가 명명한 ‘분리 모델’은 사회와 분리를 지향했고, 사회를 변혁하는 데 기여하지 못했는가? 나의 대답은 분리는커녕 사회 안에서 대조 공동체를 지향했고, 바로 그러한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일조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나의 주장의 대부분은 존 하워드 요더(John Howard Yoder)에게서 온 것이다. 따라서 나는 요더의 입장에서 니버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읽으려한다.

존 요더의 입장에서 니버를 이해하고, 그의 평화주의적 참여 방식이 변혁적이라는 생각은 두 가지 난관에 봉착해 있다. 하나는 요더와 니버를 대결시키고 대화하도록 하는, 니버가 말한 상관적 방식의 글이 국내에는 많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사회 변혁적 관점의 논문은 희귀하다. 드물게 성석환은 이 분야를 파고들었다. 성석환은 이 글과는 정반대로 니버의 입장을 취한다(성석환, 2009). 그는 요더가 니버를 오해한 측면을 집중 부각시키고, 니버의 전 신학 체계와 맥락 안에서 그를 적극 변호한다.

박준식의 논문은 니버와 요더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도록 우리를 이끌고 간다(박준식, 2003). 그는 두 사람의 신학의 공과를 밝히고, 양자를 대립시키기 보다는 레슬리 뉴비긴의 선택론으로 양자의 조화를 꾀한다. 그런 점에서 니버의 입장에서 요더를 비판하는 성석환과 요더의 입장에서 니버를 비판하는 이 글과 비교한다면 중간적이라 하겠다. 그는 두 신학자에 대해 큰 그림을 그리고 볼 수 있도록 해 줄 뿐만 아니라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돋보이지만, 나로서는 요더와 아나뱃티스트의 변혁론을

중화 또는 희석시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보다 적극적인 진술이 없음이 아쉽기만 하다.

다른 하나는 요더의 윤리에 대한 지속적인 오해와 문제제기이다. 그가 분파적(sect)이라는 비판이다. 요더는 현대 신학과 기독교 윤리학에 또 하나의 스캔들이다. 거칠게 구분하자면, 진보와 보수 모두에게 요더는 기피 대상자이다. 예수의 정치적 읽기는 보수주의가 꺼려하고, 예수의 비폭력적 독해는 자유주의가 못마땅해 한다. 기독교가 콘스탄티누스의 함몰되었거나 깊이 연루되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진보와 보수 양측 모두가 못마땅해 한다. 보수적 또는 복음주의 쪽은 예수를 철저히 따르자는 말에 환호하고, 진보적 또는 에큐메니칼 진영은 예수가 정치적이다라는 말에 당연하다는 표정이다. 그러니 요더를 통째로 삼키기도, 그렇다고 내치기도 껌뻑한, 뜨거운 감자이다.

요더의 급진성, 그러면서도 그 자신을 스캔들로 만드는 지점은 내가 보기에 두 가지다. 외부로 향해 던지는 요더의 비판이 콘스탄티누스라는 잣대로 기존의 교회와 신학을 보는 것이라면, 외부에서 요더를 향해 가하는 비판은 그가 지향하는 교회가 결국 분파적이라는 혐의이다. 「예수의 정치학」에서 예수야말로 진실로 정치적인 인물이며, 정치는 교회를 창조한다는 논지에 대해 “존 요더는 분파적이다.” 또는 “존 요더는 분파주의자이다”는 반론이 드세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이렇다. 요더의 윤리학은 ‘퇴거’(withdrawal)의 윤리학이라는 말이다. 즉, 세상을 변혁하기보다는 세상에서 도피하는 것이 요더의 결정적인 문제점이라는 비난이다. 그들이 보기에, 철저한 기독교 중심적 윤리는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창조 세계에 대한 부인이자 세상에 대한 책임 회피에 다름 아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기반한 윤리의 시각으로 보면 예수의 십자가 구속에 기초한 윤리는 협소하며, 세상에 대한 무책임이다.

요더가 사회 참여를 다소 소극적으로 다룬 것은 사실이다. 이 점은 아나뱃티스트 일각에서도 꾸준히 제기되었던 부분이다. 그러나 단언하건대 세상에 대한 무책임도, 세상으로부터 물러섬도 아니다. 타락한 세상의 시스템과 분명히 대조되면서도 그 세상의 대안으로서의 교회를 말하고자 할 따름이다. 주류의 책임이라는 척도로 보면 요더는 무책임일지 몰라도, 요더를 내재적 시각으로 읽으면, 요더는 ‘다른’ 참여, ‘다른’ 정치를 외친 것뿐이다. 다른 방식으로 참여하고 정치를 했다. 그것의 요약이 다름 아닌 ‘대조’와 ‘대안’이다.

하여, 여기서 우리가 다룰 주제는 과연 존 요더는 분파적인가? 세상 변혁을 도외시하는가? 라는 물음이다. 이 점에 관한 나의 주장은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그런 비판은 주류의 콘스탄티니적 시각에 의해 채색된 오해이다. 둘째, 요더는 세상의 변혁 보다는 교회의 갱신 곧, 교회의 교회다움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참여에 소극적인 면이 있다. 마지막으로 요더의 전략 또한 세상을 변혁하는 하나의 중요한 선택이다. 이를 위해 니버의 「그리스도와 문화」와의 대결을 통해 왜 요더의 평화주의가 사회 변혁의 중요한 모델인가를 설명하려 한다.

II. 요더 vs. 니버 : 분별할 뿐 분리가 아니다.

“H. 리처드 니버는 교회와 사회에 관한 사고에 있어서 그 어떤 후배도 넘어서지 못한 기준을 설정했다”(McClendon, 1988:9). 우리가 교회와 세상의 관계를 숙고할라치면 니버의 「그리스도와 문화」의 프레임을 벗어나기 어렵다. 양자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이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실존과 교회의 존재 이유를 묻고자 한다면, 우리는 니버에게서 시작해야 한다.

1. 니버 : 대립은 대안이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묻더라도, 어떤 결론에 도달하더라도 리처드 니버를 우회할 수 없다. 그 대답이 충분하든, 미진하든 대답의 시작은 니버임에 틀림없다. 개혁주의 블록은 니버가 좀 더 철저하게 개혁주의답지 못하고 그의 의제와 방향을 더 치밀하게 밀고 나갈 것을 주문한다면(신국원, 2002), 아나뱃티스트 계열의 학자들은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니버의 염원을 진정으로 성취하는 것은 다름 아닌 존 요더와 아나뱃티스트라고 말한다(Scriven, 1988:9). 니버는 영속적인 문제에 대한 오래된 대답인 셈이다. 그래서 우리 역시 니버에게서 출발하려고 한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요더에게 도착할 것이다. 또한 그에게서 해묵은 과제에 대한 신선한 대답을 듣게 될 것이다.

요더와 니버의 대면은 복합적이다. 요더는 니버의 그리스도 이해와 삼위일체론적 윤리에 대한 기독교론적 반박, 그 맥락에서 그리스도를 문화와 병렬(and)하는 인식 등에 대해 다층적 비판을 던진다. 하지만 이 글의 초점은 니버가 명명한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 유형에 대한 요더의 반박이다(니버, 2007:129). 니버에게는 테르툴리아누스, 톨스토이, 아나뱃티스트, 웨이커, 평화주의자 등이 이 유형에 속한다. 그는 이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철저한 헌신으로 세상과 비타협적으로 살았고, 그 결과 기독교 신앙과 세상은 양립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지적한다.

니버는 이 유형을 “필요하면서도 부적절한 입장”이라고 평가한다. 필요하다는 까닭은 자신의 고백에 충실하다는 점, 종교적 자유를 증대시킨 점, 반문화적 입장을 견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문화를 개혁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 개혁주의 모델을 보완해 준다는 점이다. 세속화된 세상에서의 참여 못지않게 포기하고 한 발 뒤로 물러서는 운동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의 경우 기독교 신앙이 성공과 행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기 십상이고, 교회의 경우 정치 참여가 또 하나의 권력 욕구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한 까닭이다(니버, 2007:153-57).

그러나 동시에 적절하지 못하다. 니버가 보기에 우리 인간은 어떠한지 간에 문화를 피할 수 없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말이다. 대립 모델의 기독교인은 겉으로는 문화에 대립하는 척하지만, 누구라도 당대 문화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 테르툴리아누스에게서 스토아 철학이, 톨스토이에게

서 루소의 영향이 물씬 풍겨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그들 자신도 악하다고 배격한 바로 그 문화의 일부이며, 그 문화에 적응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급진주의자들도 그 시대의 아들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것이 니버의 주장이다. 과연 그런가?

2. 요더 : 분리가 아니라 분별이다.

박준식에 따르면, 니버와 요더는 창조적 긴장 관계이다(Joon-Sik, 2003:332-44). 니버가 교회의 우주적 성격과 맥락을 강조한다면, 요더는 대안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관심이 있으며 맥락보다는 내용 중심의 윤리학에 강조점이 있다. 사실, 모든 신학은 그것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발전했던 시대의 산물이다. 그러기에 태생적으로 존재론적인 한계가 있다. 어느 일방이 절대적으로 옳을 수 없고, 상대방에게 배우는 겸손함이 필요하다.

두 사람이 공히 인정하는 바는 다양성이다. 니버가 불온하고 위험하다 내동댕이 쳐오던 그간의 통념을 깨트리고 급진적 종교개혁과 평화주의를 적대시하지 않은 점, 그리고 교회가 사회와의 관계를 맺을 때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옵션으로 인정한 것만으로도 높게 평가할 수 있겠다. “이 유형들이 서로 완전히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점과, 이 다양한 입장의 여러 지점에서 화해하는 게 가능하다.”(니버, 2007:363) 어느 하나만 일방적으로 옳은 것이 아니라, 서로 경쟁하며 함께 협력해야 한다.

요더도 다르지 않다. 그 역시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다양한 유형이 있었다고 말한다. 지난 역사를 복기하면, 교회와 사회는 단 하나의 범주로 묶을 수 없는 수다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어 왔다. “개혁의 역사에서 많은 개혁 모델들이 존재해 왔다”(Yoder, 1997:157). 니버의 다섯 유형만으로 설명할 수 없으리만치 다양하다.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하고 개혁된 교회가 세상을 개혁하는 법이다. 세상을 개혁하는 방식은 교회의 정체성을 반영하기 마련이다. 때문에, 교회와 사회의 상관관계는 획일적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더는 니버의 논증에 상당한 불만을 토로한다. 먼저, 니버는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편파적이라고 비판한다. 다른 모델과 달리 개혁주의적 모델에 대해서는 어떠한 단점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자신의 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한 요한복음서도 개혁주의 모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대립 모델에 가깝다. 그리고 개혁주의를 제일 뒤에 배치함으로써 암묵적으로 이 유형이 최고의 대답이라는 생각을 심어준다.

또한 니버가 명명한 ‘대립 유형’(against type) 또한 정확한 명칭이 아니다. 오해와 왜곡의 산물일 뿐이다. 대표적으로 톨스토이가 그렇다. 톨스토이는 문학을 물론이거니와 학교와 농촌, 그리고 러시아의 변화를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런데도 니버는 톨스토이를 세상과 대립하고 세상으로부터 도피한다는 뜻에서 이름을 붙인 분리 모델의 대표자로 만들어 버렸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다. 톨스토이는 세상에서

분리된 것이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살았을 뿐인데, 세상은 자신의 지배적인 패턴과 습속을 멀리하는 그를 급진주의자다, 분리주의자다, 도피주의자다, 라고 낙인찍었던 것이다.

또한 평화주의자들은 전쟁과 폭력이 횡행하는 한복판에서 평화를 외치고, 평화를 일구어가는 헌신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전적인 충성을 다하느라 세상과 동떨어졌다고 비판한다. 니버는 그런 노력이 일부 세상을 바꾸는 데 기여했음을 인정하면서도 계속해서 세상으로부터 은둔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자기모순이다. 이 유형에 대한 오해와 왜곡일 따름이다. 세상과의 대립이 아니라 대조일 뿐이다.

정작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니버의 유형론으로는 세상을 변혁하는데 불충분하다. 요더는 니버가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두 개의 키워드를 문제 삼는다. 그것은 양자의 관계를 설명하기에 너무 획일화되고 일반적이다. 다양한 문화적 현실과 타락한 세상을 염두에 두면, 그것을 예수의 주되심 아래서 적절하게 분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컨대, 때로 극장에 얼씬도 하지 않는 것이 요구되나 어떤 때는 극장이 복음과 교회를 섬기는 방편일 수도 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나/저것이나가 아니라 어떻게? 그리고 언제? 를 묻지 않으면 안 된다”(Yoder, 1996:86). 구체적인 정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변혁은 사변과 추상이 되고 만다. 요더는 문화와의 분리가 아니라 문화를 분별하자고 한다.

이 지점에서 스탠리 하우어워스(Stanley Hauerwas)는 흥미로운 반박을 한다. 아나뱃티스트들은 세상에서 따로 떨어져서 살 의도가 전혀 없었다. 자신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박해를 받았고, “캘빈파나 루터파, 로마 가톨릭파에게 살해되었다”(Hauerwas, 2008:59). 그들은 다만 공동체의 생존과 자녀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도망갔을 뿐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도피하지 않았다. 다만 쫓겨난 것이다.” 주류 교회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전일적인 충성과 교회의 교회다움을 위한 타협 없는 헌신을 폭력적으로 배척한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왜 세상에서 도망가는 것이냐, 세상을 향한 창조주 하나님을 잊었던 말이냐?”라고 조롱한다.

애당초 문화로부터 분리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요더도 확신한 바와 같이, 우리는 문화의 일부이고 시대에 소속된다(Yoder, 1965:36-39). 니버가 간파한 것과 같이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이탈한 채 누구라도 살아갈 수 없다. 모두 자기 나름의 사회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살아간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예수님이 유일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사회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그 고백의 양상은 다를 수 있다. 요더는 평화주의적 신념을 따라 사회를 폭력과 전쟁으로부터 구출하자는 말 역시 또 하나의 참여 방식이다. 급진적이고 평화주의적 실천은 세상과의 분리가 아니다. 기존의 주류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참여일 뿐이다. 주되심 하에서 분별하여 참여하는 것이 관건이다. 주되심에 충실한 교회는 존재 그 자체로 대조된다.

III. 콘스탄틴주의가 분파주의다.

지금까지 니버의 비판을 중심으로 보았다면 이제 요더가 반격을 가할 차례이다. 요더는 자신과 아나 뱍티스트가 ‘분파주의’라는 비판에 오히려 주류 교회가 분파주의에 함몰되었다고 응수한다. 그의 진단에 따르면 주류 개신교가 아이러니하게도 분파가 된 것은 콘스탄틴주의 때문이다. 그러나 반박만으로는 부족하다. 새로운 이해와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우선 요더의 반론을 먼저 살피고, 그 다음 요더의 대안을 토론에 붙여보려 한다.

니버에 대해 요더는 의외의 대답을 제출한다. 요더 자신이 아니라 오히려 니버가 분파주의라는 것이다. 니버와 주류 기독교가 분파주의라는 생뚱맞다 싶은 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하나 있다. 그것은 분파주의의 재정의이다. 요더에게 기독교 신앙은 보편적(catholic)이다. 즉, 교회와 신자가 자신이 위치한 지역이나 국가, 자신이 속한 계급과 민족, 그리고 성(性)이나 외모, 경제적 수준으로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고 평가하고 대우하는 것은 기독교 복음의 보편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예수의 복음은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악인이든 선인이든 간에 고루 사랑한다.

그럼에도 복음을 복음 외적인 요소로 제한할 때 그것은 기독교의 보편성을 깨트리고, 보편교회를 분열시킨다. 하나님의 우주적 교회를 특정한 집단과 동일시하는 것은 복음의 축소이고, 이것이야말로 분파주의의 전형이다. 니버가 일반 사회와 격리를 선택한 공동체, 그곳에서 자신의 순수성을 강변하는 집단이 분파라고 본다면, 요더는 드넓은 하나님 나라의 지평을 개별적인 한 사회의 이익과 이해와 일치시키는 것이 분파라고 규정한다.

만일 신약성서와 함께 우리가 교회의 일치를 신앙의 보편적 연대로 이해한다면, 진정한 분파주의는 다른 아닌 국가에 속박되고 국가와 동일시된 교회이며, 그것이 성경적 의미에서 비기독교적 분열임을 알게 된다 (Yoder, 2011: 69).

니버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지렛대는 콘스탄틴주의다. 요더에 의하면, 콘스탄틴주의는 세상과의 동일시이다(Yoder, 1998:154). 그로 인해 기독교의 고유한 가치가 약화되고 타협을 하고 말았다. 그 결과는 세상의 변혁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에 의한 교회의 변질이다. 여기서 초점은 콘스탄틴주의가 복음과 교회의 보편성을 흐뜨려놓았다는 것이다. 교회가 특정 사회와 그 이데올로기와의 연합하게 되면, 복음을 그 사회만을 위한 것으로 축소시킨다. 즉, 복음이 모든 사회,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일부 사회와 일부 사람을 위한 복음으로 협소해지고 만다.

왜 그런가? 요더는 콘스탄틴주의 역사를 일별하면서 답변한다. 종교개혁자들이 교회의 개혁을 위해

국가의 왕이나 지역의 영주들과 도시의 의회의 도움을 받은 것과 그로 인해 국가-교회(nation-state)를 만든 것이 단적인 예시가 된다고 말한다. “기본적인 콘스탄틴적 비전은 남아 있다. 다만 스케일이 지역으로 훨씬 작아졌을 뿐이다”(Yoder, 1984:142). 로마제국 전체와 동맹을 맺었던 교회가 지역적으로 더 축소된 국가와 연합하였다. 이것은 개혁 운동이 콘스탄틴주의에 잠식되었고, 교회가 분파화 되었다는 증거이다.

초기의 콘스탄틴주의가 지역이나 영토와 관련 있었다면, 이후는 이념과 연관이 있다. 근대 이후 정교 분리가 정착이 되면서 제도나 기관으로서의 연합은 약화되고 정신, 도덕의 일치가 두드러진다. “교회와 국가 도덕과의 동일시는 비록 제도적으로 분리되었을지라도 잔존한다”(Yoder, 1984:142). 계몽주의와 프랑스 혁명과 같은 시대사적 정신들, 혁명과 해방 이데올로기가 종교가 되었다. 더 좋은 권력과 계급, 시스템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인이 충성해야 할 것으로 회자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콘스탄틴주의는 분파적이었다. 콘스탄틴의 로마와 자신을 동일시한 교회는 분파가 되기를 자처한 셈이다. 왜냐하면 로마제국이 지구 전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 당시의 지리적 이해에서 보더라도 그것을 유럽으로 제한하더라도 제국의 경계선 밖에 다양한 이민족이 존재했다. 로마의 편을 들게 된 교회는 로마제국의 원수를 자신의 원수로 규정하고 로마의 전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지하였다. 이것이야 말로 분파주의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그러기에 콘스탄틴과 동맹을 맺은 일체의 교회는 분파주의이다.

하우어워스는 사회에 대한 교회의 독특성과 대조성을 강조하는 주장을 분파주의라고 비판하는 이들을 도리어 ‘부족주의’(Tribalism)라고 응수한다. “사람들이 교회보다는 미합중국이나 로마 제국, 쿠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훨씬 더 큰 충성을 바치게 될 때에 부족주의가 생겨난다”(Hauerwas, 2008:242). 하나님 나라와 초국가적, 초인종적, 초문화적인 복음의 보편성을 특정 국가로 축소하고, 특수한 조직의 문제로, 그리고 특수한 이해 관계로 제한하는 것이야 말로 부족주의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하우어워스의 말은 요더의 생각을 반향한다. 우리가 자신이 속한 국가에 충성을 다한다면, 다른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국가에 충성을 다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우리는 적성국가에 충성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기심이고 편파적이다. 분파적이다. 요더는 짓궂게 묻고 대답한다. “우리의 국적은? 그리스도인”(Yoder, 1985:25).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시대의 정신과 국가의 이익을 하나님의 영광에 우선할 때, 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미명 하에 시대의 정신과 국가의 이익 추구를 합리화할 때, 바로 그것이 분파주의요, 부족주의이다.

한편, 요더는 복음의 보편성을 축소하는 콘스탄틴주의가 분파적이라고 일갈하면서도 반대로 복음에 무엇인가를 보태는 것도 분파라고 비판한다. 계시록의 어법으로 말하자면, 콘스탄틴주의는 하나님의

게시에 무엇을 더하거나 감하는 행위이다.

만일 내가 예수의 권위에 특정한 교회를 더하고(plus), 예수에 상식을 더하고, 예수에 내 자신의 통찰을 더하고, 예수에 특정한 신조에 따르는 유산을 더하고, 그것들에 헌신하다고 말하면, 그러니까 예수 외에 어떤 여분의 것을 덧붙이는 것이야말로 구조적으로 분파주의자이다(Yoder, 2011:138).

예수의 주되심은 내가 최종심급에 있어서 충성을 누구에게 바치는가를 말한다. 하나님과 맘몬 중에서 어느 하나를 더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 예수의 말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마 6:24, 새번역). 하나님이 아닌 것들, 하나님을 대신하거나 하나님만큼의 권위와 가치를 지니지 못하는 것들이 하나님과 동일하게 병렬될 때, 그것은 두 주인을 섬기는 우상에 다름 아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기존의 윤리학이 범한 오류가 바로 이것이다. 예수는 유일한 규범으로는 뭔가 부족하고,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 그것을 전통적으로 자연신학이라 부른다. “예수가 윤리의 궁극적 규범이 아니라면, 윤리에 관한 성찰을 위해서는 또 다른 영역 혹은 다른 사고의 형식으로 연결하는 다리 혹은 통로가 필요해진다”(Yoder, 2007:32-33, 48-49). 덧붙여지는 것은 자연, 이성, 창조, 실제 등이다.

과연 이것들은 윤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궁극적 규범에 값하는 것일까? 종교적 차원에서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라면, 윤리적으로도 유일한 규범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논리적 귀결이다. 그렇다면 그것들은 과학적으로도 충분한가? 우리는 그것들이 갖고 있는 나름의 합리성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이성과 자연은 순수하게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이지는 않다. 누구에게나 자명하거나 보편적이지 않다는 말이다. 어떤 이성인지, 누구의 이성인지를 묻지 않으면 안 된다. 이성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의 사회 경제적 차원이나 권력 의지, 무의식에 따라 다른 형태의 이성으로 발현된다. 이성은 지역적이고 계급적이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창조물 일부를 끌어다가 하나님을 증명하고 설명하려는 일체의 시도는 분파주의다.

신원하는 요더를 분파주의로 보되 세상을 위한 분파주의라고 설명한다(신원하, 2003:46-47). 그 근거는 초대교회를 연구하는 몇몇 성서신학자들의 주장이다. 그들에 의하면 초대교회는 분파주의였다. 세상과 뚜렷하게 구별된 경계선을 그으면서도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사실 이 점은 니버도 인정하는 바이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변혁을 가져왔다고 말이다. 그래서 요더는 ‘세상에 반하는 분파주의’가 아니라 ‘세상을 위하는 분파주의’라 평가한다.

신원하의 생각은 니버와 견주어 보자면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니버는 급진주의자들이 세상의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등진 사람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고집한다. 이에 반해 신원하는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들은 분파적 삶의 양식을 보인 것이

사실이다. 허나, 세상과 동떨어지지 않고 세상 복판에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냈다. 바로 그 점에서 세상 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세상과 어중간하게 동일시하는 현대 교회에 경종을 울린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분파주의라는 용어를 끝내 떨치지 못한다. 즉, 그것이 어떠한 존재이고 역할을 하든지 간에 결국 분파주의라는 말이다. 분파주의라는 명칭을 요더에게 사용하는 순간, 지금껏 관례적으로 통용된 분파라는 개념에서 벗어날 수 없다. 또한 요더는 자기 스스로를 결코 분파적이라거나 분파주의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정직하게 말하면 한때나마 요더도 자신을 분파라는 용어로 파악한 적은 있다(Nation, 2006: 152.fn.17.).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볼 때, 요더는 기독교 신앙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을 에큐메니칼, 즉, 보편적이라 확신하는 태도를 철저히 견지하였다.

IV. 대립이 아니라 대안이다.

외려 주류가 분파주의라는 요더의 반론은 상당히 매섭다. 하우어워스는 니버의 유형론을 극복한 점을 요더의 가치요 장점으로 꼽는다(Hauerwas, 1981:214). 요더는 니버가 강고하게 구축한 ‘도피냐 책임 이냐’의 구도를 해체시켰다. 지금까지는 잘못된 프레임에 갇혀 버림으로써 급진적 종교개혁 운동과 관련한 논쟁이 벌어지면, 무책임한 분파주의라는 비난과 함께, 변명하기 급급한 궁색한 궁지에 몰리곤 했다. 물리적으로 상당한 압박과 핍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논쟁의 구도를 선점하지 못한 탓이다. 그러나 요더의 혁명성 또는 혁신적 사유는 이런 형국을 일거에 뒤집어 버렸다.

1. 개념의 재규정 : 신실함 vs 비신실함

요더는 토론의 지형 전체를 뒤흔들거나 또는 프레임 자체를 뒤집는다. 그는 아예 논쟁의 구도 자체를 ‘책임 vs. 무책임’에서 ‘신실함 vs. 비신실함’으로 바꾸어 버린다. 그렇게 되면 ‘책임 vs. 무책임 구도’는 자동적으로 해체되고 만다. 그리하여 ‘참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라 ‘어떤 참여인가? 어떻게 책임을 다할 것인가’를 묻게끔 만들었다. 니버가 이분법의 기준을 ‘책임’으로 잡았다면, 요더는 이분법의 척도로 ‘신실함’을 제시한다.

우선 책임이라는 용어가 지닌 위험과 오류를 지적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현대의 표어는 “책임”이란 용어이다. 이 용어는 극도로 위험한데, 그것이 말하는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논점을 교묘히 피한다는 것과 모호성 때문이다. 중요한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사회 질서에 대해 책임

이 있는가가 아니라, 그 책임이 무엇인가이다(Yoder, 2011:77-78).

그러니까 그 책임이 무엇인가를 살피지도 않고 무조건 책임질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책임’이라는 용어가 위험하다는 말이다. 책임지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주류가 설정해 놓은 방식으로 책임적 행동을 하지 않으면, 무책임하다고 비난한다. 니버는 톨스토이를 문화와 대립하는 유형에 포함시키면서 그를 “문화를 배척하는 톨스토이”라고 명명한다(니버, 2007:142). 우스꽝스럽다. 톨스토이는 당대의 주류 문화를 거절했을 뿐이다. 누구나 나름의 책임을 다한다. 어떤 책임이냐의 문제이지, 결코 책임을 질 것이냐는 문제가 아니다.

오류인 까닭은 복음을 위반할지라도 책임감에서 비롯된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 기성 질서는 책임을 다하라고 다그친 다음, 그 책임이 어떤 책임인지를 결코 캐묻지 않는다. 더 나아가 성경 외적인 것에 토대를 둔 실천을 요구한다. 이는 앞서 말한 대로 복음을 축소하거나 무언가를 더하게 만든다.

요더는 새로운 구도를 제안한다. 신실함 vs. 불신실함이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실제적인 긴장은 그리스도와 문화의 관계가 아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와 육적인 세상 사이의 대결이 아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에 헌신한 바에 따라 문화적 표현을 찾는 이들과 자기 신앙과는 일정 정도 모순을 감수하고 다른 것에서 윤리적 기준을 추구하는 이들 사이의 대결이다(Yoder, 1996:74). 세상이 계산하는 바, 효율성을 버리고 십자가의 신실성을 좇는다. “예수는 하나님의 원수 사랑에 너무나도 신실하신 나머지 그가 택할 수도 있었던 모든 효율성을 포기하셨다”(Yoder, 2007:400). 이것이 세상과 대조되는 대안적 삶의 양식이다.

이러한 구도는 우리에게 해방감을 안겨준다. “신실하지만 부적절한 이원론과 적절하지만 불신실한 타협 사이에서 항상 선택해야만 한다는 느낌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Yoder, 2012:105-06).” 니버는 전통적인 주류 입장이 현재의 현실에 적절하기는 해도 신앙고백에 충실하지 못한 타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반면에 소수 입장은 성경과 고백에 충실하지만 그것이 현실에 그다지 쓸모가 없다. 니버는 우리를 이 딜레마에 꼼짝없이 가두었다면, 요더는 그 딜레마에 빠진 우리를 해방시킨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는 한 문장으로 프레임의 중요성을 설파했던 조지 레이코프의 관점을 빌리면, 니버의 구도 자체를 잊으라는 말이다. ‘책임 vs. 무책임’은 잊으라 가 아니라 ‘신실함 vs. 비신실함’을 기억하라, 이다.

요더가 제안한 바, 기독교 신앙에 신실함이 실제로 사회를 변혁할 수 있을까? 제임스 데이비슨 헌터(James Davison Hunter)는 그렇다고 확언한다. 사회학자로서 그는 미국의 기독교가 사회를 변혁하는 데 실패한 요인을 콘스탄틴주의로 지목하고, ‘신실한 현존’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기독교인이 세상을 바꾸겠다는 주장의 이면에 세상에 대한 지배와 통제를 할 수 있다는 암묵적 전제가 작동하고 있다. 이것이 오해인 까닭은 기독교인의 1차 과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것에 비해 세상에 정의를 실

천하고, 평화를 일구는 행동은 이차적이기 때문이다(Hunter, 2014:421).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내가 요더 사상을 설명했던 바와 일치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헌터가 보기에 요더를 위시한 아나뱃티스트 계열의 학자들은 여전히 분리주의적이다(Hunter, 2014:248-52). 국가와 전쟁, 자본주의 등에 대한 비판과 반대를 위해 종말론적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정치화된 것이고, “이상적 교회와 상관없는 일체의 것에 대한 그들의 철저한 적대감”의 발로라고 비판한다. 그는 세상 한 복판에서의 신실한 현존이란 세상과의 분리도 아니고, 일치도 아닌 구별을 주장하는 것일 테고, 분리의 대표적 케이스가 바로 요더인 듯 하다.

하지만, 종말론적이라고 해서 ‘철저한 적대감’을 가진다면, 요한계시록의 세계관을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다소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세상과의 구별됨을 적대감으로 읽기는 어렵다. 양보하여, 그 구별됨이 분리로 읽혔다고 하더라도, 세상에 대한 적대감을 뿜어낸다는 것은 헌터의 과장된 주장이다. 바로 앞에서 요더는 세상과의 분리가 아니라 분별을 주장했다는 나의 해석이 옳다면, 오히려 헌터가 요더에 대해 적대감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닐까?

2. 실천의 상상력 : 어떤 책임? 어떻게 책임?

요더의 새로운 이분법은 윤리적 자유를 선사할 뿐만 아니라 윤리적 상상력도 발휘하게끔 한다. 그냥 책임을 지라고 등을 떠밀면서도 정작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침묵하는 것은 당황스럽다. 반면에 주되심에 충실하면서도 어떤 책임, 누구의 책임인가를 묻는 것은 자유로운 상상을 허용한다. 책임 vs. 비책임은 단순명료하다. 허나, 경직되어 있어서 실제 현장을 설명하지 못하며, 도리어 무책임한 선택으로 이끈다. 반면 신실함 vs. 비신실함은 유연하다.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를 우리에게 묻는다. 다양한 선택과 책임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특정한 시공간이라는 제약을 고려하면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를 물음으로써 우리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상상력을 발휘하게 된다.

기존의 상상력에 의하면, 평화주의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전쟁 한 가운데서 책임적 행동은 전쟁 참여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허나, 요더의 제안을 따른다면, 반드시 전쟁에 동조하고 참전하는 것만이 책임있는 행동은 아니다. 요더의 평화주의 역시 하나의 책임적 행동이다. 평화주의적 신념은 전쟁이 발발한 현장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평화를 증언하는 삶이다. 그것 또한 사회 질서를 위해 기독교가 선택하는 하나의 길이다(Yoder, 1955:113).

그러니까 왕이나 최고 관료가 되어서 사회적 영향력을 가져야만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진부한 상상력으로부터 탈주해야 한다. ‘고지론’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퍼진 이 담론 속에는 은밀히 숨어 있는 성공과 승리에 대한 야망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사회를 바꾸기는커녕 바꾸려고 하는 자가 오히려 바뀌게 되고, 사회의 일부로 편입되고, 권력의 주인이 아니라 종이 되는 길이다.

또한 요더의 새로운 구도에 따르면, 지금까지와는 확연히 다른 상상력이 가능하다. 그는 누가복음 22장 25절 이하에 나온 예수와 제자의 대결을 통해 설명해 준다(Yoder, 2007:80-81). 제자들은 예수가 ‘왕’이 되어서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기대한 반면, 예수는 ‘종’이 되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선언한다. 그리스도는 ‘왕’이시지만 ‘종’이 되어 세상을 바꾸셨다.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종’이지만, ‘왕’이 되어 세상이 되어 버렸다.

지배와 통치가 아니라 섬김과 나눔이 제자도의 요체이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세상과는 분명하게 구별된 다른 삶의 방식을 산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억지로나 의도적으로 다른 집단과 구별 지으려는 몸짓이 아니다. 예수의 주되심에 충성하겠다고 결심하는 그 순간, 그는 세상과 달라진 것이다. 자기 존재와 운명을 건 신앙 고백이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세상은 자신의 신앙 고백에 충실한 그를 이전과 달리 보게 된다. 그는 달라졌고, 변한 그를 세상도 다르게 본다.

그 차별성은 제의적 혹은 의식적 분리가 아니라 세상의 삶에 참여하면서도 거기에 동화되지 않는 삶의 질의 차이이다. 바로 이러한 사실로 인해 이 공동체는 존재하는 모든 권력에 대한 불가피한 도전이요, 새로운 사회적 대안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Yoder, 2007:81).

전쟁과 폭력을 정당화하고, 기성 질서의 일부로 편입되고 마는 콘스탄틴주의는 세상을 변화시키기는 커녕 세상에 동화되게 한다. 그런 점에서 기존 교회와 기성 윤리학이 도리어 분파가 되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다. 요더는 주되심에 충실하면서도 세상의 폭력과 무력과 구별된 방식을 실천하자고 한다. 그것은 세상에 대한 하나의 책임 있는 행동이며, 세상과 다른 상상력을 요한다. 존 요더는 분파주의자가 아니며, 평화주의는 세상을 변혁하는 윤리학이다.

V. 결론

지금까지 요더의 평화주의가 사회 변혁을 위한 하나의 모델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II에서는 그와 대척점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는 리처드 니버와의 대화를 시도하는 방법으로 요더의 견해를 뚜렷하게 부각시켜보았다. 분리나 후퇴가 아닌 대조와 대안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요더의 평화주의는 사회 변혁 모델임에 틀림없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요더의 평화주의는 분파주의라는 끊이지 않는 비판이 제기되었는데, III에서 반박하였다. 요더와 아나뱃티스트를 분파적이라고 몰아세우는 그들이 도리어 교회의 보편성을 약화시키고, 교회와 기독교 신앙을 특정한 국가와 사회와 동일시하는 부족주의에 함

몰한다고 해명하였다.

IV에서는 교회가 사회에 흡수되거나 동화되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세상과의 분리와 도피는 더 더욱 적절한 전략이 아니고, 세상과 구분되는 대조성을 지니는 대안 공동체가 될 때에 사회 변혁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요더는 일관되게 예수의 주되심, 하나님의 하나님되심에 입각해서 세상 한 가운데서 순종할 것을 요청한다. 일각의 오해와 달리 그의 전 생애와 전 저작은 세상과의 상관성 속에서 이루어졌다.

마크 네이션(Mark Nation)은 요더가 일생 동안 교회와 세상의 구분, 그러니까 세상과 다른 교회의 정체성을 강조했다고 말한다(Nation, 2006:157.f.n.31). 다만 세상과 엄연히 구분되는 믿음의 독특성을 고수하면서도 충분히 그리고 자유롭게 믿음을 실천할 수 있다. 그 강조가 초창기에는 기독교 윤리의 독특성(distinctiveness)에 있었다면, 후기에는 다름(difference)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변화가 있다.

그럼에도 요더는 사회 참여에 소극적인 면이 있다. 요더의 사위이기도 한 톰 요더 뉴펠드(Tom Yoder Neufeld)는 요더가 에베소서에서 말씀의 검을 오해한 측면이 있다고 말한다(Neufeld, 2002:303). 여기서 검은 로마의 단검이 아니라 전사(warrior)인 하나님의 긴 칼이다. 따라서 이 칼은 세상에 대한 무저항이나 불관여가 아니다. 그럼에도 요더는 이 칼을 방어적인 것으로 해석한다(Yoder, 2007:350). 전쟁과 사형의 도구가 아니라는 것에 방점을 두고 이해한다.

또한 요더가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세상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 보다는 증인으로서 간접적인 책임에 국한한 면도 있다(Reimer, 1998:13). 성령의 검을 요더 뉴펠드와 같이 에베소서 텍스트가 말한 바 대로, 보다 능동적으로 해석하고, 신적 전사와 같이 세상과 대결을 마다하지 않는 적극적인 참여가 바른 성경 이해이며, 추구해야 할 실천일 것이다.

그리고 요더가 지닌 소극성과 함께 그의 삶이 지닌 치명적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존 로스, 2018). 요더의 윤리가 사회 변혁적이라는 나의 주장은 그의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성주행에 의해 무색해 질뿐만 아니라 아예 원천 부정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것은 어떠한 말로도 변호될 수 없는 폭력이다. 그 자체로도 악한 일일 뿐만 아니라 비폭력평화주의자인 자신의 신학을 스스로 부정하고 허무는 모순이다. 요더는 정작 자신의 삶에서는 변혁적이거나 평화주의적이지 못했다. 그럼에도 요더의 윤리를 말할 수 있는지, 게다가 사회 변혁적이라는 주장이 가능한지에 관한 토론은 복잡한 고차방정식이다. 적어도 학문적 영역에서의 토론은 가능하고 가능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앞에서 두 가지를 물었다. 하나는 ‘존 요더의 신학과 윤리는 분파주의인가?’라는 것이었다. 이 점에 관해 대답은 분명하다. 요더는 분파주의자가 아니다.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과 다른 방식의 책임을 수행하려고 하는 요더가 결코 분파주의일 리 없다. 오히려 니버에게서 보듯이 주류 윤리학이 보편적인 복음을 특정한 한 집단의 이익과 동일시하는 것이 분파주의이다.

다른 하나는 ‘요더의 윤리가 세상을 변혁하는가?’라고 물었다. 니버는 요더가 위치한 평화주의와 아

나뱃티스트를 주류 신학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이론이기는 하지만, 세상과 담 쌓고 살고자 한다고 비판한다. 허나, 평화주의는 폭력이 본질인 세상과 대결한다.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대답할 수 있겠다. 그러나 능동적으로 참여를 독려하기보다는 소극적인 참여에 머문 감이 없지 않다. 사회의 변혁보다 교회의 회복에 주안점을 가진 요더의 자연스러운 귀결일지도 모르겠다.

공지영 소설을 영화화한 “도가니”에서 한 여자 주인공은 말한다. “우리가 싸우는 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우릴 바꾸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교회를 다닌다는 것만으로, 갖가지 종교적인 행동을 꼬박꼬박 수행한다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하고, 또한 그리스도인이기에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믿는 우리에게 요더는 말한다. 세상을 바꾸기 전에 너 자신을 먼저 바꾸라고. 세상을 바꾸기 전에, 세상을 바꾼다고 하는 교회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 그 자체, 그 과정, 그 결과로 세상의 변화를 목격할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김기철 역(2008). **하나님의 나그네된 백성**. Hauerwas, Stanley. & Willimon, William.(1989). *Resident Aliens*. 서울: 복 있는 사람.

[Kim, K. C.(2008). *Resident Aliens*. Seoul: The Blessed People Publishing Company. Trans. Hauerwas, Stanley. & Willimon, William.(1989). *Resident Aliens*. Nashville: Abingdon Press.]

김기현(2002). 개혁주의 세계관 비판과 변혁 모델의 다양성. 『**신앙과 학문**』, 8(2), 7-37.

[Kim, K. H.(2002). The Critique of Christian Worldview and Plurality of Transformational Model. *Faith & Scholarship*, 8(2), 7-37.

김기현 역(2011). **근원적 혁명**, Yoder, John H.(1971). *The Original Revolution*. 대전: 대장간.

[Kim, K. H.(2011). *The Original Revolution*. Daejeon: Daejanggan. Trans. Yoder, John H.(1971). *The Original Revolution*. Scottdale: Herald Press.]

김기현 역(2012). **국가에 대한 기독교의 증언**, Yoder, John H.(1964). *The Christian Witness to the State*. 대전: 대장간.

[Kim, K. H.(2012). *The Christian Witness to the State*. Daejeon: Daejanggan. Trans. Yoder, John H.(1964). *The Christian Witness to the State*. Newton: Faith and Life Press.]

김복희 역(2018). 야수의 송곳니를 뽑다: 존 하워드 요더의 성추행과 권력남용에 대한 메노나이트의 반응. Roth, John(2015). *Defang the Beast: Mennonite Response to the John Howard Yoder's Sexual Abuse*. 대전: 대장간.

[Kim, B. K.(2018). *Defang the Beast: Mennonite Response to the John Howard Yoder's Sexual Abuse*. Daejeon: Daejanggan. Trans. Mennonite Quarterly Review 89(January 2015)]

배덕만 역(2014). **기독교는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Hunter, James Davidson.(2010). *To Change the World*. 서울: 새물결플러스.

[Bae, D. M.(2014). *To Change the World*. Seoul: New Wave Plus. Trans. Hunter, James Davidson.(2010). *To Change the World*. New York: Oxford Univ Press.]

성석환. 리처드 니버의 '문화변혁론'에 대한 비판적 논쟁과 해석학적 이해. 『**문화와 신학**』 14. 307-338.

[Sung, S. W(2009). Hermeneutic Understanding of Christ & Culture(1951) and Ethical Reinterpretation of 'Christ Transforming Culture.' *Culture & Theology* 14(5). 307-338.

신국원(2002). **신국원의 문화 이야기**. 서울: IVP.

- [Shin, K. W.(2002). *Culture Story of Shin Kuk Won*. Seoul: IVP.]
- 신원하(2003). **전쟁과 정치**.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Shin, W. H.(2003). *War and Politics*. Seoul: CLSK.]
- 홍병룡 역.(2007). **그리스도와 문화**, Niebuhr, H. Richard.(1951). *Christ and Culture*. 서울: IVP.
- [Hong, B. R.(2007). *Christ and Culture*. Seoul: IVP. Trans. Niebuhr, H. Richard.(1951). *Christ and Culture*. New York: Harper & Row.]
- Hauerwas, Stanley. (1981). *Vision and Virtue: Essays in Christian Ethical Reflection*.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 Joon-Sik, Park, “Ecclesiologies in Creative Tension: The Church as Ethical and Missional Reality in H. Richard Niebuhr and John H. Yoder.” *International Review of Mission* 92:3(2003): 332-44.
- McClendon, Jr., James Wm. (1988). “Foreword,” Charles Scriven, *The Transformation of Culture: Christian Social Ethics After H. Richard Niebuhr*. Scottdale: Herald Press. 9-11.
- Nation, Mark Thiessen. (2006). *John Howard Yoder: Mennonite Patience, Evangelical Witness, Catholic Convictions*. Grand Rapids: Eerdmans.
- Neufeld, Thomas R. Yoder. (2002). *Ephesians: Believers Church Bible Commentary*. Scottdale: Herald Press.
- Reimer, A James. (1998). Mennonites, Christ, and Culture: The Yoder Legacy. *The Conrad Grebel Review* 16:2, 451-471.
- Scriven, Charles. (1988). *The Transformation of Culture: Christian Social Ethics After H. Richard Niebuhr*. Scottdale: Herald Press.
- Yoder, John H. (1964). Toward a Sifting of Faith From Culture. *Mennonite Life* XIX, No, 1. 36-39.
- _____. (1997). *For the Nations: Essays Public & Evangelical*. Grand Rapids: Eerdmans.
- _____. (1996). “How H. Richard Niebuhr Reasoned: A Critique of Christ and Culture.” in Glen H. Stassen & D. M. Yeager & John H. Yoder eds. *Authentic Transformation: A New Vision of Christ and Culture*. Nashville: Abingdon Press.
- _____. (1984). *The Priestly Kingdom: Social Ethics as Gospel*.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_____. (1998). *The Royal Priesthood: Essays Ecclesiological and Ecumenical*. Scottdale: Herald Press.

_____. (1955). "Reinhold Niebuhr and Christian Pacifism." *The Mennonite Quarterly Review* 29, 101-17.

존 요더의 평화주의는 사회 변혁의 한 모델인가?*

Is Pacifism of John Yonder a Model of Society Transformation?

김기현 (로고스서원)

ABSTRACT

기독교 신앙은 어떤 형태로든지 사회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아나뱃티스트들은 리처드 니버가 분류한 다섯 가지 모델 중 분리 모델의 대표 그룹이다. 존 요더는 분리 모델이 강력한 사회 변혁 모델임을 역설한다. 그 모델은 세상과의 분리가 아니라 구별됨을 추구하며, 세상과 명백히 대조되는 대안적 삶의 양식을 추구한다. 더 나아가 요더는 책임 vs. 무책임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비현실적이고 모호하다고 비판한다. 그는 신실함 vs. 비신실함이라는 프레임을 제안한다. 그리하여 사회적 책임을 감당할 것이냐의 논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만든다.

주제어: 존 요더, 리처드 니버, 평화주의, 콘스탄틴주의, 대조 윤리

편집위원회 규정

2001년 1월 28일 제정
 2004년 1월 1일 개정
 2007년 1월 1일 개정
 2010년 2월 1일 개정
 2011년 8월 19일 개정
 2012년 4월 6일 개정
 2014년 1월 16일 개정
 2020년 3월 1일 개정
 2020년 6월 1일 개정

제 1 장 총칙

제1조 본 위원회는 기독교학문연구회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는 기독교학문연구회 회칙 제6장에 의거하여 설치된다.

제3조 편집위원회가 관장하는 학회지 『신앙과 학문』은 다음과 같은 지침 하에 발행된다.

- (1) 매년 3월 31일, 9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년 4회 발행한다.
- (2) 원고마감은 발행 약 50일 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발간호	발간일	원고투고 마감일
1호	3월 31일	2월 10일
2호	9월 30일	5월 10일
3호	9월 30일	8월 10일
4호	12월 31일	11월 10일

- (3) 『신앙과 학문』의 투고, 심사, 발행 등 편집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며, 별도의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 2 장 편집위원 구성

제4조 편집위원회는 전공과 지역을 고려하여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을 둔다.

제5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질병이나 장기 해외출타 등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교체할 수 있다.

제6조 편집위원장은 전공과 기독교 학문에 식견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에서 회

장이 선임한다.

- (1) 4년제 대학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2) 기독교학문연구회에 5년 이상 가입한 경력이 있는 자
- (3)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학술지의 편집위원 경험이 있는 자
- (4) 최근 10년 동안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 학술지에 20편(SCI급 논문은 3편으로 환산) 이상 논문을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제7조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발간과 관련된 모든 업무, 즉 편집위원의 위촉, 학회지 논문의 심사, 편집 및 출판에 대한 행정 실무를 담당한다.

제8조 편집위원은 회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학회장이 임명하며,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1) 4년제 대학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혹은 해당분야에 있어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2) 최근 5년 동안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 학술지에 5편(SCI급 논문은 3편으로 환산)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제 3 장 기 능

제9조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신앙과 학문』의 체제, 발간 부수, 분량 및 투고규정 등 학회지 발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제10조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의뢰하고, 심사결과를 토대로 논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이나 투고자와 관련된 연구윤리규정을 지켜야 하며, 투고 논문심사와 관련하여 투고자의 정당한 이의제기가 있을 때는 편집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제12조 위 제9조에 제시된 사항 이외에 편집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은 이사회의 인준을 거친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 4 장 편집회의

제13조 편집회의는 학회지 발간시기와 필요시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4조 편집회의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독교학문연구회의 예산으로 지원한다.

제 5 장 논문심사 기준 및 절차

제16조 투고된 모든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가 결정된다.

제17조 논문의 심사는 개별항목 평가와 종합 평가로 이루어진다.

제18조 논문심사에 적용되는 개별 항목은 다음과 같다.

- | | |
|--------------------------------|----------------------|
| (1) 주제의 명확성과 참신성, | (2) 목적과 내용의 합치도·적절성, |
| (3) 연구방법의 적절성 및 논리의 정합성, | (4) 결과의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
| (5) 연구결론 및 제언의 합리성, | (6) 문장기술·용어 사용의 명료성, |
| (7) 각주·인용·참고문헌·국문 및 영문 초록의 정확성 | |

제19조 종합 평가는 개별항목 평가를 근거로 심사자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심사>, <게재 불가> 4등급으로 평가한다.

제20조 논문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진다.

- (1) 접수: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원칙상 기독교학문연구회의 정회원이어야 한다. 원고의 게재순서는 논문게재 확정 순서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심사의뢰: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을 세부전공별로 분류한 후 각각의 논문에 대해 3명 이상의 심사자를 위촉하여 심사의뢰서와 함께 심사를 요청한다. 이때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은 심사위원이 알 수 없도록 삭제하여 보낸다.
- (3) 심사: 각 심사위원은 심사의뢰서에 의거하여 논문을 심사하고 그 판정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며, 소정의 심사결과 보고서에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4등급으로 종합판정을 내린다. 특히, 수정을 요하는 논문은 수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장으로부터 논문심사를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심사를 종료하고 논문심사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이 심사의뢰를 받은 후 기한 내에 논문심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 가. 게재가: 수정 사항이 없거나 아주 사소한 수정 후에 게재할 수 있는 논문.
 - 나. 수정 후 게재가: 표현, 어휘의 선택, 제시순서 등의 핵심내용과는 무관하거나 부분적인 수정을 하면 게재할 수 있는 논문.
 - 다. 수정 후 재심사: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문제가 있어 반드시 수정이 요구되고, 그것의 수정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논문.
 - 라. 게재불가: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논문.
- (4) 1차 편집회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수합된 후 심사위원장은 1차 편집회의를 소집하고 심사내용을 검토한다. 2명 이상의 심사자로부터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논문 투고자에게 최종 교정을

의뢰한다. <수정 후 게재>와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위원의 논평을 첨부하여 논문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한다. 2명 이상의 심사자로부터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게재를 불허한다.

- (5) 2차 편집회의: 편집위원장은 수정을 마친 논문들을 수합하여 2차 편집회의를 소집한다.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의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 해당 심사자에게 수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편집위원장은 수정된 논문의 최종 심사결과를 투고자에게 <게재가>와 <게재불가>로 나누어 통보해준다. 이 시점부터 투고자가 원할 시 논문게재 예정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

- (6) 심사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부록#1<심사규정 세칙>에 따른다.

제 6 장 부칙

제21조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200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2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통례에 따른다.

제23조 본 8차 개정된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발효한다.

제24조 부록 #1: 「신앙과 학문」 학술지 논문 심사규정. 끝.

「신앙과 학문」 논문 심사규정

제 1 조 (목적)

이 세칙은 학회지 발간규정 제3조 및 제 19조에 의거하여 『신앙과 학문』 학술지 투고논문 심사 규정세칙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심사판정 기준 및 결과의 처리)

(1) 3인 심사위원의 판정에 기초하여 최종 게재여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제 1 심사자	제 2 심사자	제 3 심사자	종합 판정
1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능
2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능 (수정요구)
3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4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가능 (수정 후 편집위원회 게재결정)
5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6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7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8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9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사 (재심사 후 편집위원회 게재결정)
10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11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12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13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14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15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16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17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8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9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20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2) “게재가능” 판정을 받은 논문도 심사자의 수정보완 요구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3) “수정 후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자의 수정보완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의 확인을 거쳐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4)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을 지시하는 재심사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5) “수정 후 게재가” 혹은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후 수정 논문을 최종 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게재불가” 처리한다. 단 투고자의 요청과 편집위원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수정논문 제출을 다음 호로 연기할 수 있다.
- (6) 편집위원회의 결정은 인터넷 전자메일을 이용한 투표로 할 수 있다.

제 3 조 (심사위원단)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의 책임성과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분야 학자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 4 조 (개인정보보호)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논문제출자와 심사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된다.

제 5 조 (저작권 및 판권)

- (1) 『신앙과 학문』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 판권은 기독교학문연구회가 보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투고시 “저작권양도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제 6 조 (심사를 위한 서식)

- (1) 『신앙과 학문』 제()권()호 논문심사서 : 서식 가
- (2) 『신앙과 학문』 제()권()호 논문심사료 신청서 : 서식 나

제7조(개정된 논문심사규정)

개정된『신앙과 학문』 논문심사규정은 2012년 4월 6일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된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신앙과 학문』 논문심사의견서

- 논문번호:
- 논문제목:
- 부문별 평가: 다음 칸에 각 항목 배점에 기준으로 심사 점수를 기재해 주세요.
- 최종평가: 총점에 따라 논문 평가 등급 칸에 표기(√ 또는 O)해 주세요.

평가항목		배점	심사 점수	
1) 주제의 명확성과 참신성		20		
2) 목적과 내용의 합치도·적절성		20		
3) 연구방법의 적절성 및 논리의 정합성		20		
4) 결과의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10		
5) 연구결론 및 제언의 합리성		10		
6) 문장기술·용어 사용의 명료성		10		
7) 각주·인용·참고문헌·논문초록의 정확성		10		
총점		100		
최종평가 (심사위원 논문 평가 등급)	게재가 (90점 이상)	수정후 게재가 (80점~89점)	수정후 재심사 (70점~79점)	게재불가 (69점 이하)

※ 심사의견서 (수정보완 요구서 또는 게재불가 사유서)는 다음의 별도 페이지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장 귀하

심사의견서:

* 저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의견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심사의견을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지시사항의 경우 논문내 구체적인 페이지와 함께 이유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게재불가의 경우는 왜 게재가 불가한지를 상세하게 서술하여 주시고, 저자로 하여금 건설적인 수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참고문헌을 제시하여 주세요.

❖ 논문주요내용:

❖ 수정지시사항 (게재불가 이유 포함):

논문심사료 신청서

- 논문번호:

- 논문제목:

『신앙과 학문』에 투고된 상기 논문심사에 대한 심사료를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심사위원	성명	(인)	소속	
	Email		휴대전화	
	심사일			
은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20 년 월 일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장 귀하

「신앙과 학문」 투고 규정

2003년	1월	1일	제정
2008년	1월	1일	개정
2010년	2월	1일	개정
2012년	4월	6일	개정
2014년	1월	16일	개정
2017년	7월	1일	개정
2019년	4월	1일	개정
2020년	3월	1일	개정
2020년	6월	1일	개정

1. 논문의 투고는 원칙적으로 본 학회의 정회원에게 한한다.
2. 저자는 다음의 사항을 유념하여 원고를 작성하여야 한다.
 - 1) 투고논문은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일 현재 타 학술지에 게재 신청 중인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 2) 논문은 본 학술지 심사규정을 고려하여 작성하되, 기독교 세계관에 바탕을 둔 학술적 가치와 학문적 깊이가 있는 창의성 있는 논문이어야 한다.
 - 3) 타인의 저작물 표절 혹은 자기표절에 해당하는 것, 즉 타인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 등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도용하는 행위,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연구내용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행위, 그리고 자신이 발표한 저술의 내용을 인용 혹은 각주 등 명백한 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한다. 학위논문의 축약본이나 일부를 투고할 경우에도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 4) 위조 혹은 변조에 해당하는 것, 즉 존재하지 않은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의도적으로 변경하거나 누락시키는 등 연구결과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한다.
 - 5) 참고문헌과 각주에 대한 본 투고규정을 필히 준수하여야 한다.
[예 : 본문 인용 시 APA방식 사용 - 투고규정 7~9 참조, 각주는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단순히 자료출처를 밝히는 것은 금한다.]

3. 논문 저자의 표기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투고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반드시 제1저자(또는 교신저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특별한 표기가 없으면 앞에 기재된 저자를 제1저자, 뒤에 기재된 저자는 공저자로 간주한다. 단, 교신저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교신저자를 표기한다.
- 2)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는 연구책임자, 연구의 핵심 아이디어를 제공한 자, 연구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자여야 하며, 공저자는 연구에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직접 기여한 자여야 한다. 연구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자가 주저자 혹은 공저자가 되는 것을 금한다.
- 3) 논문 제출자는 JAMS에 주저자 및 공저자의 정보를 모두 입력하여야 하며, 표기 방법은 아래의 <표>와 같다. 단 논문의 저자명과 저자정보는 삭제하여야 하며, “게재기” 판정을 받은 최종논문에만 기재하여 제출한다.

<소속 및 직위별 표시방법>

대상		표시할 사항
대학 소속	대학 소속 교수 (전임/비전임)	성명(O O대학, 교수)
	대학 소속 강사	성명(O O대학, 강사)
	대학 소속 학생	성명(O O대학, ★★과정, ★★수료, 박사, 석사 등)
	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	성명(O O 대학, 박사후 연구원)
초중등 학교 소속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성명(O O학교, 학생)
	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성명(O O학교, 교사)
기타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성명 *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 별도제출

4. 편집위원회는 필요에 따라서 투고자에게 원고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논문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의미 혼동의 가능성이 있거나 인명, 지명의 경우 처음 표기는 ()안에 한자 또는 원어를 명기하며, 그 이후에는 한글로 표기한다.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도 투고할 수 있다.

6. 논문 제출 시 원칙상 영문으로 된 'ABSTRACT'와 국문으로 된 '논문초록'을 포함해야 하며, 'ABSTRACT'를 논문의 맨 앞에, '국문초록'은 참고문헌 다음에 제시한다.

- ① 'ABSTRACT'는 논문제목과 저자명(영문) 밑에 200단어 내외로 작성한다.

'ABSTRACT'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제목,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 연구내용, Key Words를 포함해야 한다. 제목의 첫 단어와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기하고(예, The Educational Meaning of Love), 'Key Words'는 고유명사 외에는 소문자로 표기한다(alternative education, Christian worldview). 투고자의 이름은 유재봉(Jae-Bong Yoo)으로, 소속은 각주 내 성균관대학교 교수 (Sungkyunkwan University)로 표시한다. 각주에는 소속기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를 첨부한다.

- ② '국문초록'은 참고문헌 다음에 500자 내외로 작성하며, 5단어 내외의 '주제어'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③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도 국문으로 된 논문초록과 ABSTRACT를 제출하여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는 편집위원회가 저자의 위임을 받아 ABSTRACT를 국문으로 번역할 수 있다.

7. 제출 원고는 다음과 같은 규격에 따라 작성한다.

- 1) 용지종류 및 여백설정: 용지설정 A4, 여백은 왼쪽 33, 오른쪽 33, 위쪽 33, 아래쪽 33, 머리말 12, 꼬리말 12
- 2) 논문제목: 휴먼고딕, 글자크기 15, 진하게 가운데 정렬
- 3) 연구자 및 소속: 신명조, 글자크기 11, 가운데 정렬
- 4) 요약: 제목은 휴먼고딕, 글자크기 9, 줄 간격 150, 가운데정렬
요약본문: 신명조, 크기 9, 줄간격 150, 들여쓰기 10
- 5) 본문 글꼴 설정: 신명조 10, 들여쓰기 10, 줄 간격 160, 장평 95%, 자간 -10%
- 6) 각주: 신명조, 글자크기 9, 장평 95%, 자간-4%, 왼쪽여백 4, 내어쓰기 3, 줄 간격 150
- 7) 긴 인용: 신명조, 글자크기 9, 장평 95%, 자간-4%, 줄 간격 150, 들여쓰기 10,
여백주기 오른쪽 5, 왼쪽 5
- 8) 참고문헌: 휴먼고딕, 글자크기 12, 진하게, 가운데 정렬
목록내용: 신명조, 글자크기 10, 장평 95%, 자간-4%, 여백주기: 왼쪽 8, 내어쓰기 7,
줄 간격 130

8. 제출 원고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작성한다.

1) 본문 소제목: 본문의 구분은 장(章), 절(節), 항(項) 순으로 배열한다.

장은 ‘I, II, III, …’의 순으로, 절은 ‘1, 2, 3, …’의 순으로, 항은 ‘(1), (2), (3), …’의 순으로 번호를 매긴 후, 제목을 표기한다. 세분화를 지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세분화된 제목은 ‘①, ②, ③, …’, ‘i), ii), iii), …’을 따른다.

2) 논문 작성 시 참고한 내용이나 아이디어는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① 본문 내 직접인용일 경우 큰따옴표(“ ”)를 사용하며, 본문의 인용은 APA 방식으로 한다.

예) 화이트헤드(Whitehead, 1932: 23)에 의하면, “현대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주석에 불과하다.” 혹은 “현대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주석에 불과하다(Whitehead, 1932: 23).”

② 간접인용이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참조하였을 경우에는 큰따옴표 없이 출처를 밝힌다.
…(Parshall, 2003: 23)

③ 3줄이 넘는 긴 인용 시 인용문 앞뒤에 한 줄씩 띄워 큰따옴표 없이 왼쪽 들여쓰기로 별도의 문단 다음과 구성한다.

④ 두 자료 이상을 참고 하였을 때는 쌍반점(;)으로 구분한다. (김철수, 2007: 12; 박명순, 2009: 217)

⑤ 강조문은 따옴표(‘ ’)를 사용한다.

⑥ 성경 인용의 경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세기 1: 1).”, 혹은 (창 1:1)

⑦ 2인의 공동저술 인용의 경우: (김희계·이희계, 2009: 217-218; Kim and Lee, 2008: 20)

⑧ 3인 이상 공동저술 인용의 경우: (김철학 외, 2010: 12; Smith et al., 2005: 50)

⑨ 동일 저자의 동일 연도 저술 인용의 경우: (이윤리, 2007a: 18; 2007b: 27)

3) 각주는 설명하거나 보충하는 내용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단순한 자료의 출처나 참고문헌은 각주에 표기하지 않고 본문에 넣는다.

4) 그림과 표 제시: 모든 그림(사진)과 표의 제목과 설명은 영문으로 한다.

(1) 그림(사진) 제시 방법

① 그림을 일련번호를 붙이되, Figure 1, Figure 2, Figure 3…로 일련번호를 붙이고, 번호를 Figure 1.1, Figure 1.2 등으로 세분하지 않도록 한다. 그림 제목은 하단 중간에 제시한다. 그림은 원본 그대로를 인쇄할 수 있도록 저자가 완벽하게 만들어 제출하며, 본문을 참조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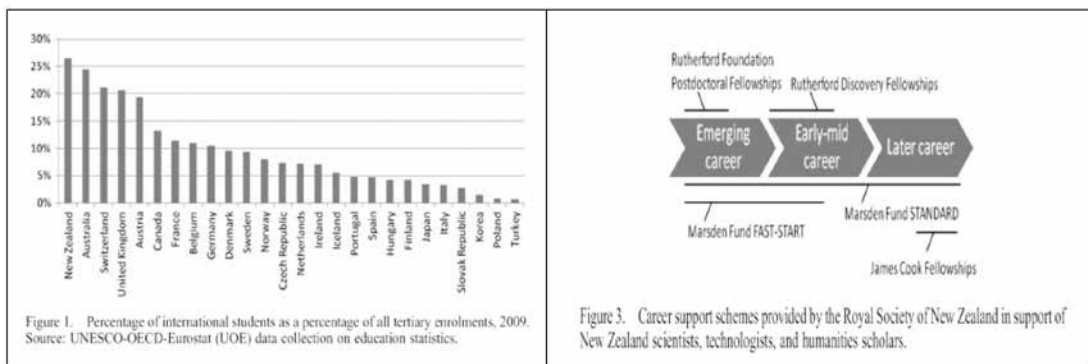
않아도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간결, 명확하게 표기한다.

(예) Figure 1. Percentage of international students as a percentage of all tertiary enrolments, 2009. Source: UNESCO-OECD-Eurostat (UOE) data collection on education statistics.

(예) Figure 3. Career support schemes provided by the Royal Society of New Zealand in support of New Zealand scientists, technologists, and humanities scholars.

② 제시한 그림의 출처가 있는 경우 그림 아래에 그 출처를 아래 그림과 같이 표시한다.

③ 그림(사진)을 본문에 인용할 때는 Figure 1, Figure 2, Figure 3...로 표시한다.



(2) 표 제시방법

① 표의 제목과 설명은 영문으로 한다. 표의 번호는 Table 1, Table 2 등의 일련번호를 붙이고, 번호를 Table 1.1, Table 1.2 등으로 세분하지 않도록 한다. 표 제목은 상단 왼쪽에 제시한다. 표는 원본 그대로를 인쇄할 수 있도록 저자가 완벽하게 만들어 제출하며, 본문을 참조하지 않아도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간결, 명확하게 표기한다.

(예)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in the two studies and in the two groups of Study 2, and statistical comparisons

(예)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t tests bivariate correlations, and effect sizes for Study 1

② 표를 본문에 인용할 때는 Table 1 으로 표시한다.

③ Table의 크기가 한 면보다 클 경우 각각 별도의 쪽에 작성하며, 가급적 인쇄 후 한 쪽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Table이 다른 쪽이나 다른 Table로 이어지는 경우는 끝에 “continued”를 표기한다.

- ④ Table 밑에 각주(footnote)를 달 때는 Table 내용 중 설명하려는 단어 또는 문장 끝에 아라비아 숫자 1), 2), 3)으로 나타낸다. *, **, *** 표시는 통계분석의 유의확률이 $p < 0.05$ 나 $p < 0.01$, $p < 0.001$ 을 나타낼 때만 사용하며, p 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다중범위 검정에서는 a, b, c, d 등을 사용하고 표 하단에 그 내용을 표시한다.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in the two studies and in the two groups of Study 2, and statistical comparisons

	Study 1 N = 152	Study 2		Statistical comparisons	
		Intervention N = 58	Control N = 58	Study 2 Intervention-control	Study 1 – Study 2
Age range of children in months (M-SD)	48–96 (74.32–12.65)	44–94 (68.18–11.72)	40–96 (71.71–13.50)	$t(114) = 1.50, p > .01$	$t(266) = 2.82, p < .01$
Age range of mothers in years (M-SD)	24–51 (35.95–5.55)	24–45 (34.86–4.17)	27–48 (36.92–5.38)	$t(114) = 2.30, p > .01$	$t(266) = .09, p > .01$
Age range of fathers in years (M-SD)	25–57 (38.02–6.26)	27–47 (36.87–4.46)	26–53 (39.21–6.97)	$t(114) = 2.12, p > .01$	$t(266) = -.01, p > .01$
Gender (% boys)	52	32.2	40.4	$\chi^2(1) = .83, p > .01$	$\chi^2(1) = 7.15, p < .01$
Mothers' mean educational level (SD)	2.57 (.72)	2.75 (.68)	2.66 (.69)	$t(114) = -.72, p > .01$	$t(266) = -1.52, p > .01$
Fathers' mean educational level (SD)	2.39 (.85)	2.57 (.73)	2.36 (.82)	$t(114) = -1.46, p > .01$	$t(266) = -.79, p > .01$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t tests bivariate correlations, and effect sizes for Study 1

	Pre-test M (SD)	Post-test M (SD)	$t(151)$	r	d
<i>Mothers' report</i>					
Support	4.22 (.34)	4.26 (.34)	-2.05*	.69	.15
Control	2.34 (.40)	2.28 (.39)	2.91**	.82	.25
Self-efficacy	4.12 (.36)	4.10 (.38)	1.14	.78	
<i>Fathers' report</i>					
Support	3.97 (.45)	3.96 (.43)	-.35	.76	
Control	2.34 (.35)	2.29 (.37)	2.28*	.65	.17
Self-efficacy	3.99 (.41)	4.03 (.39)	-1.94*	.80	.16
<i>Children's report</i>					
Support	3.69 (.49)	3.79 (.57)	-2.58**	.63	.22
Control	2.65 (.60)	2.49 (.62)	4.45***	.74	.36

* $p < .05$; ** $p < .01$

9. 참고문헌의 출처는 반드시 본문의 출처와 일치해야 하며, 참고문헌 작성은 원전, 한국문헌, 중국문헌, 일본문헌, 서양문헌, 인터넷 등 기타문헌 순으로 하며, 가나다/ABC순으로 정렬한다. 책이나 잡지명 영어의 제목은 이탤릭체로, 한글 제목은 진하게 표기한다.

1) 영문 참고문헌의 경우

① 단행본:

Marsden, G. E. (1997). *The Outrageous Idea of Christian Scholarship*.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② 번역서:

Meargham, P. (1984). *Wit: Its Meaning*. Trans. George Playe. Boston: Smith.

③ 정기간행물:

Todd, S. and G. Haydon (2001). Guilt, suffering and responsibility.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35(4), 597-614.

④ 편저:

Bloom, B. S. (Ed.) (1956).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 New York: David McKay.

Oakeshott, M. (1989). A place of learning. in Fuller, T. (Ed.) (1989). *The Voice of Liberal Learning*.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⑤ 2판 이상의 문헌:

Weimer, D. and A. Vining (1992). *Policy Analysis: Concepts and Practice*. (2nd ed.).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⑥ 석·박사 학위논문:

Lee, G. H. (2008).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Attachment, Emotional Intelligence,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Making in University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or Masters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Seoul, Korea.

⑦ 연구보고서:

Lee, H. Y. et al. (2008). *Search for a Future School Mode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⑧ 인터넷 자료 및 신문기사:

"Title", 00Il-Bo (2010.3.3.). Retrieved from <http://...> (2005.11.11.)

⑨ 판례:

[Supreme Court Decision 2013Da101425 Decided April 7, 2017.]

⑩ 같은 연도에 발행한 동일 저자의 문헌을 2개 이상 참고한 경우:

Sohn, B. D. (2012a). *Social Welfare Policy*. Seoul: Hakjisa.

Sohn, B. D. (2012b). The Current Situation of Children's Rights Infringements. *Korean Crime*, 10(1), 231-256.

2) 영문 외 참고문헌은 해당 언어와 영문을 병기한다.

① 단행본:

손봉호 (1994). **고통받는 인간**.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Sohn, B. H. (1994). *Human in Pain*.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② 정기간행물:

유재봉 (2016). 학교 인성교육의 문제점과 방향. **교육철학연구**, 38(3), 99-119.

[Yoo, J. B. (2016). School education for humanity: problems and directions. *The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38(3), 99-119.]

③ 편저:

박준언. (2005). 이중 언어이론과 영어 교육. 황적륜 (편저). **현대 영어 교육의 이해와 전망** (pp. 270-295).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Park, J. U. (2005). Bi-Lingual Language and English Education. In Hwang, J. L., Acock, K. R. & Park, J. U. (Eds.). *Source Book of Family Theory and Research* (pp. 270-295).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④ 석·박사 학위논문:

이광희 (2008). **대학생의 애착, 정서지능,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간의 구조적 관계**. 박

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Lee, G. H. (2008).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Attachment, Emotional Intelligence,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Making in University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or Masters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Seoul, Korea.]

⑤ 연구보고서:

이혜영 외 (2008). **미래학교 모형 탐색연구**. 한국교육개발원.

[Lee, H. Y. et al. (2008). *Search for a Future School Mode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⑥ 인터넷 자료 및 신문기사:

00일보 2010. 3. 3일자 5면. “기사제목.”

<http://www.dfes.gov.uk/achievementsuccess>. (검색일 2005.11.11)

[“Title”, 00Il-Bo (2010.3.3.). Retrieved from <http://...> (2005.11.11.)]

⑦ 판례: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101425 판결

[Supreme Court Decision 2013Da101425 Decided April 7, 2017.]

⑧ 같은 연도에 발행한 동일 저자의 문헌을 2개 이상 참고한 경우:

손병덕 (2012a).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학지사.

[Sohn, B. D. (2012a). *Social Welfare Policy*. Seoul: Hakjisa.]

손병덕 (2012b). 아동의 권리침해현황. **한국범죄학**, 6(2), 157-184.

[Sohn, B. D. (2012b). The Current Situation of Children's Rights Infringements. *Korean Crime*, 6(2), 157-184.]

⑨ 번역서:

조흥식·정선옥·김진숙·권지성 역. (2005). **질적연구방법론**, Creswell, J. W.(1994).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서울 : 학지사.

[Cho, H. S., Jung, S. W., Kim, J. S. & Kwon, J. S. (2005).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Seoul: Hakjisa. Trans. Creswell, J. W. (1994).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LA/London/New Dehl/Singapore/ Washington DC: SAGE]

10. 심사료 및 게재료 납부 : 논문 투고자는 투고 시 7만원의 심사료(영문논문 심사료 10만원)를 납부하여야 하며, '게재가능'으로 통보받은 투고자는 게재료 30만원(연구비 지원의 경우는 4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제1저자가 전일제 대학원생이고, 연구비를 지원받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 게재료를 15만원으로 한다.
<계좌번호 : 국민은행 38720101-145158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기학연)>
11. 원고량은 편집 규격에 따른 편집된 매수로 원칙상 20쪽 이내로 하되, 최종 편집된 논문의 페이지를 기준으로 20쪽 이상의 초과한 경우에는 추가 조판비(한쪽당 1만원)를 부담해야 한다.
12. 원고 제출처 : 온라인투고심사시스템 홈페이지 <http://fs.jams.or.kr>
문의전화: 02-3272-4967 (사무실)
기독교학문연구회 편집위원장 이메일: faithscholar@naver.com
주소 : 03922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8길 9 ES타워 9층
13. 학회지는 매년 3월 31일, 9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4차례 발간하며, 투고자는 발간 약 50일 전, 각호 투고 마감일(2월 10일 5월 10일, 8월 10일, 11월 10일)까지 한글이나 MS 워드로 작성하여 직접 온라인투고심사시스템 홈페이지(<http://fs.jams.or.kr>)를 통해 신청접수 한다.
14. 논문의 본문 끝에는 두 줄을 띄워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이라고 표기한다.
15. 논문 투고 시 “논문투고 신청서”와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작성하고 “논문유사도 검사 결과”와 함께 첨부파일 난에 첨부한다.
16. 이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된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독교학문연구회 연구윤리 규정

2007년 7월 1일 제정

2016년 4월 1일 개정

2017년 7월 1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항. 이 규정은 기독교학문연구회(이하 학회)의 모든 회원이 학술과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마땅히 기독교인으로서 그리고 학자로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학회와 기독교학자의 윤리의식을 고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항. 이 규정은 학회 회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조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학회 모든 회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항들을 수행한다.

제1항.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제2항. 연구부정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

제3항. 제보자와 피조사자 보호 및 위원회 활동에 대한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제4항. 조사결과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제5항.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제1항. 위원회는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5-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2항. 당연직인 위원장은 연구부회장이, 부위원장은 학술부회장과 편집위원장이 맡는다. 위원은 편집위원과 해당 연구윤리 심사에 적합한 학회 내외 인사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 대표하며, 위원회 구성 및 활동이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과 상의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 제3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편집위원을 포함한 학회 임원들 중에서 지명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 제4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별도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제5항. 조사대상 연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은 위원으로 구성 또는 위촉될 수 없다.

제5조(조사 및 회의)

- 제1항. 조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된다. 단, 위원장은 조사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 제2항. 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에 조사와 관련한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3항.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조사 외, 별도의 회의를 열 수 있고 그 의장이 된다.
- 제4항. 조사와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 제1항.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2항.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제3항.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4항.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제3장 연구윤리 위반 조사

제7조(부정행위 제보, 접수, 조사)

- 제1항. 제보자는 학회 사무국에 방문, 전화, 서면, 이메일 등으로 부정행위 의심자와 그 관련 내용과 증거를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해야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한 경우라도 구체적인 부정행위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서면과 이메일로 제보할 수 있다.
- 제2항. 논문과 함께 제출한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논문유사도검사(<https://check.kci.go.kr/>)에서 10% 이상 유사한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포괄적인 유사도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제3항. 학회 사무국에 부정행위 제보가 들어오거나 포괄적인 유사도검증 결과 부정행위가 의심 될 경우, 사무국은 편집위원장과 연구윤리위원장에게 그 관련 사항을 <부정행위 제보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고하고,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들에게 부정행위와 관련한 내용과 증거 자료를 원본 또는 사본으로 제출한다.

제4항. 해당 부정행위 조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여부는 사무국의 보고가 있는 지 15 일 이내 편집위원장이 주관하는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편집위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반에 따라 결정한다. 편집위원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편집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장에게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며, 연구윤리위원장은 회장에게 보고한 후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에 착수한다. 편집위원 과반 미만이 찬성하면 제보는 반려되고 반려 이유를 서면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보자에게 전달한다.

제5항. 고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특징인 및 연구 집단을 연구부정행위 대상으로 제보한 경우, 학회는 제보자에게 회원자격 박탈, 정지, 제한 또는 명예훼손죄를 비롯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8조(용어)

제1항. “연구부정행위”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행한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7조 2항부터 8항까지를 말한다.

제2항.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연구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항. “변조”란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항. “표절”이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한 것을 말한다. 또한 자신이 이미 게재한 연구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자기표절). 그리고 자신이 이전에 게재한 연구를 다른 학술지에 다시 게재한 경우를 말한다(이중게재).

제5항. “부당한 저자 표시”란 논문에 학술적 참여 또는 공헌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논문에 학술적 참여 또는 공헌을 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저자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제6항. “저자 표시 누락”이란 논문에 논문저자 자격이 있음에도 누락시킨 행위를 말한다.

제7항. “이중 투고”란 동일한 연구를 우리 학회를 포함한 두 개 이상의 학회지에 투고하여 두 학회지 이상에서 게재 판정을 받고 우리 학회지에 게재를 포기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항. “기타 연구부정행위”란 제8조 제2항부터 제7항 외 연구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9항. 학회 연구부정행위 규정 외에 더욱 세부적인 규정은 교육부 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2015. 11. 3)”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윤리 평가규정 및 사례(2015. 5 월)”를 참조하고 따를 수 있다.

제9조(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제1항.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게 위원회에서 진술하기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해야 한다.

제2항.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 보전을 위하여 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연구 자료를 압수, 보관할 수 있다.

제10조(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와 비밀엄수)

제1항. 위원회는 제보자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밝히거나 노출해서는 안 된다.

제2항.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 공표하기 전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제3항. 위원회가 진행하는 조사의 일체 사항은 비밀이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모든 자 들은 조사와 관련한 어떠한 정보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1조(기피, 제척)

제1항. 제보자 및 피조사자는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에게 검증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그 이유를 밝히고 해당 위원에 대한 검증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회 인원의 과반수 이상이 기피신청을 인정할 경우 해당 위원은 검증 과정에서 배제된다.

제2항. 위원장이 조사 과정 중에 위원 중 해당 조사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 위원

의 위원 자격이 정지할 수 있다.

제12조(이의 제기 및 소명기회 보장)

제1항. 위원회는 검증 과정에서 피조사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13조(판정)

제1항. 위원회는 조사 내용과 피조사자의 이의 제기 또는 소명 내용을 종합하여 판정을 내린다.

제2항. 판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4장 후속 조치

제14조(제재)

제1항.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 ① 해당 논문에 대해서 게재를 불허한다.
- ② 기 게재 논문의 경우 게재를 취소하고 관련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와 학술지에 공지한다.
- ③ 학회 회원 및 본 학회와 관련한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 ④ 경중에 따라 회원 자격을 1년에서 5년까지 정지, 영구적 박탈, 민형사상 법적 조치한다.
- ⑤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경미하거나 고의적이지 않은 실수 또는 기타 부적절한 행위는 주의, 경고, 공개사과 조치를 취한다.

제15조(결과 통지)

제1항.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와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6조(재조사)

제1항.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명예회복)

제1항.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면 위원회는 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8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제1항. 검증과 관련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 간 보관해야 한다.

제2항. 판정 결과는 학회 상임이사회에 보고 해야 하며,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결의로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칙]

제19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독교학문연구회

학 회 장	박문식 (한남대학교)	편 집 위 원 장	송태현 (이화여자대학교)
연구부학회장	김대인 (이화여자대학교)	편 집 위 원	김대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술부학회장	김지원 (백석대학교)		김종훈 (성신여자대학교)
감 사	류현모 (서울대학교)		김철수 (조선대학교)
	이명현 (인천대학교)		신응철 (동아대학교)
총 무	오민용 (서울대 법학연구소)		우종학 (서울대학교)
학 회 이 사	강영안 (Calvin College, 미국)		유재봉 (성균관대학교)
	김승욱 (중앙대학교)		임춘택 (제주대학교)
	김홍섭 (인천대학교)		염동한 (부산대학교)
	문석윤 (경희대학교)		현은자 (성균관대학교)
	박신현 (고신대학교)		현창기 (한동대학교)
	박영주 (前 중앙기독교초등학교 교장)		황혜원 (청주대학교)
	서성록 (안동대학교)		Paul Lim (Vanderbilt University, 미국)
	손병덕 (충신대학교)		
	유재봉 (성균관대학교)		
	이경직 (백석대학교)		
	이호선 (국민대학교)		
	양성만 (우석대학교)		
	윤완철 (카이스트대학교)		
	장수영 (포항공과대학교)		
	조무성 (前 고려대학교 교수)		
	조성표 (경북대학교)		
	최태연 (백석대학교)		
연구윤리위원장	김대인 (이화여자대학교)		
부연구윤리위원장	송태현 (이화여자대학교)		
	김지원 (백석대학교)		

신앙과 학문

제25권 제3호 (통권 통권 84호), 2020년 9월호

발행일 2020년 9월 30일

발행처 기독교학문연구회

발행인 박문식 (한남대학교)

편집인 송태현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 이지은

인 쇄 (주) 에스제이피앤비

등 록 141-81-36939

주 소 03922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8길 9, 9층
기독교학문연구회

전 화 02-3272-4967

팩 스 0303-0272-4967

전자우편 gihakyun@daum.net

홈페이지 <http://www.worldview.or.kr>

<http://fs.jams.or.kr>

ISSN 1226-9425

정가 15,000원